

기호

기독교 윤리

성 테오판 은둔자

목차:

서론	4
I. 기독교 생활의 기초	6
1. 성육신된 가정 건설에 있는 기독교 생활의 뿌리.....	6
1)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과 율법적 맹세를 제거하는 것, 즉 우리의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성육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7
a)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 제물은 오직 신인(神人),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만이 드릴 수 있었다.....	7
b) 죄 가운데 보낸 삶의 시간을 의의 행실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인(神人)의 행실뿐이다.....	10
2) 또한 우리의 갱신,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성육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13
2. 첫 번째 기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독교 생활의 두 번째 기초는, 주님께서 머리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자 움직이시는 분이신 교회의 몸과의 살아있는 연합이다.	15
3. 기독교 생활의 규범	18
1) 인간의 도덕적 삶의 원초적 규범	18
a)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18
b) 질문은, 이 목표를 향한 길은 무엇이며, 또는 인간은 그 목표에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21
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라	26
2)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규범	26
a)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27
b) 회개.....	29
c) 믿음	31
d) 은총 (도움 주는).....	33
3)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규범과 그 특성.....	34
II. 도덕적 활동으로서의 기독교 활동의 특징.....	37
4. 행위의 도덕성 조건 – 일반적 조건과 기독교적 조건	37
1) 자의식	37
2) 자유로운 자발적 활동	39

5. 도덕적 행위의 실천	40
1) 행하려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	41
2)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의지의 기울임	43
3) 기독교 행위의 일부로서의 기도	45
4) 선행의 보이지 않음	46
6.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47
1) 도덕적 행위의 대상	48
가) 의무, 즉 계명에 관하여	48
b) 조언에 관하여	53
c) 중립적인 행위에 대하여	55
2) 도덕적 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56
3) 도덕적 행위의 상황에 대하여	58
7. 도덕성의 유형과 선과 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덕적 삶의 단계	61
1) 미덕에 대하여	61
가) 미덕의 세 가지 표현 형태와, 첫째, 기독교적으로 행동하는 영의 마음가짐으로서의 미덕에 대하여	61
b) 다양한 선한 마음가짐으로서의 미덕	66
c) 미덕을 선한 행위로 보는 관점	68
d) 기독교인의 덕스러운 삶의 단계에 대하여	71
2) 죄에 대하여	76
3)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죄	76
a) 행위로서의 죄	76
b) 성향으로서의 죄	87
가) 상태로서의 죄, 혹은 죄악된 마음가짐	90
d) 죄악된 삶의 단계	91
III. 선한 기독교적 삶과 그와 정반대되는 삶의 결과와 열매	95
8.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어떤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95
9. 참된 그리스도인과 죄인인 인간에게서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 그 본질적 속성 및 능력의 상태	98
10. 그리스도인과 죄인 내면의 인지력, 욕망, 감정의 상태	111
1) 인식 능력의 상태	112
a) 최고 인지의 능력, 즉 이성의 상태	112
b) 이성의 상태	119
c) 하등한 인식 능력의 상태	130
d) 관찰 상태	131
e) 기억과 상상력의 상태	133
e) 회상의 상태, 또는 재현적 상상	134
g) 상상력의 상태	134
h) 수면 상태	137
2) 인간의 활동적 힘의 상태	138
가) 양심의 상태	138
b) 의지의 상태	145

c) 하급 욕망의 상태	156
3) 감각의 힘, 즉 마음의 상태	158
가) 접촉점 또는 공감의 자리 잡은 곳으로서의 심장에 대하여	159
b) 인간 존재의 힘의 중심으로서의 심장에 대하여	162
c) 영적 감정의 안식처이자 수용처로서의 심장	162
d) 마음, 즉 영적 감정의 그릇	163
e) 하등한, 감각적·동물적 감정에 대하여	166
4) 육체에 대한 태도	168

IV.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삶의 규칙170

11. 믿음 – 모든 것의 핵심171

1) 믿음의 의무	171
2) 믿음에 대한 의무	175
3) 신앙에 대한 죄	184

12. 경건함 – 믿음의 정신으로 사는 삶187

1)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향한 여정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188
가) 주 구세주와 하나 되는 길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189
b) 구세주 주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정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192
2)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정과 마음가짐	196
a)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상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196
b)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 그분의 창조와 섭리를 묵상함에서 비롯됨	202
가) 감정과 마음가짐 – 만물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함에서 비롯된	207
d) 기도 – 믿음과 경건함 속 삶의 그릇이자 무대	208
아아) 기도의 중요성	209
bb) 선한 결과	209
bb) 조건	209
gg) 기도문을 통한 양육	210
dd) 단계	210
3) 거룩한 교회와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212
가) 구원을 위한 은혜의 수단의 수용처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과 마음가짐	212
b)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거처로서의 교회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220
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양육해야 하는가	239

V.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지켜야 할 계명과 삶의 규칙251

13. 가족 내 의무251

1) 가족 전체의 공동 의무	251
가) 가장	251
b) 모든 가족	252
2)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무	252
3) 부부	252
가) 일반적인 의무	252

b) 남편의 의무.....	253
c) 아내의 의무.....	254
4) 부모와 자녀.....	254
a) 부모의 의무.....	254
b) 자녀의 의무.....	257
5) 친족	258
6)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다른 우연한 인물들	259
7) 주인과 하인.....	260
14. 교회의 의무.....	262
1) 목자들의 의무.....	263
2) 신도들의 의무.....	264
3) 성직자의 의무.....	264
4) 수도자들의 의무.....	264
15. 시민적·사회적 의무	266

서론

1)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세우는 일이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사람 없이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으므로, 기독교 신앙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일을,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가르친다.

후자는 기독교 윤리 교육의 주제를 이룬다. 구원을 추구하는 자는 믿음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며, 믿음이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탄탄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저술, 교회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와 가르침을 읽고 듣는 것을 통해, 그리고 기독교인들 간의 상호 교제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독교 생활의 전반적인 개요를 제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기독교 생활의 다양한 규칙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가능한 한 완전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생활 규칙들은 더 쉽게 습득되고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삶에서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한데 모아보면, 어떤 이들은 기독교의 요구 사항에서 스스로를 면제하고, 어떤 이들은 그 요구에 왜곡된 의미를 부여하며, 또 어떤 이들은 외부 상황의 조건으로 제한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전반적으로 마땅한 기독교적 삶과 기독교인의 마땅한 도덕적 행위에 대한 개념에 큰 혼란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기독교 윤리의 규칙들이 부분적으로만 알려지기 때문이며, 개별적으로 보면 어떤 규칙은 매우 엄격해 보일 수 있고, 또 다른 규칙은 다양한 해석과 적용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릇됨을 바로잡는 가장 쉬운 방

법은 기독교 윤리 교육 전체를 온전히 제시하는 것이다. 성 바실리우스 대교황도 당시 도덕적 삶에 대한 개념에서 이와 유사한 혼란을 지적한 바 있는데, “각자가 제멋대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삶의 진정한 규칙으로 내세웠고, 뿌리 깊은 관습과 인간의 전승으로 인해 어떤 죄는 용서받았으나 다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분별 없이 처벌받았으며; 겉보기에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가벼운 질책조차 가하지 않았다”고 했다. 따라서 이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과 드리지 않는 모든 것, 그리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금지와 명령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신의 뜻이나 인간의 전승에 따라 행동하는 습관을 더 쉽게 버리도록 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여겼다. (성부들의 저작, 제9권).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의 모범에 대한 본 글도 제시된다.

3)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특징지어지므로, 기독교 윤리 교육 또한 교리로 특징지어져야 한다. 삶에서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위가 서로 얽혀 있고 상호 보완하듯이, 교리에서도 신앙 교리와 윤리 교육은 서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교리학은 도덕적 목표를 로 삼지 않을 때 항상 불필요한 여담과 지나친 세밀함에 빠져들었고, 도덕학은 교리학에 의해 조망되지 않을 때 부적절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며, 무엇보다도 그럴 때 그것은 철학적 도덕학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었다.

이 마지막 언급은, 관념론적이며 자연적 원리에 기초한 도덕 교리가 기독교 도덕 교리에서 전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 기독교는 우리의 본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마땅한 질서 속에 놓아줍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은 기독교가 그 본성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점이 됩니다. 도덕 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에 따라 사람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은, 사람이 기독교 도덕 교리의 목적인 진정한 본연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면 왜 그에게 이것저것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우리의 논지는 이 점을 곳곳에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4) 기독교 윤리의 근원에 대해서는 굳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것들은 교리의 근원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교회 교부들의 일치된 가르침 외에도, 특히 수도자 교부들의 금욕적 저작들과 성인들의 행적, 그리고 기독교적 미덕을 찬양하는 교회 찬송가들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하다.

기독교 윤리 교육을 위한 가장 적합한 교재는 기독교 심리학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기에 우리는 영적 현상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념과 수도자 성부들의 지침에 만족해야만 했다.

5) 본 저작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에는 도덕적 및 기독교적 삶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원칙이 담겨 있으며,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때로 다양한 상황과 처지에 놓인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규칙을 제시한다.

I. 기독교 생활의 기초

이 원칙들은 다음을 제시한다:

- A) 기독교 생활의 기초;
- B) 도덕적 활동으로서의 기독교 활동의 특징을 규정하며;
- B) 선한 기독교인의 삶과 그와 정반대되는 삶의 결과와 열매를 묘사한다.

기독교인의 삶

- a) 성육신된 가정 세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 b) 교회와의 살아있는 연합 안에서 유지되고, 드러나며, 열매를 맺는다;
- c)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요소에서 비롯된 예정된 규범에 따라 흘러간다.

1. 성육신된 가정 건설에 있는 기독교 생활의 뿌리

이 가정 세움 없이는 기독교, 기독교인의 삶, 그리고 구원은 상상할 수 없다. 이는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며, 정해진 때에,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한 분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육신하시고,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으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으로부터 기독교적 삶과 구원이 전해졌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마련되고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육신된 구원의 사업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타락한 자의 회복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마태복음 18:11).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바로 이를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14).

구원을 주는 신성한 제도인 기독교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육신에 놓여 있듯이, 기독교 생활의 기초는 이 성육신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데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요 3:36), 그리고 “믿는 자는 ... 구원을 받으리라”(막 16:16). 성육신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엡 2:8). 그러나 이 진리()를 추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기도록 이끄는 동기는,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성적인 확신에서 비롯된다. 바로 이 확신을 바탕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기독교 생활의 지침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서술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이 신비의 이해로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여전히 “경건의 비밀”로 남을 것이다(딤후 3:16).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한 확신에 이르는 것은 이 신비를 이해함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구원의 조건이 성육신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충족시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통찰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원조 부모의 타락으로 인해 넘어져 빠져나올 수 없는 파멸에 빠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파멸은 두 가지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써 그분을 진노하게 하고, 그분의 호의를 상실하며, 율법의 저주에 처하게 된 것이다. 둘째는, 죄로 인해 본성이 손상되고 혼란에 빠지거나, 참된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고, 우리에게서 율법상의 맹세를 풀어 주며,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둘째,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소생시키거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야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자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비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누릴 수 없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필수적입니다: 맹세의 해제와 우리 본성의 갱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용서와 자비를 얻었다라도 갱신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 그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갱신 없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된 마음가짐 속에 머물며 끊임없이 죄를 쏟아낼 것이기 때문이며, 죄를 통해 다시 정죄와 불자비를 받게 되거나 모두 똑같은 파멸적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필수적이지만, 어느 쪽도 하나님의 성육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1)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과 율법적 맹세를 제거하는 것, 즉 우리의 의롭다 함은 하나님의 성육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죄의 책망과 맹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로 인해 모욕받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만족, 즉 완전한 의롭다 함이 필요하다. 그러나 완전한 의롭다 함,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완전한 충족은 단순히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의의 행실로 풍성해져, 죄 가운데 지내다가 용서받은 후에도 여전히 공허하게 남아 있는 삶의 시간을 그 행실로 채우는 데에도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의의 법이 사람의 삶이 단지 죄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의의 행실로 충만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달란트에 관한 비유에서 이를 보여주셨듯이, 땅에 달란트를 묻어버린 종은 그 달란트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

a)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 제물은 오직 신인(神人), 즉 성육신하신 하나님만이 드릴 수 있었다

a) 죄를 위한 충분한 속죄 제물은 오직 신인(神人), 즉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만이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의 진리와 자신의 죄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의 심정을 경청할 것인가, 아니면 이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것인가, – 어느 쪽을 보더라도, 하나님

으로부터 죄인에게 내려오는 자비의 길을 가로막고, 죄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로 올라가는 자비에 대한 소망을 가로막는 일종의 장벽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불의하게, 즉 그분의 의가 모욕당하고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는 불의한 자가 그 불의에 대해 선고된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는 사랑은 방종하는 관용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죄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감각이 대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각보다 더 강하다.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감각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절망으로 짓누른다. 따라서 죄인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과 죄인을 가까워지게 하려면 그러한 장벽을 허물어야 하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어떤 중재자가 일어나야 한다. 그 중재자는 하나님의 정의의 눈앞에서 사람의 죄를 가리고, 죄인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려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매개체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진리 그 자체 앞에서 죄인을 무죄하고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 보시며, 사람은 이미 화해하셨고 죄인을 용서할 준비가 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만족시키고 죄인의 영혼을 평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속죄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 희생은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토록 헤아릴 수 없는 속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이 희생은 죽음, 그것도 인간의 죽음이다. 그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죄에 대한 형벌로 정해졌으며, 회개하는 죄인이 “내 생명을 가져가시되, 오직 자비를 베풀어 구원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음을 즉시 깨닫는다.

그렇다면 이 죽음은 누구의 것일까요?

1) 분명히, 그러한 속죄 제물은 나의 죽음도, 다른 이의 죽음도, 제삼자의 죽음도,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류 중 누구의 죽음도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나 다른 이나 제삼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일 뿐이며, 속죄하는 어떤 것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모두 이 제물이 필요하며, 아직 살아 있는 채로 이를 통해 자비와 의롭다 함을 구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아직 살아 있는 채로 이 제물을 통해 의롭다 함을 받고 자비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인간들의 공동체에서 분리된 사람만이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오직 그가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니라, 그를 자신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위격적으로 그와 연합하거나, 육신을 입고 그의 죽음을 맞이한 다른 더 높은 존재에게 속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며, 인간 공동체 속의 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죽음일 것입니다.

2) 만약 화해와 의롭다 함을 주는 희생 제물로 내 죽음이나 다른 사람, 제3자, 또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죽음도 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의롭다 함을 받는 조건으로 여전히 인간의 죽음이 남아 있다면, 나나 다른 사람, 제3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타인의 죽음을 자신에게 흡수하는 것 외에는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경우, 그 죽음이 빌려오는 대상인, 인간적으로 죽어가는 그 다른 사람 안에서, 그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이거나 어떤 식

으로든 죄와 관련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 그 죽음이 인간의 죽음인 이상, 어떤 인간에게도 속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인간에게 속한 모든 죽음은 형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장 완전한 거룩함을 지닌 다른 존재에게 속해야 한다. 즉, 속죄하고 정당화하는 인간의 죽음은 오직 가장 거룩한 존재가 인간을 자신의 인격 속에 받아들여 그로써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인간의 죽음을 유죄의 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여 다른 이가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때에만 가능하다.

3) 또한, 인간의 용서와 의롭다 함이 오직 타인의 무죄한 죽음을 흡수함으로써만 가능하다면 – 용서와 의롭다 함이 필요한 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살았던, 그리고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시대와 장소의 온 인류라면, 그들의 용서와 의롭다 함을 위해서는 사람 수만큼, 혹은 심지어 타락의 횡수만큼의 무죄한 죽음을 마련하거나, 모든 시대와 장소를 아우르고 모든 사람의 모든 타락을 덮을 수 있는 힘을 지닌 단 하나의 죽음을 드러내야만 한다. 우리의 구원을 마련하시는 자비로우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후자만이 가능하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자체로는 미미한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그토록 포괄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오직 그것이 어디에서나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 곧 하나님께 속할 때,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당신의 인격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으로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에 포괄적이고 영원한 의미를 부여하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야말로 그 죽음이 신성한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으로, 이 죽음은 그 힘으로 온 인류와 모든 시대에 미치므로, 그 대가로서 죄로 인해 모욕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에 상응해야 하며, 하나님이 무한하신 것처럼 무한한 의미를 가져야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에 의해 흡수되거나 하나님의 죽음이 됨으로써만 얻을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죽음으로 죽으실 때 비로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명제들은 무턱대고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 구원의 성육신적 성취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져, 이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모든 이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우리에게서 죄의 책임을 벗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들을 종합해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육신이 하나님의 자비 의 과잉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따른 자유로운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원 계획에 힘입어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십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시라.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느니라”(딤후 2:5-6). 그분으로 말미암아 “중간 장벽”이 허물어졌고(엡 2:14),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세워졌습니다(롬 5:1, 5:10-11).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속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분이 “의로우시며 의롭다 하시는 분”(무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롬 3:23-26)임을 알게 하시고, 이처럼 의롭게 그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되, 사람들의 죄

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며”(고후 5:19)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본성상 진노의 자녀”로서, 희망이 없던 자들(엡 2:3, 2:12)이, 영혼의 쇠약함과 약함(절망으로 인한 영적 타락)에서 벗어나 (히 12:12-13)에서 벗어나, 소망과 “구원의 확신”(갈 5:5; 벧전 1:3; 히 7:19)에 이르러, 담대함과 확실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 휘장 안쪽 가장 깊은 곳”(엡 2:18; 히 6:19)를 얻었으며,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이 휘장, 곧 그분의 육신을 뚫고 우리에게 다시 열어 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로 성소에 들어갈” 자유를 얻었습니다(히 10:19-20).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심으로, 이미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기 때문”(갈 3:13)이며, “우리를 대적하던 채무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가운데에서 없애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골 2:14)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그분은:

1)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셨으며”(히 2:16),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갖기 위함”(히 8:3)이며, “모든 점에서 형제들과 같으시어... 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죄를 속죄하시기 위함”(히 2:16-17);

2)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셨으며”(베드로전서 3:18),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아내셨으며”(히브리서 12:2), “죄를 알지 못하셨으나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이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악에 물들지 않고, 죄인들과 분리되어 하늘보다 높이 올리우신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히브리서 7:26);

3) “자신을 여러 번 드리지 않으셨다” — 그렇지 않았다면 그분께서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 것이지만 — “한 번만 나타나셔서 죄를 없애기 위한 제물을 드리셨다”(히브리서 9:25, 9:26) 그리고 이 “한 번의 몸 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다”(히브리서 10:10); “단 한 번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히브리서 9:12); “영원히 계시는 그분은 흠 없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으므로,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다”(히브리서 7:24, 7:25; 요일 2:1, 2:2);

4) 우리는 바로 그러한 “대가로 사신자들”입니다(고전 6:20) — “은이나 금으로...가 아니라, 흠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벧전 1:18, 1:19),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히 12:24)이며,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어린 황소의 재”(히 9:13, 9:14)보다 더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이는 그 피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타나셨기”(히 9:24)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신”(갈 3:13) 그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서 저주를 제거하셨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의(롬 3:25)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엡 1:7)을 드러내셨습니다.

b) 죄 가운데 보낸 삶의 시간을 의의 행실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인(神人)의 행실뿐이다

b) 죄 가운데 보낸 삶의 시간을 의의 행실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인(神人)의 행실뿐이다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게서 죄의 유죄성을 벗겨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의 삶에서 의와 선행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 죄 가운데 살면서(여기서는 회심 전의 끊임없는 죄 짓기와 회심 후에도 터져 나오는 죄들을 의미한다), 그는 의와 선한 일을 소홀히 하고 시간을 마땅히 써야 할 곳에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할 불의와 악의 긍정적인 행위로 그

시간을 채우게 된다. 자비와 용서를 통해 그에게서 죄의 책망이 벗겨지고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제거 될 때, 비로소 그의 삶에서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만이 지워지며, 마치 그러한 불의와 부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그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죄의 짐에서 해방된, 죄 가운데서 보낸 삶의 시간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반드시 채워져야 했던 의와 선한 행실을 아직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의 온 생애가 의와 선한 행실로 채워지기를 요구하므로, 용서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온전히 의롭지는 못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의 삶에 남아 있는 공허함을 의롭고 선한 행실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선한 행위를 늘리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그가 이 분야에서 무엇을 하든, 그 순간에 반드시 해야 할 일만을 하게 될 뿐이며, 따라서 과거의 소홀함을 메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의 부족을 메우는 것 역시 앞서 설명한 속죄 제물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행위나 다른 사람의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함으로써만 그에게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에게 그런 인물이 되어, 그 사람의 풍요로움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결핍을 메울 수 있는 행위를 빌려올 수 있을까?

그는 인간의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 삶에서 그러한 행위의 결핍을 메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 있어 그러한 행위는 그에게 의무적이어서는 안 되며, 그의 고유한 행위이거나 그에게 속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가 그러한 행위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그것을 흡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오직 어떤 존재가 인간의 본성을 받아들여 자신의 인격과 결합하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해야 할 의무가 없으면서도 그 힘으로 인간의 행위를 창조함으로써, 이를 자신 안에 자유로운 풍요로 간직하여 다른 이들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될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다른 본성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는 필수가 아닌 그 힘으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피조물 중 그 누구도 그럴 수 없다.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소명과 그 소명에 따른 일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재와 삶의 모든 순간은 그 일들로 채워져야 한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다른 이를 대신하여, 혹은 다른 이를 위해 일을 할 시간이 없다. 이는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할 때만 가능하지만, 그것은 마치 다른 이를 구원하려다 스스로 파멸하는 것과 다름없다. 피조물 외에는 오직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의와 선의 결핍을 메우기 위해 의와 선의 행위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고 그 힘으로 인간의 의와 선의 행위를 행하시기로 기꺼이 허락하실 때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오직 그러한 행위들만이 의무에서 자유로워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풍요로움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러한 행위는 각 사람의 삶은 물론, 현재와 과거, 미래의 모든 사람의 삶에 필수적이므로, 그 풍요로움은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며, 그 힘은 모든 시대를 아우르고 온 인류에 미쳐야 한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힘은, 그 행위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그 본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결코 온 인류를 아우를 만한 힘과 범위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의와 선의 행위가, 그토록 헤아릴 수 없고 영원한 의미를 지

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본질상 영원하고 무한한 분,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이는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위격적으로 결합될 때, 즉 하나님의 성육신 때에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묘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을 온전한 충만함으로 나타내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다(골 1:19). 물론 이 충만함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선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우리의 불의와 악을 덮어주시는 진리와 선의 충만함도 포함됩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으셨다”(요일 3:3, 3:5), 그리고 그분은 그런 것을 전혀 행하지 않으셨습니다(벧전 2:3, 2:5).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곧 모든 의만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짊어지시며, 그분은 아버지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려가노라”(히 10:9) – 그리고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우리는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마태복음 3:15)라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며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고, 오직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만을 원한다고 증언하시며 이를 실천하셨습니다(요 5:30, 6:38), – 심지어 이 사역을 자신만의 유일한 양식과 음료로 삼으셨을 정도였으며(요 4:34),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빌 2:8). 그분이 무언가를 행하지 않으신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항상 오직 진리만을 행하셨으니, 그분이 쌓아 올리신 진리와 선행의 풍요로움은 얼마나 클까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였을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였다. 본성상 무한한 진리이신 그분께서는 이 일에 아무런 필요도 없으셨기 때문이다. 이는 그분의 진리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풍성한 유산이 되었습니다(엡 1:18). 이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받았으며”(요 1:16) “의의 열매로 충만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빌 1:11). 바로 이 진리의 충만함으로 성 바울은 모든 이가 충만해지기를 기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가 이미 주님 안에서 이 충만함을 가지고 있음을(골 2:10) 확신하며, 이 “의의 선물”을 받아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될 것”(롬 5:17) 즉,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주님께 대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고 증언합니다(고린도전서 1:30). 여기서 구원은 죄의 용서를, 의는 우리의 불의를 그분의 의로 덮어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우리의 거룩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는 “불법만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죄가 덮인” 자들을 복된 자라고 부릅니다(롬 4:7).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풍성함으로 말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정죄가 임한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의가 임하게 되었다”(롬 5:18)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결론지으면, 마땅한 제물을 드림으로써 인류 전체의 죄를 씻어내고 그 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인(神人)의 죽음과 그분의 의의 풍성함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육신 없이는 인류의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2) 또한 우리의 갱신, 즉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의 성육신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단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의롭다 함을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롭다 함을 받은 후, 그가 죄에 맞서 싸울 힘을 얻고 시작한 선한 길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를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며, 그 안에 정죄받을 만한 삶의 근원을 없애야 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 본성이 남아 있는 한, 그는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저주와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끝이 없다. 이처럼, 우리의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의롭다 함 자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 그 악한 본성을 강력하게 몰아내야 한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 참된 생명을 잃고, 인간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짓된 삶이라 불러야 할 어떤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삶은 인류의 시조에서 시작되어 이후 그 모든 구성원에게 퍼져 나갔기에, 우리 인류 전체는 거짓되거나 참되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육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뿌리부터 손상된 인류의 이 몸을 새롭게 하려면, 마치 완전히 썩어버린 사람의 몸을 완전히 건강한 유기체의 혈액을 수혈하여 회복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진정한 인간 삶의 근원을 그 안에 주입해야 한다; 인류를 나무에 비유한다면, 건강한 생명이 충만한 다른 나무에서 접목하여, 그 생명력의 작용으로 내면이 다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해야 하며; 인류의 새로운 수장,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일어나야 하며, 사람들이 그로부터 태어나거나, 그로부터 빌려온 참된 생명의 원리를 통해 거듭남으로써, 그와 연합하여 참된 인간적 생명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류의 몸을 이루어내야 한다.

과연 누가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진정으로 갱신된 인류의 이러한 지도자, 이 새로운 참된 인간들의 시조는,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인간적인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분명히 인간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빌려야 할 사람들은 오직 인간적인 삶으로만 살 수 있으며, 따라서 오직 그 삶을 위해, 그리고 그 삶을 통해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삶은 순수하고, 건전하며, 훼손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바로 인간 존재로부터 비롯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은 비범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은 인류 전반에 퍼진 타락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원에서 이미 변형되고 갱신되어 우리 본성의 구성 요소이자 그 모든 힘과 기능 속에 자리 잡은 후, 그 후로도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한 시작과 그러한 변함없는 지속성 및 확고함은, 오직 그녀가 평범한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 주도성에서 완전히 분리되거나 배제되어,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지 않고, 창조적 힘과 신성한 불변성을 지닌 다른 존재, 즉 하나님에 의해 지탱되고 다스려질 때만 가능하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의 원리와 원소들을 창조적으로 변형하고 갱신하셔서, 그것들로 스스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 안에 거하시며, 신인(神人)으로서 살아가시고 행하실 때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우리 구원에 그토록 필수적인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을 나타내는 성육신된 가정 세우기가 있다.

게다가, 이 새로운 생명은 그 수장으로 새로운 인류를 낳으면서도 고갈되지 않고 항상 충만함을 유지하여, 단지 새로운 구성원들을 낳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이를 다시 태어나게 한 뒤, 그들의 일시적이고 영원한 삶 속에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충만함을 지녀야 한다. 그것은 피조물로서 본질상 그렇게 될 수 없으므로, 피조물이 아닌 다른 분, 즉 모든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속성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육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육신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당신의 인격 안에 받아들이시고, 그 를 입으심으로써, 그에게 영원히 살아계시고 고갈되지 않는 충만함을 전달하십니다. 마침내, 이 새로운 조상은 모든 이를 새로운 생명으로 낳으면서, 모든 이를 서로 간에, 그리고 그분과 하나됨 속에 머물게 하여, 모든 이가 하나의 삶을 살고 하나의 머리 아래에서 조화롭게 결합된 하나의 살아있는 몸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류의 본래 목적은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의 삶을 사는 것이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 모두를 갈라놓았기에, 온 인류는 생명의 결합과 조화가 없는 무더기와 같아졌다. 새로운 인류는 새로운 조상이자 머리이신 분을 통해, 자신 안에서 이 상실된 일치를 회복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조상 안에 있는 인간 본성은, 인간적 본성을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속해서는 안 되며,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품으시며 영원하신 다른 분께 속해야 한다. 이는 모든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결합하고, 그들을 지키며, 이 끝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요구에 복종하게 하여 마지막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즉, 이 조상은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 단순히 인간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지닌 하나님, 즉 신인(神人)이어야 하며,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본질이 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시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요 1:1), “*아버지의 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요 1:18)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면서도, 우리를 “*속량*”하고 “*아들의 신분*”으로 *삼으시기* 위해(갈 4:5), 정해진 때에 영원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시어 우리의 육신, 즉 우리의 인간 본성을 기꺼이 취하셨습니다(요 1:14).

자신 안에서 인간의 본성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분은 참된 인간적 삶을 사는 새로운 사람들의 “*시작*”(요 8:25)이 되셨으며, “*이 생명의 주*”이자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행 3:15). “*그분 안에 우리의 참된 생명이 있다*”(요 1:4), 이 생명의 충만함은 마치 샘물처럼 우리 모두가 그로부터 그 생명을 길어내도록 예정되어 있다(요 1:16); 그리고 그분은 그 생명으로 “*살리기를 원하시는 자들*”(요 5:21)을 살리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새로운 아담, 새로운 조상이 되셨으며, 정해진 길을 따라 그분께 나아와 그분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모든 이들은 그분의 후손이 되었습니다(고전 15:45-48). 그분은 머리이시고, 그들은 그분의 몸입니다(고린도전서 12:27). 그들은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며(골로새서 2:19), “*그분의 삶과 뼈에서 나온 자들*”입니다(에베소서 5:30). 그분은 나무이시고, 그들은 가지들입니다(요한복음 15:5).

이를 위해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린 후, 거룩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를 통해 주님을 섬기겠다는 믿음과 결단으로 인해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며, 그 후 그 안에 있던 옛 사람은 죽고 “*하나님을 닮아 의와 진리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롬 6:3-

6; 엡 4:24). 이는 여기서 믿는 자들이 “우리의 생명”이시며(골 3:4)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 (고린도후서 5:15), 즉 우리가 더 이상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하시기 위함이며(갈라디아서 2:20), 그분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골로새서 3:3).

이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17)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요 3:3, 3:5)로 다시 태어난 자이며,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로부터 태어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요 1:12-13)라 불리며 “*아들의 신분을 얻게*” (갈 4:5)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인류,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새 창조된 백성으로서, 그들을 어둠에서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분의 미덕을 선포해야 할 자들*”(베드로전서 2:9)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분들(요한일서 3:14)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생활의 첫 번째 기초입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신 우리 구원의 기초에 대한 믿음이며, 그 힘으로 인해 이 일에 있어 사소한 흔들림이나 생각의 양면성을 허용하지 않는 깊은 확신이며, 굳건한 소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사실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이분 외에는 없으며, 하늘 아래 인간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도 없으니,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행 4:11-12). 남은 길은 구주이신 주님께 굳게 의지하거나, 아니면 멸망하는 것뿐이다. 누구든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무엇을 하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흠여 버리는 것*” 이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1:23). 아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구원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5:4-6). 이것이 구원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 돌*”은 구원의 성전을 영으로 세우는 기초가 되어, 그 안에 주님 구세주를 모시게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18).

2. 첫 번째 기초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독교 생활의 두 번째 기초는, 주님께서 머리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시자 움직이시는 분이신 교회의 몸과의 살아있는 연합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구세주이신 분은 땅에서 우리를 향한 신성한 섭리를 다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성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 주셨으며; 그 후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도 사도들을 통해 땅 위에 주님의 수장 아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의 구원과 그에 걸맞은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교회를 통해 구원을 구하는 자들은 그분으로부터 죄 사함과 함께 속죄를, 그리고 새로운 삶과 함께 성화를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함에 필요한 모든 신성한 능력... “고귀하고 위대한 약속들”이 주어졌으며,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온갖 미덕으로 자신을 단장하려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 풍성히 주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3-11). 거룩한 교회는 바로 새로운 조상이신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로운 인류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성육신하신 그분의 가정 건설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실제로 세우신 것은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성도 사도들을 통해 이루신 일이며, 교리를 확립하고 계명, 성사, 성례, 규범과 마땅한 지침으로 확립하고 보호하셨으며, 이 모든 것을 통해 신자들에게 마련하신 천국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보여 주셨고,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의 모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성도 사도들을 통해 주신 것이며, 교회가 담고 있는 모든 것은 교회에 들어와 그 일원이 되는 모든 이들이, 앞서 언급된 교회의 조직에 관한 모든 항목이나 측면에 따라 받아들이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교회와 살아있는 연합을 맺고 있는 모든 이들에 의해 지켜지고 이행되며, 그 결과 그들은 하나이니, 곧 “한 몸과 한 영”(엡 4:4)이며, 신앙 고백이나 “*건강한 말씀의 본*”(딤후 1:13)의 내용, 계명에 따른 삶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성사를 통한 성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규범과 정해진 지도에 대한 순종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은 “*자신의 소명에 합당하게 행하며... 평화의 유대 안에서 성령의 일치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다(엡 4:1-6). 그러나 이것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내면적으로 교회에서 스스로를 분리하며,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 어머니처럼 다정하게 건네는 교회의 권면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외적으로도 교회에서 파문당하여 이방인의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마태복음 18:17).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곧 교회의 참된 자녀들은 평화의 유대 안에서 성령의 일치를 지키며, 그로 인해 교회와 살아있는 유대를 맺고 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이들은 교회와 하나가 되겠다고 서약하며, 실제로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나는 이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며, 그 후 교회의 영과 모든 질서 안에서 양육받고 성장합니다. 이 모든 이들은 교회의 살아있는 지체들이며, 교회의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약속된 모든 영적 은총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나 교회의 이러한 질서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비록 교회 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교회와 살아 있는 연합을 맺고 있지 않으므로,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이거나 생명이 멈춘 자들이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들을 묶아매고 있는 그물에서 벗어나, 자신들이 깨뜨린 교회 및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의 유대를 서둘러 회복하고, 다시 구원받는 자들의 대열에 합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것은 방치되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그것이 바로 성육신된 가정 건설의 실현, 즉 실제적인 나타남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낯선 자는 그리스도 주님과 그분 안의 구원에도 낯선 자입니다.

그렇다면, 결심한 자가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직 교회에 속하지 않았다면 교회에 속해야 하며, 이미 속했다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살려야 하고, 그 후에는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지키며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지되고, 성장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는 기독교 생활의 시급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주님과 교회, 그리고 교회와 주님 사이의 가장 긴밀한 연합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연합은 머리와 몸의 연합이라는 비유로 묘사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라”(엡 5:23), “교회의 몸의 머리”(골 1:18)라고 말하며, 교회는 “그의 몸,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엡 1:22-23)라고 말씀하시는데, 성 요한 크리소스톰에 따르면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분께서 교회의 모든 지체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요, 모든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골 3:11)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머리이시며 교회의 몸의 구주이시니”(엡 5:23); “그녀를 양육하시고 따뜻하게 하시니, 마치... 그분의 살과 뼈에서 나온 것”(엡 5:29-30)이라 하여,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사, 말씀으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나 결점이나 그와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내시려 하셨다”(엡 5:25-27); “교회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니라”(엡 5:24).

몸은 본질상 하나의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으나, 모두 “한 몸의 지체들이니,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고전 12:12, 12:14)와 같으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몸도 그러하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선지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전파자로, 어떤 이들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엡 4:11-12). 이들은 가장 중요한 지체(지도자)들이지만, 다른 모든 이들도 교회 전체를 섬기도록 임명되었으니, 마치 동물의 몸에도 일을 하지 않는 가장 작은 부분 하나도 없듯이, 누구도 게으르게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각자에게는 자신의 은사가 주어지니, “이 사람에게에는... 한 사람에게에는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분별의 말씀이...;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믿음의...,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병고치는 은사가...;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능력의 역사,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예언;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영적인 분별력,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방언의 은사, 또 다른 사람에게에는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고린도전서 12:7-10). 그러므로 각 사람은 받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다스리는 건축자”로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누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섬기되, 모든 일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라”(베드로전서 4:10-11); “누구든지 예언하는 자는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기는 자는 섬김에 힘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에 힘쓰고,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고, 나누는 자는 순수함으로 나누고, 지도하는 자는 열심으로 지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자는 기쁜 마음으로 베풀라” 등등 (롬 12:6-8).

이러한 모든 지체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온 몸의 구조는 조화를 이루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자라나는데,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처로 세워지고” 있다(엡 2:22). 이를 위해 모든 이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됩니다.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행하며, 모든 것을 머리로 이신 분, 곧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서로를 연결하는 온갖 유대 관계로 구성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가 제 몫을 다할 때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워 나가기 위해 성장한다”(엡 4:15, 4:16).

바로 이 “**몸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 모두가 한 성령으로 충만해졌느니라**” (고린도전서 12:13), 즉 세례를 통해 그 안에 들어가 영적으로 연합하여, 한마음, 한 뜻, 한 감정, 한 행동을 다짐함으로써 –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라**” (고린도전서 12:15-25).

이로부터 미루어 볼 때, 교회는 각 그리스도인을 잉태하고, 형성하고,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어머니의 품과 같다. 마치 자연의 품 안에서 다양한 피조물들이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자연 밖에는 생명도 살아있는 존재도 없듯이, 교회 밖에는 영적인 생명도 영적으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교회와 살아있는 결합과 연합을 이루는 것은 영으로 살고 기독교적인 삶에서 번영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3. 기독교 생활의 규범

여기서 ‘규범’이란 인간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어디로,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규범의 예정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얼굴에 신성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이 닥쳐와 이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지만,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를 회복하기 위한 성육신이라는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 힘으로 용서받고 새롭게 된 사람은 비록 자신의 영적·도덕적 삶을 위한 새로운 규범을 받았지만, 그 규범은 타락으로 인해 훼손된 원래의 규범 위에 세워진 것이며, 이를 회복하고 보완하여 가장 완전한 형태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아아) 인간의 도덕적 삶에 대한 본래의 규범을 서술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bb)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에 대한 규범을 확립해야 한다.

1) 인간의 도덕적 삶의 원초적 규범

도덕적 삶의 규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 인간의 목적과, b)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단을 규명하고, 이 두 가지로부터 c) 도덕적 삶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

a)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a) 인간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과의 교제나 살아있는 연합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본성상 어떤 면에서 신성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다. 신성한 본성을 지닌 존재로서,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근원이자 원형일 뿐만 아니라 지고의 선으로서도 교제하기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소유될 때에만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

을 알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많은 것을 누렸으나, 결국 이 모든 것을 헛된 것과 영의 파멸로 인정해야만 했습니다(전도서 1:8, 1:17-18, 3:10-11, 8:17).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서 주께 구한 것도,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사라지리이다. 나의 마음의 하나님이 시요, 나의 몫이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시 72:25-26).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바실리우스 대교부는 가르친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멀어짐은 장차 닥칠 지옥의 고통보다도 견딜 수 없는 악이며, 눈에게 빛을 잃는 것과 동물에게 생명을 빼앗기는 것만큼이나 인간에게 가장 무거운 악이다.” 또한: “영혼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고 사랑을 통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서 떨어져 나간 영혼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성부들의 저작집. 바실리우스 대성자, 제4권).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됩니다: “주님을 찾으라, ... 그분의 얼굴을 찾으라”(시편 104:4). 선지자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을 자신의 소망의 극치로 삼았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그분의 자비와 전능하심을 나타내신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보신 후에야 “내가 주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친히 내게 나타나사 내가 주를 분명히 뵈게 하소서”(출 33:13)라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 다윗은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버리지 마소서”(시 50:13)라고 주님께 얼마나 경외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짖었는지, “주에게서 멀어지는 자들은 멸망하리라”(시 72:27)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언제나 얼마나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께로 향했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노라...” (시 62:2);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시 41:2).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오직 그분 안에서 안식을 얻었는지: “나에게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이니라”(시 72:28).

그러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한 가지 열망에만 우리의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소되지 않는 갈증,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 충족되지 않는 욕구는 슬픔이자 병이며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는 그분을 얻고자 하고, 그분을 소유하며 그분께 소유되기를 원하며, 진심으로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을 우리 안에 품고자 합니다(성 마카리오스 대성인). 바로 이 생생하고 내적이며 직접적인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 속에 그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내 영이 이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이라”(창 6:3)라고 말씀하시며,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 가운데 다니리라”(고후 6:16)고 약속하십니다. “주의하라,”라고 성 금구(Zlatoust)는 이 구절에 대해 말합니다. “누가 네 안에 거하고 있는지! 너는 네 안에 하나님을 품고 있다.” 구세주께서는 “그에게로 가서 그 안에 거처를 삼으리라”(요한복음 14:23)고 말씀하시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내주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 요한 신학자는 누구든지 사랑 안에 거하면, 그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요한복음 15:10). 성부 성부들은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를 인간의 신성화로 승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성 그레고리 신학자는 인간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통해 신성화에 이르는 살아있는 존재”로 묘사합니다. 에데스의 주교 테오도르는 인간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복락, 즉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는 말하자면 왕 같은 삼위일체를 뵈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한 영향을 받고 마치 신성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며, 이 영향 속에서 모든 결함과 불완전함이 채워지고 완성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적인 힘의 양식이 있으며, 즉 그 신성한 영향을 통해 결핍을 보완하는 데 있다.” 성 마카리오스의 거의 모든 담화에서 영혼과 하느님 사이의 생생한 교제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6번째 담화에서 그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그분의 신부이자 동역자가 되도록, 그리고 그분께서 그 영혼과 하나가 되어 녹아들고 하나의 영이 되도록 창조하셨다”고 가르친다 (§ 6). 그러므로 “영혼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께서도 자비와 사랑에 이끌려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붙어 계시며, 그리하여 영혼과 주님은 하나의 영이 되고, 하나의 융합이 되며, 하나의 이성이 된다” (§ 8). “사람에게는,” 그가 다른 곳에서 말하듯이,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시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이 영혼의 자율성과 자유를 억압하며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비록 영혼이 이때 신성한 영향 아래에서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과 접촉하며 그분의 힘으로 충만해지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다. 마치 달궈진 쇠나 숯이 불에 휩싸여도 쇠와 숯으로서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과 같다. 영혼은 오직 이러한 교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자유롭게, 그러나 주저함 없이—행동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신속한 힘을 얻게 된다. 반면,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을 때, 인간이 예를 들어 모든 수고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그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틀린 것이다. 아니요, 그것은 인간의 항상적이고 끊임없는 상태여야 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거나 그 교제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인간은 자신이 자신의 목적과 소명 밖에서 서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이 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시며,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자각하는 상태, 즉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시라*”(요 20:28), 사도 도마처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로다*”(사 44:5)라고 말하는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가 인간의 유일하고 참된 상태이며, 그 안에 참된 도덕적·영적 삶의 근원이 존재한다는 유일하고 결정적인 표징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인간 그 자체로 삼는 자들은, 아무리 화려한 명칭으로 그것을 치장하더라도—예를 들어 영적 힘의 발전이나 완성을 향한 열망이라 할지라도—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질 때,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데 분열되고, 심지어 하나님 자신조차 예외로 두지 않고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성한 섭리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수단입니다. “*주께서 만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느니라*”(잠언 16:4).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행 17:28),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며,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다*”(롬 11:36).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웃, 즉 사람들의 복리만을 두는 것은 부당하며, 심지어 인간의 모든 관심이 사회의 복지에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의 복리에 기여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간의 의무이지만, 그것이 첫 번째 의무도 아니고 유일한 의무도 아니다. 만약 이를 첫 번째 의무로 삼는다면, 모든 사람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에게 돌리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두 합쳐서 겉으로는 하나로 뭉쳐 있지만 영혼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들의 공동체

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머리가 없는 몸과 같을 것이다. 반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모든 사람은 이 단일한 목표에 모여, 단지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하나가 되며, 모두 한 마음과 한 힘으로 충만해져 하나이고 생동감 넘치며 조화로운 몸을 이룹니다. 오직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사람들 사이에 참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표입니다!

b) 질문은, 이 목표를 향한 길은 무엇이며, 또는 인간은 그 목표에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b) 이 목표를 향한 길은 무엇이며, 인간은 그 목표에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가?

이성을 갖지 못한 피조물들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채, 본성이나 그 구조에 따라 자신의 소명을 달성한다. 이성을 가진 자유로운 피조물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목적을 자각하고, 그로 이끄는 길을 깨달아야 하며, 목적을 달성하고 자신의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로 자유롭게 결단해야 한다. 이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바는, 1) 도덕적 자유의 의미와 그 진정한 사용법이 제시되고, 2) 그녀가 선택해야 할 길이 정의되며, 그리고 3) 그렇게 해야 할 근거가 명시된다면, 이 모든 개념의 총합을 통해 인간이 온 존재를 다해 추구해야 할 자신의 목적에 어떻게 적응되어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기 위해,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1) 인간을 자신과의 생생한 교제 속에 받아들여 주신 주님께서는, 이 교제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그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즉 목적을 염두에 두거나 자신의 판단에 따라 내적·외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나중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가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원하는 대로 다룰 수 있도록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를 자기 뜻대로 행하게 하셨느니라”(시라 15:14).

자유는 인간의 인격에 속하며, 그의 특징적인 속성을 이룬다. 자신의 생각, 욕망, 감정 및 이에 상응하는 행동은 인간 스스로가 주관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스스로를 위한 통치자이다. 의식에 가장 가까운 힘들은 그의 내면의 의회를 이루며,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모든 일과 계획을 결정한다. 요구는 외부와 내부 등 다양한 방향에서 인간에게 닥치지만, 그 요구 자체가 주는 영향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이에 대한 의식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결코 실현되지 않는다. 바로 이 결정, 즉 일에 대한 동의에 자유의 본질이 담겨 있다. 어떤 힘도 강제로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한 마디만으로도 모든 권력과 모든 폭력을 무력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인간은 이와 같이 묘사됩니다. 여기에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인 명령들이 그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집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사와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설명한 뒤, “너는 생명을 택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라”고 설득합니다(신명기 30:19).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는 같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섬길지”(수 24:15). 시라크 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네게 불과 물을 제시하였으니, 네가 원하는 쪽에 네 손을 뻗으라. 사람 앞에는 생과 사가 있으니, 그가 원하기만 하면 그에게 주어지리라” (시라 15:16–17). 그리고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시고,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 등 (마태복음 16:24);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마태복음 19:21). 강제로 영혼의 집으로 들어오시지 않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듣는 자가 있으면” (요한계시록 3:20)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강제로 이끌지 않으십니다”라고 성 금구(Zlatoust)는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혼은 자기 자신의 여왕이자 행동에 있어 자유로운 존재로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즉 의지에 반하여 영혼을 덕스럽고 거룩하게 만들하고자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자유 의지가 없는 곳에는 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자유 속에서 인간에게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주어졌으나, 이는 그가 제멋대로 행동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함이다.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복종시키는 것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되며, 유일하게 복된 자유의 사용이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근원이다. 인간은 자신의 사적인 처사에 있어 오직 그 뜻만을 단호히 따를 의무가 있다. 오직 이 조건 하에서만 인간의 자유는 넓이와 폭을 얻게 되는데, 이는 인간 자신 안에도, 밖에도 자유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신의 뜻이라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으며, 그 뜻만이 유일하게 완전히 자유로운 채로 남아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위한 합당한 무대는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다. 그 뜻에 복종할 때, 인간의 자유는 마치 무제한이 되거나, 혹은 무한한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된다.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내가 넓은 곳에서 걸었나이다”라고 선지자 다윗이 말하였다(시 118:45). “보라, 영혼 안에서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신비들이 이루어지는지,”라고 성 마카리오스 대성자(대화 46)는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확장되고 퍼져 나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피조물의 길이, 너비, 깊이, 높이를 모두 아우르는가.” 반면,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행사할 경우, 한편으로는 고통을 겪는 것이 사람의 유익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그 자체가 억압적인 속박에 빠지게 된다. 사람의 온전한 존재와 능력은 물론, 그를 둘러싼 만물의 질서 전체가 신성한 뜻의 법칙에 의해 각인되어 있다. 만약 사람이 그러한 힘을 지니고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원리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 모두와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즉, 스스로를 혼란에 빠뜨리고 외부로부터 재앙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람은 피할 수 없이 곤경에 처하고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유의 행사 자체도 제한될 것이다.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사람은 필연적으로 어떤 속박에 빠지게 되고, 자신이 이를 수 있는 완전함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다. “사람이 자유롭다면,” 성 티혼이 묻는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도 되는가?” 그리고 대답한다. “아니오. 자유란 제멋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라기보다는 참으로 무거운 노예 상태에 가깝습니다. 하느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은 고문자인 악마와 죄의 무거운 멍에 아래 놓이게 되며, 정욕의 가장 비참한 포로가 되어 합법적인 맹세의 속박을 받게 됩니다.” (성 티혼, 제11권). 이처럼, 인간은 자유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노로 뒤덮인 어둠의 영역에 빠지게 되며, 그곳에서 사탄과 죄, 그리고 자신과 타인 안에서 맹위를 떨치는 정욕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2) 이처럼, 우리가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해야 할 길, 즉 하나님의 뜻의 길이 저절로 드러난다. 우리를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분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하라는 이 고귀한 소명을 주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러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으며,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생각하겠으며, ... 누가 그분의 뜻을 알겠는가*”(잠언 9:13-18),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시지 않는다면 누가 알겠는가.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외적 행동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지시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즉 도덕법입니다. “*여호와와 의는 흠이 없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와 의는 확실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며, 여호와와 의는 바르고, 마음을 기쁘게 하며, 여호와와 의는 밝아 눈을 밝히나니...*”(시 18:8-11).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안에 변함없이 머무르고, 그분의 계명을 기꺼이 따르며, 그분의 의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유일하고 확실한 길이다. 사도는 “*그 계명을 행하는 자만이 그 안에서 살리라*”고 가르친다(갈 3:12).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거든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한 경건한 사람에게 말씀하셨으며(마태복음 19:17),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가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거처를 삼으리라*”(요한복음 14:21, 14:23).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길, 빛, 등불, ...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것*”이라고 부르시며(시 118:32, 118:35, 118:105; 벰후 1:19), 이를 실천하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물가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아서, 제 때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시 1:3)는 대로 성장합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토록 세심한 배려와, 말하자면 어느 정도의 끈기를 가지고 항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율법 조항들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 율법 조항을 양심에 새기셨는데, 이에 따라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며, 스스로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롬 2:14)라고 합니다. “영혼은 참으로 위대하고, 신비로우며, 경이로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성 마카리오스 대성인은 말씀하십니다(대화 46). “하나님께서서는 영혼을 창조하실 때, 그 본성에 악이 깃들지 않도록 만드셨다. 오히려 그분은 성령의 미덕을 본떠 영혼을 창조하시고, 분별력, 현명함, 사랑 및 그 밖의 미덕과 같은 미덕의 법칙들을 그 안에 심어주셨다.” 이는 성 금구(Zlatoust)가 한 구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참조: 『간결한 교리』 교훈, 11월 6일 참조), 아무도 율법을 모른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 후, 타락의 결과로 그 내적 법칙이 흐려지거나 마치 어떤 베일로 가려진 것처럼 되었을 때, 이 내적 법칙이 흐려지거나 마치 베일처럼 가려지게 되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항하는 또 다른 법이 생겨났을 때, 주님께서서는 이 내적 법을 회복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명확히 하여, 그들에게 경건함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향한 가장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기록된 법을 보내셨습니다. 마침내,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동시에 율법과 관련하여 인간의 삶을 비추며, 마치 거울처럼 거의 항상 불결하고 추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불법을 폭로할 뿐 고쳐주지 못했을 때,

단지 길을 가리킬 뿐 그 길을 걸을 힘을 주지 않았을 때,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다른 길을 열어 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길과 새로운 마음을 주리라...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주며 그들의 생각에 새기리니,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32:39, 31:33).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2).

3) 그러나 법이 이처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자유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하다. 자유로운 존재가 법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사전에 그들 간의 자발적인 결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존재가 자발적으로 법에 자신을 묶어야 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정 종류의 활동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존재는 더 이상 자유롭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이행할 강제적인 근거가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 근거들이 자유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 근거들을 받아들여 그 힘으로 스스로를 법에 복종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 자체에 있을 수도 없는데, 법은 자립성과 독립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 근거들은 자유와 법의 근원, 즉 자유를 부여하시고 법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의 법에 복종시켜야 하는 근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로 그 근거와 동일하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성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그분의 모든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분의 명령 앞에 경배해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민족에게 계명이 주어지거나 심판이 선포될 때면, 항상 “주님께서 이러하다고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누가 그분께 대적하리요?”라고 욥이 말했듯이(욥기 23:13)이다.

이러한 무조건적이면서도 동시에 자발적인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데, 1)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시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운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24명의 장로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님께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자격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대로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계 4:11).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주님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왜일까요? “주의 손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시 118:73). 이어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고, ... 주의 의를 구하였나이다.” 왜일까요? “나는 주의 것이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기나이다” (시 118:94, 118:109) 때문입니다. 2) 다른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그에 따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바로 그분의 계명을 통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가는 대로 처벌받지 않고 행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순종하도록 이끌기 위해 심판으로 추궁하

십니다. “그분은 한 치도 타협하지 않으시며... 단 한 사람도 경솔하게 행동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시라크가 말합니다(시라크 15:20). 그러므로 “원한다면”이라고 말씀하시지만(마태복음 19:17, 16:24)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원하지도 않고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면, 칼이 너희 허리에 찌어질 것이다. 주님의 입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 내 분노는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이십니다. 그들이 복종할 때까지 말입니다(사 1:20, 1:24; 전도서 12:28). 이 두 가지 감각은, 비록 항상 명확하게 인식되지는 않지만, 마음의 모든 면에 새겨져 경건한 두려움, 즉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느낌을 형성하며,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즉 율법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듭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감정이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율법에 복종시키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이 감정이 약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불법을 저지르며, 반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들은 주님께 말하기를 “우리에게서 물러가소서, 우리는 주의 길을 보고 싶지 않나이다. 그분이 우리에게 섬김을 받을 만한 분이시니” (욥기 21:14-15). “주님께서는 보지 않으시며,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아실 수도 없으시니” (시편 93:7). “어둠이 나를 둘러싸고, 성벽들이 나를 가리고 있나니...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리라” (시라 23:25). 성 바실리우스 대교황도 모든 악은 위대하고 참되며 유일한 만물의 왕이시자 하나님이신 분을 등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 복종하기보다는 주님을 거스르며 스스로 통치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경건의 근원은 하나님을 잊는 것(신명기 32:18)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같은 구절, 15)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의존감조차도 법과 자유 사이의, 말하자면 중개적 연결고리에 불과하다. 자유와 법의 결합 그 자체는 다시 법,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근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자유를 굴복시켜 그분께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이다. 하나님께 자유를 제물로 바치는 데에 도덕적이고 경건한 삶의 진정한 본질이 있으며, 다시 말해, 그것은 자신의 내적·외적 행동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만 행하겠다는 결의에 있다. 이러한 결의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삶이 시작되고 유지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때로는 맹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자발적인 헌사의 형태로 묘사합니다. “내가 맹세하고,” 다윗이 말하길, “주의 의의 법도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나이다... 주여, 내 입의 자발적인 헌사를 기뻐하소서” (시 118:106, 118:108);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그분께로 돌아서는 모습으로, 예를 들어 욥의 경우처럼: “만일 네가 돌아서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네 집에서 불의를 멀리한다면... 전능자가 네 도움이 되시리라” (욥 22:23-30; 호세아 6:1); 때로는 주님을 찾는 척하며: “주님을 찾으라. 찾았을 때 그분을 부르라. 그분이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때, 악인은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계획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이사야 55:6-7); 마지막으로, 율법과 하나님 안에서 소멸되는 모습으로: “나의 눈은 주의 구원과 주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도다” (시편 118:81-82).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흔들림 없이 끊임없이 행하기로 스스로 결심하거나 결단할 때, 그

는 자신의 목표에 도달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심하고 율법을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동시에,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며들고, 사람은 하나님께 스며든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24:7). 성 다윗 선지자는 “*주여,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의 몫이니이다*” (시 118:57)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거나, 다시 말해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기에, 성 다윗 선지자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욥기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담대함의 형태로 묘사됩니다. 그는 주님께로 돌아와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는 그분을 자신의 도우미로 삼게 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늘을 기쁘게 바라보게 될 것*” 이라고 말합니다(욥기 22:26); 반면 불경건한 자는 “*어떻게 그분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욥기 27:10)라고 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삶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라

c)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거나,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물라

이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선포되며, 이를 실천하는 것은 모든 선의 근원이 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내 앞에서 온전하라*”(창 17:1)는 조건을 전제로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이 백성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겠 나이다*”라고 한목소리로 외치며 그분께 자신을 바칩니다(출 24:7). 그리고 구세주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라*” (마태복음 7:21)고 하셨습니다.

2)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규범

도덕적 삶의 규범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언약의 본질, 즉 원시적 상태에 있는 인간의 영적 삶을 묘사한다. 순종하는 자녀처럼,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그분과 끊임없는 교제를 유지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은 이미 갖추고 있었는데, 바로 순수하고 제약받지 않는 자유, 법에 대한 인식—명확하고 자명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강한, 그리고 그로 인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는 결단력이었다. 창조 그 자체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본분에 놓여졌듯이, 자비로운 창조주이자 섭리자께서 그에게 주신 그 힘과 수단을 통해 그 본분 안에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했을 때, 그는 자기 내면과 대외 관계 모두에서 전면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단절되었다: 사람은 저주 아래 있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 자유로운

자발적 활동은 죄와 정욕에 얽매어 있다; 법은 흐려졌고; 의존심은 약해졌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려는 결심도 약해져서, 인간 스스로는 그 뜻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를 죄의 속박 속에 가두는 것은 어둠의 왕인 마귀이다.

한편, 타락한 후에도 사람은 여전히 사람으로 남았다. 그의 소명과 목적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이 목적을 향한 길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심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그 길로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서 사람은 스스로 단 하나의 요구 사항도 이행할 수 없다. 모든 면에서 그에게는 신적이며 비범한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과 성령을 통해 땅 위에 은혜로운 왕국을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안에서 인간의 극심한 영적 필요들이 온전히 충족된다.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시고 화해된 자들을 참된 생명의 근원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힘을 잃은 인간의 자유로운 자발적 활동은 신성한 은혜로 회복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부족함은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과 그분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결심은 회개를 통해 되살아납니다. 회개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사 안에서 신성한 은혜가 사람에게 내려오며, 이 은혜는 그를 새롭게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그분을 통해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한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명 다음과 같다: 1)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분 안에서 인간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 드러나며; 2) 구세주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향한 여정과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인간 내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는 인간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다: 가) 회개와 나) 믿음 – 또한 위로부터 오는,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형성하며 완성하는 것, 다) 신성한 은총. 이러한 기독교 생활의 측면들을 설명함으로써 3)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의 규범도 드러날 것이다.

a)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1)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시라*”(딤후 2:5) 하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엡 2:18)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은 세 가지 악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내면이 무너졌으며, 마귀의 권세 아래 떨어졌습니다. 이 세 가지 악은 다시금 그 힘으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 묶어두므로, 이 악들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얽매어 있던 저주를 풀어 주셨으니(갈 3:13),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기 때문*”(고전 5:7)이며, “*우리는 그분의 몸을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었기*”(히 10:10)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고린도후서 5:18-19) 그

리고 그분을 통해 사람들에게 “그분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주셨습니다(히브리서 10:19). 그러므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과 화해할 것을 간청했습니다(고린도후서 5:18-20).

그분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힘이 되셨으며(롬 1:17; 고전 1:24), 그 힘으로 충만해짐으로써 우리는 굳건해지며(딤후 1:12)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빌 4:13). 그분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엡 2:5),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롬 8:2; 요 8:36).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 없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선한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요 15:5).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를 무력화시키셨으며*”(히 2:14), 이 “*세상의 왕*”을 정죄하시고 “*쫓아내셨다*”(요 12:31, 16:11);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을 어둠에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히사 마귀의 꾀계에 대항할 수 있게 하심*”(엡 6:11)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엡 3:8)은 그분 자신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의와 거룩함과 구원*”(고전 1:30), “*생명*”(요 1:4; 골 3:4)이며, 모든 “*하늘의 축복*”(엡 1:3, 1:10)의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함께 앉혀졌으며*”(엡 2:5-6),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롬 8:4-17);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고, 타락한 인류에게 그분 안에서 드러나는 모든 복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분과 살아 있는 교제를 나누며, 마치 지체가 몸과(고전 6:15) 또는 가지가 포도나무와(요 15:5) 같이 밀접하게 연합된 사람들뿐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교제는 유일하고 지극히 높은 복으로 명령되고 묘사된다. 이처럼 주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으라*”(요한복음 15:4)고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우리를 바로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려*” 하십니다(고전 1:9); 사도들은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라 부릅니다(히 3:14); 하나님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소서*”(엡 3:17);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들*”을 안타까워하며, “*그분께서 다시 그들 안에 나타나실 때까지*” 근심합니다(갈 4:19, 5:4); 자신들에 대해 더 이상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사신다*”(갈 2:20)라고 증언하며, 모든 이에게 “*그리스도를 입으라*”(롬 13:14)고 명령함으로써, 이 신성한 가정 건설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세웁니다: “*우리가 그분의 참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요일 5:20).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이 비밀을 구세주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계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있으며, 나는 너희 안에 있다*”(요 14:20). 그러므로 주님은 아버지께서 오직 그분(아들)을 사랑하는 자들만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오셔서 그분과 함께 “*그들 안에 거처를 삼으신다*”고 가르치셨고(요한복음 14:23, 16:27)라고 가르치셨으며, 아버지께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요한복음 17:21)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신비로운 교제는 세례라는 거룩한 성사를 통해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며, 사도가 가르친 대로 “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를 입었느니라”(갈 3:27)는 말씀대로 주님을 입게 되며,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얻어 주신 의롭다 하심과 중생이라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물에 잠기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분의 죽음의 능력을 받아들여 죄 사함을 얻습니다(롬 6:3).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반에서 나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된 삶을 시작하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죄는 그를 지배하지도, 그 안에서 다스리지도 못합니다(롬 6:3-14). 사도는 이러한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며 의롭게 되었느니라”(고린도전서 6:11).

2) 그러나 이와 함께 주어지는 은사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의 마음속에 일어나야 할 가장 내면적인 변화를 나타내며, 바로 이 변화들이 참된 기독교적 삶의 기초와 시작, 그리고 씨앗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란 회개와 믿음으로, 구주께서도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이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고 말씀하시며 요구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즉, 세례에 앞서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세례와 (성유례)를 통해 은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그 후에도 끊임없이 그 안에 머무르며, 그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돕고 영적 삶에서 점점 더 강해져 나가도록 이끅니다.

b) 회개

가) 회개

의식과 경험 속에서 드러나는 비참한 삶의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 약해진 데 있으며, 이 약화는 때로는 극단에 이르러 그 감정을 완전히 상실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최악된 삶의 근원은 자기 사랑이나 자기 만족, 달리 말해 이기심, 자아입니다. 그 ‘자기’가 꺾일 때, 회개를 통해 사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며 하나님과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즉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시 53:5, 85:14)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대개 자신의 무언가에 대한 걱정만 한다: 지식에 대한 것, 예술에 대한 것, 직위에 대한 것, 가족에 대한 것, 혹은 더 나쁘게는 쾌락과 어떤 정욕의 충족에 대한 것; 그는 내세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를 평온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꾸미려고 애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삶이 초래할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항상 자신을 위대한 존재로 여기며 헛된 걱정으로 끊임없이 앞만 보고 달려간다;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단지 예의상 요구되는 대로만 대하며, 따라서 자신에게 흠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상처를 주기도 한다; 때로는 선한 일도 행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영적 속성일 뿐(동방 교부 서한, 제3장)이며, 그의 전반적인 자만심에 물들어 있어 그 진정한 가치를 앗아가 버린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은 누구나 고백하지만, 아직 돌아서지 않은 사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 때때로 자신을 엄격하게 성찰하고 삶을 되돌아보려 애쓰다 해도, 자신의 행실이 하찮고 악하다는 사실을 결코 스스로 확신할 수 없다. 죄를 통해 사람을 지배하는 사탄은, 사람의 자아와 함께 그 안에 거하며, 마치 무기력한 잠처럼 그의 영혼의 모든 힘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눈이 멀고, 감각이 무뎌지며, 무관심해지는 병에 시달립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어둠 속에 신성한 은혜의 빛이 비추기 전까지는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사탄은 그에게 어둠을 덮치고, 자신의 그물에 얽어매는데, 위로부터의 깨우침 없이는 그 누구도 그 그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딤후 2:26). “나에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 오지 않으시면...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올 것이라”(요 6:44, 45).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며”, 마치 “잠자는 자여, 일어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는 듯하십니다(계 3:20; 엡 5:14).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에게 직접, 곧 마음속으로 오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자연과 그 자신 및 타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외부 사건을 통해서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언제나 양심에 닿아 양심을 깨우고, 번개처럼 사람이 위반하고 왜곡해 온 모든 합법적인 관계를 밝혀주며(의식에 명확히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작용은 언제나 강한 영적 불안, 혼란,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경멸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타락한 길에서 그를 멈추게 할 뿐이며, 그 후 사람은 전적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도 있고, 다시 자만심의 어둠에 빠져들 수도 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상태는 “정신을 차리고”(눅 15:17)라는 말로 표현된다.

자신의 내면의 어둠을 깨우치고 비추는 은혜의 작용에 귀를 기울인(저항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계시된 진리를 생생하게 받아들이는 특별한 능력이 열리는데, 마치 어떤 특별한 마음의 청각과 경청과도 같습니다: “눈이 열린다”(행 26:18), “진리를 아는 지혜의 영”이 역사합니다(엡 1:17). 이에 대한 예는 회심한 모든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예: 이집트의 마리아, 유도키아 등). 계시된 진리들은 은혜의 도우심 없이도 배울 수 있지만, 그럴 경우 그것들은 마음속에 쌓이기만 할 뿐 대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의 역사 아래에서는 마음이 바로 그 진리들로 양육되어, 그것들을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완전히 소화하여 자신 안에 간직함으로써, 마치 물을 흡수하는 스펀지처럼 된다. 이와 더불어, 계시는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마음으로 계시된 진리를 받아들일 때 회개하는 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를 경험한다. 하나는 무겁고 절망적인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을 가볍게 하고 위로하는 변화이다. 그러나 회개하는 이의 상태에 따라, 무엇보다 먼저 율법이 온갖 무게로 그에게 짓누르며, 죄인인 그를 괴롭힌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합쳐져 회개의 감정을 이룬다.

이러한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죄에 대한 인식이 일어난다. 율법은 사람에게 그에게 의무적인 모든 행위, 즉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며, 양심은 그 계명에 반하는 온갖 행위들을 제시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없었을 수도 있었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자유에 의한 것이며 종종 그 불법성을 인지한 채로 저지른 것임을 확신하게 한다. 그 결과로 사람은 모든 소홀함과 위반에 대해 내적으로 책망받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전방위적으로 유죄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고, 변명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낀다. 여기서 더 나아가, 죄에 대한 고통스럽고 슬프며 가슴을 찢는 감정들이 여러 방면에서 마음속을 짓누른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과 자신의 악한 제멋대로인 행동에 대한 분노, 왜냐하면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이토록 비천한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는 수치심; 자신의 죄로 전능하시

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닥칠 악에 대한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기대; 마지막으로, 혼란스러운 무력감과 절망감이 패배를 완성한다: 사람은 이 모든 악을 떨쳐내고 싶지만, 그것은 마치 자신과 하나가 되어 버린 듯하다; 심지어 더 나은 상태로 부활하기 위해 죽고 싶지만, 그렇게 할 힘조차 없다. 바로 그때 사람은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절규하기 시작한다. 마치 세례 요한의 책망에 직면한 백성들이 절규했던 것처럼(눅 3:10, 3:12, 3:14)와 성령이 강림하신 후 사도 베드로의 말씀(행 2:37)에 맞닥뜨렸을 때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때 누구든지, 설령 통치자이거나 세상에서 가장 저명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사로잡혀 그분의 권능에 완전히 복종해야 함을 깨닫게 되며, 자신이 “*벌레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시 21:7) 즉, 인간의 모든 자아는 흠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 혹은 그분께 대한 완전하고 피할 수 없는 의존감이 되살아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즉시 그 열매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즉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혹은 이 경우처럼 자신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자극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와 그분의 맹세의 감정이 사람을 짓누르고, 내면에서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한 정욕의 힘과 타락한 의지 앞에서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다는 무력감의 자각이 그를 무력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는 마치 마비된 듯, 심지어 단 한 번의 움직임조차 감히 하지 못하는 채 서 있다. 바로 이때, 적절한 시기에 한쪽에서는 믿음이, 다른 쪽에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혜로운 힘이 그에게 다가온다.

c) 믿음

b) 믿음

엄격한 율법의 책망에 짓눌린 죄인은, 죄인들의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인 복음 외에는 어디에서도 위로를 찾을 수 없다. 율법으로부터 책망받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절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구세주께서 바로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이 선포되는 것이다. “*내가 온 것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하게 하려 함이라*”(누가복음 5:32);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하려 함이라*”(누가복음 19:10). “복음의 위로는 바로 이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라고 성 티혼은 가르치십니다. “가난한 자들, 즉 자신의 영적 빈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아무런 의로움도 찾지 못하며 오직 비참함만을 보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 즉 죄에 대한 슬픔으로 마음이 화살에 맞은 듯 찢린 자들에게...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양육자입니다...*’”(갈 3:24). 우리의 유죄와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율법은 다른 구원의 길을 찾게 하고, 마치 손을 잡아 이끌듯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고통 속에서는 “*우리의 죄를 친히 그 몸으로 나무에 지신*”(베드로전서 2:24)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사,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고린도후서 5:21)... 마음속에 복음의 믿음이 싹트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들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진노와 맹세, 심판, 정죄를 생생하게 실감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이러한 두려움으로 불로 정화되고 준비된 마음속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한다.”

마치 갈증 난 땅이 비를 받아들이고, 무더위에 지친 이가 시원한 이슬로 생기를 되찾듯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영혼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흡수하며, 상한 마음은 믿음의 위로하는 말씀에 기쁨으로 귀를 기울인다.

여기서 모든 것의 선행 조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구조를 아는 것이며, 이는 사도가 에베소인들에게 간구했던 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충만함을 깨닫게 하소서”(엡 1:18)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믿음이 태어나기 위한 필수 조건이거나, 믿음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들은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즉 진리가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보내졌습니다(마 28:19). “사도가 말하기를, ‘전도자의 말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롬 10:14)”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이에게 이 깨달음은 기쁨을 동반하며, 그의 온 존재를 사로잡고, 모든 주의를 집중시키며, 더 듣고, 더 배우고, 더 알고 싶은 갈망을 남깁니다. 아테네 사람들과 아그립바와 페스토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보인 반응은 이것과 약간의 유사성을 보인다(행 17:32, 26:28-32).

그러나 이것이 아직 믿음은 아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인 깨달음 뒤에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혹은 인류의 구원이 실제로 전파되는 대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의 구원의 근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마음속의 확신이 뒤따른다. 이 마음속의 확신이 바로 믿음의 구별되는 특성이다. 많은 이들이 이성으로 구원의 구조를 알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참으로 믿는 자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깊이 헌신하여, 두려움 없이 그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때까지 그 고백을 지키며, 그 고백은 그에게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하다.

믿음의 완전함의 정점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듯이 나 또한 구원하셨고, 모든 사람에게서 저주를 벗기셨듯이 나에게서도 벗기셨으며,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있으시듯이 나에게도 생명이 계신다는 가장 생생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진정으로 믿는 자는,” 성 티혼이 말하듯이, “사도와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갈 2:20).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으나, 사도 바울은 이 위대한 그분의 은혜를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성 다마스쿠스는 노래합니다: ‘주께서 온전한 사람인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찾아오시어, 길을 잃은 나를 찾으셨나이다’(제3성조, 제4송). “이러한 믿음 속에 기독교적 복락의 온전한 본질이 담겨 있다.” 이는 그 믿음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구원을 진정으로 느끼는 감정,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로부터의 해방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자각이 마음속에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성 티혼이 말하듯이, “죄와 맹세,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며, 영적인 기쁨과 주 구세주에 대한 기쁨,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기쁨, 양심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사도가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롬 5:1). 이 믿음의 작용으로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의 복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가능하다면 너희는 눈알까지 빼내어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갈 4:15).

성경에 언급된 모든 구원의 믿음의 행위는 바로 이러한 믿음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열매이자 다른 모든 것의 기초와도 같은 것은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것(성 티혼)은 신자의 영혼을 신부와 신랑처럼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결합시킵니다(호세아 2:20; 고린도후서 11:2).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영혼에게서 맹세와 정죄, 죄의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시고, 그 대신 축복과 순결, 거룩함을 주십니다(고린도전서 1:30). 마치 신부처럼, 그분은 그녀를 의의 깨끗한 자색 옷으로 입히시어, 그분과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눈앞에서 깨끗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마치 왕의 딸처럼 영적인 장신구로 “입히고 장식”하게 하신다(시 44:10). 이 은혜를 묵상하며, 선지자는 이를 누리게 된 영혼을 대신하여 영적인 기쁨으로 외칩니다. “내 영혼이 주 안에서 기뻐하리니, 주께서 나를 구원의 옷으로 입히시고 기쁨의 옷으로 감싸 주셨음이라. 신랑처럼 내게 면류관을 씌우시고 신부처럼 나를 아름다움으로 단장하셨도다”(이사야 61:10).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은사가 본래 세례 성사 안에서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골로소모스가 말하듯이, 몸을 물에 잠그는 동안 우리에게 진리와 양자의 신분이 주어지듯이, 바로 그곳에서 믿음의 궁극적인 체험, 즉 주님 안에서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실제로 느끼는 경험이 각인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세례를 통해 믿음 그 자체가 완성되는 것이다.”

d) 은총(도움 주는)

c) 은혜(도움 주는)

마치 법의 심판에 의해 파멸당한 듯한 사람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설수록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고, 슬픔에 짓눌려 고개를 숙였던 사람이 고개를 들고, 나태해졌던 사람이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된다.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의 가능성과 그 결실이 풍성할 것이라는 확신이 그 안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굳은 결심이 형성되고 굳건해진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확신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세울 수 없다(벧전 1:3).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죽으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님을 위하여 율법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그분의 도우심을 거두지 않으실 것임을 확신시켜 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이 확신을 반석처럼 삼아 모든 것을 버리고 아무런 제한 없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단호한 서약을 하며, 죄에 대한 증오와 함께 전방위적인 순결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되,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기대하는 경외심을 품게 된다... 바로 여기서 의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 사람은 “일어나 가겠습니다”(눅 15:20)라고 말했던 탕자의 상태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단호한 결심은 단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조건일 뿐, 삶 그 자체는 아닙니다. 삶이란 행동하는 힘입니다. 영적인 삶이란 영적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다. 인간은 이러한 힘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그 힘이 다시 주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결심을 다져도 영적으로 살 수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믿는 자의 영혼에 은혜의 힘이 부어지는 것은 참된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 본질적으로 필수적이다. 진정한 기독교적 삶은 은혜로운 삶이다. 사람은 거룩한 결심에 이르게 되지만, 그 결심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의 영과 은혜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합을 통해, 처음

의 열정만으로 나타났던 도덕적 힘이 영에 각인되어 영원히 그와 함께 남게 된다. 바로 이 영의 도덕적 힘의 회복에,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중생의 작용이 담겨 있으며, 그곳에서 사람에게 의롭다 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진리의 경건함으로” (엡 4:24) 행할 힘이 내려진다. 이처럼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세례에서 시작되는데, 세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중생과 갱신의 묵욕”(딤후 3:5), 즉 새로운 탄생(요 3:5)이라 불리며,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된다.

이때부터 사람 안에 거하게 된 은혜는 그 안에 머물며, 그가 “죽기까지 주께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돕는다(계 2:10). 이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나타날 구원을 믿음으로 지켜지고”(베드로전서 1:5). 이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성한 율법을 이행하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거나, 마치 사자처럼 담대하게 걸어가며, 신성한 은혜의 끊임없는 보호 아래 “기쁨과 두려움”을 함께 품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시 2:11) 하며, 자신의 무력함을 깊이 자각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굳건함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게 된다. 이후 믿는 이의 온 삶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흘러간다: 그는 겸손한 순종과 갈망으로 은혜롭고 거룩하게 하는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사를 받아들이며, 이 때 은혜는 그 안에서 다양한 계시와 강화의 작용을 일으킨다. 이로 인해, 지상 생활의 여정이 계속됨에 따라, “주님의 성령”으로(고후 3:18) “힘에서 힘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나이에 이르러”(엡 4:13)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점차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엄밀히 말해, 은혜 없이 행한 행동이나 의식적으로 그 은혜에 돌리지 않는 행동이 단 하나도 없다. 그 행동들은 처음에 은혜가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또한 행함이 이루어진 후에도 은혜가 힘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은혜에 속한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사 원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시느니라”(빌 2:13).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신성한 보호의 질서 안, 즉 도덕적으로 선한 삶 속에 머물고자 하는 뜨거운 소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단호히 맡기는 것뿐이다.

여기서 성세례에 부여되는 모든 것은, 세례 후 죄로 인해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향한 회개의 성사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 안에서 선행하고 머무르는 은혜의 작용 양상과, 그 둘의 차이, 그리고 사람을 유혹하는 자의지와 죄에 대한 후자의 관계는, 복자 디오도코스 포티키 주교에 의해 상세히 묘사되어 있다. 『선행집』 제3권, 특히 76장부터 90장까지. 『기독교 교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 주제가 『마카리오스 대성인의 대화와 말씀』 만큼 완벽하게 밝혀진 곳은 어디에도 없다.

3)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규범과 그 특성

3)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규범과 그 특성

그러므로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함없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스스로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신인(神人)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을 통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셨다. 이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나를 통하여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 14:6).

사람에게 정해진 목표를 향한 길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자만이 그 안에서 살리라”(갈 3:12).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을 때, 타인의 의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 적용되는 의는 우리 삶에서 부족한 율법적 정의를 보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율법이 연약하여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지 못하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롬 8:3-4). 이러한 내면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목표에 이르는 길은 지금도 여전히 율법의 성취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회심 전의 모든 인간의 죄와 회심 후의 모든 타락은 믿음으로 지워지므로, 우리 삶의 전부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를 통해서만 의로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변함없이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를 통해 인간이 자유의 완전함을 상실하고 죄와 마귀의 멍에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 그는 신성한 은혜로 이러한 속박을 끊고 그 은혜를 도움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적들에게 대항하고 이겨냄으로써만 비로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다. 사람은 지금도 스스로 선을 행하지만,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합니다”(고후 10:4). 이처럼 사람은 지금도 자유롭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그 자유는 은혜에 의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굳건해지는 자유입니다.

도덕적 삶의 토대는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며, 그 본질은 자유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을 때, 사람은 회개 중에 그에게 역사하시는 신성한 은혜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 다시 살아나고, 그 결과 믿음을 통해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거나 자신의 자유를 하나님께 희생시키겠다는 결심이 생겨날 때 비로소 영적으로 살기 시작한다. 이는 세례를 통해 증거되고 확증되는데, 그곳에서 사람은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 그리고 그의 모든 섬김을 부인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바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양심의 선한 질문” 또는 서약이라고도 불립니다(벧전 3:21). 따라서 이제 인간의 도덕적 삶의 시작과 본질은, 자신의 타락에 대한 회개의 통회로 인해 의지가 변화된 결과, 세례(혹은 회개)를 통해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을 바탕으로 한 자유의 하나님께 대한 헌납이다.

그 후 도덕적 삶의 일반적인 시작, 즉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능동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인도와 확고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구속주의 무한한 공로에 대한 믿음으로 채워지고 완성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라. 이는 네가 세례(혹은 회개의 성사) 때 교회 앞에서 엄숙히 서약한 바와 같다.

이러한 시작과 참된 기독교적 삶의 본질 자체를 고려할 때, 그 삶에는 다음과 같은 본질적이고 구별되는 속성들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누구나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다(고후 13:5).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된 삶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한다.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안에 깊이 잠겨 있다.

2)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난, 즉 무욕한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과 주위의 모든 것 위에 높이 올라서서, 온갖 세속적인 집착과 땅의 소망에서 멀어진다: “*위엿는 것을 찾으니,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1). 이 세상만을 의지하며 기독교에 입문하는 자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이다(고전 15:19).

3) 자기 희생적인 삶. 육신의 뜻과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르게 하는지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단지 자신의 뜻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모든 뜻을 혐오하며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요구할 때마다, 자기 연민 없이, 심지어 엄격함으로 자신을 대하며, 이는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또한 정욕과 육체와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4) 전투적인. 은혜로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으나, 그 안에 숨어 있는 악의 씨앗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상 생활이 지속되는 동안 “*육신은 영을 거스르고, 영은 육신을 거스른다*”(갈 5:17). 선의 편에 서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차려 입은*”(엡 6:11) 자로서, 죄에 대항하여 이겨낸다.

5) 경계하고 정신을 차린 상태. 외부와 내부, 특히 악령들로부터 오는 영적 적들의 끊임없고 예기치 못한 공격을 맞설 준비가 되어 있고 이를 물리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며, 자기 자신을 살핀다(벧전 5:8; 데살로니가전서 5:6).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내면의 평안과 순결을 노리는 사악한 적들이 몰래 다가오지 못하도록 경계한다.

6) 자기 강압적인 삶. 영적인 힘과 육체적인 힘을 모두 긴장시켜, 때로는 악에 대한 자신의 욕망과 맞서 싸우고, 때로는 선을 행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의지의 두 가지 본질적인 방향이다.

7) 수고스럽지만 지극히 달콤하다. 그리스도인은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 힘쓰지만, 동시에 “*의와 평화와 성령의 기쁨*”을 맛본다(롬 14:17).

8) 꼼꼼한 삶. 경건한 열정의 불꽃으로 기독교인은 “*항상 주님의 일에 넘쳐흐르며*”(고전 15:58), “*뒤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며*” (빌 3:13),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한 나이에 이르도록*”(엡 4:13) 나아갑니다.

9)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그로 인해 열매가 풍성하며, 또한 스스로를 낮추는 삶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도가 말한 대로 자기 안에서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빌 4:13)고 느끼며, 동시에 “*내 안에 무엇이 있어 내가 받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고전 4:7)라고 고백하며, 그렇기에 수많은 선한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구주께로부터만 최종적인 정당화를 구하고 기다립니다.

II. 도덕적 활동으로서의 기독교 활동의 특징

이러한 특징들은 도덕적·기독교적 행위의 필수적인 속성으로, 크고 작은 모든 기독교적 행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이를 비기독교적인 유사한 행위들과 구별 짓는 요소들이다. 이 특성들은 우연히 기독교 행위의 구성 요소로 포함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규정되며, 도덕적·기독교적 정신의 내적 구조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므로, 규칙의 형태를 띠며, 일반적으로 도덕적·기독교적 활동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특징과 속성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 생활의 내적 구조를 규정하는 앞서 서술된 기독교 생활의 기초에 따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침에 비추어 도덕적 활동을 그 자체로서 바라보기만 해도, 그 활동의 기독교적 도덕적 특징들은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인간의 도덕적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1) 행위의 도덕성 조건.
- 2) 도덕적 행위의 수행.
- 3)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규칙.
- 4) 선과 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덕적 삶의 단계에 따른 도덕성의 유형.

이러한 측면에서 기독교적 도덕 행위도 다루어지지만, 모든 행위에는 그 나름의 차이점이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이를 잘 알아야 한다.

4. 행위의 도덕성 조건 – 일반적 조건과 기독교적 조건

이러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자각과 나) 자유로운 자발적 활동.

1) 자의식

도덕적 행위를 할 능력이 있고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 있어야 하며, 즉 자신과 자신의 현재 처지, 그리고 자신의 관계를 자각해야 한다. 제정신이 아니거나, 정신이 혼미하거나,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 이는 정신지체자, 정신이 혼란스러운 사람, 잠에 빠져 있는 사람, 혹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의 행동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단순히 인간이 자신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을 ‘자신’으로서 구별해 내는 일반적인 자연적 의식과 같은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기인식’이라 불리는 본질적으로 도덕적인 의식이어야 하며, 그 안에서 인간은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과, 책임을 지고 보고해야

할 행위에 의무를 지닌 존재로서 자신을 인식한다. 왜 아직 그러한 자의식에 이르지 못한 아이들은 모든 잘못에 대해 변명하며, 자신의 선행으로 의 희망만을, 비록 아직 미약하더라도, 제시하는가? 마찬가지로 반대로, 어른들이 자제력을 잃고 인간답지 않게, 또한 자신의 지위와 처지에 맞지 않게 행동할 때 강한 질책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마지막 특성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한다면, 그에게 특별한,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각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그에게서 특별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중생을 통해 달라졌기 때문이다—새로운 존재가 된 것, 단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므로 자각의 영역에서도 중생해야만 했다. 이 자의식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는, 그가 세레나 회개의 세레탕에 어떤 모습으로 들어갔고, 어떤 모습으로 나왔는지, 혹은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죽어가고 있었으나 이제 구원받았고, 상처투성이였으나 이제 치유받았으며, 버림받았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졌고, 제멋대로 행했으나 이제 서약에 따라 순종으로 자신을 묶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야 하며, 종합적으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스스로를 느끼는 바로 그 한 가지를 이루어 내야 한다. 치유와 자유를 느끼며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각하고, 마치 그분을 대신하여,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수고해야 하며, 마침내 사도와 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갈 2:20)라고 말할 수 있을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적 자의식은 초기 기독교인들 중 많은 이들에게서 그토록 강렬하여, 고문자들의 모든 질문에 그들은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만 대답하곤 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도덕성의 첫 번째 특징이자, 기독교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첫 번째 속성이다. 즉, 종은 자신이 종임을 자각하며 주인에 대해 종으로서 행동하고,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임을 자각하며 아버지 앞에서 아들로 행동하므로, 이러한 자각의 상실은 곧 그들이 본래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시작이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각을 바탕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 자각이 사라지면 그의 행동은 비록 나쁘게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성격을 잃고 일반 도덕적 행위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일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처럼 그러한 자의식에서 기독교인의 모든 활동이 그 성격을 얻는다면, 그 빛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꺼지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밝아지며 그의 영혼 속에서 타오르도록 해야 한다.

바로 그 때문에 티혼 대주교께서는 자신의 모든 신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기록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아기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할 간절한 권면: 다음을 기억하라. 1) 성세례 때 대부모인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네가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 그의 모든 섬김, 그의 모든 교만을 저버렸으며, 이를 세 번의 부인함으로써 행했음을. 2) 사탄을 배척함으로써, 너는 세 번에 걸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므로 너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등록하고 맹세하였으니, 이는 마치 군인들과 다른 이들이 세상의 왕을 섬기기로 등록하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족들에게, 특히 어린 자녀들에게도 가르쳐, 그들이 자신의 서약을 기억하며 어릴 때부터 경건함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2) 자유로운 자발적 활동

사람이 자신을 인격체이자 도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비롯되거나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인격체로서 그에게 귀속되거나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도덕적 행동은 특별한 속성으로 특징지어진다. 첫째, 그것들은 필연적으로 의식된 행동이다. 왜냐하면 자신을 의식하는 인격체로부터 비롯되며 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그가 그것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에게 귀속될 수 있겠는가? 예를 들어, 혈액 순환, 영양 섭취, 신체의 성장, 그리고 손, 발 및 기타 사지의 습관적인 움직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의식적인 행동이 반드시 인간이라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행동이 있는데, 비록 그 자신이 이를 의식하고는 있지만, 전혀 자신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며, 그 자신이 직접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힘과 욕구에서 비롯되는 모든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바로 그러하다. 따라서 의식에는 자발성, 즉 스스로 시작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태도가 더해져야 한다. 어떤 행위를 특정 개인에게 귀속시키려면, 그 행위가 그 사람 스스로에 의해 시작되고 의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이 때 그 개인이 자신을 도덕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도덕성의 성격이 그 행위 자체로도 전이된다. 이러한 성격은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지 않는 행동들에도 전이될 수 있지만, 오직 그가 그 행동들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를 할 때에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 그는 그 행동들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기 때문이다—선택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그 행동들은 그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귀속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분노는 저절로 생겨나지만, 사람이 그 분노에 동의했을 때 비로소 스스로 분노하기 시작한다. 반대로, 누군가가 분노나 다른 정서의 무의식적인 움직임을 느끼면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쓴다면, 비록 그 정서가 그 안에 존재하더라도 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이 동의의 행위 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자기 주도성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뒤편에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일어나는 일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동의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된 타인의 일도 우리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의식적으로 동의한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며, 그것이 바로 도덕적인 것이다. 이로부터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인간이 도덕적 주체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행동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판단과 목적에 따라 행동을 주도해야 하며, 외부 상황의 흐름이나 자신의 내적 정서적 움직임에 이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적 삶을 재조명해 본다면, 얼마나 뒤죽박죽이고 초라한 그림이 펼쳐질 것인가?! 얼마나 많은 일이 무지, 망각, 그리고 부주의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는 선한 도덕성에는 상실된 부분이지만, 심판에는 상실되지 않은 부분이다. 예를 들어 분노와 두려움처럼 의식이 폭력에 노출되거나, 정욕과 죄악적인 습관처럼 자발성이 훼손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굴욕을 당하거나 빼앗기는가? 한편, 자유로운 시도를 유도하는 외적 사건들과 동의를 이끌어내는 내적 움직임들은 항상 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거의 항상 무질서하다. 왜 인간의 도덕적 활동은 빈약하고, 뒤섞여 있으며, 심지어 추악한가? 그 원인은 바로 도덕적 힘의 상실에 있다. 이 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안에서 되살아나거나 회복된다. 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 활동의 무대에 나

서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자각하고, 오직 한 가지 독보적인 목표, 즉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가? 그는 이를 위해 서약했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며, 무엇보다도 그 힘을 받았기 때문이다. 견고한 기초 위에 서서, 그는 자신의 일들을 당당하게 주도하며, 그 모든 것을 제시된 목표로 향하게 하고, 어떠한 이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가 행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묵상, 독서, 경청, 대화를 통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기독교 법의 요구 사항을 스스로 파악합니다.

이 지식에 따라 자신의 삶의 전체 질서—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두—를, 적어도 그 일반적이고 주요한 부분들에서는, 그에 맞게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한 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외적 흐름이나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내적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행실을 다스린다.

이는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한 마음의 소망이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사람이 자기 안에서 주인이 되어 온전한 지배자이자 관리자가 되게 하는 은총의 속성이기도 하다. 사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 자신을 살피라”고 명령할 때(벧전 5:8; 고전 16:13; 딤후 4:16)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는 분명히 자신의 활동을 의식적이고 신중하게 관리하라는 명령이며, 비록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이긴 하지만,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의미합니다. 사도가 “영적인 성전,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세우라고 가르칠 때, 또 무엇을 권면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2:5; 엡 2:22). 이는 자신의 삶을 알려진 계획에 따라 세우고, 질서 정연하게 이끌며, 점진적인 고양과 완성을 향해 나아가되, 그 삶이 하늘의 청사진—즉 신성한 청사진,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자신과 사도들이 묘사한 기독교의 법과 같은—에 따라 이끌리고 있다는 완전한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도덕적 행위의 실천

앞서 기독교인은 자신의 모든 활동을 주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가 각 일을 개별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그다음 기독교적인 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적인 행위는 내적인 작용의 결실이다. 그것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의 도덕적 활동을 그의 힘들의 기계적 관계에 맡기는 곳에서는, 도덕적 행위가 내면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이성과 의지의 다양한 결합, 혹은 욕망의 정도와 추론의 과정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이성과 의지는 몇 가지 과정을 거치며, 그에 따라 활동 방식이 변화한다.

먼저 이 둘은 대상이나 사안에 주목하고; 이때 이성은 그것을 인식하고, 환상적이거나 진정한 완전함의 형태로 의식에 제시하며, 이에 따라 의지는 그것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원하게 된다; 그 후, 이성이 그 대상의 획득이나 행위의 수행이 인간의 능력과 인격 모두에게 가능하다고 선언하면, 의지는 진정으로 그것을 갈망하며 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 한다.

그 후 그들은 대상에서 수단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이성의 역할은 수단을 숙고하고 재검토하며, 좋은 것과 더 나은 것을 비교하고, 더 적합한 것을 지목하는 것이며, 이는 즉시 의지에 의해 선택된다. 이러한 선택은 적극적인 욕망과 결합되어 결단력을 낳는다.

이어서 구상한 바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성(의지)은 의지를 자극하고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관념을 모아내고, 의지는 자신에게 종속된 하위 힘을 움직이게 하여 행동한다.

마침내 일이 이루어지면, 이성(의지)은 이를 통해 그 일에 관한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얻게 되며, 의지는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안도감을 느끼며 그로부터 오는 선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사람은 사물에 대한 첫 생각에서부터 일을 완수한 후 그 사물을 최종적으로 누리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이야기일 뿐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이 형식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며, 그에게 어울리는 일 수행 방식은 정확히 어떤 것일까? 맞습니다. 그에게는 대상, 동기, 수단, 그리고 일을 완수한 후에 있어야 할 결과에 대한 네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주된 마음가짐과 목적에 따라 특별한 의미와 독특한 정신, 그리고 특성을 지닙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의 힘으로 그분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종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제 안에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그의 모든 행위는 마치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일반적인 법칙은 참된 기독교적 행위를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표현된다. 특정 행동의 정당성, 즉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해야 할 내적 의무를 느낀 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그 행동에 기울여야 한다; 그 다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뒤,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 마음(빌 4:13)으로 그 일을 행해야 하며, 다만 언제나 이 행동은 물론 다른 모든 행동의 불완전함과 하찮음을 겸손히 인식하고, 오직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종적인 안식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적 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지침이다: 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나)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그 뜻에 순종시키는 것; 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 라) 그 행위와 자신의 다른 선한 행실들을 과시하지 않는 것.

1) 행하려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함

기독교인은 자신의 모든 일을 그 일의 정당성, 즉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며 행해야 하며, 그리하여 “*빛의 아들이요 ... 낮의 아들이요, 밤과 어둠의 아들이 아니*”(살전 5:5)로서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세례를 통해 맺은 서약의 본질이 그를 이에 의무화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이와 함께 내적·외적 모든 행실도 그분께 바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확신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자신의 삶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 이것이 없이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확신할 수 없으며, 담대히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설 수도 없고 “*기쁘게 하늘을 바라볼*”(욥 22:26) 수도 없는데, 바로 이를 통해 그가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다. 사

도 요한은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요일 3:21). 그러므로 그에게 주어진 직접적인 계명은 “어리석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다(엡 5:17).

그러므로 그의 행위에 있어 항상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네 의식에서 비롯되어 네게 귀속되어야 할 모든 행동에 있어, 서둘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정확히 확정한 후에야 비로소 그 행동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반면, 율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동들은 네가 스스로 이 뜻으로 확고히 정하여, 그로써 네 온 삶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되도록 하라.

이때 누구나 묻고 싶어 할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이러저러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는 양심이다. 이는 양심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정해진 것이며, 그것이 양심의 본질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양심을 성실하게 대하고, 양심과 모순되지 않으며, 자신의 해석으로 양심을 왜곡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정말로 어떤 난처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자기 희생과 사랑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며, 그래야만 마땅합니다.

양심의 도움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식적이고 명확한 법칙에 따라 자신의 삶을 형성하거나 꾸려가는 데 큰 지침이 된다. 왜냐하면, 누군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에게 의무적인 모든 행동을 진정으로 명확히 깨닫고, 참된 기독교적 삶의 정신을 이해한 뒤, 그에 따라 자신의 자리에서, 제때에,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행동을 정립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장을 찍었다면; 이 과정에서 내적·외적 삶에서 발견한 기독교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을 분별력 있게 변화시키고 재구성하였으며, 그러나 자기 자신과 정욕, 특히 이 시대의 타락한 관습에 아부하거나 조금이라도 눈감아 주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행했다면; 그 후 그의 모든 행위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또한, 참된 기독교 정신에 따른 실제 삶은 비록 실수가 없지는 않더라도, 그 실수들은 언제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며, 경험을 통해 실전적인 지혜를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에게, 행동할 때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눅 12:12)대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밝혀 주실 것이다. 오직 악의만이 이 인도자를 쫓아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누구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그에게 정하시리라”고 노래합니다(시 24:12).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있으며, 율법은 그에게 순종하고 조언을 구하도록 명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그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독교인의 평생에 걸친 활동은 자신의 내적·외적 행동에 대한 신중한 주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세심한 경외심을 형성해 줍니다. 대담함은 일반적으로 모든 성부들에 의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선을 위해 끊임없이 경외심 어린 염려를 품을 것을 권고합니다.

(거짓 양심, 즉 ‘scrupulosa’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양심이 아니라 양심의 병을 가리킨다).

이 점에서 모든 사람은 주로 세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언제나 모든 일에서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며, 어떤 규칙에도 얽매이지 않고, 즉 넓은 길을 걷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스스로를 절제하며, 좁은 길을 걷습니다. 셋째 부류는 불가능한 중도를 지키려 하는데, 이들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자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의 행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과 삶의 주된 목표에 대해 마땅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거나, 우연히 정해진 관례와 상황의 흐름에 따라 행동하는 모든 이들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이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경멸, 즉 소홀함을 드러낸다.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어둡고 불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들. 사도가 말하듯이, “*믿음에서 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롬 14:23).

어떤 이들은 의심 속에서 행동한다. 즉, 그들의 의식이 이쪽과 저쪽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그 끊임없는 흔들림 속에서 행동을 실행에 옮긴다. 그런 자들은 “*양심이 약하여 더러워질 수 있다*”(고전 8:7).

마찬가지로,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어떤 열광이나 새롭고 강렬한 생각, 혹은 어떤 감정, 더 나아가 정열에 휩쓸려 성급하게 행동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보통 그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이성을 잃고 분노하거나 질투하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종종 그들의 입장이 실제로 옳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옳음이 우연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그들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정욕, 그리고 자신의 성향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행하는 데서 벗어나려 하고, 온갖 생각으로 합법적인 일조차 합법적이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자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자들은 명백히 양심에 반하여 행동하며, 그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다.

2) 의무를 다하기 위한 의지의 기울임

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일을 행할 때 취해야 할 두 번째 방법이다. 이 점을 상기시키는 이유는, 이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드물지만, 실제로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위의 정당성, 즉 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는 즉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지를 그쪽으로 기울이고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전자는 의지가 항상 순종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며, 후자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참여가 없는 일은 생명이 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알게 된 그분의 모든 뜻을 이행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을 향한 이러한 가볍고 자유로우며 억지스럽지 않은 기꺼움은, 오랜 수고와 수많은 노력으로 비로소 얻어지는 영적 은혜이다. 그러나 보

통 의지 속에는 자신의 성향, 기질, 정욕이 깃들어 있어, 선을 향해 기꺼이 달려가게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주의를 돌리게 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멋대로인 상태에 빠져, 의무감이 아무리 강해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려 하지 않을 때도 있다(롬 7:20). 그러므로 스스로를 선으로 이끌어야 하며, 마치 힘으로 끌어당기고 선으로 향하게 하며, 자신의 영혼을 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분명히 여기서는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부분이 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으며, 이를 통해 의무감이나 행동의 도덕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생겨난다. 마음의 감정이 의지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도덕적 삶에서도 의무감은 의지를 행동으로 이끄는 가장 견고한 버팀목이 된다. 세례나 회개를 통해 신성한 은총의 작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불타는 열정, 혹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행하려는 마음이 새겨진 사람, 즉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은, 의무를 깨닫는 즉시 어떤 장애물도 아랑곳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나선다. 그러므로 만약 한편으로는 이 열정이 결코 식지 않고 식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 도덕적 감정이 항상 그토록 완전하여 행동의 의무성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감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 가장 미세한 흔적조차 그 안에 반영될 만큼 민감하다면, 이 두 가지 힘만으로도 도덕에 관한 모든 교훈과 경건함에 대한 모든 지침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부 수행자들에게서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러나 열정도 실제로는 사람마다 그 강도가 높고 낮음이 다르고, 도덕적 감각도 그 본성상 어떤 사람에게는 생생하고 자극적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둔하고 느리며,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일에 더 익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일에 더 익숙하며, 때로는 정확하고 때로는 부정확하기 때문이다(거짓된 도덕적 감각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큰 불균형과 불의(그래서 “의로운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를 마주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어떤 일에는 부당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다른 일에는 부당하게 냉담해지기도 하므로, 많은 경우 그에게는 마치 강제로 자신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 감정을 마음속에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마음과 의지의 통제는 동기를 부여하거나, 마음을 녹여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드는 힘을 지닌 그런 종류의 생각과 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생각들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자유는 무엇과 조화를 이루는가? 주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이다. 따라서 이 의존감을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생각은 의지의 동기부여 목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생각인지는 그리스도인의 회심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회심은 의존의 감정으로 시작되어 회개를 통해 부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세례의 서약으로 입증되었으므로, 바로 이 진리들과 그와 관련된 다른 진리들이 사그라드는 열정과 선을 향한 의지를 지탱하고, 정화하며, 새롭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

세례 서약을 마음에 새기고, 그 때 네게 주어진 은혜들—의롭다 하심, 중생, 하나님의 자녀 됨,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기억하라. 이 깨끗한 옷을 더럽히지 말라.

구원의 역사를 떠올려 보라: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곳에서 너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한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통해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그 안에 머무르시며 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것과, 네게도 성사 안에서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결함으로 그분을 모욕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가 피조물로서 그리고 중생으로 인해 존귀하게 여겨진 그 고귀함을 기억하고, 동시에 죄의 추악함과 덕의 거룩함도 기억하라. 죄는 네 내면을 타락시키지만, 덕은 네 내면을 거룩하게 한다.

너를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네가 소유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네 창조주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눈앞에 마음속으로 서 보라.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며, 네 가장 은밀한 생각까지 모두 보시며, 끊임없이 수많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만큼, 매 순간 의로우시고 진리를 드러내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다.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하라: 피할 수 없으나 알 수 없이 황홀한 죽음; 모든 말과 행위, 생각에 대한 편파적이지 않은 심판;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지옥과 영원한 고통;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한 천국.

이러한 생각들, 마치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영혼을 머물게 해야 하며, 그러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필요할 때에는, 이 생각들 각각이 그 열정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고 마땅한 힘으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직 이러한 생각들을 감정에까지 이르게 하도록 노력할 뿐, 차가운 개념으로만 간직하지 말라. 이를 위해 그 생각들을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으로 돌려놓고, 모든 인상 깊은 것들을 모아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며, 자신을 이기고 내면에 마땅한 질서와 마땅한 복종을 회복할 때까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 이러한 성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않을 리가 없다. 다만, 각 영혼마다 고유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생각이 하나씩 있는데, 이는 의지의 완고함을 순식간에 극복한다. 그것을 찾아내어, 마치 키처럼 그것을 이용해 네 영혼의 배를 조종하도록 노력하라.

이 경우 특히 눈앞에 놓인 구체적인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주된 법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다른 한편으로는 행동해야 할 불가피성을 서둘러 스스로 파악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곤경에 처한 것처럼 자신을 몰아세우게 되며, 그로 인해 필요에 따라 의욕을 불태우고 힘을 쏟게 된다. 또한 일에서 마음에 기쁨을 주는 측면을 찾아내고, 죄를 짓지 않으면서도 순수하게 그 일에 대한 취향을 기르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처신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해야 한다. 그런데, 외부 정부에서 때로는 설득으로, 종종 의지에 반하여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권력으로 통치하듯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설득 외에도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즐겁든 즐겁지 않든, 그냥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니, 달리 할 수 없다.

3) 기독교 행위의 일부로서의 기도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인의 의무 중 하나인 기도가 있고, 참된 기독교적 행위의 일부로서 기도가 있다. 모든 일에 자만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의지한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므로,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계속하며, 마친다. 그리고 그의 온 삶은 대체로 기도의 삶

이며, 사도가 명령한 대로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라”(살전 5:17; 엡 6:18)는 말씀대로이다.

이와 함께 그는 주님께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분의 지혜의 영으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약 1:5). 이는 선지자 다윗이 주님께 기도했던 것과 같습니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알려 주시고 주의 길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주의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소서”(시 24:4-5). 자신의 약한 힘을 굳건히 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그분의 성령으로 내면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엡 3:16)을 주시기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을 불태우며, 그는 자신을 굳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이 확신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선한 일을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그는 자신과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이 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과 온전한 삶을 그분의 자비로 덮여 주시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처음에 그가 온전히 자신을 주님께 바쳤던 것처럼, 그 후에도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의의 제물”(시 4:6), “그분께 기쁘시게 하는 것”(히 13:16)으로 그분께 드린다.

이처럼 선한 일을 할 때 드리는 기도는 그것이 참으로 기독교적인 일임을 보여 주며, 기도가 없는 일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황금입(성티혼, 제2권)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노력의 정점이자 선행의 최고봉은 기도에 항상 머무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다른 미덕들도 얻게 된다”고 성 마카리우스는 가르친다(간결한 교훈; 2월 6일).

성 마카리오에 따르면, 기도를 선한 행위에 적용하고 마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그 행위에 몰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인은 곧 미덕의 정점에 이르게 되며, 더 이상 아무런 수고 없이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하느님의 계명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간결한 가르침』; 2월 4일, 11월 26일).

4) 선행의 보이지 않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속성이자, 말하자면 기독교 행위의 결론은 그것들을 보지 않는 것, 마치 눈치채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이루고서도 자신이 “*비천한 종*”이라고 말하며(누가복음 17:10), 그 때문에 구원의 최종적인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다. “기독교의 기초는 이러하니, 비록 누군가가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에 머무르거나 그것에 의지하거나,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마카리오스 대성자, 『사랑에 관하여』, 제30장). 그러므로, “” 기독교를 맛보았더라도, 네가 아직 그것에 닿지 못했다고 생각하라. 그리고 이는 피상적으로 그치지 말고, 마치 네 생각 속에 심겨져 영원히 굳건히 자리 잡은 것처럼 되어야 한다(마카리오스 대성자. 『사랑에 관하여』, 제3장).

이러한 태도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생생한 인식, 혹은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시니, 원하시는 것도 행하시는 것도”(빌 2:13)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볼 수 있겠으며,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의롭게 하나님께 돌리므로, 끊임없이 자신을 하찮고 천한 존재로 느낍니다(마카리우스 2세, 『마음의

자유』, 제8장). 반면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영혼은 비록 수많은 미덕을 쌓아도, 주님을 향한 채워질 줄 모르는 갈망 때문에 마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행동한다. 그 영혼은 결코 자신이 무언가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더욱 풍요로워질수록 자신을 더욱 부족하다고 여기며, 하늘의 신랑에 대한 영적인 갈망으로 불타오르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를 먹는 자들은 여전히 배고프고, 나를 마시는 자들은 여전히 목마를 것이다” (시라 24:23) (성 마카로, 『대담』 10, 1장, 4절).

이것의 구원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시작한다는 점인데, 사도 바울도 자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나는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소명의 영광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을 쫓아가며, 만일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으려 애쓰는 것입니다” (빌 3:12-14).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끊임없는 회개입니다. 매 순간 그는 생각이나 마음의 움직임, 혹은 눈에 띄지 않는 다른 것들에 대한 용서와 정화를 구하며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이처럼, 참으로 모든 기독교인의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만약 앞서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영혼이 자기 것으로 삼는다면, 참으로 선한 행위의 형성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선의 허상이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제시된 대로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과적으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게 된다.

지금까지 서술된 모든 내용을 통해 누구나 기독교인의 행위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르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의식, 이성, 의지, 그리고 마음의 특별한 전환이 존재하며, 이것이 기독교인의 행동에 특별한 성격을 새겨주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자신만의 인격적 상태, 활동에 대한 자신만의 태도, 그리고 각 일을 수행하는 자신만의 질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이 점을 유심히 살펴보고, 각자가 이에 따라 스스로를 판단하라.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6.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

행위를 추상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계명에 따른 행위는 선하고, 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는 악하다. 계명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자선을 베풀라”고 하셨으니, 자선야말로 선한 행위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우리가 행한 행위나 다른 누군가가 행한 행위를 그 행위 자체로서 살펴볼 때는, 계명과의 부합 여부 외에도 목적과 상황과 같은 다른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위의 도덕적 가치는 다음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가) 대상, 나) 목적, 다) 상황.

1) 도덕적 행위의 대상

우리의 모든 행동, 즉 내적·외적 행동—생각, 감정, 욕망, 말, 움직임, 행실—은 각각 그 자체의 대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상의 대부분은 변함없는 규칙과 법으로 정립되어 있어, 이를 원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aa) 우리의 의무 범주를 구성한다. 몇몇 대상은 bb) 조언의 형태로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상당수는 그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선택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즉 읍) 중립적인 것이므로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계명이나 의무는 도덕적 왕국의 기초, 구조, 그리고 견고함을 이룬다; 조언은 법보다 높으며(성 카시안), 허용되는 것은 법보다 낮다.

명령받은 일, 즉 필연적으로 이행해야 할 일은, 조언이나 중립적인 행동과는 달리 내적 또는 양심적인 강제성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단언컨대, 내적 강제가 따르거나, 어떤 일에 대해 사람이 스스로를 도덕적 필연성에 놓여 있다고 인식하는 것, 즉 그것이 바로 그의 의무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각은 양심의 작용이기 때문이며, 양심에 대해서는 그것이 구속하는 만큼 단호히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언의 형태로 더 나은 것으로 제시되는 것은 단지 마음을 기쁘게 할 뿐 강요하지는 않는다. 반면 무관심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의 도덕적 감각도 무관심하며, 즉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원하는 대로 행동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즉 영적 규범의 법전인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 이를 구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 거기서 계명이나 법으로 명시된 바는, 우리의 양심이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의무로 삼아야 하며; 거기서 조언으로 제시된 바는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

가) 의무, 즉 계명에 관하여

a) 의무, 즉 계명에 대하여

계명이나 의무에 내재된 도덕적 필연성의 일반적인 근거는,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 데 있다. 외부 세계에서 이 뜻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내적·도덕적 세계에서도 신성한 뜻에 대한 묵묵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양심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양심에 제시되는 즉시, 양심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것을 지지하며, 우리가 그것을 어기지 않도록 촉구한다. 한편, 주님께서는 이러저러한 일을 의무로 정하실 때, 오직 자신의 뜻이나 전능자라는 칭호 하나에만 국한되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그러한 각 일에 대해 그 일 자체의 속성과 관련성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다른, 가장 직접적인 근거들을 덧붙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장 직접적인 근거들은 하나님의 뜻이 그 일에 상응하는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각인되는 매개체들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무를 해석할 때, 물론 이러저러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본성에 더 어울리거나 부합하는 것은 이러한 가장 직접적인 근거들을 찾아내는 것이니, 이는 그 근거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묶어주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의무는 동등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오직 가장 직접적인 근거들을 통해서만 식별될 수 있다.

이러한 가장 직접적인 근거들과, 부분적으로는 다른 관련 요소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때, 우리의 의무, 즉 우리가 내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일들은 서로 다른 뉘앙스를 띠게 된다.

이러한 뉘앙스 중 첫 번째는 그 기원에 따라 구분된다. 이 점에서 양심에 따른 의무가 있는데, 이는 외부적인 지침이 전혀 없더라도 양심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내적 충동들이다. 이를 ‘자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의무도 있는데, 이는 나중에 양심에 부과되어 양심 고유의 의무 목록에 포함된 것들이다. 후자의 의무의 구속력은 양심 자체가 이를 법으로 인식한다는 점에 달려 있으며, 말하자면 그 순간부터 순수한 긍정적 의무의 성격을 잃게 된다. 물론, 그중 일부는 단지 자연적이고 양심적인 의무의 발전된 형태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심에 ‘뿌리내릴’ 필요가 없는 의무들이 그 고유한 힘을 잃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들은 오히려 모든 자연적인 의무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기도 한다. 긍정적인 것들 중 일부는 신성한 것이며, 게다가 직접적인 것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성전승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사도들의 계시이며, 또 신성한 간접적인 것들, 즉 세계 공의회의 결의들이 있다. 나머지는 인간적인 것으로, 그중에서도 교회적 및 시민적인 것이 있다. 후자는 군주의 권위에서 비롯되고, 전자는 교회 계층에서 비롯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무는 권위의 신성한 기원과 우리가 양심에 따라 그 권위에 복종하는 데서 비롯된다. 교회와 교황좌에 충실한 자는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즉 그들이 부과하는 의무의 범위 내에서 행한다.

이 점에서 특별한 범주를 이루는 규칙은 관습, 즉 교회적 관습과 시민적 관습이다. 이 관습들은 우리를 그쪽으로 유쾌하게 이끌며, 안전감과 보호받음, 그리고 오랜 세월 변함없음이라는 느낌으로 인해 우리 영혼을 평온하게 해준다. 관습은 우리에게 신성해야 한다. 우리 삶의 확고함은 관습에 달려 있으며, 관습에서 벗어난 자는 바람에 휩쓸리듯 흔들리게 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관습이 합법적이고 의무적인 규칙의 범주에 무조건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관습은 도덕법과 기독교 정신에 모든 면에서 부합해야 한다. 관습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이 점에 있어서의 오류는 더욱 위험해진다.

조상들에 대한 기억은 묵묵한 복종을 요구한다. 경험에 따르면, 그러한 관습의 위반은 언제나 풍속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서 세상의 타락한 모든 관습이 제외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관습과 계명, 즉 법 사이의 차이를 엄격히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마음과 정신이 타락하는 자는 거의 항상 관습에 대한 경멸에서 시작하고, 그 후 무지 때문에 —비록 의지가 없지는 않더라도—모든 것을 단지 관습으로 여기기 시작하며, 즉 신앙과 도덕성까지도 관습으로 간주하고 이를 경멸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경계를 알아야 한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는 손을 댈 수 있겠지만, 도덕적 삶의 핵심인 마음과 의무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측면은 계명이나 의무의 내적 의미, 특성 또는 내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 점에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는 반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부 의무도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의무는 결혼했고 게다가 자녀가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전자는 인간이자 기독교인으로서의 본질에서 비롯되고, 후자는 세상에서의 그의 상태와 지위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조건부 의무가 중요하지 않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에게 있어, 조건부 의무는 무조건적 의무와 같은 힘을 지니는데, 이는 조건부 의무가 바로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조건부 의무를 후자를 통해야만 이행할 수 있다. 후자가 그에게 있어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고, 전자는 그 아래에 숨겨져 있다. 따라서 비록 그가 전자를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도, 후자를 통해 전자를 이행하게 된다.

이것들과 저것들은 모두 주된 것,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과 종속적인 것, 결과적인 것으로 나뉜다. 전자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 하고, 후자는 마치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간직해야 한다. 그러나 후자에 대한 의무도 전자와 마찬가지로 강력하므로, 어떤 행동에 대한 의무가 있는 자는 그 행동으로 이끄는 필수적인 수단에 대해서도 의무를 진다는 법칙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마음에서 정욕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잘 알려진 위업들도 의무로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의무를 ‘정의의 의무’와 ‘사랑, 즉 선의의 의무’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정하신 관계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그에게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정의’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자는 옳고, 위반하는 자는 옳지 않다. 그를 법정에 세우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요구는 정의의 의무이다. 그것들은 덕스러운 삶의 외적 울타리를 이룬다. 정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미덕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를 실천하는 자에게는 미덕을 온전히 갖추기 위해 사람들과 진리 자체에 대한 사랑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 사랑은 단지 정의나 진리가 요구하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고, 내면의 자발적인 선의에 따라 기꺼이 그 이상을 행한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선하지만, 누구도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남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권력으로 갚도록 강요할 수 있지만, 궁핍한 사람을 돕지 않는 사람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강요가 따르지 않음에도 기꺼이 타인에게 자선을 베풀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타인에게 공정하게 행동한다. 의무에는 또 다른 차이가 있다. 어떤 의무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의무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한다.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시 33:15).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있고, 이웃에 대한 의무와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너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무의 세 번째 측면은 앞의 두 가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중요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앞서 열거한 의무들을 보면, 모든 의무가 우리에게 똑같은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어떤 것은 더 강압적인 반면 다른 것은 덜 강압적이라는 것이 이미 분명합니다. 이는 양심이 확인해 주는 바이며, 구세주께서도 유대인들이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들”을 소홀히 하고, 단지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만을 고집한 것을 책망하셨을 때(마태복음 23:23) 확인된 사실이다. 다양한 의무의 힘과 상호 관계를 아는 것은 도덕적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도덕성의 질서 자체만으로도 요구되는 바입니다. 즉, 겉으로는 법의 체계 안에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듯이, 내면인 우리 마음속에서도 모든 것이 그에 상응하는 비중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속의 이러한 질서가 상실되었기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낙타는 삼키면서 모기는 걸러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 하찮은 것에 지나치게 큰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려버리고, 그로 인해 우리 안의 하나님의 질서를 뒤바꿀 수 있다. 사실 의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에 맡겨져야 하며, 그럴 경우 단 하나의 규칙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양심의 요구가 더 강렬할수록 그 의무는 더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양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그러한 규칙은 매우 많고 중요한 경우들에서 올바른 결론을 내릴 수 없는데, 이는 우리 스스로가 종종 정욕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의무의 중요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부적인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추상적으로 판단해 보면, 1) 의무가 본질적인 것에 가까울수록, 또는 어떤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도덕적 질서가 왜곡될수록 그 의무는 더 중요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 일반적인 규칙은 실제 사안에 적용될 때 다음 두 가지 규칙으로 뒷받침된다: 2) 특정 행위에 대한 동기가 많을수록 그 행위는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기나 근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된다면, 그 동기가 많을수록 그에 관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공경은 다른 누구에 대한 공경보다 더 의무적이다. 3) 행동의 대상이 그 자체로든 상황상든 더 중요할수록, 그 행동은 더 의무적이다.

다만, 의무의 중요도가 서로 다르게 제시된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어떤 의무를 마음속으로 경시하거나, 이를 이행할지 말지에 대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결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의무는 신성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고 온전한 열정과 기꺼운 마음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와 행위의 질서를 아는 현명한 실천자가 되도록 이끌기 위함이며, 우연한 상황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자신에게 의무적인 일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 큰 불공평이 드러난다. 이는 주로 기독교와 자연법, 교회적 삶과 시민적 삶의 관계에 해당한다.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계명들은 무엇보다도 우선한다. 영혼의 구원 없이는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다음으로 양심의 도덕법들이 뒤따르는데, 왜냐하면 전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후자를 거룩하게 하고 효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성스러운 예식이 와야 한다. 이는 전자와 후자를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성이 온다. 일시적인 의미를 지닌 시민성은 영원한 행복을 얻는 조건인 신앙과 선한 도덕성에 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마음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최우선 순위가 아니며, 교회와 그 유익한 제도들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정직과 가정적·시민적 이익이 바로 그의 도덕성의 기본 원칙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원칙에 만족하며 평온하게 지내는가!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덕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이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자신의 감정을 바로잡으며, 모든 의무에 적절한 비중과 위치를 부여해야 한다.

또 다른 잘못은 정의의 의무를 사랑과 선의의 의무보다 우선시하는 데서 드러난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전자가 후자보다 더 높게 여겨지므로, 삶의 진정한 정신인 사랑의 정신이 마치 강제로라도 삶에서 추방당하고 만다. 정의의 법칙들은 그 자체로 도덕적 왕국의 외적인 울타리에 불과하다; 그 법

들을 따르는 사람이 반드시 그 왕국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법의 정당성만 충족된다 해도, 그 행위의 정당성이 악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정의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의인이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는 불의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도덕적 삶은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으며, 여기에 삶의 뿌리가 있다. 이러한 사랑의 정신으로 정의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의무들이 이 정신으로 흠뻑 스며들었을 때 비로소 도덕의 영역에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첫 번째 의무들보다 더 높게 둘 수 있을까? 만약 그러한 규칙이 일반화된다면, 도덕 질서의 전면적인 왜곡을 예상해야 할 것이다. 도덕적 세계는 그 중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 사이의 잘못된 균형에는 또 다른 세 번째 불의가 있다. 이기적인 마음에게는 타인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타인이 우리에게 가진 권리보다 더 소중하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이 곧 법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잊어야 한다: 누군가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내밀고; 한 벌의 옷을 빼앗으면 다른 한 벌을 내어주라; 누가 빌려 갔으면 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아예 악에 대항하지 말라; 악이 네게 닥치게 내버려 두라... 반대로,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완전한 존중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형제의 인격과 그의 소유물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침해할 수 없고 신성한 것이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모든 가능한 선행을 실천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정의의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더한다면, 이러한 의무들의 순서와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모든 가능한 선행을 실천하는 데 열심을 내라; 바로 그 정신으로, 자신의 권리를 잊은 채 정의의 의무도 이행하라.

의무의 진정한 중요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익혀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때 더욱 그러하다. 이는 의무가 충돌할 때 곤란한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의무는 특정 행동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주어지지만 그중 오직 하나만 이행할 수 있고 또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러한 의무의 충돌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며 항상 곤란에 빠지게 한다. 의무의 상대적 중요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의무들 간의 양립 불가능성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항상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단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면 된다.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1) 무엇보다 먼저, 의무들이 정말로 서로 상충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본성이나 어떤 정욕이 의무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닌지?

2) 만약 실제로 의무와 의무가 충돌한다면, 그것들이 같은 종류의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서로 다른 종류의 의무가 있을 때, 더 높은 것이 더 낮은 것보다 우선한다. 즉, 무조건적인 것이 조건적인 것보다, 신성한 것이 인간적인 것보다, 주요한 것이 부차적인 것보다 우선한다.

3) 의무가 같은 종류일 때는 근거, 이유 또는 동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러한 근거가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야 한다.

4) 종종 당면한 의무 중 하나를 먼저 이행하고 다른 하나는 나중에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오직 성급함이나 때로는 마음의 나약함만이 곤란을 초래한다. 그러나 누구나 경험상 알고 있듯이

, 의무가 겹치거나 심지어 충돌하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우는 드물다. 성실함만 있다면 모든 것이 저절로 쉽게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것은, 삶의 순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있어 그 몇 안 되는 상황들조차 매우 당혹스럽고 슬픈 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1) 잘 알려진 올바른 원칙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체계화하고, 일종의 인생 계획서(앞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를 작성한 뒤 이를 이행하라. 이렇게 하면 예기치 못한 실수는 드물어질 것이다. 2) 의무와 그 이행에 관한 다양한 상황을 더 자주 숙고하고, 마음속으로 곤란한 상황에 자신을 놓아보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라. 이는 사고의 민첩성을 기르고, 곤경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경험 많은 이들과 더 자주 상의하고 대화를 나누라. 4)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자신을 하나님의 면전이나 임종하는 사람의 처지에 놓아보고, 마치 관의 가장자리에 서서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

b) 조언에 관하여

b) 조언에 대하여

우리가 도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인 행동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언의 형태로 제시된 몇 가지 행동들이 있다. 이는 그러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낫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기꺼이 따르기는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느끼지는 않는 것들이다. 그러한 조언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 청년이 주님께 나아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을 지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이 이 모든 것을 이미 젊은 시절부터 지켜왔다고 말하며, 아직 미처 이루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자, 주님께서는 덧붙이셨다. “네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가서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구원에 필수적인 의무와, 오직 더 높은 수준의 완전함에 이르는 데 필요한 행위들 사이의 구분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마태복음 19장 등).

사도 바울의 글(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 진리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정 생활과 결혼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동정 생활을 의무로 삼으라는 주님의 계명은 받지 못했으나, 그것을 지키라고 권면하는 조언은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그는 동정이 어떻게, 그리고 어떤 점에서 결혼보다 우월한지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딸을 시집보내는 사람은 잘하는 것이지만, 딸이 동정으로 남도록 허락하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사도는 계명과 권면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다만 권면의 몇 가지 예에 불과하다. 실제로 삶 속에서는 그 예가 셀 수 없이 많을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개신교 분파에서 기독교인은 모든 것에 대해 단호히 의무를 지고 있으며, 마치 필연성에 얽매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생각은 부당하다. 권면 속에도 의무는 있지만,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저 덜 완전할 뿐이다. 이 점에서 양심은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행동이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확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반면, 다른 어떤 행동은 비록 더 낫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

에 대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행하지 않아도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고 묵묵히 빚을 기다리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곤경을 생각해 빚의 절반만 받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 빚 전액을 탕감해 주는 사람은 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전쟁에서 돌아온 족장 아브라함은, 자신을 도왔던 왕들조차 그에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모두 차지할 수도 있었으며, 그런 행동이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양보했을 때, 더 잘한 것이다. 또는 그가 롯에게 거주할 더 좋은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했을 때, 가장 훌륭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직접 로트에게 더 좋지는 않더라도 충분하고 좋은 땅을 지정해 주었다 해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경건하게 공경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후 하나님께 그토록 높이 추앙받고 영광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평생 동안 항상 더 좋고 완전한 것을 선택하도록 스스로를 다스렸기 때문이다. 만약 모든 최선이 피할 수 없는 법칙이었다면, 연약한 자들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으며, 누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면에, 그것이 권고의 형태로 남겨질 때, 이는 연약하고 소심한 영혼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며, 동시에 자신 안에 충분한 힘을 느끼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고무적인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상기시켜야 할 것이 있다. 너를 위해 하늘과 땅이 움직였으며, 너는 선택받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생명의 힘과 경건함을 위한 능력을 받았으니, 과연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특별한 목적이나 의무 없이 주어진 것일까? 아니, 그리스도인아, 너는 네 생각이 닿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은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소원을 미리 알아차려 충족시키려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풍성히 채워진 너는, 너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며, 네가 그 길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거절할 수 있겠느냐? 이때 주님의 말씀, 즉 “한 뼀을 맞았을 때 다른 뼀도 내밀라”거나, 더 일반적으로 “악에 맞서지 말라”는 말씀과, 사도의 말씀인 “위의 것을 구하고, 위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씀을 고려한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더 좋고 더 완전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에서도 결코 관용을 베풀지 않으셨으며, 그들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여겼는지에 비례하여, 그만큼 고귀하고 탁월하며 신성한 일들을 행할 의무를 지우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행동의 대상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판단한다면, 다음과 같이 단언할 수 있다. 바로 항상 자신의 행동에서 탁월한 것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말해, 올바른 길을 간신히 걷고 있는 연약하고 겁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격려하고, 깨우쳐 주며, 어깨에 메고 이끌어라. 목자들은 단지 그들이 어떻게 걷는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끌고 짊어지도록 임명된 자들이다... 애초에,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할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확고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일반적인 도덕성, 즉 기독교 밖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안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나은 것을 거부하는 자는 자신 안의 기독교를 훼손하며, 자연적 도덕성의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다만 다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1) 이는 반드시 더 나은 것, 즉 더 나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바이며, 게다가 이를 실천할 완전한 가능성이 있는 것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이를 그에게 설명해 준

다면, 약한 자에게도 의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는 이행되지 않는 이유가 오직 자신의 의지 부족과 자기 연민뿐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는 가장 중요한 권고들, 즉 독신 생활과 자발적인 빈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분명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9:12). 그러나 여기에도 내적 충동과 외적 지침이 있으며, 구원의 문제에서 이에 반하는 것은 위험하다.

c) 독립적인 행위에 대하여

c) 독립적인 행위에 대하여

수많은 행동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내적 양심의 법도, 기록된 율법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보통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개인의 자유에 맡겨진다(앉고, 일어서고, 오른쪽과 왼쪽을 바라보는 것 등). 도덕적 주체와 상황의 무한한 다양성을 고려할 때,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정할 방법은 전혀 없다. 게다가 모든 면에서 각 개인을 구속하는 것은 도덕적 자유 법의 정신에 완전히 부합하지도 않는다. 사람이 도덕적 삶에서 교양된다면, 그의 정신을 함양하고 강화하기 위해 많은 부분을 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이를 통해 자신의 도덕적 힘을 단련하거나,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모든 행동을 명령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처럼, 도덕적 삶의 진정한 정신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도덕적 주체로서의 행동을 그 행위의 모든 상황과 함께 바라볼 때, 비록 여기에서도 독립적인 행동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이며 특별한 의도 없이, 심지어 생각조차 없이 사람이 행하는 것들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행동들(예를 들어, 시선)이 목적을 갖게 되는 순간,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게 된다. 일반적으로 의식과 목적을 가진 인간에게서 비롯된 모든 행동은 반드시 도덕적 성질을 지니며, 선하거나 악하다.

자신 안에서 무관심한 행동을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것이, 심지어 자세나 손, 눈의 움직임 등까지, 도덕적 목표를 향한 수단이 되도록 온전히 신경 써야 한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으며, 생애의 모든 날을 그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서약했기 때문이다. 무관심한 행동에 소비된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므로, 회개로 메워져야 한다. 게다가, 마음에 무관심한 대상이 과연 있을까?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 삶에서 마음의 움직임은 무관심할 수 없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무관심해 보이는 행동들도 영혼에 좋은 흔적이나 나쁜 흔적을 남기므로, 그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유분방한 걸음걸이, 자유분방한 자세, 손과 다리 등의 움직임에 무엇이 나쁠까?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제나 영혼 속에 생각과 욕망의 자유분방함을 심어주므로, 이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선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무관심한 행동을 의미 있는 행동으로 바꿀 기회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영생을 위한 행실의 보물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모으는 상인이라면, 왜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활용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열심의 부족과 게으름의 과잉 외에는 없는데, 이는 무관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미 무관심한 일들이 무관심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들이 게으름으로 인해 그의 삶에 허용되며, 도덕적으로 나쁜 상태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목표를 향한 수단으로 전환하

여 활용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는 성 금구(Zlatoust)의 생각이지만, 그가 어디에서 이를 언급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보라, 이것이 바로 행동의 전장이다! 누구든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이를 경작하라! 앞서 쓴 문장을 주의 깊게 읽은 독자라면, 갑자기 세상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율법 제정자이신 주님의 말씀, 즉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생명으로 이끈다’는 말씀도 거짓이 아니다. 넓은 길은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 자신은 좁은 길을 택하자.

2) 도덕적 행위의 목적에 대하여

우선, 목적이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과 무관한 행위는 그 목적에 따라 성질이 결정된다. 즉, 선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선해지고, 악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는 악해진다.

선한 행위에 선한 목적이 더해지면 그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고양시키며, 악한 행위에 악한 목적이 더해지면 그 행위의 악함과 비도덕성을 더욱 강화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파하기 위해 신앙의 진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경건한 척하는 것으로 오해받지 않으려고 교회에 무심코 서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타인을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선한 일에 담긴 나쁜 목적은 그 선함을 갉아먹고, 나쁜 일에 담긴 선한 목적은 그 일에 선함을 더하지 못한다. 어느 경우든 그 일은 나쁜 것이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교훈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기량을 과시하기 위해 노래하거나 낭독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나쁜 것으로 만들고, 남의 공로를 가로채서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나쁜 일을 선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목적이 높을수록 그 일은 더 순수하고 완전해지며, 의도가 타락할수록 그 일은 더 비도덕적이 된다.

이 간절한 명제들만으로도 우리 활동에서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신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서 어떤 목적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으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기들, 즉 각자가 자신의 성격과 기분에 따라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스스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미덕을 갈망하는 그리스도인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 즉 그의 온전한 덕행으로 무엇을 성취하는지, 혹은 도덕적 활동의 주된 목표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처음부터 이미 인간의 목적이자 그리스도인의 서약으로 정해져 있는데, 바로 ‘모든 행위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행하라’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6)고 하셨습니다. 사도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고전 10:31)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라고 명합니다. 여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는 점만 덧붙이면 됩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를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그 사람의 행실도 하나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옛 성막에서 피가 성소로 드려지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행위의 제물은 오직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믿

는 믿음 때문에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강조해야 할 점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는 자*”라면서 자신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무엇을 얻으려 한다면 *가장 비참한 자입니다*(고린도전서 15:1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기대는 온전히 그 세상에 향해 있어야 한다. 그는 끝없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일하고 수고해야 한다. 이처럼 모든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없는 생명을 소망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다만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출발점은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최종 목표는 영생이라는 점이다. 영생을 이처럼 중요한 일의 목적으로 삼을 때, 도덕적 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면, 여기에는 이득을 쫓는 마음이나 고용된 자의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본질적인 특징만이 드러나는데, 그들은 이미 이곳에서 하늘의 시민이 되어, 자신의 조국을 갈망하며 탄식하며 살아가는데,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이방인으로서 “*여기 머무를 성은 없고 오직 장차 올 성을 찾는 자들*”(히브리서 13:14)이라는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목표들에 관해서는, 비록 허용될 수는 있겠지만 결코 주된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목표들로부터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행위 그 자체의 목적이다. 모든 행위는 각자의 목적을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선의 목적은 가난한 이를 돕는 것이고, 독서의 목적은 마음을 계몽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행위는 그리스도인의 주된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러한 목적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끝없는 다양성이 들어오게 될 것이나, 사실 그 삶 전체는 하나의 통일된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 이 통일성은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통해 형성된다. “*너희의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6:20).

어떤 이들에게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엄격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일을 할 때 하나님 외의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만 그 목적이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여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단지 일을 더 자주 하나님께 돌리는 데 그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가장 온전한 자들의 몫으로, 권면할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에게 의무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빛나는 기독교인의 삶이 얼마나 평화되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와 열의가 얼마나 부족한가! 그러나 첫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의무적인 목표입니다: “*너희 영혼과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이보다 더 명확하고 분명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행동 방향이 특별한 노력을 요구하지도 않는데, 왜 이 목표를 오직 가장 온전한 자들에게만 국한시켜야 하는가? 이미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단지 마음과 영으로 그 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죄인을 죄의 잠에서 깨우거나 약해진 이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

기서는 그를 위협하고, 충격을 주어야 합니다. 즉, 죄의 파멸적인 결과와 미덕의 선한 열매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목적이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지를 자극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배제하지 않는 한 다른 목적들도 허용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이라도 행실을 하나님께 바치면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도덕적 삶에서 별개의 존재인 것처럼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질서가 왜곡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자신의 모든 행위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돌리고, 온 생애를 오직 이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거룩하게 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이교도의 도덕성, 즉 그곳에서 선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이 규칙들이 정확히 적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교훈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문제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들의 행실을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참된 의미와 질서를 왜곡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나 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우연의 유혹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존재이다. 그에게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말해 주면, 그는 스스로 다스릴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믿음에 따라 행해진 것도 아닌 선한 행위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연스러운 선일 뿐이다. 예를 들어, 마음속의 추론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미덕은 아니듯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선한 행위도 영적으로 자연스럽지만 미덕은 아니다.

이제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야 한다. 앞서 제시된 목적 외의 모든 다른 목적은 참된 목적이 아니며, 그 목적에 따라 행해지는 일들은 그 목적에서 멀어지는 만큼 그 가치를 잃게 된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나쁜 목적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모든 이가 이를 듣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위를 하느님께 향하게 하는 이 열망은, 특히 가장 가까운 목표들에 가려지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항상 이성으로와 마음으로 이러한 가장 가까운 목표들을 넘어, 하느님의 면전으로 나아가 그분께 모든 행위를 바치고, 이를 통해 그분을 거룩하게 하라.

3) 도덕적 행위의 상황에 대하여

상황이란, 어떤 일이 처한 환경, 즉 그 일의 모든 외적 관련 요소를 말한다. 수많은 관련 요소가 없는 일은 없으나, 엄밀히 말해 그 일의 도덕적 상황으로 간주되는 것은 오직 그 일의 내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뿐이다. 이러한 요소들 중 일부는 행위자의 인격과 관련되고, 다른 일부는 행해지는 일 자체와 관련되며, 또 다른 일부는 행위 과정 자체와 관련된다. 이 모든 것은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떻게, 어떤 수단으로?’라는 질문들로 종합된다.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어떤 사안을 살펴보더라도, 그 사안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소한 일이나 수사적인 장난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단지 이러한 질문들 각각에 대해 사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스스로 이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

‘누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일을 저지른 인물이 도덕적인지 여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분과 자질을 지녔는지를 찾아야 한다: 성직자인지 평신도인지, 교양 있는 사람인지 무지한 사람인지, 공직자인지 민간인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등. 이들 각 인물에게, 예를 들어 술 취한 상태를 대입해 보면, 그 악성이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진실한 믿음을 대입해 보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지는 않을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추론해 보라. 우리 자신을 위해 이 기회를 빌어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적어 두자: 자신의 신분, 교육 수준, 지위에 걸맞은 일을 하라. 그 이상이라면, 모든 이의 종이 되어라.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일이 계명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이미 언급된 일의 본질 자체가 아니라 그 부수적인 요소들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 얼마나 훔쳤는지, 신성한 물건인지 평범한 물건인지, 가난한 사람에게서 훔쳤는지 부자에게서 훔쳤는지. 자선도 마찬가지로... 풍족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동전 한 닢인지. 그 밖의 일들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스스로는 다음과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일을 정확한 척도로 판단하고, 전반적으로 일의 범위에 힘을 쏟을 때 여력이 남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가 슬픈 표정으로 자신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원칙으로 삼는다.

‘어디서?’라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장소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어디서든 일은 이루어져야 하니까—그 장소의 특성과 기타 우연한 상황들에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했는지, 거리에서나 성전에서 훔쳐보았는지, 그와 유사한 것들이다. 그러니 행위로 장소를 거룩하게 하라, 더럽히지 말라. 심판의 날에 모든 장소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네 선한 행실이나 악한 행실을 증언할 것임을 명심하라.

‘언제?’라는 상황에서는 시간 그 자체보다는 그 질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명절인지 평범한 날인지, 시간, 달, 해 등과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 네 삶의 모든 시간이 선한 행위의 끊임없는 사슬이 되도록 신경 써라. 그러나 모든 일에는 제때가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하라. 일이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장 유리한 시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있다.

‘어떻게?’를 알고 싶을 때는, 앞서 언급된 방식이나 그 일의 본질에 따른 방식이 아니라, 다른 외적이고 우연한 방식, 즉 두려움 속에 있거나 평온한 상태에서, 알고 있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끈기 있게 또는 무심코, 갑작스럽게 또는 준비를 거쳐 행해지는 방식을 탐구한다. 자신의 마음을 예리하게 살피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그는 느린 일은 속도를 늦추고, 빠른 일은 속도를 높이며, 모든 일을 게으름이나 성급함 없이 적절한 열의를 다해 처리한다.

“어떻게?”라고 알고자 할 때, 일을 성사시키거나 목표를 달성한 수단과 그 과정에서 활용된 보조 수단을 파헤쳐 본다. 예를 들어, 유익한 일을 자신의 노력으로 했는지 타인의 손을 빌렸는지; 부를 모은 것이 의로운 방법이었는지 부당한 방법이었는지; 공개적으로 행동했는지 은밀한 방법으로 유도했는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들. 주님, 선을 위해서라도 비뚤어진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소서. 또한 양심적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면, 겉보기에는 옳아 보이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기보다는 차라리 인내하는 편이 낫게 하소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합법적일 경우, 행동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품위를 구성하지만, 그중 일부는 일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단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상황이라는 전체 문제를 오로지 수단만으로 한정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선한 생각을 외적인 사물의 흐름에 적절히 접목시키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분별력인데, 이는 내적인 것을 외적인 것에 적용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복음을 세상의 관습에 맞추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적 법칙을 그에 상응하는 외적 요소들로, 말하자면 적절한 ‘옷’을 입히는 데에 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외적 사정의 흐름에 역행해야 할지라도 말이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기독교적 분별력은 모든 사건—외부적이든 내부적이든—의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통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처지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주도해야 한다는 결론이 다시금 도출됩니다.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실천하며 경험을 쌓음으로써 점진적으로 달성되며, 그러한 경험을 쌓은 후에는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나오는 모든 일이 마치 예술가의 손에서 나오는 우아한 작품처럼 모든 면에서 완전해집니다.

모든 일에 수반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각 상황이 사방에서 그 도덕적 가치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대상들과 다방면으로 얽혀 있을 때, 경험이나 행동하는 주체 안에서 독립적인 행동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제3자는 물론 행동하는 당사자 스스로조차 자신의 행위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어떤 일에서는 이러한 모든 정황이 합법적일 수 있고, 다른 일에서는 일부만 합법적이며 그 정도도 더 크거나 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행위의 그림자가 오직 악일 뿐일 수도 있고, 다른 경우에는 오직 선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은 오직 전지하신 분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 들지 말라. 자신에 관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와 회개를 열 배로 늘리라. 왜냐하면 그 죄들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 배는 더 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네 행실의 선함을 백 배는 낮추어 보라. 왜냐하면 어쩌면 실제로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규칙은 성 마카리오스 이집트 성인이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행위의 모든 측면, 즉 대상, 목적, 상황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법을 배우되, 결코 타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역이다. 다음은 행위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이다. 이는 성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투스에게 기인하는 것으로, 즉 어떤 행위를 선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행위의 대상이 선해야 하고, 목적이 진실해야 하며, 상황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어떤 행위에서 이 세 가지 측면 중 하나라도 좋지 않다면, 그 행위는 선할 수 없다. 당연히 이 세 가지 측면의 선함과 악함의 정도는 그에 상응하여 행위 자체에도 반영됩니다.

7. 도덕성의 유형과 선과 악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도덕적 삶의 단계

도덕성의 종류는 두 가지이다: 선한 도덕성과 악한 도덕성. 전자를 미덕이라 하고, 후자를 악덕 또는 죄라고 한다.

1) 미덕에 대하여

미덕은 한 가지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1) 선을 향한 정신의 주된 포괄적인 열망, 혹은 기독교적으로 행동하는 정신의 기질을 의미하기도 하고, 2) 의지와 마음의 다양한 선한 태도를 의미하기도 하며, 3) 각각의 개별적인 선한 행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 모든 표현에서 미덕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점차 완전함으로 나아가며, 이를 통해 선한 도덕적 삶의 단계를 규정한다. 그러므로...

가) 미덕의 세 가지 표현 형태와, 첫째, 기독교적으로 행동하는 영의 마음가짐으로서의 미덕에 대하여

a) 미덕의 세 가지 표현 형태와, 첫째, 기독교적으로 활동하는 영의 마음가짐으로서의 미덕

우리의 선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다. 따라서 선을 향한 열망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려는 열망,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는 것과 같다. 만약 이 열망이 헛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만족을 얻으려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바로 이 길과 그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기독교적 덕행을 실천하는 영의 주된 열망이나 마음가짐으로서 덕의 구성 요소에 포함되어야 하며, 즉 기독교적 삶과 활동의 주요 규범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성교회에서의 세례의 힘과 서약에 따라, 은총의 도우심을 받고 믿음으로 충만해지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 그분의 거룩한 뜻을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라.”

따라서 참된 기독교적 미덕, 즉 기독교적으로 덕스러운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세례의 힘과 서약에 따라, 은혜의 도움과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열성적이고, 꾸준하며, 온전하고, 끊임없이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갈망과 힘이다.

이 모든 것이 왜 필요한지는 이미 ‘기독교인의 삶의 규범’에 관한 글에서 알 수 있다. 이제 기독교적 도덕적 마음가짐의 이러한 각 특징을 조금만 더 설명하여, 기독교 미덕의 구별되는 특성, 구성 및 기원을 이해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갈망이다. 구세주께서는 “의에 주린 자”와 “의를 갈망하는 자”를 복되시다고 하셨다(마 5:6).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달려가노니, 비록 아직 미치지 못하였으나... 열심을 다하여 더 높은 소명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노라”(빌 3:12, 3:14)라고 말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항상 선을 좇으라. ... 성경을 소멸하지 말라”(살전 5:15, 5:19), “위의 것을 구하라”(골 3:1), “영으로 불타오르라”(롬 12:11)고 권면한다. 이 갈망은 그 자체로 모든 선한 것을 받아들이기 준비가 되어

있는 넓은 품과 같아서, 마치 물을 갈망하는 땅이 곧바로 물을 흡수하듯이 모든 선한 것을 받아들입니다. 삶 속에서 이 갈망은 한편으로는 영의 긴장감을 유지시켜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이 외적인 수고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지 못하게 하여 내면에서 영을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이 갈망은 육체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육체적 건강의 징표인 것처럼, 선한 영적 상태의 변함없는 징표이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간직되는 온기를 통해 이를 알아볼 수 있다. 이는 차갑고, 나태하며, 무기력하고, 움직임이 적으며, 선과 구원에 대해 무관심한 영과 대조된다. 두 번째 특징은 힘이다. 힘이 없는 갈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실 없는 고통이거나 영혼의 파멸이다. 갈망하던 철학자 유스티누스를 보라! 힘을 얻기 전까지 그는 자신을 갇아먹는 내면의 영적 불길로 고통받는다. 그러므로 누군가 단 하나의 열망에만 머물려고 한다면 헛된 일이다. 그것은 처음에는 단지 준비 단계일 뿐이며, 나중에는 활동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갈망은 기독교 밖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힘은 오직 기독교 안에서만 주어진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러나 그분 자신으로부터 힘을 마시게 하셔서, 그 힘으로 그들이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 15:5). 갈망은 우리 영이 깨어났음을 증거하는 것이며, 힘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힘과 연합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그는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빌 4:13)고 고백한다.

세 번째 특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머무르는 힘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지명되었는지, 그 후 어떻게 그분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그리고 그 이탈의 결과로 어떻게 자만심과 정욕, 그리고 그것들을 부추기는 자들인 마귀와 세상의 폭정에 시달리게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인간의 올바른 돌봄에는 반드시 두 가지 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자기 자신과 자만심을 부추기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 부정은 단지 수단일 뿐이며, 목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부정의 위기를 통과한 이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전부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수고와 모든 돌봄이 향하는 유일한 대상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즉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소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기 시작한 사람은, 아직 진실하고 기독교적인 선함을 실천하기 시작하지 않은 것이다.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막 8:34).

단 한 번의 자기 희생에 그치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험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다. 자기 희생은 수단일 뿐이며, 그 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에 맞추어 활용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제외하면 진정한 자기 희생이라 할 수조차 없다! 하나님 없이는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의 가르침과 삶은 바로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들은 자아를 이성이나 영에 복종시키라고 가르쳤으나, 그 영이나 이성 또한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고, 그 때문에 영적 교만의 스승이 되었으며, 수고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타인을 하나님 밖, 즉 그분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 머물게 했다. 마찬가지로, 어떤 철학적 미덕,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을 고안해 내는 자들도 잘못되고 공상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

님 밖에서 무슨 미덕이 있겠는가?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는 미덕이 미덕이 아니며, 이러한 교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기독교 밖에는 진정으로 선한 삶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곳에는 참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선행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열망이 그들에게 유일하고 독보적인 사명으로 제시된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으라”(요 15:4)고 가르치시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요 17:21);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주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들이 하나됨으로 온전하게 되게 하소서”(요 17:23). 사도들은 이렇게 전파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 하나님과 화목하라”(고후 5:20), 또한 “우리과 교제를 가지라.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께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요일 1:3).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도 너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야고보서 4:8). “너희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요, 너희가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역대하 15:2).

네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열심 있고, 꾸준하며, 온전히, 그리고 항상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르는 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지 신성한 일이나 신비에 대한 지식, 또는 하나님께 대한 감정의 강렬한 갈망,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며,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본질적이고 가장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마 7:21).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니, 이는 나도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이라”(요 15:10). 사도에 따르면, 사람은 “육신에 있는 남은 시간을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된다. “지나간 시간은 이미 충분하니라”(베드로전서 4:2-3).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때 이 모든 것이 비록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목표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이러한 이행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그분을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게다가, 이 덕스러운 상태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것이 없다면,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거나 합법적인 모든 행위는 영혼이 없는, 그다지 추하지 않은 조각상들의 모음에 불과할 것이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낯설지 않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선한 마음의 움직임이나 간헐적인 충동과는 달리, 완전한, 즉 온전한 율법과 계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하며, 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보다는 본성적인 성향에 따라 선택된, 어쩌면 가장 쉬운 일부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 게다가 우연히 마주치는 상황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며 선을 행하기 위해 창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되 한 조항만 여기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된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약 2:10). 모든 계명의 기초는 하나, 곧 하나님의 뜻이므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떤 형태

로 그에게 드러나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평생 동안 지치지 않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쟁기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눅 9:62). 그리고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마 10:22)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사도가 가르치기를, “경기장에서 달리는 자들은 모두 달릴 뿐,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상을 얻기 위해 그렇게 달리십시오” (고린도전서 9:24). 왜 끝까지 멈추지 않는가? 끝이 그 일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인인 사람의 소유이자 동시에 그의 삶을 구별하는 특성입니다.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그 후에도 모든 일을 그 동일한 능력으로 이루어냅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사 원함도 행함도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시는 이시니라” (빌 2:13). 그 사도는 또한 자신의 모든 수고 속에서 그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증언하며, “그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전 15:10)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활동을 동반하는 이 은혜의 작용은, 신앙의 진리와 활동 전반에 대한, 특히 각 상황에 관한 인상을 마음에 심어줌으로써 마음을 다방면으로 깨우치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엡 1:18); 열정을 불태우고 의지를 굳건히 하는 데 있습니다.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요 15:5).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영원한 영광으로 부르신 분이시니... 그분께서... 너희를 굳건히 세우시고, 강화하시며, 기초를 다지시기를” (벧전 5:10). 이러한 신성한 은혜의 영향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거나 율법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데 있어 힘과 굳건함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빌 4:13).

여섯 번째 특징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선한 기독교적 활동과 삶을 완성하고 온전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결점과 연약함, 약점, 죄를 덮어줍니다. 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는 것일까? 믿음은 모든 명령을 이행한 행자가 “나는 쓸모없는 종일 뿐입니다”(눅 17:10)라고 말하게 하며, 모든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게 한다. 행위 자체에 있어서, 믿음은 위대한 약속의 확실성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요일 4:10; 고린도후서 5:14)에서 비롯된 도덕적 질서를 내면화하도록 가장 강력하고 자극적인 동기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에 일종의 초자연적인 신성한 성질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지체로서 그 행위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거하는 자는 ...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요한복음 15:5).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징은 세례의 능력과 약속에서 비롯됩니다. 이 특징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 들어가고, 교회의 지체가 됨으로써 교회의 모든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세례를 통해 이에 대한 기초가 놓입니다. 이를 위해 그 후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라나는 씨앗에게 주위를 둘러싼 원소들이 양식을 공급하듯이, 은혜로 교회에서 새로 태어난 자에게는 영적인 원소들이 성사와 모든 교회 예식을 통해 양식으로 공

급됩니다. 동시에 내면의 힘은 그가 접촉된 온 몸, 즉 교회의 몸으로부터 그에게 전해지는데, 교회를 통해 그 머리로부터 영적인 생명력이 그의 혈관으로 흘러내립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은 성숙해 간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 품어 따뜻하게 하듯이, 교회도 모든 자녀들을 품에 안아 양육하고 따뜻하게 해 준다. 그러므로 덕행에서의 성장은 교회 안에 머무르는 것에 달려 있다. 교회 밖에는 참으로 덕스러운 삶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들 주변에는 양육하는 분위기와 양육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덕행 상태의 모든 특징이다. 이 특징들은 기독교적 덕행의 본질적 속성과 구성, 그리고 기원을 나타낸다.

만약 이 모든 특징들을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질서라고 부른다면, 미덕은 상태로서나 미덕을 실천하는 이의 정신적 태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적 도덕적 삶의 질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정과 힘, 혹은 단순히 기독교적 삶에 대한 열정이다. 그러나 미덕에 대한 설명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특징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참된 것 대신 가짜를 내놓는 꼴이 될 수 있다.

“주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태중에 있을 때부터 고통받다가 구원받은 영을 낳았나이다”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노래합니다(사 26:18). 이는 진정으로 열심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는 구원에 대한 열렬한 관심을 품기 시작하며, 그분을 따라 서둘러 가면서 끊임없이 선한 행실로 풍성해집니다. 이 열심이 바로 구원의 영이며, 기독교적 선한 삶의 씨앗이자 원천으로, 그 열심이 강하거나 약한 정도에 따라 점차 자라나고 성숙해지며, 그에 따라 빨리 혹은 천천히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에게 교훈이 되도록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도달했거나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분을 쫓아가며, 만일 붙잡을 수 있다면 붙잡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스스로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뚫어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소명의 영광을 향해 열심으로 달려갑니다”(빌 3:12-14). 사도 바울의 열정은 이처럼 변함없고 지칠 줄 몰랐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그 열정은 그만큼 변함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 힘과 강도, 속도의 정도는 사람의 성격과 삶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해야 한다.

열정은 어떤 선한 일이든 기꺼이, 서둘러, 지체 없이, 마치 깊이 생각하지 않고도 행할수록 더 높고, 더 강렬하며, 더 확고해집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서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자선하는 자들에 대해 “기꺼이 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라고 말한 것처럼, 모든 미덕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야 한다. 착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를 이행하려 애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그 행함이 클수록 더 많은 수고와 원한을 감수하게 된다. 구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때는 특별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와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마태복음 5:44)이야말로 높은 경지의 완전함이다. 원한은 마음의

진정한 선함을 시험하는 척도이다. 많은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모욕적인 말을 받아들이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그 말을 간직하지만, 원한을 마주치면 즉시 떨어져 나갑니다. 이 점에 대한 열심의 정도는 고난과 불만의 크기와 그 지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조롱과 박해로 인해 쉴 틈이 없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선한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28년 동안 괴롭힘과 고문을 당했으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문과 박해가 없더라도, 끊임없이 마음을 찢어대는 모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는 순교자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분의 활동이 뻗어 나가는 영역이 넓을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어,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기 위해”(고린도전서 9:22)라고 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놀라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돌봄은 유대인, 이방인, 연약한 자, 길을 잃은 자, 완고한 자,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를 아우르며, 이는 한곳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이교도 국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본받아 다른 하나님의 성도들도 자신의 선행의 범위를 점점 더 넓히려고 노력했으나, 항상 점진적인 과정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혜롭게 기다렸습니다. 이는 자만과 제멋대로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지 않고, 너무 많은 일에 힘을 분산시켜 소소한 일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결국 그 동기가 얼마나 순수하고 초연하느냐에 달려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내 것이요, 땅에서 원하는 것도 주께로부터 온다. 내 마음과 육체는 사라지나, 나의 하나님, 나의 분깃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도다”(시 72:25-26);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갈 2:20);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사는”(고후 5:15);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며,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 (빌 1:23) 그리고 영생에서 “선한 행실로 부요해지”기 위해 (딤후 6:18) 이 세상에 기꺼이 머무르는 자, “우리의 삶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는 자 (빌 3:20)라는 사실을 알고 느끼며, 기꺼이 이 세상에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제안된 설명으로만 제한하겠습니다. 다만 덧붙이자면, 누구나 주님께 기도하여 마음속의 이 불이 결코 꺼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불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b) 다양한 선한 마음가짐으로서의 미덕

b) 다양한 선한 마음가짐으로서의 미덕

선한 성향의 본질과 형성 과정은 무엇인가. 선한 성향이란 특정 종류의 선한 행위에 대한 감정이나 사랑으로, 그러한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겸손은 미덕으로 불리지만, 이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속에 머무르는 성향으로, 모든 겸손한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내, 온유, 이타심, 순종도 미덕이라 불리며 그 본질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특정 행위가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행위 속에 숨겨져 있고 그 기초가 되며, 마음속에 끊임없이 머물러 뿌리내린 것, 즉 이러한 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다. 이러한 선한 마음가짐이야말로 본래 미덕 그 자체이다. 자신을 해친 자를 꾸짖지 않는 사람이 분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에게 악의를 품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네, 듣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존경과 순종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러한 미덕을 간직하고 감정으로 이를 품는 사

람이야말로 존경과 순종을 가진 것이다. “마음은 우리 행위의 시작이자 뿌리입니다.”라고 성 티혼은 말합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그 일 자체에도 없습니다. 마음에 없으면 믿음은 믿음이 아니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위선일 뿐입니다. 마음에 없으면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가식일 뿐입니다. 우정은 겉으로만 드러나고 마음속에는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진정한 우정이 아니다. 바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잠언 23:26; 티혼, 제4권, 인간의 마음에 관하여, § 33).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보물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의 보물에서 악한 것을 꺼내나니, 이는 마음이 넘치는 대로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눅 6:45).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로서, 자비와 선함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골로새서 3:12). 입으라, 즉 너희 영혼에 이러한 성품을 새기라는 뜻이다. 또는 또 이렇게도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고, 자비롭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애롭고, 온유하며, 지혜를 사랑하고, 겸손하라”(베드로전서 3:8). 왜 이 점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 바로 온유, 겸손, 인내 등과 같은 미덕들에 대한 사랑을 길러야 하며,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선한 명에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적 삶을 열망하기 시작할 때, 마음속에는 아직 강력한 선한 성향이 자리 잡지 않았으며, 온유함도, 인내도, 겸손도, 절제도 없으며, 어쩌면 우연히, 본능적인 기분에 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오직 마음속에 싹튼 그 열정만이 사람을 움직여 그러한 덕목을 갈망하고, 찾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게 한다.

선한 기독교적 삶을 향한 열정은 모든 선한 성품을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씨앗이자 시작이며 싹일 뿐이다. 비록 그 열정이 없이는 영혼 속에 그러한 성품들을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열정이 있다고 해서 즉시 영혼에 그 성품들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씨앗이 자라나 제때에 줄기와 가지를 내듯이, 이 열망 또한 마침내 선한 마음가짐으로 자라난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직 마음속에 없으며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선한 마음가짐을 자신의 마음에 심는 방법은, 무자비한 자기 강제에 있다. 기도하며, 자기 연민 없이, 온갖 선한 일에 자신을 강제로 이끄는 사람은 점점 더 자신의 영혼을 그 선한 일에 익숙하게 만들고, 마음은 점점 더 그 선한 일에 기울어지다가 마침내 그것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억지로 자신을 몰아붙여 했던 그 선한 일이 그의 영에 깊이 뿌리내려 마치 본성처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인내심이 없다. 비록 고생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인내심을 기르기 위해 애쓰다 보면, 마침내 그것을 얻게 된다. 겸손, 분노하지 않음, 그리고 그 밖의 선한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은 수고와 땀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느님의 은총으로 영혼에 새겨진다. 마카리오스 대성인은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성 디아도코스는 한 구절에서, 신성한 은총이 세례를 통해 먼저 형상을, 그다음에는 닮음을 따라 사람에게 베풀어 주며, 그 후 그의 마음에 미덕을 하나씩 새겨 넣는 모습을 묘사합니다(『선행에 대한 사랑』 참조).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닌 선한 성향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것들은 악은 아니지만, 미덕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특성은 기독교인이 열심을 기르는 과정을 통해 의식적으로 이를 체화할 때 비로소 습득하게 된다.

2b) 이 선한 성향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이에 대해 말하자면, 선한 행위의 종류만큼이나 그 성향도 많아야 한다. 왜냐하면 각 행위의 기초에는 그것을 특징짓는 고유한 선한 성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금식 행위가 있는데, 그 기초에는 금식이나 고행 등이 놓여 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는 조화로운 종속 관계, 즉 어떤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어떤 것은 기초가 되고 다른 것은 파생된 것이 된다. 마치 샘에서 먼저 주요 개울이 흘러나오고, 그 개울에서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가짐은 하나의 사슬에 달린 고리들처럼 필수적인 상호 결합을 이루고 있다.

사슬에서 한 고리를 들어 올리면 필연적으로 다른 고리들도 함께 들어 올려지고, 결국 사슬 전체가 들어 올려지듯이, 선한 태도들 사이에도 한 가지가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이끌어내는 그런 관계가 있다. 어떤 태도도 영혼에 홀로 찾아오는 법은 없다.

그들 사이에 정확히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어떤 성품이 어떤 성품에서 비롯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부들의 저술에서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모든 정성을 다하여(정성이란 진실한 열정을 뜻함) 너희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분별력을, 분별력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 위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라”(베드로후서 1:5-7). 성 마카리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미덕은 마치 어떤 영적인 사슬과 같아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기도는 사랑에서, 사랑은 기쁨에서, 기쁨은 온유함에서, 온유함은 겸손에서, 겸손은 복종에서, 복종은 소망에서, 소망은 믿음에서, 믿음은 경청에서, 경청은 순수함에서 비롯됩니다”(설교 40, 1장). 성 이삭 시리아인은 미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게다가 서로 다르게 배열합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은 우리를 회개의 배에 태우고, 악취 나는 삶의 바다를 건너게 하며, 사랑인 신성한 부두로 인도합니다”(설교 83). 다른 곳에서는 다르게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성의 세 단계에 대한 말씀에서 그러하다. 성 요한 사다리꾼의 저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합을 매우 많이 찾을 수 있으며, 테오도르 에데스(『선애』)와 다른 저자들의 저서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증언들에서 이러한 차이를 발견한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다. 이는 누가 어떤 원리를 선택하고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 각자가 가계도를 그려보기 시작한다면, 부계나 모계를 따라, 나아가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쪽을 따라 이어가다 보면 아주 많은 가계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차이는 있겠지만 거짓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모든 선한 성향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들 속에도 의견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짓은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것을 스스로 바로잡아 주실 것이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열정만을 간직하면 된다. 본성적으로 선한 성향들은 이제 제자리를 찾을 것이며, 아직 없는 것들은 그와 반대되는 정욕들이 정화됨에 따라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면 충분하다. 엄격한 체계는 활동적인 기독교 생활에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거의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

c) 미덕을 선한 행위로 보는 관점

c) 선한 행위로 본 미덕

모든 계명을 마땅한 방식, 즉 참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정당한 상황에서 이행하는 것은 선한 행위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그 행위에 부여하는 선한 목적 덕분에 무관심한 행동들조차도 선한 행위가 됩니다. 『정교회 신앙고백서』에서 선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그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과 자신의 이성과 의지의 협력 하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어디에서도 이른바 ‘방해’를 받지 않은 채 기꺼이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행하는 데 있다. 따라서 선행이 그 자체에 걸맞은 진정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 대상은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모든 것이며, 이에 관해 사람이 스스로 도덕적 의무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한편,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행해지는 선한 목적 덕분에 도덕적으로 선한 성질을 띌 수 있으나, 물론 그 가치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덧붙일 수 있다: 선한 행위는 계명을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명에 어긋나지 않고 그 정신과 질서에 부합하는 것을 행하는 데에도 있다.

이러한 실천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상황에 의해 강요되거나, 습관이나 냉담한 기계적인 관습, 혹은 타고난 성향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 소망, 사랑, 열정이 동기가 되어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된 이와 같은 종류의 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시하는 모든 일에 해당한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잘 지키겠다는 완전하고 단호한 결심을 아직 품지 않은 한, 그 사람의 선한 행위는 완전히 순수하고 완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거룩한 열정에서 비롯되지 않고, 오히려 감정의 이끌림이나 어떤 부수적인 고려 사항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 행실들이 꾸준하지 못하고 죄와 정욕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행실들은 완전하고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는 못하지만, 열정의 불을 지피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간구하는 수단으로서 무익하지는 않다. 화난 나머지 가난한 사람을 떨쳐내기 위해 빵 한 덩어리를 던졌다가, 그 일로 인해 환상을 보고 죄에서 돌이켜 경건한 삶을 살게 된 빵집 주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열심이 없는 모든 이에게 이렇게 조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한 일, 특히 자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의 불, 즉 영적 생명의 증거이자 원천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온전히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이 일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살아 있는 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14-15).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행실을 되돌려 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 바쳐진 이러한 행실만이 영원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태도는 행실에 일정한 가벼움과 자연스러움, 하나님께 합당하고 매력적이며 초연한 모습을 부여합니다.

진정으로 선한 행위는 자신의 이성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아하니,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것이자 동시에 인간의 것이다. 선한 행위를 행할 때, 자만과 과신은 그 행위의 순수함뿐만 아니라 성공과 완전함에도 해를 끼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성급하고, 미숙하며, 숙성되지 않은 채 이루어지며, 종종 끝까지 완수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힘을 마땅히 사용해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것 또한 행위와 모든 활동을 왜곡시킨다. 이러한 결점은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의 영감에 맡기려는 퀴에티스트와 퀘이커들의 가르침 속에도 스며들었다. 비상한 상황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이 임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특별한 부르심 없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일에 결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시작은 했으나 포기하게 되어, 그 일을 완수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나 자신의 수치와 미덕의 훼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대부분은, 사람이 그 영감 없이는 그러한 일을 결심할 뿐만 아니라 구상조차 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나 평범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게으름과 유혹으로 통하는 넓은 문을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은 훈육 아래 살아간다. 그는 자신의 완고한 마음을 정화하고 바로잡기 위해, 그 마음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 만일 마음이 스스로 선을 거의 원하지 않는다면, 원치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깨달음을 보내지 않으실 것이니, 그러한 하늘의 영감을 기다리다 보면 미덕을 위한 일생을 통째로 허비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도움을 주시지만, 행동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지 않으십니다. 노력을 기울이면 도움이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선한 일은 장애물 없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물은 합법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일이 합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장소나 시간, 혹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그 일이 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진정한 완전함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불법적인 장애물에 관해서는, 그것들이 선한 행위가 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힘과 끈기만큼이나 그 가치를 높여줍니다. 수행 과정에서 극복한 장애물이 많을수록 그 행위는 더욱 귀중해 집니다. 선한 일들을 그 선한 본성과 정당한 상황의 요구에 따라, 불법적인 방해물과는 대조적으로 행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악이 아닌 선이 나오도록 행하는 것은 분별력 있는 일이며, 이 한 학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가르쳐진다. “... 장로들에게 물어보라, ... 그들이 네게 말해 줄 것이다” (신명기 32:7).

또한 이러한 일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마치 내면의 불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힘을 움직이게 하는 반면, 감정과 마음가짐은 변함없는 내면의 평온 속에 머물러, 마치 행위의 열매가 자라고 번성하는 밭과 같으니, 행위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시작되고 멈추며, 차례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실하고 분별력 있는 노력가는 자신의 삶 속에서 선행을 이어가는 끊임없는 사슬을 형성할 수 있다. 이는 생각과 말, 움직임, 그리고 행동 모두를 선한 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시간은 인간에게 선한 일을 쌓도록 주어진 것이다. 만약 지금 이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며, 그 흐름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지점이 있다면, 사람은 그 지점들 각각이 선으로 채워지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잠이 방해가 되는가? 그러나 그것조차도 선, 즉 자기 희생의 행위로 바꿀 수 있다; 음식은 더더욱... 눈은 더욱더... 외적인 사람과 내적인 사람 사이의 조화를 이루라.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열정을 심어 주셨으니, 겉으로는 끊임없이 행할 일들을 제시하라... 그 둘 사이를 마치 양극처럼 오가며, 네 본성은 정화되고 거룩해질 것이다. 이를 위한 편리한 수단은, 각자의 삶이 언제나 선을 낳을 수 있는 끊어지지 않는 상황의 사슬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는 지금 누구나, 자신의 하루를, 즉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깊게 되돌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외적인 일 없이 오로지 내적인 일에만 국한되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이는 특히 이기심을 크게 꺾어야만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용서를 구하는 일 등에서 특히 그러하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몸과 영혼으로 창조하셨다. 그분은 사람의 행위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온전한 인격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게다가 선을 행하는 이에게 있어 가장 유익한 것은 그 일을 실행하거나 성취하는 데 있으며, 아무리 열렬한 소망일지라도 단지 소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완성된 행위만이 도덕적 완성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한 번 모욕을 참아낸 사람은 한 단계 더 높아지고, 다음 번에는 더 높아지며, 그렇게 계속됩니다. 반면, 단지 참아내기를 원할 뿐 실제로는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거나 심지어 뒤로 물러나게 되는데, 이는 실천하지 않을수록 그 소망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모으지 않는 자는 낭비하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완전함을 갈망하는 이들은 선한 행실을 실천할 기회를 찾아다니며, 기회가 닿았을 때 이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진정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행할수록 그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간다.

이처럼 선한 행실로 풍요로워져야 하지만, 선한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구원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니, 그 열정은 매우 창의적이기 때문이다.

d) 기독교인의 덕스러운 삶의 단계에 대하여

d) 기독교인의 덕스러운 삶의 단계에 대하여

앞서 제시된 덕의 세 측면은 그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정확한 출발점은 세레나 회개의 성사 안에서 은총으로 확립되는 기독교적 삶에 대한 열정이다. 이 열정은 끊임없는 행위의 연속을 통해 사람의 영과 마음에 선한 마음가짐을 심어준다. 소망과 도덕적 삶의 견고함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 달려 있으므로, 그것들이 확고해질 때까지 노력과 정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또한 우리가 바라는 만큼 빨리 확고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지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갓 심은 나무는 쉽게 뽑히지만,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것을 뽑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수고를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막 시작된 선한 삶의 초기 단계에서 선한 마음가짐은 불안정하고, 흔들리며,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에 걸맞은 행실을 실천할수록, 그 마음가짐은 더욱 견고해지고,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며, 마치 타고난 성품처럼 변해갑니다. 선한 성향이 마음속에 스며들수록 악한 성향은 마음에서 쫓겨나고, 영혼은 점점 더 순수해집니다. 이를 바탕으로, 덕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영적 삶의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단계들을 영적 삶의 성숙을 씨앗의 성장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씨앗은 처음에는 “*꿀을 내고, 그다음 이삭을 내고, 마침내 밀을 맺는다*”(막 4:28), 때로는 유아기, 청년기, 성인기 또는 완전한 단계와 같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장 단계와 비교하여 묘사된다(요일 2:12-14; 히 5:13-14). 영적 성장의 세

단계는 성부들(성교부들)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초심자, 성장하는 자, 그리고 완전한 자, 즉 회심, 정화, 성화의 단계입니다(『사다리』, 26단계).

이 각 단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성장의 일반적인 법칙은, 생명이 불꽃이나 씨앗처럼 잉태되는 순간부터 불꽃이나 열매 맺는 나무로 완전히 자라나거나, 이 세상 삶에서 가능한 모든 순결과 충만함으로 드러나기까지의 전 과정이, 악을 뿌리 뽑고 선을 심는 수고와 투쟁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디에서 유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성숙한 단계로 전환되는지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영적 생명의 움직임은, 마치 태양의 그림자가 움직이거나 육체가 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변화 없이 지혜롭고 끊임없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저술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유아기. 이는 기독교적 삶의 시작부터 이 삶의 질서와 기독교적 행위의 일반적인 규칙이 정립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삶의 외적 질서 속에서, 게다가 다양한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립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어긋나지도 않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참된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이것저것 시도해 보게 된다. 마찬가지로 내적 실천에서도 혼란을 주는 생각과 정욕에 맞서, 이를 쉽게 알아차리고 제압할 수 있는 실천 방식을 확립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말하자면 삶의 형태가 정립되는 동안, 영적 삶에서는 유아기 단계가 지속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고린도전서 13:11), 이 시기에는 유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확고하지 못함과 미성숙함, 어린아이 같은 사고와 어린아이 같은 말이 특징이다. 그리스도에 대해 젖먹이들에게는 “젖은 먹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히 5:12-13), “그리스도 말씀의 기초”(히 6:1), “순수하고 순결한 젖, ...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3)가 제시됩니다. 이러한 확고하지 못함과 미성숙함으로 인해 그들은 쉽게 흔들리며, 종종 “온갖 교리의 바람에 ... 기만과 속임수의 궤계에” (엡 4:14) 휩쓸리기도 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서 초연함보다는 관대함을 더 많이 허용합니다 (고전 3:1-3).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 “아버지를 아는 것”(요일 2:13-14),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베드로전서 2:3)이 스며든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속성이다. 아이는 오랫동안 아버지와 어머니를 낯선 사람과 구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그들을 구별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삶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죄인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처음에는 그분을 엄한 심판자로 보게 되지만, 그 후 세례나 회개를 통해 정화되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아버지로써 느끼게 된다. 실로 내면의 사람으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보살핌을 느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갓난아기의 특징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길이 되시니, 그분은 보이지 않게 이 우유부단한 삶의 시기를 지나가게 이끄십니다. 그들의 동기부여 중에서는 두려움이 더 큼니다. 성 요한 사다리꾼은 이러한 초심자들에게 주로 육체적인 수행, 즉 금식, 삼베 옷, 재, 침묵, 노동, 철야 기도, 눈물 등을 권장합니다(26절).

청년기. 이 시기는 정욕을 근절하고 선한 성품을 심어내기 위한 투쟁과 수련의 시기이다. 전쟁에서 군대의 질서가 정립된 후에 전쟁이 시작되거나, 농부들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에 파종을 시작하듯이, 여기에서도 삶의 형태가 정립되면 내면의 악을 단호하게 추방하고 선을 뿌리는 일이 시작된다. 이는 유아기에는 악을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악을 말하자면 체계적이고 철저히 추방한다는 의미이다. 자연적인 삶에서 청년이 스스로를 단련해야 하는 수고가 있듯이,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영적인 청년들에 대해 그들이 강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므로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하시는가(요일 2:14). 예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받아들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들의 생명력과 피가 되어 그들 안에 거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힘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에 그치지 않고, 말씀의 창조자가 되어 그 힘으로 마치 칼처럼 악한 자를 물리치고 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진리, 즉 모든 것 밖에 계시는 속죄와 구원의 진리이시며, 이제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거하시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있어 특징적인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힘의 감정입니다.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모든 것.” 청년은 희망 속에서 살아가므로, 그에게 있어 가장 본능적인 동기는 의심할 여지 없는 희망, 즉 완전함에 도달하고 영원한 복을 얻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성 요한 사다리꾼(같은 책)에 따르면, 이 시기에는 주로 영적 수련들이 체화되는데, 이는 허영을 버리는 것, 분노를 버리는 것, 선한 소망, 온유한 권면, 흠 없는 기도, 재물을 탐하지 않는 태도 등이다.

남성기. 이 시기는 내면의 투쟁이 가라앉고, 사람이 영적 복의 평안과 달콤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때이다. 수확 후 수고의 열매를 맛보는 농부, 또한 발효되어 부풀어 오르고 완전히 성숙한 반죽은, 이 모든 것이 성숙한 나이를 상징하는 비유들이다. 지혜로운 시라흐는 지혜가 처음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를 괴롭히고 시험하다가, 그 후 그에게로 돌아와 그를 기쁘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밝혀주는 모습을 묘사한다(시라흐 4장 등).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영적 남자의 특성이다. 우리는 남자에게 확고함, 품위, 흔들림 없음, 경험의 깊이를 부여하며, 영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완전함을 부여하신다: “그에게는 단단한 양식이 어울린다”(히 5:14),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훈련된 분별력을 지녔으며; “시작이 없으신 분, ... 태초부터 계신 분에 대한 지식”(요일 2:13-14); 즉 그들에게는 가장 은밀한 신성한 속성과 비밀들이 드러나는 반면, 청년과 유아에게는 자비와 권능과 같은 더 명백한 속성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의 동기 중에서는 사랑이 더 본연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분의 나이에 이르러,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께로 돌려드리기”(엡 4:13, 4:15)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생명이시며, 그들을 소생시키고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갈 2:20). 그러므로 이미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고후 5:15) 살아가므로, 그들은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이해에 맞추어 간다. 성 요한 클리마코스(사다리)는 그들에게 주로 성령 안에서의 삶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머무르는 것을 가르칩니다: 속박받지 않은 마음, 완전한 사랑, 정신으로 세상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기도 중에 영혼과 생각이 하늘의 빛으로 가득 차고 산만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풍성한 계몽, 죽음에 대한 갈망, 삶에 대한 증오, 천상의 신비를 품는 것, 악마에 대한 권세,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는 것 등입니다(같은 곳).

영적 삶에서의 성장에 관해 일반적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것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마태복음 5:48)는 목표가 주어졌다. 자기 안에 무한한 본보기를 구현하고자 하는 열망은 사람을 무한한 단계들을 거쳐 나아가게 하며,

완전함은 어떤 일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체를 포함하여 존재의 모든 부분과 능력, “지혜”(눅 2:52), “믿음”(눅 18:8), “소망”(롬 15:13), 그리고 자기 희생과 자기 비하(빌 2:7-8), “육체의 죽음과 거룩하게 함”(고전 9:27; 롬 8:7)에 이르기까지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완전함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내면화되는 모든 것이 내재한다;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완전함의 단계는 오직 상대적으로만 최상의 것일 뿐이며, 그것들은 궁극적인 순수함과 성숙함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는다. 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서 있는 줄로 여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명령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 “나는 이미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는가(고전 10:12; 빌 3:13-16).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때는 결코 없으며,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태워야”(딤후 1:6) 하며, 지치지 않고 “완전함에 이르기”(히 6:1) 위해 힘써야 한다. 마카리오스 대성인은 온전한 자들조차 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때로는 높아지기도 하고 때로는 낮아지기도 하며, 심지어 그들에게조차 우리 썩어질 본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항상 가장 높은 단계에 머물 수 없다고 증언한다(참조: 『설교』 8, § 4). 성 사다리꾼은 예프레무스 시리아인을 예로 들며, 그가 무정(無情)의 정점에 올라서서 하나님께 “다윗이 ‘나를 쉬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시 38:14; 사다리, 26절), 주의 은혜의 파도를 나에게 누그러뜨려 주소서”라고 간구했다고 전한다.

이 사실을 알기에, 누구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 후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다만 한 가지,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열정이 있는 한, 성공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쩌면 때때로 어떤 선한 일을 위해 힘내어, 비록 머리카락 한 올만큼이라도 우리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꺼져 버리면, 그때는 모든 것이 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요새가 되어 주시기를!

한 가지 생각을 더 덧붙이겠습니다. 참된 기독교적 삶의 높은 가치, 즉 미덕의 높은 가치와, 동시에 겉으로 보기에 부러울 것 없는 그 상태에 대한 것입니다. 이 대조는 매우 교훈적입니다. 이 땅에는 기독교적 미덕의 가치와 비교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세주께서 유일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미덕입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목표는 오직 기독교적 미덕을 통해서만 달성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복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적 미덕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존경받을 만한 대상들이 많습니다: 예술, 과학, 선한 통치, 부, 명예 등.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덕 없이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

익이 있겠느냐?”(마태복음 16:26). 미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은 수학적 0과 같으며, 0이 숫자에서 의미를 얻는 것처럼 오직 미덕으로부터만 의미와 가치를 얻습니다.

미덕을 얻은 자는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을 얻은 것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빼앗길 수 있으며, 죽음의 순간이 오면 반드시 사람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덕은 이 시험의 고비를 무사히 통과하여 사람과 함께 천상의 조국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과의 비교 없이도 선한 기독교적 삶의 질서에 주목한다면, 그 안에 담긴 새로운 놀라운 장점들이 드러날 것이다.

진정으로 기독교인답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분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분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그분의 삶과 뼈로 이루어진 지체이다. 그는 하나님의 교제자이자 성사의 참여자이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처이자 천사들과 성도들의 동역자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을 누리는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치 휘장 너머로 들어가듯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순수한 기도 속에서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조국은 하늘이며, 그곳에는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는 유산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티호노 대주교가 저술한 『기독교인의 특권』(저서 제9권)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기독교인은 선한 삶의 이러한 특권을 더 자주 상기하여, “하늘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더 자주 외쳐야 한다. 선한 기독교적 삶의 이러한 높이를 볼 때, 그에게 밝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기대할 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약속하지 않으며, 실제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기독교인으로 살기 시작한 사람은 좁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기 시작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욕을 당하시고, 모든 인자보다 더 낮추심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리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으니, 이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8-19). 사도들은 자신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 마치 세상의 버림받은 자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다”(고전 4:11, 4:13). 그들을 따라,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시대에도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박해를 받는다”(딤후 3:12). 이보다 다른 방식은 있을 수 없다. 악에 빠져 있는 세상은 책망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탄은 적대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둠의 통치자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군사이므로, 세상의 악과 그 통치자가 쏘아대는 화살의 표적이 됩니다. 처음부터 그는 의심과 위선 및 위선적 행실에 대한 비난에 직면하며; 이어서 하나둘씩 개인적인 모욕, 특권의 박탈, 눈에 보이는 박해, 사방에서 닦치는 악의가 뒤따르는데, 이를 일으키는 자들 중 누구도 그 원인을 단호히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겉모습이 타들어 갈 때, 그의 내면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향해 단계별로 올라가는 사다리이다. 이 질박한 그릇 안에 영의 보화가 쌓여 간다. 그 안에는 인간의 각 부분과 능력, 즉 영과 영혼과 몸, 이성과 의지와 마음의 모든 완전함이 형상화되며, 그리고 점점 더 굳건해지면서,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갓난아이에서 마침내 성숙하여 다른 세상, 즉 이 준비의 세상에서 진정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준비된 성인으로 변모하며, 스스로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갈망한다. 마침내 수고하는 나그네는 여정을 마치고, 고통 없이 나그네

의 옷을 벗어 던지며, 천사들에게 환영받으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여 자신의 자리에 안치되고, 그곳에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 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복락을 누리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죽을 몸이 불멸의 몸을 입을 때까지 머무르게 된다. 그때, 온 존재가 신성으로 충만해져, 그는 아버지의 왕국에서 태양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 후, 행복과 복락이 선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저절로 해결된다: 현세에서 영적 완전함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복이 주어지지 않지만, 그들은 오직 내면의 영적 복만을 이곳에서 누리며,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며,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항상 기뻐하고 충만해집니다. 고통이 없는 내세에서는, 이 영적 복락이 온전한 힘으로 나타나며, 재림 전까지는 오직 영적으로만 체험됩니다. 그러나 재림 후에는 우리 변형된 육체도 이 복락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그때 의인은 온 존재로써 끝없는 세월 동안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결말이 모든 일을 완성합니다! 영혼이 이를 간절히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무슨 재앙이 있겠습니까? 조금뿐입니다... 오늘, 내일이면 끝입니다!

2) 죄에 대하여

죄 또한 미덕과 마찬가지로, 그 발현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 가) 행위로서, 나) 성향이나 정욕으로서, 다) 상태이자 영혼의 죄악된 기조로서. 그리고 죄 많은 삶에도 미덕이 있는 삶과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단계가 있다.

3)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죄

a) 행위로서의 죄

a) 행위로서의 죄

죄란 무엇인가? 죄악된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며, 사도가 말한 대로 “*죄는 불법*”이다(요일 3:4). ‘위반’과 ‘계명’이라는 두 단어에서 죄의 두 가지 특징이 즉시 드러난다. 전자는 자유의 남용이고, 후자는 법에 대한 경멸이다.

죄는 오직 이성을 지닌 존재들, 즉 무형의 존재와 육체를 지닌 존재들에게서만 발생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특별한 특권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특권 바로 옆에는 한 걸음만 벗어나도 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외면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에 자유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유의 목적과 소명은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강요받지 않고 섬기며, 하느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행함으로써 더 큰 은총을 누리고, 가장 광대한 행복의 그릇이 되는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피조물은 자유를 남용하는 것이다. 이는 피조물이 어떤 필연성이나 운명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도 그 뜻을 이행할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교회 신앙

고백서』에는 죄가 인간과 마귀의 제멋대로인 의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아무도 마귀가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지만, 자유가 묶인 것은 아니었고 단지 현혹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계명을 어겼을 때, 자유롭게, 스스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온갖 정욕이 솟아오르고, 세상과 마귀가 싸워도, 모든 죄는 결국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이며, 강요받지 않은, 제멋대로인 의지의 결과입니다.

죄는 범죄이거나 법의 위반이다. 그러나 법 그 자체는 변함없이 남아 있다. 법은 오직 죄를 짓는 자 안에서만 무너지고 위반된다. 예를 들어, 불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신앙 그 자체는 건드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모독한 것은 오직 자기 자신 뿐이며, 바로 이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경멸하며, 짓밟음으로써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을 경멸하는 것은 죄의 불가분의 특징이며, 법을 경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도덕법은 인간의 본성에 각인되어 있으며 내면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그 구조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를 어기는 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반하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고 망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의 안녕과 건강에 있어 변함없는 조건은 그 안에 내재된 원리들이 방해받지 않고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는 법을 제멋대로 위반함으로써 인간을 독살하고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에 대한 반항으로부터는 필연적으로 죽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른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죄는 이러한 자제력을 잃은 의지, 법에 대한 경멸, 그리고 죄인에게 되돌아와 작용하는 이 파괴적인 힘으로 특징지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죄가 우리 능력의 결핍과 불완전함에 기인하며, 우리의 한계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전지전능하지 않으므로 성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역시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의 본성에 부합한다. 만약 우리에게 천사와 같은 삶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죄가 마음의 근시안이나 분별력 부족의 결과라는 주장도 틀렸다. 즉, 목표를 잘못 정했거나 수단을 잘못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죄에서도 일어나지만, 죄는 본질적으로 의지의 타락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가 있다**”(야고보서 4:17).

1b) 죄는 어디서 오는가? 죄의 기원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은 마귀에게서나 인간에게서나 놀랍기 그지없다. 방금 창조주의 손에서 나와 창조주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높은 덕목을 지닌, 천사와 같은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이성적 피조물을 상상해 보라. 그는 계명을 받고, 곧이어 창조주의 뜻을 완전히 깨달으며, 그분의 금기와 기뻐하시는 일,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알면서도, 그분께 거스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생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도덕적 신비입니다! 영 안에서 한 생각, 즉 내면의 말이 생겨났고, 그것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의 악을 낳았으며, 그 악은 너무나 강력하여 영원한 세월 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의심할

여지 없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다! 자유로운 존재는 일들의 불확실한 시작이며, 그에 대해 항상 ‘왜?’라고 대답할 수는 없다. 단순히 ‘내가 원하기 때문’이고, ‘원하는 것은 단지 원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서 죄의 탄생은 설명하기 어렵다. 그 역시 모든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타락한 죄인의 경우, 죄의 발생은 아직 이해할 수 있다. 죄를 지은 자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죄를 자신에게 심어 놓았으며, 마치 규칙처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했던 최초의 인간의 타락, 혹은 지금, 선을 행하며 그 달콤함을 맛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의로운 사람들의 타락은 무엇 때문이며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히브리서 다음 구절이 이에 대해 어느 정도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 누구의 마음에도 불신앙의 악한 생각이 들어와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오늘’이라 불리는 동안 매일 서로 위로하여, 너희 중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 인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라*” (히 3:12-13). 여기서는 죄가 불신, 진리에 대한 확신의 약화, 마음의 어두워짐에서 시작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진리와 하나님, 그분의 율법, 그리고 신성한 질서에 일정한 그림자를 드리우며, 결과적으로 그 그림자가 커짐에 따라 그것들을 의식에서 멀어지게 한다. 마귀는 태초에 우리 조상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둡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행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의 시작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자의 의무는 믿음을 가능한 한 자주 맑게 하는 것이다. 그다음 불신에 죄악적인 유혹이 더해지는데, 이는 아무런 수고 없이 단지 죄만 짓는다면 저절로 찾아올 엄청난 달콤함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주의와 마음을 죄의 대상에 묶어둔다.

그때부터는 오직 이 대상 하나만을 생각하고 갈망하게 된다. 율법, 진리, 영의 필요, 하나님의 말씀—모든 것이 무의미해진다.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 무감각해졌거나, 이미 완고함과 불복종에 안주하여 “물러가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사나운 짐승처럼 죄를 향해 달려든다. 그러나 모든 것의 기초이자 가장 깊은 곳에는 간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양심 부족, 자기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기만이며, 비록 그분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말이다. 그 마음은 바로 그곳에서 모든 죄의 과정을 주관하며, 모든 일을 움직이게 하고 스스로를 가린다.

이처럼 죄의 메커니즘이 어느 정도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이 죄에 대한 완전한 설명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성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에게서 이러한 성실하지 못함과 교활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더 나아가, 믿음으로 숨 쉬던 사람에게서 불신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죄를 미워하던 사람에게서 죄악적인 아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온유하고 온순하던 사람에게서 완고함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라. 천사가 음식을 가져다줄 정도로 성공했던 한 성스러운 수행자의 예를 떠올려 보라. 어떻게 된 일인지, 그가 광야를 떠나 이미 세상으로 도망쳤던가?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도망쳤을 것이다. 그렇듯 죄는 신비이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죄에 대해 지극히 유죄하지만, 왜 죄를 짓는지 스스로에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간접적인 추론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죄의 근원 자체도 마귀에게로 돌릴 수 있다. 마귀는 영혼에 그림자와 어둠을 드리우고, 마치 취한 듯한 상태로 유지하며, 결국 영혼이 먼저 자

기 안에서, 그다음에는 외부로 죄를 낳게 만든다. 그러나 이것이 영혼을 변명해 주지는 못한다. 유혹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율법으로부터 제멋대로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라: “주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1가) 죄의 종류. 죄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는 죄의 다양한 종류를 열거하겠는데, 그 안에서 죄의 사악하고 암울한 본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안내하기 위해 죄에 대한 간단한 개념을 바탕으로 삼자. 죄란 무언가를 하라고 명하거나 금지하는 계명을 어기는 행위이며, 자발적이고 강요받지 않은 범죄이다. 따라서 계명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는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시 33:15)고 명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해야 하고, 다른 한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습니다. 계명을 위반하는 것과 이행하지 않는 것 모두 죄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중대한 죄인데, 계명을 위반하는 것은 특별한 힘을 기울여야 하며, 큰 고집과 의지의 타락에서 비롯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홀히 하는 행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들이 있으며, 종종 위반 행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특히 그러한 소홀함이 법에 대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무관심이나 경멸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리고 그 자체로 중요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해롭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더욱 해당된다. 아버지, 사제, 교육자 등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 즉 최후의 심판에서 소홀히 한 행위의 죄책감을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란트를 숨겨둔 “무능한 종”에게는 “그를 지옥의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마태복음 25:30);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무정한 자들에게는 “너희가 ... 하지 않았으니 ...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해질 것이다(마태복음 25:40-41).

그러므로 도덕적 완전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의 양심 속에서 율법의 긍정적 명령에 대한 의무감을 온전히 회복하고 이를 이행해야 하며; 반면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후회와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회개를 통해 이를 정화해야 한다. 왜냐하면 종종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무에 대해 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단지 큰 위반이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라고 말하며,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저지른 소홀함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죄의 영역에 더욱 다양한 양상이 도입되는 것은, 죄가 강요되지 않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계명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라는 특성 때문이다. 모든 자유로운 행동은 이성과 의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죄에 더 크게 관여하거나 그릇된 작용으로 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힘이 이성인지 의지인지에 따라 죄는 서로 다른 명칭, 뉘앙스, 유형을 갖게 된다.

도덕적 활동에서 이성의 역할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무를 명확히 깨닫게 한 다음,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때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이행해야 하는지를 엄격히 감독하는 것이다. 이성이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때, 한편으로는 무지의 죄가, 다른 한편으로는 부주의의 죄가 발생한다.

자신과 자신의 소명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은 힘과 능력에 따라 자신의 의무에 대한 지식을 쌓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스스로 명확히 깨달아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주어졌으니, 이는 배우지 않아도 자신의 의무를 알게 해주는 이 무문법(無文字法)이다.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모든 이에게 공개된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의 끊임없는 설교, 그리고 목회자들의 구두 가르침이 더해지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네 아버지께 묻으라. 그리하면 네 조상들이 네게 알려 주고 네게 말해 주리라”(신명기 32:7). 또한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선포할 모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을 삼가 지켜라”(신명기 24:8)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누구나 “아! 나는 몰랐구나”라고 말하곤 하는데, 즉 무지함을 탓하는 것이며, 특히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모든 무지가 똑같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해야 한다:

마음이 순수하게 살며, 가능한 한 알아내고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그 와중에 죄임을 의심하지 못한 채 맑은 양심과 아무런 의심이나 망설임 없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른다면, 그에게 실제로 있는 유일한 죄는 바로 ‘무지의 죄’뿐이다. 즉,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위이긴 하지만, 그에게 전적인 책임이 묻히지는 않는 것이다.

자신과 자신의 의무에 무관심하며, 자신의 구원에 대해 안일함과 무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무지 때문에 나쁜 일을 저질러도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선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설령 선을 알게 되었다 해도 아마도 행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러한 무지함이나 미덕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감 때문에 선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두 가지 면에서 죄를 짓는다. 즉,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점과, 그러한 무지 때문에 저지르는 행위들이다. 의무를 알기를 꺼리는 마음 속에는 그 반대를 은밀히 원하는 마음이 숨어 있다.

이러한 무지는 의지를 더욱 타락하게 드러낼수록 더 큰 죄가 되는데, 즉 알지 못하는 대상이 중요할수록—예를 들어 신앙의 대상, 특히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자신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무들—모르는 것을 능력이나 외적인 수단을 통해 알기 쉬울수록; 그에 대한 동기를 단순히 가질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느낄수록 더욱 그러하다.

불경건의 극치는 무지 속에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게으름과 부주의 때문일 뿐만 아니라 혐오나 경멸 때문에 알지 못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그 질서 속에 머물러 있을 때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지만, 정작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기독교를 비방하는 자들이다.

즉,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행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누군가 자신의 의무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알고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에 따른 행동을 할 때 스스로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다면, 그는 죄를 짓는 것이며, 이러한 종류의 죄를 ‘부주의와 경솔함의 죄’라고 부른다.

이러한 종류의 죄에 관해서는 다음을 알아야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힘의 혼란이나 그 변동성, 그리고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내면과 외면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엄격히 관찰하며, 깨어 있는 마음과 냉

철한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 중, 원치 않게, 스스로도 모르게 생각이나 말, 행동으로 어떤 죄에 빠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즉시 마음속의 증오로 그것을 배척하며, 회개의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면: “나의 은밀한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시 18:13) – 그 사람의 잘못은 무죄하다. 이는 연약함에서 비롯된 일이지, 예를 들어 비난이나 시기 같은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알아차렸을 때 마음으로 배척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즐거움에 빠지는 자는, 결국 이전에는 보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며 선택하지도 않았던 것을 나중에 선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마땅히 올바르게 행동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할 때만 자신의 기질이나 마음의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 예를 들어 성급함, 경박함, 가혹함, 거짓된 관대함 등과 같은 경우, 그 행위는 범죄적인 부주의에 해당하므로 죄가 된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그들이 저지른 행위의 대상이 그 자체로도, 그 결과로도 더 중요할수록, 그러한 행동의 부도덕함이 이미 경험에 의해 더 많이 폭로되었을수록, 그리고 사람이 그러한 실수를 바로잡기가 더 쉬울수록 더욱 중대해진다. 여기서 죄책감은 스스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의해서만 경감되는데, 이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따라서 여러 번의 실수를 거듭하며 이루어진다.

산만하거나 단호하게 부주의하며, 미덕과 도덕성을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죄인이다. 그의 죄악성은 그의 무심함이 더 뻔뻔할수록, 의무에 대한 경솔함이 더 노골적일수록,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자각이 더 분명할수록 더욱 무겁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생각의 허리를 동여매야 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두 눈으로 발밑을 살피며, “주님의 말씀대로 제 발걸음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죄를 인간의 의지와 자발적 행위의 관여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죄의 근원과 시작, 혹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중 하나를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든 행위는 그 사람 자신에게서 직접 비롯되거나, 외부에서 오는 타인의 요구와 자극, 혹은 자신의 하급한 본능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죄도 어떤 이는 방탕한 욕망에 휩쓸려 짓고, 어떤 이는 냉철한 판단에 따라 짓는다. 후자는 악의나 악의적인 의도, 방탕함에서 비롯된 죄이며, 전자는 정열과 충동에서 비롯된 죄이다.

음탕하고 악한 마음과 심장에서 비롯된 죄들이 가장 중대한 죄라는 점은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다. 이는 여기서 사람이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악의 근원이 되며, 결과적으로 악을 즐기고 오직 악만을 생각하는 사탄과 매우 유사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는 이미 악의 심연 속에 서 있으며, 그곳에 이르러서는 “기쁘지 아니하며”(잠언 18:3), “악을 행하지 아니하면 잠들지 못하리라”(잠언 4:16)고 한다. 그러나 충동에 의한 죄에 대해서도, 그것들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해야 한다. 물론 지금 우리의 본성은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연약하며, 혼란스럽고, 자기 만족에 빠지기 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본성이 내세우는 나쁜 요구에 동의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동의 여부는 언제나 우리 손에 달려 있으며, 특히 힘을 부여받고 부르짖을 때 든든한 도움을 약속받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빌 4:13). 그러므로 충동과 정욕에 의한 죄를 단지 ‘악함’의 죄라고 부르는 것은, 도덕적 세계에 방종과 부도덕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다. 경험상 사람들은 이 명칭을 정

욕, 취향, 본능, 충만함의 충동, 혹은 삶의 유희와 같은 욕망에 더 많이 적용하려 한다. 보아하니, 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곳일수록 그곳에 대해 관대해지려는 것 같다. 아무리 강한 열정이라 할지라도, 대상을 선택하고 갈망한다면, 그 행위는 의지의 타락을 드러내며 비도덕적인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로 삼아야 할 경우는, 순간적이고 예기치 않게 격정(激情)이 솟구치는데, 그 강도가 너무 세서 사람이 마치 취한 듯하거나 정신이 흐려진 것처럼 죄에 휩쓸리는 경우뿐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도 매우 드물며, 한 사람에게서 단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죄의 유죄 정도는 유혹의 강약, 정욕이 오래된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종류의 죄에 새로운 뉘앙스가 생기는 것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내면에서 저절로 혹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정욕이 끓어오르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장소, 시간, 인물 등의 상황이 종종 죄를 짓기 쉬운 기회를 제공하며, 정욕을 자극하여 죄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조차 죄를 정당화하지는 못하며, 오히려 그 반대로, 죄로 이끌었던 상황이 미리 예견되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 있었을수록 죄는 더욱 중해진다. 왜냐하면 여기서 명백히, 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는 화상을 입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생각이나 마음이 악으로 물드는 그런 집에 드나드는 사람은, 나중에 악한 일을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몸과 세상과 시간을 모두 바친 영혼을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생각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죄의 형성 과정은 성부들에 의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과정의 각 단계에서 개인의 책임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 과정 전체는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먼저 ‘계기’가 있고, 그다음 ‘주의’, 그다음 ‘즐거움’, 그 뒤를 이어 ‘욕망’, 그로부터 ‘결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위’가 있다(필로페이 시나이오스, 『선행』 제3권, 제34장 및 이후 참조). 어떤 단계가 결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리고 끝이 가까워질수록 그 단계는 더 중요해지고, 더 타락하며, 더 죄가 된다. 죄책감의 정점은 행위 단계에 있으며, 유혹 단계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상상은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으로, 감정의 작용이든 기억과 상상력의 작용이든 간에 우리 의식에 떠오른 것이다. 이미지의 생성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는 여기에 죄가 없다. 그러나 때로는, 예를 들어 꿈에 대한 허용으로 인해 유혹적인 이미지가 마음에 떠오를 때, 죄책감이 간접적으로 이곳으로 넘어오기도 한다. 종종 스스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는데, 그럴 때 그 이미지의 성질에 따라 이 행위는 죄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신성한 일들에 두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주의란 생겨난 형상에 의식이나 마음의 눈을 고정시켜, 마치 그와 대화를 나누듯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단일하거나 복합적인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 행동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는 바, 의지에 반하여 생겨난 형상은 즉시 쫓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는 더 큰 죄가 된다. 내면적으로 죄악된 대상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속의 악한 기질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는 깨끗하고 평화로운 안식처에 불결한 동물을 들여보내거나, 정직한 손님들과 함께 역겨운 불경한 자를 앉히는 사람과 같다. 물론 때로는 그 대상이 새로움이나 놀라움으로 주의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일단 그 불결함과 유혹을 인식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쫓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동의가 개입되어, 무의식적인 행위가 의도적인 행위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순간은 도덕적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는 행동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에서 있는 것이다. 생각을 쫓아낸 자는 모든 싸움을 잠재우고, 죄를 낳는 모든 과정을 중단한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주의를 생각에 집중하고, 그것과 싸우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성자들의 모든 규칙도 주로 이 점을 향하고 있다. 여기서 상상력과 제멋대로인 몽상들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저절로 드러난다. 그들이 허용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죄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독서, 청취, 시각, 대화와 같은 어떤 외적인 수단이 동원된다면 이 죄는 더욱 중해집니다. 이러한 외적인 수단들 또한 죄로 이끄는 계기로 간주됩니다.

기쁨이란 마음과 정신이 어떤 대상에 집중한 뒤 생겨나는 감정이다. 이는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과정에서 그 대상이 우리에게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이를 지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그 대상을 아껴줄 때 찾아온다. 최악된 대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그 자체로 이미 죄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쳐져야 한다면, 다른 대상들과의 어떠한 결합도 그분께 대한 충실함을 저버리는 것이며, 연합의 파기이자 배신, 영적 간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야 하는데, 이는 마음이 불법을 저지르며 그 대상들로부터 즐거움을 얻기 시작할 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악해지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5:18). 그러나 욕구에서 비롯된 모든 움직임처럼, 의지의 작용과 전혀 무관한 육체와 마음의 즐거운 움직임들도 있다. 그러나 처음에는 무죄했던 그것들도, 일단 의식되고 그에 대한 호의나 불법적인 충족에 대한 동의로 위장되는 순간, 곧바로 무죄하지 않게 된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나중에는 이미 도덕적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한다. “그것들을 알아차리면 분노하라.” 여기서 자연스럽게 미적 쾌락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들은 그 내용이나 형식이 마음과 풍속의 순수함과 부합하지 않는 정도만큼 범죄적이다. 장인들의 뛰어난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목적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이성으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헛되고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 그 효과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잠자리에 들 때, 타인의 선함을 보고 마음이 상했다면 용서를 구하며, 이를 통해 낮 동안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정화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쾌락은 필연적이거나 억제할 수 없이 솟아난다. 이때 한 가지 규칙이 있다: 허락하지 말고, 물리치고, 분개하라.

쾌락에서 욕망까지는 한 걸음 거리다. 이 둘의 차이는, 즐거움을 누리는 영혼은 자기 안에 머무르는 반면, 욕망을 품은 영혼은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대상을 갈망하며, 그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욕망은 결코 무죄할 수 없는데, 이는 동의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마치 동의에서 비롯된 것처럼 동의와 동시에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의는 언제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욕망과는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으로 결단력이 구별되는데, 바로 그 결단력이 생겨나는 구성 요소나 조건에 가능성에 대한 확신과 수단에 대한 통찰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욕망하는 자는 그 일에 대한 동의를 표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구상하지도 않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반면 결심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미 검토되고 결정되었으며, 남은 것은 해당 일을 수행하기 위해 신체의 부위나 다른 힘을 움직이는 것뿐이다.

마침내 이마저도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죄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내면에서 잉태되어 외부에 불법을 낳은 타락의 열매인 ‘행위’가 나타난다.

쾌락에 빠진 후, 그 행위에 대한 열망은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굴러 떨어지는 무거운 돌처럼 순식간에 솟아오른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다: 마음이 아직 그 생각들에 상처받기 전에 그 생각들을 싸워 물리치고 쫓아내라. 그때가 되면 승리는 매우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죄가 형성되는 주요 과정에서는 인간의 여러 능력이 차례로 죄와 결합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쾌락 속에서 마음이 더럽혀진 후, 욕망 속에서 의지가 더럽혀지고, 결심을 통해 수단을 고안함으로써 이 더러움에 이성도 가담하게 되며, 마침내 행동에 이르러서는 육체의 힘마저 죄에 물들게 되어, 온전한 인간이 죄인이 되어 버린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일을 탐내거나 동의한 자조차도, 마음의 비밀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덕적인 의미에서 죄를 범한 것이다. 사도 야고보는 “*욕심을 품은 자는 죄를 낳는다*”(야고보서 1:15)고 말하며; 주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와 간음한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5:28). 그러나 결심한 자는 그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더 큰 힘을 쏟았기 때문이며, 내면의 죄악이 더 크고, 의지의 완고함과 타락이 더 심하기 때문입니다. 결심에서 실행까지 단 한 걸음뿐입니다.

비록 욕망과 결심 속에 이미 죄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된 행위 자체에 그들의 죄악성에 더할 것이 없고, 그 행위 자체가 그들보다 더 죄가 많지는 않다고 결론지어서는 안 된다. 결심한 자는 아직 그 행위를 포기할 수 있거나 그럴 시간이 있으며, 따라서 한 번은 율법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양심이 요구를 제기할 때 다른 기회에 그에게 복종할 수 있다; 반면 그 행위를 저지른 자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법을 짓밟는다. 행위를 저지르는 자는 그 행위가 지속되는 내내 끊임없이 그를 훈계하는 양심과 싸우게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욱 타락시키고 자신의 도덕적 본성을 파괴한다.

그 일을 저지르는 자는 온 존재를 죄로 채우고, 모든 힘과 온 존재를 죄 쪽으로 기울여 이끌어 간다. 그 때문에 첫 번째 행위에서부터 이미 습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한 번 저지른 자는 다음 번에는 더 빨리, 더 기꺼이 저지르게 되며, 특히 육체적인 죄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죄로 인한 악한 결과는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유혹, 건강의 쇠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피해는 이미 그 행위 자체에서 비롯된다.

이로부터 자유 의지가 아닌 필요나 외적 불가능성 때문에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는 저절로 명백해진다. 이 죄의 중대함은 행위와 거의 같다. 둘 사이의 차이는 오직 결과에만 있으며, 게다가 모든 내적 결과는 이미 존재하고, 외적 결과만 부족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그 차이는, 그 행위로부터 예상되는 나쁜 결과가 작을수록 또는 클수록, 그만큼 더 작아지거나 더 커진다. 그런 결과가 없고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는, 말하자면 그 차이도 사라진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내적 죄와 외적 죄가 구분된다.

외적 죄의 범주에는 우리에게 귀속되는 타인의 죄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는 그러한 경우 타인들이 마치 우리의 내적 죄를 실행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며, 이는 마치 우리의 힘과 육체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 작용하는 것과 같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 타인의 죄에 가담하게 되는가?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에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 담겨 있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우리가 단지 타인 앞에서만 드러내

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통해 타인이 위반한 도덕 법칙에 대한 경멸과 무시를 내면에서 품고 키울 때, 그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양심 속에서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당연히, 타인의 죄가 우리에게 귀속되는 정도는, 우리가 그 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와, 그로 인해 우리가 도덕 법칙에 대해 얼마나 경멸을 품고 있는지에 비례한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소 엄격한 명령, 다소 설득력 있는 조언, 다소 달콤한 동의, 다소 의도적이고 아첨하는 유혹, 다소 관대한 묵인이나 방조, 또한 승인, 반대하지 않음, 밝히지 않음 등이다. 타인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는, 자녀를 제지하지 않는 부모의 죄나, 제자들의 약점을 바로잡지 않는 교육자의 죄, 혹은 잘못된 교육을 받아 책과 그림, 조각상 등으로 사방에 유혹을 퍼뜨리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을 막고 선을 돕는 것이 쉬울수록, 타인의 죄에 대한 우리의 가담은 더욱 사악하고 비도덕적입니다.

일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며, 스스로를 살피고, 마음속으로 죄의 더러움이 스며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중요도의 차이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죄에 대한 간단하고 간결한 고찰만으로도, 죄들이 중요도와 강도가 각기 다르며, 약한 죄, 악한 죄, 그리고 가장 악한 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중요도의 차이는 때로는 죄의 대상에 따라, 때로는 그 죄에 가담하는 마음의 타락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첫 번째 측면에서 죄는 중죄와 경죄로 구분됩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들이 각기 다른 중요성을 지니듯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즉 죄들도 그 중대성이 같지 않다. 그리고 이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무의 중요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한다. 즉, 죄는 도덕적 세계에 혼란을 초래할수록, 다시 말해 도덕적·기독교적 삶의 정신과 하나님 및 이웃에 대한 사랑에 더 크게 반할수록 더 중대하다. 예를 들어, 신성모독이나 교회에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그러하다; 양심과 계시를 통해 특정 행위에 대해 우리를 필연적으로 얽매이게 하는 근거가 더 많이 부여될수록, 예를 들어 부모나 평범한 사람에 대한 불경; 마지막으로 죄의 대상이 더 많을수록... 예를 들어, 조금 훔쳤는지 많이 훔쳤는지, 말이나 행동으로 모욕했는지, 처음인지 이미 여러 번인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마치 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한 순전히 추상적인 척도일 뿐이다. 실제로는 가장 다양한 조건에 좌우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은 이론적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다만, 중죄와 경죄의 이러한 구별은 결코 다른 죄를 더 대담하고 과감하게 저지르기 위한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죄는 중죄이니,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어떤 죄든 경계해야 한다. 다만 죄의 중대함에는 다양한 정도가 있을 뿐이며, 그 차이가 워낙 커서 어떤 죄는 다른 죄에 비해 가볍게 보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벼움은 단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를 아는 것은 도덕적 내적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 감각을 연마하며, 특히 양심의 혼란을 피하거나 그 병을 치유하는 데 있어 무익하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거의 매 걸음마다 자신이 더 중대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죄의 중대성에 대한 이러한 단호하고, 명료하며, 수치화된 정의는 그를 크게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방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망각으로 인해 자신의 죄와 타

락한 행실에 대해 지나치게 경솔하게 생각하는 경우, 이를 뒤흔들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데 있어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

미덕이 단순히 한 가지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태도에 더 크게 달려 있듯이, 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내면의 죄악된 태도에 따른 죄의 중요성 차이는 훨씬 더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죄는 치명적인 죄와 치명적이지 않은 죄로 나뉜다.

치명적인 죄란, 사람에게서 도덕적·기독교적인 삶을 빼앗는 죄를 말한다. 도덕적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치명적인 죄를 정의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독교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물고자 하는 열심과 힘이다. 그러므로 열정을 소멸시키고, 힘을 빼앗아 나태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분의 은혜를 박탈하여, 그 죄를 범한 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을 받는 모든 죄는 치명적인 죄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요일 5:16)라고 말할 때 이 죄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풍족히 먹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이 사는 자”(딤후 5:6)라고도 한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죽음에 머물러 있다”(요일 3:14)라고도 한다. 이러한 죄는 사람에게 세례를 통해 받은 은혜를 박탈하고, 천국을 빼앗으며, 심판으로 이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눈에 띄게 저질러지지 않더라도 죄를 범하는 순간 확정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죄들은 사람의 모든 활동 방향과 그 자체의 상태 및 마음을 변화시키며, 마치 도덕적 삶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형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치명적인 죄란 인간의 활동 중심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 추상적인 ‘치명적 죄’의 정의는, 죄가 치명적이 되는 다음의 규칙이나 조건을 통해 우리의 삶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을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자신과 그 행위의 죄악성을 자각한 채 어길 때, 그 죄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만약 죽음에 단계가 있다면, 죄의 각 측면이 중요할수록 그 죄는 더 치명적이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의 중요성은—이것이 자명하듯이—그 죄악성을 인식할 때 저지른 죄가 치명적이라는 데에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중요도가 낮은 대상에 대해서도, 그 죄가 저질러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지의 타락이나, 이를 통해 법을 경멸하는 태도, 혹은 이를 통해 도덕적 법칙을 무시한 채 허세를 부리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는 치명적일 수 있다.

『정교회 고백서』에는 치명적인 죄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제3부, 질문 18-42). 이들은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 범주에는 다른 죄들의 근원이 되는 죄들이 속한다. 두 번째 범주에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들이 속하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무분별한 의지, 절망, 명백한 진리에 대한 반항, 타인의 영적 완성에 대한 시기, 악의에 젖어 있는 상태, 그리고 죽을 때까지 회개를 미루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에는 하늘에 울려 퍼지는 죄들이 속하는데, 이는 고의적인 살인, 소동의 죄, 거지, 과부, 고아를 학대하는 것, 용병의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부모를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 등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와 대조적으로, 죽지 않는 죄, 즉 용서받을 수 있는 죄란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고,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으며, 그 활동의 중심을 바꾸지 않는 죄를 말하며, 이를 범한 자라도 당황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 속에서 진심으로 그분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죄는 셀 수 없이 많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우리 안에 진리가 없느니라” (요일 1:8)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 모두가 많이 죄를 짓느니라” (야고보서 3:2), 또 “의인도 일곱 번 넘어지리라” (잠언 24:16); “땅 위에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없느니라” (전도서 7:20)라고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죄들이 정확히 이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죄의 치명성이 그 대상의 사소함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도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순진한 무지, 부주의, 때로는 경솔함이나 가벼운 경솔함에서 비롯된 모든 죄는 치명적이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는 점이다. 특히 그 죄에는 악한 일을 하려는 의도나 욕망이 개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 안에서 그러한 죄를 발견하고 혐오감으로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가 용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가벼운 악행, 즉 악함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행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다. 그러한 행위의 악함과 치명적인 죄에 대한 근접성은, 그 행위를 저지르는 순간 그 악함을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커진다. 이는 특히 중립적인 일들에 대해 말해야 하는데, 그것들이 나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도 없이, 단지 자연스러운 순서에 따라 행해질 때이다. 후자의 경우, 그것들은 사람의 영혼에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악함을 빌려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책은 생각에 산만함을 남기고 정욕을 자극할 수 있다. 그것이 자신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것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는 사람은, 비록 사소한 일일지라도 분명히 양심을 모독하고 그 평온과 순결을 해치는 것이다. 분명히 이러한 종류의 죄는 이미 불멸의 영역을 벗어나 치명적인 죄에 매우 가까워졌으며, 빈번해지면 실제로 치명적인 죄로 변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오락으로 인해 쇠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치명적인 죄 모두를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특히 그 죄악성을 자각한 이후부터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사소하고 무의미한 습관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순결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사소한 죄조차도 이미 죄악성과 친해지게 하여, 결국 큰 죄로 이어지는 길을 닦아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조금씩 넘어질 것이다”(시라 19:1). 또한 이것이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쩌면 그 죄는 본질적으로 크고 악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죄악된 행위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구나 우리가 마치 그물 한가운데를 걷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치자: 우리를 잡으려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b) 성향으로서의 죄

b) 성향으로서의 죄

죄악적인 성향, 즉 죄악적인 경향이나 정욕이란, 특정한 방식으로 죄를 짓고자 하는 지속적인 욕망이거나, 어떤 죄악적인 행위나 대상에 대한 애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산만함은 오락을 갈망하는 지속적인 욕망이거나 오락에 대한 애정이다.

이러한 편애나 최악적인 성향은 도덕적 삶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선한 성향에 선의 요새가 있듯이, 그 안에는 악의 요새가 있다. 국가에 요새가 있는 것처럼, 영혼에도 요새가 있다. 이를 통해 죄나 사탄은 마음속에 자신의 요새를 세우고, 마치 적대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서 안전하게 활동한다. 인간의 활동에 대한 정욕은 진정한 영적 노예 상태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 정욕에 이끌려, 마치 이끌려 가는 자처럼, 자신의 불행을 깨닫고 심지어 더 이상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악으로 이끌리기 때문이다. 포로로 묶인 자를 사로잡은 자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듯이, 정욕도 죄인을 그렇게 대한다. “습관의 고통은 크다.”라고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말합니다(고린도후서 7장 해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욕구로 변해 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에게 정복당하면, 그에게 종이 되는 법이다”(베드로후서 2:19).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요한복음 8:34). 여기서 인간의 본성은 죄로 인해 완전한 굴욕을 겪는다. 어떤 이는 잠시 자제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불처럼 정욕이 타오르며 평소의 행실로 이끌려 간다. 또 어떤 이는 정욕이 가라앉을 때면 괴로워하고, 고통받으며, 스스로를 저주하지만, 정욕이 다시 움직이기만 하면 주저 없이 그에게 복종하고 기꺼이 자신의 고문자의 손에 자신을 내맡긴다. 또 어떤 이에게는 그 힘이 극에 달하여, 설득도, 두려움도, 수치심도, 재앙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를 그 일에서 돌이키기에 역부족이다.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장 비참한 존재이다. 하나님에 대한 정욕이나 도덕적 세계에서 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것은 진정한 영적 우상 숭배이다. 일단 정욕, 즉 죄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그 대상은 우상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마음은 그로 인해 그에게 바치는 제단이 되며, 매번 기꺼이 순종하며 모든 것을 그에게 제물로 바치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마태복음 6:24). 죄에 마음을 빼앗긴 자에게 있어 죄는 곧 신이다. 그러므로 배를 좇는 자에게는 “배가 신”이 되고(빌립보서 3:19),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돈이 신이 된다(골로새서 3:5). 정욕은 어디서 오는가? 어떤 사람도 특정한 정욕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우리 각자는 오직 모든 정욕의 씨앗인 자만심만을 품고 이 세상에 태어날 뿐이다. 이 씨앗은 이후 삶과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 발달하고 자라나 큰 나무로 피어납니다. 이 나무는 그 가지들로 우리의 모든 죄악, 즉 죄의 모든 영역을 덮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반드시 이미 그 나무 아래에 숨어 있거나 그 가지 중 하나에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애의 가장 주요한 가지들은 교만, 탐욕, 쾌락 추구이다. 이로부터 다른 모든 정욕이 파생되지만, 그들 모두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들은 음행, 폭식, 시기, 나태, 원한이다. 그들의 힘은 앞서 언급된 일곱 가지 주요 정욕과 동등하며, 이들과 함께 일곱 가지 가장 근본적인 정욕을 이룬다. 이는 그들이 죄를 유발하는 원동력이자, 그 밖의 모든 최악적인 성향과 정욕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어떤 정욕들이 어떻게 더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통 고백서』 제3부, 질문 18-40을 참조하라.

이로부터 모든 정욕이 선한 성향과 마찬가지로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고 상호 생성되며, 각기 다른 힘과 죄의 중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정욕이 중대하고 치명적인 죄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열정을 꺾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욕은 그 대상이 더 사악하고 부도덕할수록, 의무가 더 심각하게 침해될수록, 그리고 그 정욕이 더 오래 지속될수록 더 악하고 범죄적이다.

정욕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겨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정욕은 우리 자신의 소행이다. 이러저러한 죄악적인 충동은 우리 본성의 타락에서 비롯되지만, 그 충동을 충족시키는 것, 더구나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교만은 잦은 자만심으로, 나태함은 잦은 무활동으로, 시기심은 잦은 질투로, 다툼을 좋아하는 성향은 잦은 욕설 등으로 굳어진다.

정욕의 구성 요소로서, 마음의 성향과 정욕을 충족시키는 습관적인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 사람이 이미 형성된 정욕의 상태에 있을 때는, 이 둘이 사실상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욕이 본격적으로 발동하기 전에는, 비록 마음속에 정욕적인 성향이나 정욕이 이미 존재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대한 습관은 매우 미약할 수 있다. 반대로, 사람이 자기 내면을 성찰하여 정욕으로 인한 위험을 깨닫고 이를 잠재우기로 결심하면, 정욕은 이미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사람에게 의해 쫓기고 박해 받게 된다; 하지만 정욕을 충족시키는 행동에 대한 습관, 즉 영혼과 육체의 각 부분과 힘이 맞춰져 있는 그 행동들은 오랫동안 여전히 유혹하며, 때로는 마치 의지에 반하는 듯 만족감을 끌어내고, 때로는 마치 억누를 수 없는 듯 휩쓸어 가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깊게 박힌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야 하며, 행동과 힘의 움직임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

정욕을 뿌리 뽑는 일에 대해서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써야 할 정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에 대해 아주 조금만 언급한다. 누군가가 정욕에 부합하는 외적인 행동만을 자제한다고 해서 그가 마음을 바로잡고 있다는 것은 불확실한 징후이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도 정욕적인 사랑이 내면에 숨어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정욕에 사로잡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욕에 대한 증오의 불꽃과 그로 인한 자기 불만, 정욕을 어떻게 끊고 정욕을 이길지에 대한 고민과 재고 역시 우유부단한 징후이다. 이는 순간적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다시 정욕과 화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 순간의 열정에 대한 분노를 계기로, 그것을 추적하겠다는 확고하고 단호한 결심을 품고, 자신을 아끼지 않으며 그것을 뿌리 뽑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열정에 맞서는 열망이야말로 진정한 개선의 시작이다. 그리고 개선의 성공 여부는 열정에 맞서는 의지와 행동의 꾸준함과 변함없음에 달려 있는데, 이는 끝이 일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좋은 시작은 일의 절반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미 시작한 여정의 끝에서 이루어진다.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을 고쳐 나가면서 죽을 때까지, 자신이 겨우 절반만 이루었거나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욕적인 행위들은 때로 금방 버리게 되지만, 영혼의 힘은 육체의 지체들보다 더 유동적이므로, 정욕이 마치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죽은 것처럼 사라졌다고 믿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하지 않는다. 언제나 그것을, 기회가 닿는 대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옆드려 있는 뱀이나, 유리한 상황이 되면 쉽게 되살아나는 죽은 곤충에 비유하는 것이 낫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 즉 이전에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았던 자들과, 한때는 정욕의 노예였으나 회개한 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어떤 이들에게는 적절한 것이 다른 이들에게는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자는 더 큰 자유로움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후자는 항상 불가마 주변을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해결된다. ‘어째서 어떤 성자들은 자신들에게 특혜와 위로를 허락했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는 왜 그런 엄격함이 필요한가?!’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했던 반면, 우리는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사지가 탈구되었다가 제자리에 고정된 후에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극도의 주의 기울일 것을 명하는 것처럼, 정욕에 빠졌다가 회개한 이들에게도 평생 동안 엄격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사물과 다양한 일에 대한 일부 감각적 습관, 즉 육체와 감각의 욕구를 알려진 특정 방식으로 충족시키려는 습관—예를 들어, 특정 음식이나 꽃 등에 대한 습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감각적인 것에 대한 사랑은 불결함이지만, 그 대상이 무해한 것이며, 특히 정신과 경건한 상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며, 앞서 ‘불사죄’, 즉 가볍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불린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경건함을 열렬히 추구하는 이들은 마음을 하느님께 바치며, 비록 사소하지만 모두가 인정하듯, 이 모든 헛된 습관들이 모든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즉시 깨닫는다. 마치 긴 옷이 빨리 걷는 것을 방해하는 것과 같으므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 습관들로부터도 해방시키려 노력한다. 그 습관들이 무관심한 것처럼, 마음도 그들에 대해 무관심해지도록 말이다. 어떤 습관이든 간에, 그것은 여전히 족쇄이다. 부주의한 사람은 누구나 정욕과 습관의 노예이다. 정신을 차리고 나면, 당연히 모든 주의와 정성을 정욕에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욕 속에 죄의 보금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욕을 이겨내면서, 습관들로부터도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자유로운 비둘기처럼 날아올라, 유일하시고 온전히 복되시며 모든 이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 주소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이 무엇을 가져올지 아십니다. 그러나 진리로 주님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가) 상태로서의 죄, 혹은 죄악된 마음가짐

c) 상태로서의 죄, 또는 죄악된 마음가짐에 대하여

죄악된 영적 기질은 앞서 묘사된 바와 같이, 선을 행하는 자의 영적 기질과 대조함으로써 쉽게 정의할 수 있다. 즉, 그 안에는 신성한 것에 대한 갈망이 없으며, 그는 그 안에서 어떤 달콤함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대조차 하지 않으며,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것을 혐오하며 도망치기도 한다; 힘이 없다: “종종 그러고 싶지만,” 그가 말하듯,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그는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렸으며,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라보기를 원치도 않고 심지어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내면의 감성과 양심은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그분과 단절되었다고 확신시켜 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소망 대신 그에게는 제멋대로인 마음이 있거나, 자신의 의지를 행동의 원리로 삼아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하늘의 도움을 기다리는 대신 자만심이 있거나, 아예 자신의 손에 있는 세속적인 수단들—재산, 후원 등—에 의지하며, 신앙과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교회는 그에게 있어 낯선 존재가 되며,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을 외면하거나 그분과 그분의 법에 무관심한 채 자신의 뜻

대로 사는 삶이다. 다른 특징들은 이미 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이로부터 발전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다른 것들보다 두드러져 더 명백하고 더 악랄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 각각의 강도에 따라, 최악된 상태 자체도 다소간 완고하고 타락하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은 선한 영적 기질과 대조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악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러한 대조에서 즉시 드러나는데, 즉: 자신의 의지의 정욕을 향해 더 맹렬히 치달을수록, 자신의 몫으로 떠안은 최악된 행위의 양이 클수록, 외부적·내부적 장애물, 특히 타인의 권고와 양심의 속삭임을 극복하는 데 더 끈질길수록, 최악 행위에서 더 타락한 목적을 가질수록, 그 최악적인 마음가짐은 더 나쁘고, 더 사악하며, 더 위험해진다. 이 모든 것은, 누군가 더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고, 특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맛보았으며, 더 많은 내적·외적 자극을 받았고, 선과 악의 도덕적 삶의 질서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명확히 알수록 더욱 심해진다.

마지막으로, 죄의 상태, 정욕적인 성향, 그리고 최악된 행위가 죄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이에 상응하는 미덕의 선한 측면들에서와 정확히 동일하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뜻대로 똑같은 최악된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마음속에 그 행위에 대한 집착을 굳혀 버린다. 차이점은 오직, 선한 사람은 정욕과 선을 원치 않는 마음과 싸우는 반면, 죄인은 죄를 짓도록 부추기면서도 정신을 차리도록 촉구하는 양심과 싸운다는 점뿐이다. 남아 있는 선은 죄, 즉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이 악에 저항하지만, 타락한 의지는 악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 선을 짓밟는다. 사람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이 비참하고 재앙적인 자기 내면의 투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주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에서 부분적으로 묘사하셨다. 여기서 한 가지 단순하고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생각이 제때에 물리치지 못했을 때, 마음속에 타락한 욕망이 싹트고 자기만의 의지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후 한 가지 행위가 또 다른 행위를 이어나가며 마침내 타락의 극단에 이르는 과정을 볼 수 있다. 마치 산비탈을 굴러 내려간 돌이 절벽의 가장 깊은 곳까지 굴러가 멈춰 서는 것과 같다.

d) 최악된 삶의 단계

d) 최악된 삶의 단계

진정한 기독교인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악된 삶 속에서도 여러 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가 점점 더 “악에 빠져가며”(딤후 3:13), “마침내 악의 심연에 이르게 된다”(잠 18:3)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 심연으로 타락해 가는 단계들도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는 “불의로 인해 아파하며, 병을 일으키고, 불법이 낳는다”(시 7:15); 또는, 더 명확하게는, 시편 1편에서 복을 받은 사람과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모의를 따르며”, “죄인들의 길”에 머물다가 마침내 “파멸자들의 자리에 앉는다”(시 1:1). 이 마지막 표현들은 최악의 시기를 특징짓는 요소들로 볼 수 있다. 그것들도 세 가지로 나뉜다: 유아기, 청년기, 성년기. 첫 번째 시기에는 죄인이 막 죄의 길로 들어섰고, 두 번째 시기에는 그 길에 머물렀으며, 세 번째 시기에는 그 영역의 지배자가 되었다.

유아기. 이는 최악된 삶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그 형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아 흔들리는 시기이자, 남아 있는 내면의 선과 빛이 다가오는 악과 어둠과 투쟁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죄를 용납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려고 생각한다. “조금만 더, 그러면 그만두겠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죄는 그에게 마치 농담처럼 보이기도 하고, 혹은 장난감을 가지고 뛰노는 아이처럼 죄를 다룬다.

그는 단지 산만하고 경솔한 것 같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 어지러움의 상태 속에서, 죄인의 끔찍한 미래 상태에 대한 기초가 보이지 않게 놓여 있다. 그 첫 번째 특징과 첫 번째 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첫 순간에 놓여 있다. 이 빛, 이 생명과 힘이 사람에게서 숨겨지거나, 사람이 스스로 그것들로부터 숨을 때, 그 뒤를 이어 이성으 흐려지기 시작하고, 의지는 나태해지며, 마음은 무감각해지고 냉담해진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자주 스스로에게 “아니, 이제 그만두겠다”라고 말하게 만든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악은 자라난다. 누군가가 이성에서 진리를 하나씩 훔쳐 가니, 그는 이전에 분명히 이해했던 것조차 이제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 무거움과 현재 시점에 받아들일 수 없는 탓에 많은 것을 머릿속에 간직할 수 없게 되며, 마침내 완전히 눈이 멀어진다: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사물의 진정한 질서도, 자신의 진정한 관계도, 자신의 상태도, 과거의 모습도, 지금의 모습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어둠 속으로 들어서서 어둠 속에서 걷는다(참조: 성 티호, 『눈먼 사람』, 해설 5). 양심에 의해 움직이는 의지는 여전히 때때로 기뻐하며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염려를 받아들인다... 때로는 힘을 내고, 반항하며, 완전히 회복되리라는 희망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삼가기도 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넘어질수록 더욱 약해진다. 예전의 멈춤과 악행을 거부하던 행동들은 사실상 결실 없는 의도로 변하고, 그 의도는 회개에 대한 차가운 생각으로 변하며, 마침내 그것마저 사라진다. 죄인은 마치 손을 휘저으며 “그렇게 되겠지, 그냥 놔두자, 어쩌면 저절로 멈출지도 모르지!”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리고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기 시작하며, 타락한 욕망에 빠져들고, 필요할 때는 노골적인 행동을 자제하며, 위협이나 약속에도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영혼과 육체의 명백한 타락에도 동요하지 않는다. 죄는 병이자 궤양이다. 첫 경험 후에는 영혼을 심하게 괴롭힌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 두 번째 경험은 좀 더 견딜 만하고, 세 번째는 더 견딜 만하며,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 마침내 영혼은 마비되는데, 마치 신체의 일부가 자주 문질러져 감각이 무뎠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때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고, 하늘에서 천둥이 터질 듯했으며, 사람들은 마치 범죄자를 쫓는 듯했고, 수치심은 평안을 주지 않아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결국 아무 일도 아니게 되었다! 사람은 과감하고 두려움 없이 계속 죄를 짓는데, 예전에 왜 그런 불안이 있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다. 이처럼 눈멀음과 무관심, 무감각이 형성되었을 때, 죄인인 사람은 죄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선한 반항은 가라앉았고... 그는 평온하게, 당혹감이나 불안 없이 죄 속에 머물러 있다... 여기서 그는 청년기에 접어든다.

청춘기. 이는 맹목과 무감각, 무관심 속에서 죄 속에 머물거나 죄의 길에 서 있는 시기이다. 인간 영혼의 고귀한 힘들은 무기력한 잠에 빠져 있고, 죄의 힘들이 그들을 압도하여 마치 평온을 만끽하는 듯하다. 처음에는 이것이 마치 무관심의 지점과 같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부터 인간은 죄에 정복되기 시작한다. 그의 힘들은 하나씩 죄의 발치 앞으로 끌려가 죄를 숭배하며, 죄의 왕권을 받아들이거나 인정하고, 죄의 대리인이 된다. 이성은 숭배하며 불신의 씨앗을 받아들이고, 의지는 숭배하며 방탕에 빠지며, 마음은 숭배하며 죄와 죄악의 근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차게 된다. 죄인이 항상 잠만 자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깨어나기도 한다. 이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싶지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 일을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사람은 죄의 폭정에 의해 위협받아, 죄

에 대항하여 반기를 드는 것조차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해 영의 힘이 얼마나 깊이 추락하는지, 그리고 수치스러운 노예 상태가 인간의 고귀한 품위를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성에는 처음에는 단지 진리를 보지 못하거나 잃어버릴 뿐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리 대신 거짓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의심이나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왜 이럴까? 저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처음에는 무시되지만, 마치 거미줄처럼 마음에 약간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그러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서면 그와 하나가 되어 감정으로 변한다. 의심의 감정은 불신의 씨앗이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말하기 시작하고, 이어서 신랄한 비아냥을 꿰매어 내며, 마침내 신성하고 거룩한 모든 것을 경멸하고 외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불신이다! 그리고 의지는 안일함 속에서 잠들어, 선택하지 않은 원칙에 따라 행동하며, 그 원칙들이 선택한 원칙들을 어떻게 밀어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내면의 타락을 날카롭게 드러내지 않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누군가 그것을 뒤흔들기 시작하거나 다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강요할 때, 거기서야 비로소 명백한 확신이나 심지어 극단적인 상황조차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며, 모든 것에 정면으로 맞서며 스스로를 만물의 최고 법칙으로 삼는다. 양심의 법이든 실정법이든, 그녀는 “물러가라, 그런 길은 알기 싫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는 오로지 타락한 기질 때문일 뿐이다. 이처럼, 죄에 대항하여 반항하는 것을 두려움으로 인해 주저하고, 불신으로 거짓의 원리를 받아들이며, 의지로 방탕한 규칙을 내면화한 죄인은, 죄악의 왕국에서 어떤 통치 정책에 임명될 만큼 충분히 신뢰할 만한 인물로 드러난다. 그런 자는 파멸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다. 그는 죄악의 왕국에서 일의 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성년기. 이는 죄를 옹호하고 모든 선을 반대하며, 그로 인해 사람이 파멸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는, 자립적이고 끈질긴 행동의 시기이다. 그의 타락 정도는 빛과 선에 대한 저항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아갈 때조차 양심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원리들을 받아들인 그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반대로 나아간다. 때로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이고, 때로는 완고한 상태에서 그것을 거부하며 그에 맞서 무장하며, 때로는 절망의 상태에서 스스로를 의식적으로 파멸로 내몰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 사랑하는 죄가 마침내 그를 이끄는 종착점이다.

이처럼 죄의 세 단계는 아홉 가지 상태를 낳는다. 여기에 죄인의 불완전한 회심, 즉 미완성되고 미성숙한 회심의 세 가지 상태를 더할 수 있는데, 바로 다음과 같은 상태들이다: 노예 상태, 즉 하나님의 형벌과 위협을 두려워하여 더 중대한 죄는 저지르지 않으면서도, 악한 정욕과 생각을 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자기기만, 즉 미약하고 초보적인 선행만으로 자신을 완전한 자로 여기는 상태; 위선,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행위에만 머물며 거기에 자신의 희망을 두는 상태. 이렇게 선택한 길을 벗어난 모든 죄악의 상태는 열두 가지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세 가지와 마지막 세 가지에 빠져 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한 이들도 적지 않다. 죄 많은 우리 인류를 위로하기 위해 말하건대, 사람이 이 생애에 있는 한, 어떤 죄를 저지르든, 회개하는 자를 자비롭게 여기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는 언제나 있다. 인

간의 본성은 그토록 아름답고 선하여, 사람이 자신의 모든 잘못으로 이 세상에서 그 본성을 끝까지 훼손할 수는 없다. 다만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굳어 있으며, 절망하고 있는 한 용서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성품을 고치지 않고 울며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그대로 무덤으로 들어가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모든 악의 원흉은 마귀이다. 마귀가 아니었다면 절망하는 자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처음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되뇌이다가, 사람이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려 할 때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그를 위협한다. 그러나 누가 사탄의 모든 교활함과 악의를 다 묘사할 수 있겠으며, 그가 자신에게 굴복하는 죄인들을 어떤 그물로 엮어매는지 누가 알겠는가? 정신을 차린 죄인은, 이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쉬워 보였음에도 어떻게 자신이 이런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두려워하며 이해할 수 없다. 사람은 언제나 어느 정도의 자기 망각 속에서 죄를 짓는다.

죄의 악이 얼마나 큰가! 죄는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함을 모독한다. 율법을 경멸함으로써 우리는 율법 제정자 그분을 경멸하고 그분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러한 모독으로 인해 하나님의 전능하신 행복이 훼손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분은 피조물의 어떤 접촉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는 이미 그분의 무한한 위대함을 모독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다는 뜻이다. 마치 평범한 시민이, 비록 왕의 위엄은 건드릴 수 없더라도, 자신의 행실로 왕을 모독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측면에서 죄는 무한히 큰 악이다. 그러나 정의는 그 모욕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상은 모욕과 동등해야 한다. 무한히 큰 모욕에 대해서는 무한히 큰 보상을 제시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비극이 있다! 무한한 모욕을 가할 능력은 있으나,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할 능력이 없다. 사람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영원히 형벌을 짊어져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죄에 해당한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를 무한한 악 속으로 빠뜨리는 것이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세례를 받은 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히브리서 6:6)이며, 언약의 피를 짓밟고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라!*”라고 외치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대열에 합류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죄를 통해 사탄의 무리에 가담하고,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는 매복처가 되며,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조롱하고, 기독교인의 맹목과 광기를 비웃게 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사탄은 말하지만, “나도 이미 사람들을 지배할 줄 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는 모든 죄를 그 사람 자신에게 뒤집어씌우고, 지옥으로 더 빨리 몰아넣기 위해 그 죄를 더욱 부풀릴 것이다. 그런데 죄는 사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가? 죄는 사람을 타락시키고, 마치 어떤 어둠 속으로 내던지듯, 환상과 공상, 욕망의 허영,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뒤엉킨 혼란 속으로 몰아넣어, 평생 동안 그를 맴돌게 하여 정신을 차릴 틈조차 주지 않는다. 그 사이 정육의 고통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갹아먹는다. 죄인은 썩어가는 존재이다.

이러한 필연성과 죄의 추악함을 고려할 때, 죄인은 이미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겪기 시작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죄인은 종종 기뻐하며 세상의 행복에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또 깨우침을 주기 위해 부분적으로 허락하시는 만큼이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행복 아래

에는 언제나 끊임없는 영혼의 파멸이 숨어 있으며, 때때로 감각적인 황홀감으로 덮여 있을 뿐, 그것도 온전히 덮이지는 않는다. 죄인은 항상 음울하며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하다.

회개하지 않은 죽어가는 죄인에게 악마들이 찾아와 그의 영혼을 뺏어, 재림 때까지 어둠의 곳으로 내던진다. 이곳에서는 당분간 영혼만이 고뇌하지만, 재림 후에 육체와 다시 결합하면 육체와 함께 끝없는 세월 동안 고통받을 것이며, 그 고뇌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제 우리는 기독교적 미덕과 비기독교적 죄에 대한 일반적인 윤곽을 파악했다. 이것만으로도 전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후자가 얼마나 나쁜지를 이해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기독교적 미덕의 삶과 그와 정반대되는 삶이 인간의 온 존재와 모든 능력의 발휘에 어떻게 각인되는지 상세히 묘사될 때, 이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신성한 은총이 사람 안에서 무엇을 일으키는지와, 사람이 혼자 남아서 자신의 의지와 자기 만족의 속삭임에 따를 때, 더 나아가 어떤 정욕이나 죄에 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

III. 선한 기독교적 삶과 그와 정반대되는 삶의 결과와 열매

기독교적 삶의 특징은 그것이 은혜로운 삶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열매, 즉 우리 존재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우리 안에 미덕을 일반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수고하도록 이끌어내는 그 무엇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신성한 은총과, 이와 정반대인 비기독교적 삶은, 단지 사람에게 죄를 일으킨다는 점뿐만 아니라, 사람이 신성한 은총을 잃거나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에게 일어나는 결과로도 구별된다. 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양쪽을 각각 적절한 단어로 지칭할 것이다: 기독교인 – 비기독교인, 은혜를 받은 자 – 은혜를 받지 못한 자, 기독교적 삶을 열망하는 자 – 죄와 정욕에 사로잡힌 자.

8.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어떤 특징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모두 모아보면, 그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두 삶의 기원과 행동, 전반적인 정신, 발전하는 환경, 그리고 결말은 각각 어떠한가?

기독교 밖의 사람, 즉 죄 속에 머무르는 사람은 태어남이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타락한 첫 번째 아담에게서 비롯되었으며, 내적·도덕적 성질 면에서 그와 완전히 유사한, 즉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그 타락한 아담의 진정한 표현인 그는 ‘낡은 사람’이라 불리는데, 마치 인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존재이거나, 그 자체에 새로운 것이 전혀 없으

며, 예로부터 존재해 온 모든 사람과 똑같은 존재임을 의미한다. 사도는 우리가 태어날 때 “**흠으로 지은 사람의 형상을 입는다**”(고전 15:49)고 기록하고 있으며, 만약 “**이 낡은 사람을 벗어버리지**”(엡 4:22)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흠으로 지은 사람**”(고전 15:47)과 같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아담을 닮은 자, 즉 낡은 사람의 행실은 주로 죄악적이다. 그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악을 꾀하는 마음이 있다**”(창 8:21)는 것이, 그가 “**불법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기**”(시 50:7), 심지어 “**죄에게 팔려**”(롬 7:14) 있기 때문이다. 출생을 통해 그에게 들어온 이 죄의 힘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그를 지배하며, 주인처럼 군림한다(롬 7:20, 7:23); 그 결과 인간의 온 존재와 그 모든 지체는 다름 아닌 “**죄의 몸**”이며, 그의 힘들은 “**불의의 도구**”이다(롬 6:12-13). 그러므로 “**그의 눈은 음행과 꿈임없는 죄로 가득 차 있다**”(벧후 2:14);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롬 3:13); 그는 “**마음과 귀가 할렐라 받지 못한 자이며, ... 그의 발은 악을 향해 달려가며 피를 흘리기를 서두른다**”(행 7:51; 사 59:7).

이러한 내적 삶의 토대는 영적으로 다른 어떤 기원을 가리키는데, 바로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는 “**처음에 마귀가 죄를 지었**”고, 그 후에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죄인이** 될 수 없으므로 “**그의 자녀들**”(요일 3:8, 3:10), “**뱀의 씨**”(창 3:15), 혹은 직접적으로 “**뱀들, 독사의 자식들**”(마 3:7; 눅 3:7; 마태복음 23:33), 그리고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요한복음 8:44)라고 불립니다. 마귀와의 이러한 혈연 관계로 인해 그들은 마귀의 영,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하나님에 대한 원한과 노골적·은밀한 반항의 진정한 계승자들입니다. 모든 거룩하고 신성한 것은 그들에게 전반적으로 불쾌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심지어 역겨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리에게서 물러가라**”거나, “**지극하신 분,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파라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며**”(요 14:17),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요 15:19).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가득 찬, 마귀가 낳은 이러한 사람들의 전체 집합은 사탄이 거주하며, 그만의 “**심연**”(계 2:24) 또는 보좌를 가진 음산한 “**사탄의 영역**”(행 26:18)을 이루며, “**이 세상의 왕**”이자 “**세상의 신**”(고린도후서 4:4; 요한복음 12:31)로서 “**이 세대의 어둠의 통치자들, 하늘 아래 악의 영들**”(에베소서 6:12)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영역은 “**악에 빠져 있는 세상**”(요한일서 5:19)이며, “**더러움**”(베드로후서 2:20)로 가득 차 있으며, “**정욕**”에 **빠져 있고**(베드로후서 1:4), “**눈이 멀어**”(고린도후서 4:4) 그 눈먼 상태에서 날뛰며 모든 거룩한 것과 모든 성도들, 그리고 거룩함을 열망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세상, 오직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그 세상의 친구는 “**하나님의 원수**”인(야고보서 4:4). 눈멀게 하고 완고하게 날뛰게 하는 영은 바로 “**세상의 영**” 곧 사탄이다(고린도전서 2:12).

이 사람들의 처지는 참으로 불쌍하다! 그것은 세상과 사탄과 다를 바 없다. “**본성상 진노의 자녀들**”(엡 2:3)인 그들은 이후 평생에 걸쳐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나는 날을 위해 스스로 진노를 쌓아 간다**”(롬 2:5); “**그들의 끝은 멸망**”이며(빌 3:19), 그들에게는 “**영원토록 짙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다(벧후 2:9, 2:17; 유다서 1:13).

이러한 자들 중 그 누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한 회개와 돌이킴, 즉 은혜로운 중생의 역사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주님을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음이라**”(요 3:18). “**누구든지 위**

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느니라”(요한복음 3:36).

진정한 기독교적 삶을 시작하고 그 안에서 성장한 사람에게는 이 모든 측면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위로부터”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즉 물과 성령으로(요 3:3), 참된 인간 삶의 유일한 참된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써, 그리고 “이 하늘에 계신 분의 형상을 입음”으로써, 새로운 아담이자 참된 사람들의 새로운 조상인 (고전 15:49)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새 사람”이라 불리는 이유이며, 옛 사람을 벗어버린 자(엡 4:2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이 된 것이다.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요 1:12-13)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육신과 피를 취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베드로후서 1:4), 그들은 “그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니, 그들은 아들들”(로마서 8:14)이며, “아들의 신분을 부여하는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롬 8:15), – 그리고 그분은 그들이 아들임을 “그들의 영을 따라” 인정하십니다(롬 8:16). 이 아들됨을 깨닫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냅니다. 모든 신성한 것은 마치 그들 자신의 것인 양 여겨집니다.

이러한 기원에 따라 그들 안에서는 생명의 영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 또한 거룩하고 신성하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들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예정되었으며(엡 1:6), 때가 차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로서, ...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엡 2:10); 그리고 실제로 “새 생명으로 행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광채를 닮아 (롬 6:4), “선한 일을 열심하는 자들”(딤후 2:14)로 살아갑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그 뿌리에 접붙여진 것도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 거룩하신 분”(베드로전서 1:15).

그러나 이러한 이들은 모두 합쳐서 택함 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새롭게 된 백성을 이루며, “그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이끄신 분의 덕행을 선포”합니다(베드로전서 2:9); 모두 “영적인 성전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며”(베드로전서 2:5),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지며, ... 주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에베소서 2:21, 2:22);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하여 조화롭게 연결되고, 각 지체가 제 몫을 다함으로써, 사랑으로 몸의 회복을 이루며, 그분 자신을 세우시는 데 기여한다”(엡 4:16),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의 몸을 이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하심”이시며(엡 1:23), 그들은 “그분의 살과 뼈로 된 그분의 지체들”입니다(엡 5:30; 골 2:19).

이러한 사람들은, 전체로서도, 각 개인으로서도, 아직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아래 있으며, 장차 받을 높은 상을 위해 특별히 보존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면,” 사도가 외친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니”(롬 8:31, 8:33). 이것이 현세에서의 모습이며, 미래에는 그들이 자녀로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 상속의 영광과 위대함은 너무나 높아서 “모든 피조물이 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롬 8:17, 8:19). 그들 각자가 아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갈 4:7)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거처는 하늘에 있으니, 거기서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께서 우리 겸손한 몸을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하실 것”(빌 3:20-21). 겉보기에는 나그네요 이방인이지만, 실상은 성도들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그들은 이곳에 잠시 머물 뿐이며, 그들이 시민권자로 등록된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전자의 처지는 얼마나 암울한지, 후자의 처지는 얼마나 기쁜지! 물론, 양쪽 모두에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앞서 기술된 모든 내용은 각 단계에 더 많거나 적게 해당됩니다. 어떤 이는 죄인들이 얼마나 암울하게 묘사되었는지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찌겠습니까? 그들의 그러한 암울한 모습은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려진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양쪽의 이러한 일반적인 윤곽은 점점 더 정당화될 것입니다.

9. 참된 그리스도인과 죄인인 인간에게서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 그 본질적 속성 및 능력의 상태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 영을 멀리하고 은혜를 배척하는 사람들 사이의 대립은, 인간 본성 전체의 일반적인 구조와 그 주요 속성,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인간 본성의 전반적인 구조는 그 다양한 힘과 능력, 그리고 구성 요소들의 조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내적 활동의 다양성은 세 가지 근본 원리, 즉 인식하는 힘, 원하는 힘, 느끼는 힘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모든 힘들은 우리의 얼굴, 우리의 인격, 즉 우리 안에서 “나”라고 말하는 그 존재에 집중되고 수렴되는데, 이 “나”는 모든 힘의 융합이자 분리될 수 없는 통일체이다. 이 힘들은 그 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마치 초점처럼 그곳에서 발산된다.

또한, 인식과 욕망, 감정이 우리 안에서 단순히 서로 다른 단계에 머무르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반된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다른 근거들 외에도 인간 존재를 영, 혼, 육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한다. 이 중 첫 번째 부분의 특성은 감각적 세계()로부터의 초월이며, 마지막 부분의 특성은 감각적 세계에의 몰입이고, 중간 부분의 특성은 이 둘의 결합이다. 첫 번째 부분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과 영적 세계와의 교감이며, 마지막 부분의 목적과 사명은 감각적 세계와의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중간 부분은 감각적인 것에서 영을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가 영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통해 그 영성을 감각적인 것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우리 내면의 이러한 부분들은 서로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격(나) 안에서 하나로 수렴되며, 그에게 귀속되어 그를 위한 지속적인 수단이 된다. 인간의 인격(나)은 영, 영혼, 육체의 통일체이다.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 중 하나는 그가 의식을 부여받아 자신에 대해 ‘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점, 즉 인격체라는 것이다. 이 속성 덕분에 인간은 자신의 존재와 자기 외부의 사물의 존재를 확립하며, 이를 자신과 구별하고, 자신을 그것들과 구별하여, 자신에 대해서는 ‘나’라고 말하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이라고 말한다. 이 속성은 오로지 내면, 즉 자기 자신에게로 향할 때 ‘자아의식’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이러한 자기 내면으로의 향함 속에서, 그것은 다시 자신을 자신의 행동과 구별하거나, 자신의 존재를 그로부터 비롯된 것들과 구별하며, 마치 그 양쪽 모두 위에 군림하는 듯이 상승할 수 있다. 이때, 우리의 존재에는 이질적이고 외부적인 힘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는 자신을 ‘나’로서가 아니라 다른 인격체로서 인식할 수도 있다(귀신 들린 자들의 경우).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자립성. 자립성은 다른 존재의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신으로부터 발현되는 모든 현상의 근원인 존재에게 속한다. 이러한 자립적인 존재들은 많다(실체). 인간 자율성의 특징은 단순히 행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인식하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이성에 따라 그 행동을 주도한다는 데 있다. 이 속성은 이성적 자유와 동의어이다.

생명성.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죽은 힘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전기나 자력이 있다. 그것들은 매 순간 본래 있어야 할 그대로이며, 발전하지 않는다. 인간은 탄생의 순간에 본래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발전하고, 형성되며,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 식물도 처음에는 씨앗 속에서 단지 미래에 가능할 수 있는 식물에 불과하지만, 외부 요소를 받아들여 이를 자신의 것으로 흡수함으로써 비로소 실제 식물이 된다. 인간의 영적 본성이 성장하는 과정은 다른 순서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생각, 감정, 욕망, 행동과 같은 자체적 산물의 다양성을 통해 성숙해 가는데, 이러한 산물들은 내면으로 회귀하여 마치 그 안에 침전되듯이 자리 잡고, 그에게 양분이 되거나 성장의 요소가 된다. 그러므로 그 삶의 속성은 언제나 그 행동의 속성으로 정의될 수 있다. 한편, 인간에게 고유한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불멸이며, 이는 인간의 무한한 완성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이제 질문이 제기된다. 인간이 기독교적인 삶을 살기 전과, 그 일을 결심하고 그 길에서 확고해졌을 때,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와 그 능력, 그리고 본질적 속성 간의 관계는 어떤 상태인가?

인간의 구성 요소들 간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작은 것이 큰 것에,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아야 한다. 즉, 육체는 영혼에 복종해야 하고, 영혼은 영에 복종해야 하며, 영은 그 본성에 따라 하나님 안에 깊이 잠겨 있어야 한다. 인간은 온 존재와 의식을 다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이때 영이 영혼 위에 갖는 힘은 그와 함께 계시는 신성(神性)에 달려 있으며, 영혼이 육체 위에 갖는 힘은 영혼을 지배하는 영에 달려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구성 요소에 혼란이 일어났고,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자신의 힘을 잃고 영혼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영에 의해 고양되지 못한 영혼은 육체에 복종하게 되었다. 사람은 온 존재와 의식을 통해 감각적 욕망에 빠져버렸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의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가 타락한 이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는 마치 망원경의 각 구성 요소가 서로 안으로 밀려 들어간 모습과 유사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죄인들에 대해 말할 때, 끊임없이 그들을 ‘육적인 자’라고 부르며, 드물게 ‘영혼적인 자’라고 부를 뿐, ‘영적인 자’라고는 결코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정반대되는 존재로 간주합니다.

또한 대홍수 이전의 세상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 영이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육신이기 때문이라*” (창 6: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대한 집착이 영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을 누리는데 이가 분별력이 없어,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아지고 그들과 같아지리라*” (시 48:13). 즉, 그의 영에 반영된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육신에 빠져 짐승 같은 본성으로 대체해 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은혜를 받기 전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그 당시 그들은 “*육신에 있었으므로 죄의 정욕이 그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롬 7:5)고 말하며,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살며 육신과 생각의 뜻을 행하고 있었다*” (엡 2:3)라고 살았으며, 사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육신의 음탕한 욕망을 좇아 타락의 길을 걸었다*”(벧후 2:10). 사도 유다는 불신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 영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한다(유다서 1:19).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모든 악이 육신적 성향에서 비롯된다고 기록되어 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르나니... 육신의 생각은 곧 죽음이며 하나님에 대한 원수됨이라*” (롬 8:5, 8:7), 이에 굴복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롬 8:8), 그러므로 “*육신으로부터 썩어짐을 거두리라*” (갈 6:8).

반면, 은혜를 받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사람 안의 영적 본성은 마치 구름처럼 사람의 얼굴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들 사이의 교제를 가로막는다. 주로 그 본성에 사로잡힌 자, 즉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고린도전서 2:14). 영의 우세와 마찬가지로 육체의 우세도 영에 따른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성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만족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정욕들을 열거한 후, 매우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이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속적이고, 영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라고 덧붙이셨습니다(야고보서 3:15). ‘영적인’, ‘세속적인’, ‘하나님의 것이 아닌’이라는 말들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는 영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 안에 있다. 그러나 영은 영혼과 육신에 종속되어 있어 갇혀 있으며, 본래의 방식으로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 그들 안에 그 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본성상 영혼과 육신에 어울리지 않는 무한한 정서적·감각적 갈망들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과 육신의 요구를 거스르며 세속을 초월하는 상태를 종종 경험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영은 마치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듯이 시도한다. 양심의 가책, 심판자 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는 갈망—이것이 영혼에 미치는 영의 작용의 본질이며, 영의 신음은 영혼의 의식 속에 메아리친다. 이처럼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사람들 속에서 영은 재 밑의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것을 자극하거나, 더 나아가 “*영과 혼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히브리서 4:12)이 되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그러면 영은 온전한 힘과 권능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굳게 붙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종답게, 그는 “*정욕과 욕망을 품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 5:24). 처음에 주님을 섬기겠다는 결심을 품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하며, 그 후에

도 끊임없이 “육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며”(롬 8:1, 8:4), “성령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느니라”(롬 8:13)고 합니다. 그는 마치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으며, ... 육신에 빚진 바가 없어 육신대로 살 필요가 없다”(롬 8:9, 18:2)는 것과 같다.

“영혼과 영을 쪼개는...”(히 4:12)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는 영혼을 자신의 권세 아래 두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며 (마 10:39), “영혼을 공격하는 정욕들”(베드로전서 2:11),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말씀”(야고보서 1:21)에 복종시키고, 이와 같이 영혼 전체를 변화시키며, “믿음이나 진리에 대한 순종”(베드로전서 1:22; 유다서 1:20)을 통해 영으로 양육하고, 자신을... “선행을 베풀도록”(베드로전서 4:19) 훈련시키며, “그 마음을 성령으로 할레받게”(로마서 2:29) 하고, 모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을 “그가 행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그가 원치 않았던 일입니다(골로새서 3:23). 이처럼 “온 영혼으로” 그리고 “진심으로”(엡 6:6; 마태복음 22:37), 그는 자신의 영혼에 평안을 얻으며(마태복음 11:29), “믿음의 결실... 곧 영혼의 구원”(베드로전서 1:9)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땀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히브리서 6:19).

그 결과, 그의 영적 삶은 육체적 삶과 영적 삶을 완전히 삼켜 버립니다. 그는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고전 6:20), 그의 모든 행위는 영 안에서, 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는 영으로, 그리고 “영의 갱신” 속에서(롬 1:9, 7:6; 빌 3:3) “영으로 불타오르며”(롬 12:11) 부지런히 힘쓰며 게으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행하며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아니한다”(갈 5:16); “성령으로 심는다”(갈 6:8); “성령으로 충만해진다”(엡 5:18); “진리를 듣는 일”에 성령으로 마음을 기울인다(벧전 1:22).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영으로 걷는 것은 영으로 살기 때문”(갈 5:25)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롬 8:9; 고전 3:16)이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 되었으며, “성령으로 충만해졌기”(고전 12:13; 고전 3:16; 엡 2:22). 이 성령께서는 영혼과 영을 구분하는 말씀을 통해 오셔서, 영을 억압하던 영적·육적인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후 3:17)이며, 이를 통해 새롭고 영적으로 은혜로운 삶의 시작을 알렸습니다(롬 8:23). 이러한 “영의 약혼”(고후 1:22)을 통해 “마음속에 감추어진 사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 안에서”(벧전 3:4) 성숙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내면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그의 마음에 거하시며, 사랑 안에서 뿌리내리고 굳건해집니다(엡 3:16). 이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고전 6:1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곳, 곧 위쪽을 찾으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 그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골 3:1-3).

이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혹은 거짓 그리스도인은 인간 본성의 구성 요소에 있어 정반대임을 알 수 있다. 한쪽에게는 첫 번째인 것이 다른 쪽에게는 마지막이다. 한쪽에서는 영이 첫 번째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영이 억눌려 있다; 한쪽에서는 육신성이 첫 번째이지만, 다른 쪽에서는 육신성이 부정되고, 억압되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한다. 중간에 있는 영혼은 당연히 지배하는 쪽에 복종하는데, 한쪽에서는 영에, 다른 쪽에서는 육체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인간 존재의 각 부분 간의 참된 관계, 즉 “온전한... 영과 혼과 몸”(살전 5:23)은 오직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에게

만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그들 안에야말로 인간 존재의 진리가 있으며, 기독교 밖에서는 진리가 아니라 거짓, 마치 인간의 유령과도 같은 것이 있다.

누구에게도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일부 이방인들과,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면서도 그 힘을 거부한 이들, 그들도 눈에 띄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러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제시하는 진리, 즉 참으로 인간적인 삶은 실제로 오직 기독교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의 성령을 받아들이는자들 안에서만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내면에서 작용하는 힘들의 전반적인 상태와 상호 관계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이러한 힘들은 우리의 의식이나 자아(나)에서 발원하여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며, 그 불완전한 근원의 지배 아래 서로 상호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행위 주체에 대한 의존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침투와 상호 협력은 이 힘들의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타락 속에 머무르는 죄인인 인간에게서, 이 힘들은 마치 그의 ‘나’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띠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나타난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흔한 말들인 “하고는 싶지만, 하고 싶지 않다”, “비록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나는 정말 하고 싶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 마음대로 하라”, “믿고 싶지만, 이성이 따르지 않는다”, “이성은 머릿속의 왕이니, 내 이성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표현들과 그 밖의 많은 표현들은, 이 힘들이 더 이상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를 다스리거나 외부 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면서, 이 힘들은 서로 연결되는 접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서 도움을 받는 것도 중단되었으며, 한쪽이 보통 다른 쪽으로부터 누리던 이점도 더 이상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러니 이성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듯 몽환적이고 산만해지는데, 이는 마음이 붙잡아주지 않고 의지가 다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의지는 제멋대로이고 무정해지는데, 이는 이성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제멋대로이고 맹목적이며 방탕해지는데, 이는 이성의 지시를 따르려 하지 않고 의지의 힘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세 힘이 서로를 돕지 못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적대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는 다른 하나를 부정하며, 마치 그것을 삼켜버리고 잡아먹는 듯하다. 그 때문에 마음이 우세해지면 이성의 약화와 의지의 변덕스러움, 즉 마치 성격이 없는 듯한 상태가 뒤따르게 된다; 지식에 대한 우세한 열망은 의지의 활동 약화나 안일함, 그리고 마음의 무감각이나 냉담함을 초래하며; 의지의 우세는 항상 일방적이고 완고하며 어떤 논증도 듣지 않는 태도를 동반하는데, 그곳에서 영혼은 어떤 설득도 듣지 않으며 마음의 동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처럼 죄인인 인간의 내면 세계는 제멋대로임과 무질서, 그리고 파괴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주로 경험이 증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이에 대한 지침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비록 그 말씀이 영혼의 힘과 그 상태보다는 인간의 행위, 즉 모든 힘의 산물을 더 많이 묘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 점에 있어 다음 구절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죄인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큰 혼란과 내적 무질서를 묘사하며, 이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이탈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

면서도,”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였고”(롬 1:21), 즉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분으로부터 떠나며, 그분을 거부했다는 뜻이다. 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는 그들의 마음이 눈이 멀고, 의지가 제멋대로 되며, 이성이 미쳐 생각(욕망)이 헛되게 되었고, “그들의 무지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롬 1:21) “타락하였다”(롬 1:22). 이 자연스러운 결과에 이어, 하나님으로부터의 형벌과 같은 또 다른 결과가 뒤따랐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롬 1:24), 즉 마음의 제멋대로인 성향, “부끄러운 정욕”(롬 1:26), 즉 고집스러운 의지의 타락, “무지한 마음”(롬 1:28), 즉 분별력 부족, 공상,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들(실용적인 이성을 빼앗아 가셨다).

같은 사도는 에베소서(엡 4:17-20)에서 이방인이나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들”이라고 부르며, 바로 이곳에서 그들의 영혼 상태를 묘사하며, 그들이 “마음의 헛된 생각 속에 행한다”고, 즉 환상적이고 허구적인 정신적·이상적 구조 속에 갇혀 있으며, “마음이 굳어졌다”고, 즉 무정함과 무감각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음행에 내맡겼다”고, 즉 방종과 의지의 충동에 휩쓸렸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거룩한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을 위해 기도하며(엡 3:16-19),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성령으로 내면의 사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즉 성령과의 연합을 통해 의지에 도덕적 힘을 주시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고”, 즉 그들이 구주 그리스도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사”, 즉 주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맛보는 이 경험으로부터 영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하사”, 즉, 이 모든 것의 총합이나 하나님과의 결합을 통해 모든 힘으로 기독교인에게 고유한 내적 완전함이 충만해지기를, 또는 이러한 조건 하에 그들의 내면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 없이 흘러들어오는 영적 완전함으로 채워지는 안식처나 그릇이 되기를...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의 영이 그 자체로 견고하거나 굳건해진 그릇이 되는 것과 같다.

같은 서신(엡 4:22-24)에서 사도는 기독교의 본질, 즉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너희는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정욕의 유혹 속에서 썩어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 이는 마음의 갱신을 명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라” – 여기서는 마음의 변화가; “그리고 진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 여기서는 의지의 변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의 존재의 모든 힘이 함께 그리고 동시에 새롭게 되며, 게다가 모두 하나의 영 안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이루어짐을 지적하고 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는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평화의 하나님”이 마음에 거하심과 함께 마음에 임한다고 묘사합니다(빌 4:7, 4:9). 이 세상을 뒤흔들지 않기 위해, 그는 그들에게 모든 생각, 즉 모든 능력의 활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로 돌리라고 명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마음은 진리에, 의지는 의로움에, 심장은 지극히 사랑스러운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영혼은 ‘평화의 하나님’의 거처가 될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보십시오, 사도는 이 모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상들을 이미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적해 주었고, 그들은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며 순종하였으니, 즉 온 힘을 다해 온전히 그것들에 전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힘을 하나로 모아 활동하는 것, 즉 기독교인의 삶의 특징은 다음 구절들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9-11 – 사도는 골로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이 *모든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등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1-7 – 사도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 안에서 연합한 모든 이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풍성한 지식의 지혜로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3:12-16 – “*자비를 입으라...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등; 엡 5:15-19 – “*어떻게 걸어야 할지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처럼 하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라*” 등;

이 구절들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는 사람에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그 어떤 혼란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모든 능력은 조화를 이루어 작용하며, 한 가지 목표에 집중되어 있고, 그분이라는 인격체에게 복종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온전함과 충만함, 건전함이 귀속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경건한 묵상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양육할지에 관한 성스러운 수행자들의 규칙에서는, 모든 힘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하나님의 장로들은 대개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라고 권고합니다. 네가 선택한 대상,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임재, 죽음, 세례 등에 주의를 집중하고, 그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라. 이때 네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감정으로 이어가거나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노력하라; 예를 들어, 죽음의 임박함에 대한 생각에서 두려움이나 회개를, 세례 서약에 대한 묵상에서 기쁨이나 슬픔 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모든 묵상을 네 삶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원칙으로 결론지어라. 예를 들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니, 따라서 나를 보신다; 나는 결코 나쁜 생각을 품지 않겠다—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할 때, 분명히 영혼의 모든 힘이나 인간의 내적 삶의 전체 구성이 굳건해지며, 삶 전체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롭게 된다.

모든 영적 힘을 자신의 손에 쥐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 바로 아침에 기도를 마친 후 앉아서 그날 하루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계획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을지,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날지 — 그리고 그에 따라 미리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말할지, 자신의 영혼과 몸을 어떻게 다스릴지 등을 정해 두는 것이다. 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자신의 영혼의 모든 움직임을 직접 주관해야 하며, 마치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처럼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제시된 모든 내용에서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힘이 그 활동에서 그 자신에 달려 있으며,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 활동 속에서 모든 힘이 분열되거나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작용하며, 서로를 돕고 상호간에 영의 공동 삶을 고양시키므로, 그 결과 그 삶은

온전하고 견고하여, 그 안에 거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을 모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된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이것이 없으며, 우리가 보았듯이 정반대의 상황이 존재한다. 그 자신은 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온전하고 건강하다고 말하는데, 바로 그 점이 그의 재앙이다. 그러나 죄를 버린 자들조차도, 죄에 빠진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힘의 쇠퇴에 비록 일시적으로라도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해야 한다... 이는 또한 위험하기 때문이다. 이를 명심하고, 모든 이가 스스로를 경계하라.

인간의 구성 요소와 주요 능력 간의 비율이 변화함에 따라, 그 얼굴의 본질적인 속성 또한 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얼굴이 바로 그 구성 요소와 능력들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자의 상태는 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이를 결정하며, 반대로 전자는 후자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의식이다. 의식은 다른 속성들의 근원이 되는 속성이며, 인격의 직접적인 속성이자 마치 인격을 해석해 주는 것과 같다. 의식은 자신의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들 밖의 존재들을 구분함으로써, 자신을 그들과 구별하고 그들을 자신과 구별한다. 의식의 완성을 위한, 혹은 의식이 마땅한 위치에 서기 위한 다음 조건은 우리 인격이 자기 자신과 외부 세계 모두를 초월하는 것이다. 이러한 초월이 없는 곳에서는 의식이 혼탁하고, 불명확하며, 무분별하거나, 동물적인 자각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룩하고 기독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선한 의도를 깨닫기 전의 사람,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외부 세계 위로 승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에 휩쓸려 그 속에서 살며, 마치 그와 하나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외부적인 존재, 자기 자신 밖에서 사는 사람, 자기 자신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불린다. 그는 이미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비로소 자기 안으로 돌아온다. 그는 자신의 외적 소유물의 번영을 자신의 번영으로 여기고, 반대로 그 소유물의 불황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긴다. 그렇기 때문에 옷, 집, 가구, 거주지 등에서 손해를 입힐 위험이나 실제 손실은 그를 깊이 뒤흔들며, 심장 깊숙이 충격을 준다.

그는 또한 자신의 내면 세계 위에 우뚝 서지도 못하며, 외적인 사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내적 움직임의 메커니즘에도 휩쓸린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생각에 잠겼어”, “정신이 딴 데 가 있었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즉, 그 순간 그는 생각의 흐름에 휩쓸렸거나, 기쁨에 들떠 정신을 잃었거나, 슬픔에 휩싸여,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상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마음의 움직임에 자신을 맡긴 것이다; 혹은 온갖 번거로움과 걱정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즉, 의지의 다양한 욕망을 끊임없이 앞만 보고 몰아가는 것이다. 분명히, 죄에 사로잡힌 자는 내면의 움직임들을 지배할 수 없으며, 마치 그 안에 갇힌 것처럼 그 움직임들에 끌려다니는데, 마치 부대 안에 갇힌 병사처럼 말이다. 그리고 이는 단 한 시간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내적 삶의 법칙이다: 이끌리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따라서 죄인인 인간에게는 맑은 의식이 있을 수 없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정신이 혼미한 듯이, 회오리바람 속에 휩쓸리듯 빙글빙글 돌고 있다. 반쯤 잠든 사람이 사물을 자신과 희미하게 구별하고 오직 자신만을 반쯤 의식하듯이, 정욕에 사로잡힌 자도 그

러하다. 이 현상은 매우 기이하다. 교만함 속에서 그는 누구도 자신보다 높다고 여기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희미하게만 의식하고 있다.

의식의 특별한 양상은 자의식, 즉 자기 인식이다. 그것은 주로 내면을 향하며, 자신을 자신의 행동과 구별하고, 다시 그 둘 모두 위에 우뚝 선다. 이 자의식은 은혜를 잃은,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서 더욱 희미하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자신을 알며, 자신을 자신의 행동과 분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다. 그는 어제 무엇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이나 몇 시간 전에 무엇을 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끊임없이 분주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며, 마치 그 행동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자신의 행동 흐름에 지나치게 휩쓸려,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지식과 존재하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자신의 관계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후자도 전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된 심경은 무엇인지, 가장 큰 병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를 도울 수 있는지 말할 수 없다.

–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동을 구분하지도 못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마음을 현혹하는 것 중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로 자기 자신으로 여기며,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인 양, 마치 자신의 삶인 양 옹호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도 자신을 거부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편, 우리 안에 사는 죄에서 비롯된 것 외에도,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죄 역시 자기 자신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러한 모든 이유와 경험을 통해 볼 때, 죄인은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은총을 잃어버린 죄인들과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러한 의식과 자의식의 상태를 ‘잠’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사도는 그들 각자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엡 5:14)고 말하며, 또한 이를 ‘눈먼 상태’, ‘어둠 속에 머무름’, 심지어 ‘어둠 그 자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자들 각각은 “*눈이 멀고, 어둠 속에 있으며, 망각에 빠져 있다*”(베드로후서 1:9). 죄인은 자기 자신을 잊은 채 살아가며, 안개 속을 보는 것처럼, 심지어 그 이상으로 눈먼 자처럼 걸어다닌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 주시며, 어둠 속에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 내시려고...*”(사 42:7) 오셨습니다. 죄인은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기 무지와 자기 망각이라는 내면의 어둠 속에 갇혀 있으나, 구주께서 그곳에서 그를 구출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상기시키며 사도 바울은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엡 5:8)고 말합니다. 즉, 이전에는 어둠이 짙어 너희 안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나,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의식은 죄와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자의 의식과 전혀 다릅니다. 둘은 빛과 어둠처럼 구별됩니다. 죄인이 은혜로 깨어나는 첫 번째 작용은, 영혼을 그 내적·외적 삶의 기계적 구조에서 끌어내어 그 흐름 위로 승화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바로 여기서 참되고 온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 이 순간부터 그것이 시작되는데, 은혜의 작용을 받는 사람의 첫 시선은 자신의 본질적인 관계로 향하기 때문이다. 은혜의 빛은 무엇보다 먼저 그곳에 비춘다. 그 후,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이 영적 높이에서 내려오지 않는다. 그의 눈은 자신의 모든 것과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 위로 높이 들려져 있으며, 그는 마치 파수꾼처럼 그 모든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과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이 특성은 ‘깨어 있음’과 ‘맑은 정신’이라 불린다. 내적·외적 삶의 메커니즘은 매 순간 그들을 마치 회오리바람이나 심연 속으로 다시 끌어들이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굳게 지킨다. 자신 안에 머무르려는 긴장은 정신 차림이나 깨어 있음의 위업이며, 영적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신 차린 경각심이 완성되어 감에 따라 의식도 높아진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맑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 기도에 힘쓰라*” 또는 기도 중에 깨어 있으라(베드로전서 5:8, 4:7)고 명해지며, 전반적으로 모든 면에서 깨어 있으라고 권고받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니, 날이 도둑처럼 너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 밤의 자녀도 아니고 어둠의 자녀도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자. 밤에 자는 자들은... 그러나 우리는 낮의 자녀들이니,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깨어 있으라*”(데살로니가전서 5:4-8). 이러한 자기 수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들 안에 본질적인 속성으로 존재합니다.

이는 성스러운 수행자들의 규칙에서도 묘사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명확히 바라본다는 그 속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이다. 예를 들어, 성 필로페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아침부터 하나님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끊임 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용감하고 단호하게 마음의 문 앞에 서서 이 영적 파수 duty를 수행하며 땅의 모든 죄인들을 물리쳐야 한다 (『선행』, 제3권, 제2장).

그 결과, 자아인식은 더 나아가 발전된 형태이거나 의식의 특별한 전환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완전함에 이른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단지 하루의 행동뿐만 아니라 몇 주, 몇 년에 걸친 행동을, 깨달음을 얻은 때부터 수적으로만 아니라 그 힘과 의미, 동기와 순수함 및 불순함까지 완전히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매일의 고백이 있다.

자신을 행동과 구분해 냅니다. 영적 전쟁에서 모든 현명한 전술은 바로 이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수를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그의 모든 움직임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즉시 평가됩니다. 이 점에 있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의 시선은 너무나 깊어서, 단순히 잘못된 움직임들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그중에

서도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분해 낸다. 바로 여기에 성스러운 수행자들에게서 알려진 ‘사물이나 생각의 구별’이 있다.

자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타인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알고 있다...

이 모든 특성들이 합쳐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속되는 그 내면의 빛이 형성되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온 삶은 ‘빛 가운데 행함’ 또는 ‘낮에 행함’이라 불립니다.

인간의 얼굴이 지닌 두 번째 속성은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자립성이다. 이 속성의 상태는 이미 의식의 상태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는 둘이 서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속성은 진정한 기독교인들에게서만 진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죄에 빠진 자들에게는 그 그림자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에게 고유한 자율성은 이성과 자유로 구별된다. 이성은 행동이 자신의 판단과 목표, 그리고 이성적인 자기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요구한다. 그것의 뚜렷한 특징은 생각이 항상 욕망보다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욕망이 생각을 지배하는 곳에서는 이 속성의 부재나 결여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로 인도받지도, 굳건히 세워지지도 않는 죄인에게는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내적 움직임의 기계적 작용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 대해, 그가 오직 “*육체의 뜻과 생각*” (엡 2:3)만을 행하며 “*자기 정욕대로 행한다*” (벧후 3:3)고 말씀하시는데, 즉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반면, 사람은 자신의 소명에 부합하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자유란 외부나 내부의 어떠한 강압이나 유혹 없이, 오로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다. 자유의 두드러진 특징은 독립성과 자연스러움이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 와중에 달리 행동하도록 강요당한다면, 이 자유는 분명히 엷매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죄인인 인간을 통해 이러한 자유를 묘사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속박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의해 가해집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다...*”라고 사도는 같은 구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내 지체들 속에 법이 있음을 보나니, 그것은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법이라*” (롬 7:14-23). 이 죄의 힘을 무엇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느끼며,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지배적인 정욕을 깨닫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는 자신이 노예처럼 “*자신의 정욕을 따라 끌려가고 유혹당하며*” *이끌려* 가는 것을 본다(약 1:14).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의 중*”(롬 6:7-20), “*죄에게 팔린 자*”(롬 7:14)라고 불리며, “*누구에게 정복당하든지, 그 자의 종이 되는 법*”(벧후 2:19)이라고도 한다.

세상. 은혜의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위에는 세속적인 정욕적인 관습과 세상에서 활동하는 영의 힘과 권세가 지배하여, 그로 하여금 그와 반대되는 어떤 결정을 내리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절대 안 돼: 그게 관례니까.” 이는 세상의 영에 대한 자신의 노예 상태를 인식하는 일반적인 의식을 나타냅니다. 이 권세는 생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나 공포에 의해 유지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떠나야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

은 “*세상의 원소들에게 노예가 된 자들*”(갈 4:3),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걷는 자들*”(엡 2:2),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원소들*”(골 2:8)이라고 불립니다.

마귀에 의해. 그는 세상과 우리 안에 거하는 죄를 통해 활동하므로, 그의 속박은 대부분 숨겨져 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이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과거 삶을 되돌아본다면,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가장 교활한 계략이 작용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것도, 다른 사람들의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것인가? 분명히, 태초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의 것이다. 따라서 모든 죄인은 다른 모든 죄인과 마찬가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거나, 그의 종들임을 말해야 한다. 이러한 노예 상태는 죄인이 모든 거룩한 것을 혐오하고, 그러한 것들에 자신을 이끌 수 없는 무력함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분의 은혜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은 마귀의 종들로 직접 불리며, 마귀의 영역(행 26:18)과 그물에 갇혀 있으며, “*마귀에게 사로잡혀 그의 뜻대로 이끌려 다니는 자들*”입니다(딤후 2:26).

이처럼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자율성이라는 두 번째 속성도, 자신 안에 은혜롭고 회복시키는 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참하고 비천한 상태에 놓여 있다. 반대로, 이러한 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

이성에 관해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이미 은혜의 힘으로 인해 자신의 내적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동 위에 승화되었기 때문에 이성이 온전한 힘을 발휘한다; 특히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은혜로 그분과 재결합한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행동은—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간다*”(베드로전서 4:2).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은 지극히 이성적인 삶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성()을 통해 모든 일과 삶의 전 과정을 다스리며, 사람을 그의 궁극적인 목표로 이끈다. 여기서 삶의 질서와 온전함이 비롯된다.

그리고 완전한 의미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의 삶이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정립된 사람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신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갈 5:1);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가 있다*”(고후 3:17).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의 신성한 능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기쁜 자유의 상태를 누린다(롬 8:2). 죄는 그를 지배하지 못하며(롬 6:7-12), 그는 세상에서 분리되었고(요 15:19), “*통치자들 앞에서*” 진리를 두려움 없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마 10:18), 마귀와 모든 원수의 세력을 짓밟습니다(눅 10:19). 그러므로 그는 어떤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처럼 서 있으며, 어떤 상황의 우연도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황을 다루거나,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분과 주요 의도를 변함없이 유지하며 행동한다.

마침내 인간 본성의 마지막 속성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죄인인 인간에게서 완전히 상실됩니다. 이 속성은 그를 ‘죽은 자’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데, 그는 단지 “*이름만 살아 있는 자요, 실상은 죽은 자*”일 뿐입니다(계 3:1). 이러한 죽음은 “*죽음을 낳는*”(약 1:15) 죄(엡 2:1-5; 골 2:13)에서

비롯되며, 이는 모든 이를 죽음으로 찌르는 “죽음의 독”(고전 15:56)이며, 그 뒤를 따라 “샀”으로 죽음이 뒤따릅니다(롬 6:23).

죄의 죽이는 힘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데 있다.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다”(엡 4:18)고,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산다(엡 2:12). 하나님과의 교제, 신성한 것과 영적인 것들은 우리 영의 자연스러운 양식이며, 말하자면 그 본성이다. 거기서 떨어져 나간 그는 이제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으며, 마치 양식과 공기가 없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다.

– 힘과 능력의 불균형. 인간의 삶은 본성의 힘들이 조화롭게 결합되고, 그 본성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데에 있다. 앞서 보았듯이, 이 합법적인 관계가 사라지면, 인간에게 고유한 삶과 활동도 사라진다. 겉보기에는 사람이나, 내면의 기질로 볼 때 진정한 사람은 아니다. 겉모습으로는 이 악기나 저 악기처럼 조율이 어긋난 악기가 있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내면이 죄로 인해 조율이 어긋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사람 안에서 진정한 인간성, 즉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죽었거나 상실되었다고 말해야 한다. 죽은 자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죄인인 인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인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일을 하지만, 그것은 “죽은” 행위들이다(히브리서 6:1, 9:14).

– 영적·육체적 힘의 박탈과 마치 죽음 당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죄는 독이라고 불리는데, 과연 그것은 독이다. 독이 철을 갉아먹듯이, 죄는 영혼과 육체를 갉아먹는다. 죄는 정신에게서 생동감과 기민함, 민첩함을 빼앗고, 의지에게서 강인함과 끈기를, 마음에게서 미적 감각과 예의를 빼앗는다. 반면 죄가 육체에 미치는 독성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이 점에서 죄를 짓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나 임종 전의 고통을 겪는 사람과 다름없다.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끊임없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얼마나 뚜렷하게 드러나는가! 삶에는 기쁨이 따르지만, 불경건한 자에게는 기쁨이 없다.

하나님의 정함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3:19)는 법이 적용된다. 이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죽음의 영역에 들어서며, 일시적인 죽음을 통해 두 번째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여 타락한 상태에 머무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질서이다. 이 순서를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그 은혜가 임하면,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싹트게 된다.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 속에 썩지 않는 씨앗을 심게 되며, 그 씨앗은 생명나무로 자라난다. 이것을 누리는 자는 죽음의 턱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죽음 속에 머무른다”(요일 3:14);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리라”(요 3:36).

이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으며(롬 11:15), 그로 인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간다”(요일 3:14),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변한다(롬 6:13). 이는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자신 안에 아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와 함께 생명을 가지고 있다”(요일 5:12)고 하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고(롬 8:10); “그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골 3:3); 이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이다(갈 2:20).

새로 태어남과 생명의 힘은 사람 안에서 죄를 근절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죄의 결과인 그의 존재의 힘과 부분들의 혼란을 없애거나,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을 회복시킵니다. 이 참된 생명은 그 안에서 번성하고 자라나며, 힘에서 힘으로 나아가 그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명의 영을 받을 자격을 얻은 그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니, 두 번째 죽음이 그에게 더 이상 권세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생명은 현재 주님을 위해 진심으로 수고하는 자들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심지어 그들조차도 대부분 이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마치 썩어가는 외피 아래에서 익어가며,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 즉 영원의 사람을 형성하고 완성해 나간다. 그러나 나중에는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거나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나듯, 그로부터 이 생명이 온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그 생명은 마치 반죽을 서서히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점차적으로 그 힘을 얻어 가는데, 이는 죽음 속에서 우리의 일부를 하나씩 차례로 끌어내어 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가득 채운 뒤, 썩어가는 것은 썩어가는 곳에 남겨두고, 살아 있는 것은 생명의 영역, 곧 신성한 세계로 넘겨주거나 옮겨 놓는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지만, 전적으로 단지 말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영과 영혼을 구분하기를 원치 않는 이들에게는, ‘영’이라는 말로 우리 비물질적 측면의 가장 높은 차원을 이해하고, ‘영혼’이라는 말로 그 측면의 더 낮은 차원의 작용과 방향을 지칭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안토니우스 대성자(『자비』 제1권, 166번 명언 참조)에 따르면, 오직 생명만을 부여받은 존재(식물)가 있고, 생명과 영혼을 부여받은 존재(동물)가 있으며, 생명과 영혼, 그리고 지성을 부여받은 존재도 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다. 여기서 ‘이성’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삭 시리아인 역시 세 부분을 구분하며, 에프라임 시린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부들은 영, 영혼, 육체를 인정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보존하시기를**”(살전 5:23).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영과 혼을 쪼개어분별한다**”고 말할 때, 우리 안의 영과 혼이 뚜렷이 구분됩니다(히 4:12).

10. 그리스도인과 죄인 내면의 인지력, 욕망, 감정의 상태

이제 참된 기독교인의 은혜로운 삶이 각 사람의 능력과 자질에 미치는 영향과, 죄가 각 능력과 자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죄가 우리의 어떤 부분을 해치는지, 마치 해로운 이슬이 꽃을 해치듯이, 그리고 회개한 죄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 부분을 다시 소생시켜 참된 모습으로 드러내시는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 안에는 세 가지 힘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고, 죄인과 의인 안에서 이 힘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한 것이었으니, 이제 같은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내면에는 세 가지 종류의 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 상상, 추론; 욕망, 성향, 행동, 그리고 온갖 종류의 감정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의 구성에서 몸, 영혼, 영이라는 세 부분을 구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세 가지 종류의 행동 또한 우리 안에

서 세 단계, 즉 세 가지 상태, 곧 동물적, 영적, 영적인 차원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이 각 행동 영역의 기초에 특별한 힘을 두어 볼 때, 우리는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육체—이 거칠고 물질적이며 원소적인 구성—의 가림막 아래에서 작용하고 활동하는 아홉 가지 힘의 계층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마치 자연에서 아홉 가지 물질적 힘의 계층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행성의 거친 구성 아래에서 작용하는 것과 같으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아홉 계급의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

1) 인식 능력의 상태

이 아홉 가지 능력 각각을 죄의 작용과 은총의 영향 하에서 설명해 보겠다. 사물을 인식하거나 사람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능력들부터 시작하겠다.

이 능력들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관찰과 상상력, 기억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이 자료들을 지식으로 변환하는 이성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뚝 솟아 있는 것이 바로 이성으로, 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과 영적인 것들, 그리고 이미 이성을 통해 인식된 사물의 가장 내면적인 측면을 인식합니다.

a) 최고 인지의 능력, 즉 이성의 상태

a) 가장 높은 인식 능력, 즉 이성의 상태

이성의 인식 대상은 무한한 완전성을 지닌 최고 존재인 하나님과, 영적 세계의 도덕적·종교적 질서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창조와 섭리, 혹은 피조물의 구조와 자연 및 인류의 사건과 현상의 흐름에 반영된 신성한 영원한 질서이다. 이 모든 것은 심오하고 신비로운 대상들이며, 이성인 그 진정한 모습 그대로 신성, 영, 그리고 물질 세계의 신비를 관조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의 가능성은 우리의 영 자체가 영적 세계에서 비롯되었으며, 그곳에 대한 일정한 소질과 기대, 그리고 요구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실제로 경험은 우리에게 신성, 도덕적 질서의 섭리, 더 나은 영생 등에 대한 욕구가 있으며, 이 모든 대상에 대한 공통된 믿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구, 신념, 열망은 보통 ‘아이디어’라고 불리거나, 우리가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것보다 존재와 완전성 면에서 더 나은 무언가에 대한 불확실한 관조로 불린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우리의 영혼이 그 세계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신시켜 주는 만큼, 그 세계를 인식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인식하고 관조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추론할 수 있을 뿐, 그 실재에 대해서는 추론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마치 우리 눈에 시각 능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가능성만 보일 뿐, 실제 시각 자체는 그 자체의 조건에 종속되는 것과 같다.

아이디어를 실제적인 관조로 여기는 사람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단지 보이지 않는 사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며, 이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음식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대상들이 무엇이며, 어떤 성질을 지녔으며, 어디에 있는지는 여전히 알아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에 대한 이 지시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

이고 추론적인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 자체로가 아니라 오직 그것을 향한 강한 욕망에 의해서만 설득력을 가지므로, 그 보이지 않는 사물들에 대한 욕망을 약화시키거나 없애면, 그 존재에 대한 확신 또한 약화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영적 인식, 즉 이성인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한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요구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확신을 동반하지만, 그에 대한 실제적이고 정확한 지식은 없다. 이성인 단지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능력일 뿐이다. 분명히, 이 지식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확장하기 위해서는, 마치 눈의 시각 능력을 실제 시각을 통해 단련하고 다양화하듯이, 이 영적 시각 능력을 실제적인 시각으로 단련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감각적인 눈이 감각적인 사물들과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처럼, 그 세계와 직접적인 교감과 접촉을 맺어야 하며, 즉 하나님과 영적 세계와 교감해야 한다. 이러한 교감이 없다면, 영적 인식은 우리 영 안에서 영원히 추측에 불과한 요구로만 남을 것이며, 결코 명료하고, 실재적이며, 확실하고 설득력 있는 지식의 단계로 올라서지 못할 것이다. 마치 눈을 감은 맹인이, 비록 시력은 손상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확실히 빛을 내는 것과 빛을 받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만 알 뿐,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그 이유는 죄에 빠지고 그 타락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과 함께 우리의 영은 모든 신성한 것과 영적인 것에서 멀어졌으며,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며, 관조하지 못하며, 그분에 대해 눈이 멀게 되었다. 그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영을 이전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만약 이제 이 조건이 오직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 회복의 힘을 받아들이기 때만 충족될 수 있다면, 참된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체화하지 않는 한 이성은 눈이 멀어 영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고, 단지 그것들에 대한 지식을 갈망할 뿐이며, 그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만, 그 아이디어는 불확실하고 모호하며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한편, 보이지 않는 세상의 대상들은 그 높이와 특히 우리 영과의 친화성 때문에, 사람을 사로잡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언제나 그러하다. 드물게 잠든 영혼이라도 그 세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지 않는가? 많은 이들이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있다. 그렇다면 이 수고의 열매는 무엇인가? 진정한 인식을 향한 유일한 길이 영적 체험, 즉 오직 은혜로 회복된 인간에게만 가능한 영적 사물의 실제 체험이라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 인식은 그다지 많은 것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길 밖에서 스스로 남겨진 이성이 이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기만 하면 된다. 그중 두 가지가 알려져 있다. 하나는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의 추론적 상승에 있으며,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서 한 힘에서 다른 힘으로의 기계적인 이동을 통해 사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영적 지식의 모호함과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이 지식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보완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첫 번째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행위로부터 만물의 원인인 하나님께로 추론하여, 그분께 고유할 수 있는 속성을 지극히 높은 수준으로 귀속시키고, 그분께 고유할 수 없는 속성은 부정하는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사상의 신비로운 영역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는 데는 의심의 여

지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이 보이지 않는 사물의 전체 영역이 아니라 오직 신성(神性) 하나에만 해당한다는 점(비록 이것이 주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외에도, 그것은 직접적이지도, 즉각적이지도 않으므로 결과적으로 여전히 가정적인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만족스럽지 않으며, 플라톤이 매우 강렬하게 표현했듯이, 항상 새로운 확증과 증거를 기대하게 만든다. 이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렇고 저렇다”는 것뿐이지만, 누군가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할 때, 이에 대답할 수 있는 이성을 항상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경험이, 예를 들어 신의 섭리나 물질이 정신에 미치는 지나치게 큰 영향과 관련하여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더욱 절실히 체감하게 된다. 사건들 사이의 비밀스럽고 헤아릴 수 없는 연관성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존재가 있는가? 자유란 있는가? 영혼이란 있는가?” 등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는 이성을, 단호한 의심 속에 머물지는 않더라도, 종종 슬픔을 느끼며 진리의 이 적에게서 오는 강력한 공격을 겪게 만든다. 이것이 앞서 제시한 방식이 낳은 결과이다. 그리고 이 방식을 잘못 사용할 경우, 실제로 이미 발생했던 것처럼 위험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에피쿠로스가 왜 신을 세계 통치에서 배제했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신을 판단했기 때문이며, 그는 스스로 달콤한 무위와 평온에 빠져 지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오리겐은 왜 영원한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는가? 그도 자신의 자비로운 마음과 관대한 성품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오직 무시무시하고 가리지 않는 독재자로만 상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어떻게 묘사하지 않는가? 천사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그 밖의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판단하지 않는가? 누구나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지식, 그리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것에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바꿔버리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 올바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아이디어들이 우화처럼 떠도는 것과 비슷하다. 이 방식에 따르면, 먼저 아이디어들이 의식으로 떨어지고, 거기서 심장으로 넘어가며, 그다음에는 상상력에 받아들여지고, 마침내 이성에 도달하여 이성이 그것들로 개념, 판단, 추론을 구성한다. 이 묘사가 경험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고, 지어낸 것이며, 그 누구도 스스로 이를 의식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이는 이성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해야 할지 스스로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진정한 방법을 상실하여 이것저것 지어내며,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준다; 왜냐하면 대상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그 대상에게 다가가야지, 그 대상과 같은 거리를 유지한 채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스스로 다양한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 안에서 스스로 명확해질 수 있겠는가? 비록 이러한 아이디어의 전환이나 마찰을 통해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들을 몰아낼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그것들이 어디서 확실성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만약 아이디어 자체가 단지 가정적인 것이라면, 그것들로부터 발전된 모든 것은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성에서, 가정적 가치만을 지닌 아이디어의 전개와 부정확하고 신뢰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 얻어낸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은,

그 자체로 추측에 불과하며,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의문을 자아낸다. ‘무엇이며, 어떻게?’—이러한 질문들을 그러한 이성은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겠지만, 결코 스스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거의 항상 부정확한데, 이는 사물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다른 사물들을 바탕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자체로 그것은 전체의 극히 일부, 즉 신의 존재와 그 속성과 같이 가장 명백한 부분에만 해당할 수 있다. 신의 세계 통치에 관한 법칙, 영적 세계의 도덕적·종교적 질서, 특히 인류 구원의 신비에 관해서는, 이것이 생각조차 되지 않거나, 가장 몽환적인 가정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이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설령 이성이 계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되더라도, 비록 터무니없는 견해는 바로잡히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지지만, 어느 정도이든 간에 여전히 추측의 여지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그때 그는 이러한 대상들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알 뿐이며, 실제로 체험해 보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수많은 진리들, 그중에서도 구원의 진리들은 마음속에 마치 낯선 무엇처럼, 거기에 우연히 놓여 있을 뿐 마음의 본성과는 융합되지 않은 채로 존재한다. 그 때문에, 심지어 그것들을 완전히 연구한 후에도 그 의미는 여전히 의심과 의아함, 그리고 가벼운 바람에 흔들리는 줄기처럼 무엇이든 흔들릴 준비가 된 우유부단함으로 가려진다. 바로 이러한 인식에 대해 성 마카리오스 이집트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영적인 가르침을 선포하면서도 그것을 맛보지도 체험하지도 못한 자들을, 나는 마치 여름의 무더운 정오에 텅 빈 물 없는 땅을 걷는 사람과 같다고 여긴다; 그 후, 강렬하고 타는 듯한 갈증에 시달리며, 마음속으로 마치 자기 곁에 달콤하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시원한 샘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아무런 방해 없이 그곳에서 마음껏 마시는 것처럼 상상하는 사람과 같다. 혹은 꿀을 조금도 맛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단맛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과 같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실천과 스스로의 탐구를 통해 완전함, 성화, 그리고 무정함에 속한 바를 깨닫지 못한 채, 이 일에 대해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 하는 자들의 실상이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 주신다면, 그들은 분명 진리와 실상이 그들의 이야기와 같지 않고, 그것과는 매우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깨어 있는 마음에 대하여』, 제18장).

“내면에 신성한 성령의 풍요로움을 지닌 자들은, 누군가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전할 때 마치 자신의 보물을 꺼내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베풁니다. 반대로, 마음속에 선한 신성한 생각들이 솟아나는 이 풍요로움을 지니지 못한 자들은, 비밀과 비범한 말씀들을, 성경의 두 언약에서 단지 몇 가지 단편만을 집어내어 허끝에 달고 다니거나, 영적인 스승들의 가르침을 들은 뒤 그들의 가르침을 자랑하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함으로써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챈다”(사랑에 관한 말씀, 제5장).

“미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만, 정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자들조차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별빛을 따라 밤길을 걷는 사람들과 같다. 그들은 아직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날이 밝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아침 별이 빛나기 전까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등불처럼 그 말씀(예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옳다*”(베드로후서 1:19). 그러나 많은 이들은 밤중에 빛 하나 없이 걷는 자들과, 그들의 영혼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작은 빛조차 누리지 못하는 자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거의) 눈먼 사람과 같다. 이들은 바로 물질과 세속적인 속박의 사슬에 완전히 묶여 있는 자들이다...” (『마음의 자유에 관하여』, 제27장).

이것이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성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의 상태입니다! 은혜의 성령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미 그 대조적 측면을 통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분명하고, 생생하며, 체험적이며, 의심할 여지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물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완전해야 한다: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 세계 통치의 법칙, 그리고 속죄의 신비, 특히 후자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속죄를 통해 마음이 그 세계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이를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성 마카리오를 참고하시기를 권합니다. 그가 이 영적 지식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명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이성의 눈이 가려졌고, 인간은 어둠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중생을 통해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로 이끌며, 그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모든 감추어진 신비를 보여 주시는데, 사람은 그곳에서 이를 체험적으로, 진실하게,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낙원의 삶을 잃었을 때, 그는 마치 두 개의 사슬에 묶인 것처럼 되었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근심의 사슬이고... 둘째로,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악의 영들로부터 어둠의 어떤 속박에 묶여 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그분을 믿을 수도, 자신의 뜻대로 기도에 전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성스러운 마음에 관하여』, 29장).

“그리스도, 곧 이 첫 번째이자 본질적인 은총이 신성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보내셨을 때, 그 이후로 신성한 능력은 모든 신자들을 감싸고 그들의 영혼 안에 거하시며, 죄악된 정욕을 치유하고 어둠과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영혼이 상처 입은 채 감금되어 있었고, 죄의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교제할 자격을 아직 얻지 못했고, 온전한 힘과 충만함으로 적극적으로 감싸줄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영혼은 어둠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려와 마음 깊은 곳에 거처를 삼은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마치 영혼과도 같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는,*” 사도가 말하듯이, “*주님과 한 영이 된다*”(고린도전서 6:17; 『마음의 자유에 관하여』, 제12장).

“우리 모두, 즉 완전한 믿음으로 성령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가리워지지 않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누군가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덮개가 벗겨집니다...*”(고린도후서 3:16-17). 이를 통해 사도는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에게 자유롭게 침투해 온 어둠의 베일이 영혼 위에 덮여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으며, 이제 성령의 빛으로 인해 믿는 자들과 진정으로 합당한 영혼들로부터 그 베

일이 벗겨지고 있음을 밝혔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믿는 자들이 이 거룩함의 경지에 이르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다”(『마음의 자유에 관하여』, 22장).

은혜는 내면의 사람과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임하여, 범죄 이후 인간에게 씌워진 사탄의 베일을 벗겨내고, 영혼을 온갖 더러움과 불결한 생각으로부터 정화하며, 영혼이 본래의 본성으로 돌아가서, 열린 눈과 맑은 시선으로 참 빛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이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부터 그 세상의 아름다움과 기적들을 녀을 잃고 바라보게 된다. “상처 하나 없이 건강한 육신의 눈이 태양의 광채를 자유롭게 바라보듯이, 이들도 깨달음과 정화를 얻은 마음을 통해 곳곳에서 주님의 흠 없는 광채를 뵈히 바라본다”(『깨달음받은 마음에 관하여』, 제13장).

“눈과 혀와 귀와 다리가 없이는 보고, 말하고, 듣고, 걸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베푸시는 역사 없이는 신성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신성한 지혜를 깨닫거나,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없다. 그리스의 현자들은 학문을 연마하고 열정적으로 논쟁에 몰두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비록 학문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신성한 지식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전해진다”(『깨어 있는 마음에 관한 말씀』, 제15장).

“진실로 복이 있고, 이 세상 삶과 초자연적인 기쁨 속에서 행복한 이들은, 덕스러운 삶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통해 성령의 천상적 신비에 대한 체험적이고 실감 나는 지식을 얻었으며, 하늘에 거처를 둔 자들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능가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땅 위에서 활동하는 강자나 현자, 혹은 지혜로운 자들 중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 그곳에서 영적인 일을 행하고 성령의 아름다움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반면, 겉보기에는 거지, 극도로 가난하고 천대받는 자, 이웃들에게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 자신의 영혼의 확고한 믿음으로 그곳에서 기적을 누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며, 그곳에 거처를 삼고 있습니다. 신성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빌 3:20); 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고전 2:9)라고 하셨으며, 이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성령으로*”(고린도 전서 2:10)”(사랑에 관하여, 17장).

“영혼에 뿌리내리고 그와 하나가 된 은혜를 가진 자는... 다른 부요함과 다른 영광과 다른 명예를 체험으로 깨달았으며, 썩지 않는 기쁨으로 영혼을 채우고,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그것을 느끼고 온전히 누린다”(사랑에 관한 설교, 22장).

“이성 있는 목자와 말 없는 가축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와 같은 사람은 이성과 지식, 그리고 판단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그만큼 구별되는데, 이는 그가 이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영과 다른 마음, 다른 이성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사랑에 관하여』, 23장; 다양한 은혜의 계시, - 같은 책, 6장).

“신성한 사도 바울은 믿는 영혼이 하나님의 역사, 즉 성령의 계시와 능력 안에서 비추는 하늘의 빛을 통해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비를 체험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누구도 성령의 빛이 오직 이성의 인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무지와 태만으로 인해 완전한 은혜의 신비에서 벗어나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마음의 자유에 관하여』, 제21장).

“그 성령의 광채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지 마음의 조명과 은총으로 인한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에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비추는 본질적인 빛의 광채이다”(『마음의 자유에 관하여』, 제22장).

“그리고 복된 바울에게 길 위에서 비추었던 빛, 그 빛을 통해 그가 세 번째 하늘까지 들려 올려져 형언할 수 없는 신비들을 듣게 되었으나, 그것은 생각과 이성의 어떤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의 본질적인 빛의 광채였으니, 그 비범한 광채로 인해 육신의 눈은 그 빛을 견디지 못하고 눈이 부셨으며, 이를 통해 모든 지식이 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타나신다”(『자유로운 마음에 관하여』, 제23장).

“모든 영혼은, 자신의 노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총의 작용과 확신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입혀지고 썩지 않는 형상의 하늘빛과 연합하여, 이제 이미 하늘의 신비에 대한 본질적인 인식에 참여하고 있다”(『자유 의지에 관하여』, 제24장).

“처음에... 죄에 대한 죽음의 선고가... 영혼 안에서 드러났던 것처럼, 즉 영적 감각들이 하늘의 영적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꺼져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듯이, 이제 구세주의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 인류와 화해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믿는 영혼에게, 아직 육신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에게 다시 천상의 빛과 성사를 누리게 하시고, 다시 신성한 은총의 빛으로 지적인 감각들을 비추어 주신다”(『자유로운 마음에 관하여』, 제26장).

“신랑과 신부의 교제, 찬양하는 합창단, 축제에 대해 듣게 될 때,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상상하지 말라. 이는 단지 자비로 인해 비유로 든 것일 뿐이며, 그 일들은 형언할 수 없고 영적이며 육신의 눈으로는 닿을 수 없으나, 오직 거룩하고 신실한 영혼만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교제, 하늘의 보물, 찬양하는 천사들의 합창,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축제는 이를 직접 체험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으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도 네 믿음으로 인해 그러한 은혜에 이르는 자격을 얻게 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말을 경청하라. 그때에야 비로소 너는 영적인 눈으로 직접 체험하며, 이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영혼들이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사랑에 관한 설교, 13장). 이에 대해서는 성 이사악 시리아인의 55번째 설교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성 마카리오스 대성인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해 은혜의 그릇이 된 사람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시는 바를, 단지 가장 상세하게 설명하거나 자신의 체험을 통해 입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쁨 부음”(요일 2:27),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고린도후서 4:6), “빛”(요한일서 2:9-10), 영적 사물에 대한 “지혜와 계시”(에베소서 1:17), “영적인 지식”(골로새서 1:9-10), “그리스도의 마음”(고린도전서 2:16)이 주어진다.

반면,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으로 가려져 있다(엡 5:11-18), “어둠”(엡 5:8-10),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엡 2:12; 행 3:13); 그에게는 참된 지혜가 감추어져 있으며(고후 4:4), 그는 “이해할 수 없다”(고전 2:14).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성(이성)은 그 진정한 모습과 온전한 아름다움 속에서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영 안에서만 드러난다. 죄에 얽매어 있거나 마음의 청결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이론적인 지식이 참된 이성의 통찰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음 위에 먼지처럼 얹혀 있어 곧바로 날아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니, 즉 그 지식은 그들의 본질과 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유한 추측적 성향이 사라지지 않고, 종종 의심에 시달리며, 때로는 매우 깊은 의심을 겪기도 하는데, 특히 구속의 신비와 그 수용 조건이 있는 영역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자신을 정화하여 진리와 하나가 된 자는 그러한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참조: 성 예로니모 그레치우스, 『기독교 독본』, 1821). 신성한 성경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 관해 말하자면, 그 안에는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의 불완전함, 부정확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측성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즉 사람이 타락한 정욕에 빠지지 않고 열성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몰두하며 선의로 그것들을 분별하고자 할 때의 이야기이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한 진리들에 무관심하고, 이를 밝히고 알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정욕에 사로잡혀 있다면, 비록 자신이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지라도, 사실 그는 전혀 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서둘러 포착하거나, 암기하거나,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몇 가지 생각들—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부이다. 대다수의 경우 무지나 의심, 그리고 경솔함이 특징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진정으로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성소가 황폐해져 있고, 짙고 뭉클할 수 없는 어둠과 암흑이 깔려 있다.

이것이 이성(이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이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확고히 해야 한다. 보이는 세계와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여기서는 다른 능력들이 작용하며 다른 방법들이 사용된다.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로부터 큰 해악이 비롯된다... 보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떤 이는 이것저것 조금 알게 되자 “자, 이제 알겠다!”라고 말하며, 핵심을 돌보지 않은 채 거기서 멈춰 선다. 다른 이들은 그를 높이 평가하고 모든 면에서 스승으로 모시지만, 그는 계속해서 부수적인 이야기만 할 뿐, 정작 핵심은 자신도 모른다.

b) 이성의 상태

b) 이성의 상태

보이는 것, 피조된 것, 유한한 것을 인식하는 데 쓰이는 능력을 이성(이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 특성이다. 바로 그 특성들에 특별한 주목을 기울여야 한다. 이 이성(이성)은,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덕이 있든 악하든, 특히 어떤 학문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데 전념하는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때, 그 모든 힘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하다. 이성을 지성과 혼동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위대한 지성인으로 여긴다. 그들 자신은 항상 자신이 아는 것에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이론 수준에라도 도달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이들은 그들의 방대한 지식—대개 고상한 어조로, 교묘하게 엮인 말들로 표현되는—을 하나님의 성도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말들과 비교하며, 어쩌면 후자들에게는 전자들

에 비해 많은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서 이성이 어떠한지 하고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이성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성이 지식의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줘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이성의 활동은 직접적으로 상상력과 기억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둘은 감각을 매개로 하여 관찰이든, 독해나 청취를 통해서든 이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밖과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것과 존재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모든 것이 시공간적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나타나는 그대로 전달해 준다. 이 모든 자료, 즉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아직 마치 정제되지 않은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성은 이를 명료한 개념으로 전환하고 사고를 통해 그로부터 지식을 구축해야 한다.

이성의 활동 양상은, 이성이 손에 닿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들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성은 유도를 구성하고, 개념과 판단 및 추론을 형성하거나, 달리 말해 일반화를 수행하며, 사상을 규정하고 발전시킨다. 그러나 이성의 이러한 측면(형식적 측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다루지 않아도 된다. 이성적 인식의 내용(이성의 실체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이성이 사물을 인식할 때 주목하는 측면들, 즉 사물의 속성과 구성, 사물 간의 인과적 관계, 즉 원인과 작용, 수단과 목적, 물질과 형태이다. 이것이 실제로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오직 존재와 현상, 즉 ‘있는 것’과 ‘일어나는 것’만을 보기 때문이다. 첫 번째 경우, 사물의 속성과 구성 외에는 더 알아볼 것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에도 인과관계, 즉 ‘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외에는 더 알아볼 것이 없다.

두 경우 모두 이성의 기초는 관찰과 경험이어야 하며, 그 도구는 일반화와 귀납이어야 한다. 이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예시를 통해 더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이성이 인간의 속성과 구성을 파악하고자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를 위해서는 인간과 그의 행동,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오랫동안 관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찰들은 자료를 구성하며, 이 자료들이 수집되면 일반화와 귀납이 시작된다. 이렇게 자료를 그룹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성은 인간 내부에 표상, 욕망, 감각이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이 행동 영역들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모두 감각적, 정서적, 영적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성은 인간에게 세 가지 힘과 세 가지 부분이 있다고 가정해야 할 것이다. 이 둘 모두의 출발점은 인간의 인격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구성상 세 가지 힘과 세 가지 부분이 결합된 존재이며, 이들은 서로 얽히며 하나의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인격으로 수렴된다. 동시에 그는 추상화를 통해 각 힘과 각 부분이 어떤 성질을 지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얼굴 그 자체가 어떤 것인지, 혹은 각 인간 인격의 불가분의 속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도출해 낼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의식, 자유, 그리고 생명이다.

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에 대한 인식에 있어 이성은 그 구성과 속성에 대한 인식으로 불가분하게 거슬러 올라간다. 즉, 작용에서 그것을 일으키는 힘으로, 힘에서 그 힘들의 상호 관계와 구조로 나아간다.

현상과 사건에 대한 인식은 사물의 속성과 구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구축되며, 그로부터 파생된다. 사물과 그 활동의 힘 및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현상과 사건을 설명하는 데 있어 출발점이 된다. 여기서의 기초는 동일하다: 관찰과 경험이지만, 대상은 다르고 측면도 다르다. 이 경우 이성에게는 더 많은 생동감과 기민함이 요구된다. 원인을 포착하고, 목적을 추측하며, 결과를 저울질하는 것은 더 추상적이고 사고의 자유를 더 많이 허용하는 활동이지만, 그 대신 훨씬 더 오류가 많고 신뢰도가 낮다. 이성의 과제는 현상의 원인, 수단,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는 법칙, 현상과 관련된 상황, 그 목적과 결과, 발생 양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성이 “알려진 원인, 알려진 법칙, 알려진 수단, 그리고 알려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러저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확신 있게 만족스럽게 답할 수 있을 때, 이성의 작업은 끝나는 것이다. 첫 번째 정의는 마지막 질문에 답하기 위한 준비, 즉 일종의 자료에 불과한 반면, 마지막 정의는 그 자체로 지식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현상에 대한 지식이란 원인과 관련된 상황들을 바탕으로, 그 현상이 다른 방식이 아닌 바로 그 방식으로 전개된 것이 불가피하고 필연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기원을 관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과정을 분석하려는 사람은,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 일을 일으켰는지, 무엇이 그에 기여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이를 정확하게 파악할 준비를 하게 되며,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상황과 몽골인의 특성에서 어떻게 비롯되어 당시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대로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필수적인 과업들을 고려할 때, 이성 또는 이성과 관련된 인간에게 다음과 같은 훌륭한 자질, 즉 이성의 미덕이라 부를 수 있는 미덕들을 요구할 수 있다: 노력 — 그는 자신의 관찰이든 타인의 관찰이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한다. 역사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다. 성실성. 노동을 꺼리거나 대충 하는 태도는 일을 서두르게 할 수 있으며, 그 후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누락을 허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일반화와 추론에서 큰 오류가 발생한다. 이를 시작할 때, 사람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다. 세심한 주의.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의 수나 세부 사항이 놓칠 수 있다. 사소한 것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더 숨겨져 있을 수 있다. 많은 것이 하찮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는 중요할 수 있다. 시야의 누락이나 실수는 이성의 모든 사고 과정에 치명적인 반전을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항상 타인을 신뢰하고, 그들과 상의하며, 필요할 때는 그들의 판단에 따를 필요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가능한 한 자신의 추론에 절대적인 확고함을 덜 부여하고, 자신의 시야가 좁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미덕들과 정반대되는 이성 활동상의 결점은 오만과 독재, 경솔함, 불성실함, 그리고 피상적이고 변덕스러운 태도이다.

이러한 지적을 마친 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과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의 이성 상태를 정의해 보겠다.

전자의 경우, 이성은 거의 항상 뒤틀린 방향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점에 있어 끝없는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측면들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을 이성적 활동의 유형에 따라, 혹은 그 미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주로 사물을 인식할 때 이성이 사용하는 방법(형식적 활동)에 머무르며, 스콜라 철학자들의 본을 따라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들로 모든 것을 구성하려 하거나, 헛소리만 늘어놓는 소피스트들의 본을 따라 똑같은 사안에 대해 “예”와 “아니오”를 똑같은 힘으로 단언하려 한다. 스콜라주의와 소피즘은 자료가 부족할 때 이성에게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이성은 활동을 필요로 하는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신의 힘을 쏟을 대상이 없을 때, 이성은 그 힘을 자기 내부에서 맴돌게 되며, 그 안에 오직 형식들만 남아 있으면 마치 한 방에서 다른 방으로 이동하듯 그 형식들을 오가게 된다. 이때 품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심한 스콜라주의자가 될 것이고, 타락했다면 공허하고 사악한 소피스트가 될 것이다. 다른 이들은 지식 그 자체를 습득하는 데(물질적 활동에) 더 기울어지며, 다양한 주제에 관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들은 대개 엄청난 기억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들의 머리는 온갖 잡다한 것으로 가득 찬 끝없는 창고와 같다. 이러한 종류의 노력은 사물을 아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어떤 면에서 이성의 부정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자료들이 검토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 남아, 머리를 무겁게 만들거나 무분별하게 사용될 뿐이다. 지각력과 이성의 자율성은 억눌려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그 둘의 중간에 위치하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들은 주로 이성적 미덕을 저버리는 자들, 즉 머리를 써서 노력하거나 일하기를 원치 않고 성실함도 거의 없으며, 그저 대충 넘어가려는 자들이다. 한편, 엄청난 오만함으로 모든 것에 대해 판단을 내리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신중함도 없이 행동한다. 이들은 경솔한 자, 자만하는 자,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처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이 중간 지대에는 거의 끝없는 무감각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든 듣거나 보는 것에 만족할 뿐, 스스로는 말하자면 정신적인 ‘다리’나 ‘손’조차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점들은 명백히 이성의 불건전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성을 지닌 영혼 전체의 병적인 상태를 폭로한다. 이를 통해 볼 때, 올바르게 걷는 길은 걷는 사람들의 이성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모르고, 절제와 미적 감각, 그리고 인식 대상들을 검토할 때 본래 지녀야 할 방법을 상실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점들이 사람들의 어떤 신체적 장애의 결과가 아니라, 그들의 도덕적 타락의 산물이라는 사실은 그 특성 자체만으로도 이미 명백하며, 경험에 따르면 누군가 앞서 언급된 그릇된 경향 중 하나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전까지는 그로부터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된다; 적어도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 반면, 하나님을 향하고 회복의 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이러한 결함이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머리를 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생각으로 교묘하게 속이려 하지 않으며, 일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이후의 투쟁 중 일부는 바로 자신의 이성과의 투쟁, 즉 앞서 언급된 그 잘못된 작용들에 대한 투쟁을 포함한다. 게다가, 그것들은 어떻게 사람에게 스며드는가? 자신과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부주의와 안일함이라는 죄를 통해서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힘이 있는 사람은 죄 속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 은혜를 얻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이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지어 학문적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조차도, 크든 작든 이 힘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에 대한 일정한 예외는 탁월한 이성을 지닌 사람들(물리학자, 수학자, 역사가)이다. 그들 중 다수

는 정확하고, 고된, 정교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만, 사고 방식과 삶의 태도 면에서 은혜의 왕국 밖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들은 이성적 활동에서, 즉 형식적 활동과 물질적 활동 사이에서 진정한 중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가능한 한 이성의 미덕을 실천하고 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성공은 그들로 하여금 위로부터 오는 어떤 도움도 멀리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온전하고 무사하다고 믿게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심은 바로 지금 그들의 이성이 건전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왜냐하면 건전한 이성은 언제나 자신의 약점과 무력함을 뚜렷이 인식하고 지적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이러한 오만함이 거의 모든 건전한 이성을 가진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 모두를 손상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는 그들의 서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의 전 과정을 알지 못할 뿐이며, 공개된 저작들을 더 꼼꼼히 검토할 여유가 없을 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서 상당한 공통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실제로 발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경험의 공백을 메우고 자신의 이론을 옹호하기 위해 추상적인 개념을 억지로 끌어다 쓰는 것, 소수의 사실로도 만족하는 것,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생각에 따르면, 모든 것에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하고 타인의 생각을 폄하하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계층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려 하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들도 때로는 소피즘과 스콜라 철학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성의 미덕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이 후, 이러한 확고한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즉,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죄와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성은 전반적으로 그토록 혼란스러워져서, 아무리 학식이 깊은 이들이 노력해도 그 이성은 자신의 무력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누구나 하루 동안만이라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우리의 평범한 개념, 판단, 사고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노력한다면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거의 모든 곳에서

명확하지 않고, 산만하며, 무책임하고, 그 가치와 위계를 알지 못하므로 결과적으로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

판단에서는: 경솔함과 성급함, 감각적 경향, 변덕스러움, 평가의 부재, 무지, 수다스러움과 우스꽝스러움, 피상성;

결론에서는: 근시안적 사고와 단견, 근거 없음 또는 추측, 편견과 소피즘.

또한: 불신, 경솔한 믿음, 고집, 교활함과 교묘함, 특히 말과 생각의 공허함은 이성이 대부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마치 매복에 걸린 듯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거나, 행동하더라도 그릇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며, 이는 올바르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해당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이성이 앞서 언급된 양극단 사이에서 진정한 중도를 지키며,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 성공적으로 나아간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어떤 지식은 이성이 스스로 얻어내지만, 다른 지식은 이성이 이성과의 연관 속에서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성이 때로는 혼자서 파악할 수 있는 인식도 있지만, 이성은 이성과 분리된 상태에서는 결코 파악할 수 없는 인식도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모든 피조물이 오직 이성의 대상일 뿐이라고 가정해 보자.

사실적인 측면 외에도, 모든 사물에는 오직 내면적으로만 사색되고 이해되며 관조될 수 있는, 그 사물의 가장 내재적인 본질이 존재하며, 이는 사물의 사실적인 측면에 각인되고 표현되어 있다. 모든 피조물은 힘과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알려진 패턴이나 사고에 따라 조화롭게 결합되어 있고, 바로 그 패턴이나 사고를 자신들 위에 각인해야 한다. 이 사상은, 그러나 사물 속에서 다른 부분들과 나란히 놓인 가시적인 부분이 아니라, 가시적인 것 아래에 숨겨져 있으며, 그것을 관통하고 생명을 불어넣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은 만져지는 것보다 더 사고되고 관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순히 상상 속의 무언가가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 내재된 사상이다. 마치 그림에서 보이는 윤곽, 부분들의 조합, 다양한 자세, 색채와 색조가 그림이 표현하고 그 안에 스며든 어떤 사상에 의해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 사상은 그림에 내재되어 있으며, 다른 것들과 나란히 놓여도 별도의 부분을 이루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물에는 그 자체의 숨겨진 사상, 즉 생명을 불어넣는 본질이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 전체 구성은 물론 가장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로운 예술 작품이기 때문이다. 세상과 그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상(이상적인 세상)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던 것이, 시간 속으로 넘어오거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실현될 때 무한한 힘과 원소들로 옷 입혀져, 이를 통해 현실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지금도 신성한 세계 통치의 숨겨진 계획들이 자연과 인류의 다양한 현상들이 다채롭게 어우러진 조합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눈에 보이는, 드러난 측면을 보게 되며, 그 아래에는 힘과 원소들이 있고, 그 아래에는 또 그곳에 감춰진 하나님의 생각을 간파해야 한다. 이 생각이야말로 우리 노력의 목표이며, 이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준비 단계의 지식에 불과하다.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색채를 설명하고, 구성 요소를 열거하며, 그 위치와 조합을 묘사한다고 해도, 그림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림이 표현하는 핵심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피조물과 현상,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즉 사물 속에는 힘과 원소의 구성이 있고, 사건 속에는 원인의 결합과 그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사물과 현상에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깃들여 있는지, 그것들이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의 영원한 의미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 한, 사물도 현상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물과 사건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감각이 우리에게 알려준다. 겉으로 드러난 것 아래 숨겨진 힘과 원소는 이성이 일반화와 귀납을 통해 알아낸다. 그렇다면 그것들이 표현하는 사상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예술가의 사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적 감각을 통해서다. 즉, 그림을 창작하는 데 기여했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을 통해서다. 피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의 이성으로부터 그 안에 부여된 내재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오직 신성한 속성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 안

에 있는 이 힘은 영이며, 영 안에는 이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성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끝까지, 즉 힘과 원소들이 얽힌 지점까지 도달하여 모든 사실적인 것을 파악했다면, 이성(이성)은 마치 이성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해야 한다. “가서, 여기에 또 무엇이 있는지 보아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성(이성)이 건전하고 통찰력 있는 이성(이성)이어야 하며, 맹목적이고 타락한 이성(이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마치 오직 건전한 감각만이 예술 작품의 아이디어를 인식하듯이 말이다. 우리가 보았듯이, 건전하고 통찰력 있는 이성(이성)은 죄에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만 있으며, 죄를 행하고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이성(이성)이 왜곡되어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 따라서 사물 속에 감춰진 것을 아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후자에게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사물의 숨겨진 면을 밝혀내려는 열망이 우리 정신에 본래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든 사상이가 증언하고 있다. 물리학자는 존재, 힘, 원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고, 역사가는 사건의 의미를 규명하며, 심리학자는 각 능력과 인간 그 자체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명히 누구도 사실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며, 누구나 그 이면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어 한다. 보통 이를 철학이라 부르거나, 지식 속의 이상성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이 아무리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며, 마치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필수적인 조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계시를 통해 발달된 이성(이성)뿐만 아니라 은총으로 깨달음을 얻은 이성(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고의 구조는 순전한 환상에 불과할 것이며, 그 증거는 철학사의 전 과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이성)이 왜곡되고, 그 안에 남아 있는 진리의 극히 일부조차 설득력 면에서 단순한 가정에 불과할 때, 이성(이성)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바탕으로 구축해 나가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성질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거짓되고 몽환적인 것이다. 이것의 필연적인 결과는 사실 그 자체도 왜곡되고, 이성(이성)이 때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법칙, 힘, 자연의 원리로 단정 짓는 데 제멋대로 행동하게 된다는 점이다(오늘날의 지질학자들). 이성(이성)은 흐려지고, 그 후 온전한 어둠이 지식의 전 영역을 뒤덮는다.

삶이 청렴하고 위에서 계시를 받는 사람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그는 내면의 비밀을 감지하면 침묵하지 않겠지만, 결코 진리의 관조인 척하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양 내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전지전능함이 주어지지 않지만, 사물과 현상 속에 감춰진 비밀에 대한 지식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직 은총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는 것이 확립된다. 왜냐하면 그 영역은 본래 신성한 지성의 영역이며, 거기에는 하나님 왕의 지적 보물들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누구도 폭력이나 제멋대로의 행동으로 그곳에 침입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말라. 진정한 철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 하나님께 밀착된 인간의 이성(이성)은 그분께서 존재와 현상의 신비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으며, 왜냐하면 성 마카리오스 대성인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달음을 얻은 영에게 전달하는 계시들 사이에서, 그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은밀하고 신비로운 구속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주어졌으니, 창조와 섭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성 이사악 시리아인의 저서에서 이 영적 이성(이성)을 ‘신비의 체험’, ‘은밀한 것의 체험’, ‘최고의 영적 관조’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그의 ‘이성의 세 단계’에 대한 말을 참조하라). 성 막심 고백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하나의 중심에서 직선으로 뻗어 나가는 반지름들의 기초가 그 중심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그분 안에 포함된 모든 피조물의 원형에 대해 갖는 인식도 것처럼 단순하고 단일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독본”, 1835, 1권). 여기에는 또한 솔로몬의 증언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거짓 없는 지식”을 주셨으며, 그로 인해 “숨겨진 것과 드러난 것,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잠언 7:17, 7:21).

이제 누군가 참된 사상이나 사물과 철학에 대한 이상적인 지식을 찾고자 한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다음 성부들의 저술에서, 그리고 우리 예배 서적에서 그것을 찾으려 하라. 예를 들어,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러 오셨다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허의 형태로 임하신 성령의 강림이 바벨탑 사건 때 언어의 혼란으로 나뉘었던 모든 민족의 연합의 시작이자 기초라고, 우리의 삶은 나그네 생활이며 자선은 하늘의 보물을 향한 전조라고 하는 등, - 이 모든 것은 참된 관조의 사상이나 내면의 신비를 느끼는 감정을 나타낸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은혜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종종 이성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사물의 의미를 관조한다는 것이다. 즉, 그들의 이성 아직 사물의 실제적 구조를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인데도, 그들은 이미 그 의미를 관조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학식은 풍부하지만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실제의 삶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며, 그 안의 모든 것을 아주 사소한 세부 사항까지 다 다루는 듯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보지 못하고 설명할 줄도 모른다. 이제 이 둘을 그들의 진정한 가치에 따라 평가한다면, 분명히 전자가 후자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에게는 없어도 될 것, 즉 단지 수단에 불과하고 누구나 쉽게 보충할 수 있는 것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 후자에게는 그 자신이 보충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선조들의 저술에서 현재의 경험적 지식에 반하는 어떤 언급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마음속으로 즉시 그들을 어떤 박식한 물리학자보다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 시대에는 사물의 실상이 그렇게 이해되었고, 우리 시대에는 그것이 사실로 인정되며, 나중에는 어쩌면 또 다른 방식으로 묘사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처음에 지적된 진정한 의미는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실리우스 대제의 ‘창세 6일’에 관한 강론을 읽다 보면, 현대의 물리학자들이 반박하는 두세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 그의 글에서는 어떤 물리학도 제공할 수 없는, 사물의 가장 귀중한 비밀들이 끊임없이 제시되고 있다. 이로부터 당연히 알 수 있듯이, 가장 완벽한 지식은 이성 속의 은총 어린 계몽과 다방면에 걸친 지식을 겸비한 이가 지닌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볼 때,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더 높고 귀중하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영혼 속의 이러한 지식의 완전함은 이성보다는 이성보다 더 가까운 것, 혹은 더 정확히 말해 이성이 이성으로 채워진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성 그 자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임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종종 비자발적인 것까지 포함된 그 불완전함의 소멸과, 이성의 치유이다. 은총이 찾아오면 많은 지식을 가져다주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주의력을 가르치고 마치 사물을 정확하게 살피도록 의무화하는 듯하다; 그것은 그에게 사고의 법칙을 해설해 주지는 않지만, 진리에 대한 사랑을 불어넣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인 것에 의존하지 못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그를 진정한 중도로 인도하고 그곳에 굳건히 세워주는데, 이는 그가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

이다. 이로 인해 학문에 전념하지 않았던 사람조차 종종 분별력 있고 건전한 사고를 갖게 되며,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마침내 그 자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닌, 충분하고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된다. 반면 학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한 연구 방법과 진리를 발견하는 예민한 감각, 그리고 진리로 이끄는 진정한 길이 형성되는데, 이는 이성적 미덕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이제 다른 미덕들과 함께 마음으로 되돌아오는데, 예를 들어: 노력과 일하는 능력, 성실함, 신중함, 겸손한 신뢰,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그의 지적 활동에 특별한 속성, 즉 성공, 견고함, 결실을 맺는 능력을 부여한다. 이러한 이성적 활동의 건전함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며, 그의 일상적인 행동과 대인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명료함, 명확성, 뚜렷함 외에도 일정한 심오함을 지닌 개념들에서; 정확성, 신중함, 실감성, 분별력을 갖춘 즐거움에서; 견고함, 선견지명, 통일성, 조화로운 구조를 갖춘 사고에서 드러납니다. 이러한 특성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그에게 ‘건전한 이성을 가진 사람’ 또는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부여합니다.

이제 악한 의지가 이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성이 이성을 압도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 두 가지 주석을 덧붙여야 한다.

반면, 올바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의 이성은 그 자체로 지탱할 버팀목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동안, 의지는 조금씩 그 안에 자신의 타락을 주입한다. 여기서 사도가 말한 세상의 요소들이 형성된다: 육신의 생각, 악마의 지혜, 즉 방탕한 의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신념들이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삶은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며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오직 와 삶만이 존재한다는 것, 지상의 번영과 행복만이 중요하다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강력한 후원자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나, 상황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등의 생각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판적 검토 없이 이성에 담겨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편견입니다; 말로는 드물게 표현되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간직되어 오직 본인만이 알고 있으며, 번잡함이 없는 시간에 은밀한 생각의 형태로 의식에 떠오르기도 하고, 더 나아가 그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숨겨진 원동력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설령 의지의 그러한 손상 없이도 이성이 남아 있었다고 해도, 이성이 이성을 압도할 경우 더 높은 진리들에 큰 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의지가 이성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때, 이러한 해악은 훨씬 더 크고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성의 주된 대상은 우리 안과 밖에서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들, 그중에서도 특히 후자임을 잘 알려져 있다. 이성 활동의 토대는 경험이다. 이성은 경험에서 출발하며, 그 이전이 아니다. 따라서 이성적 인식의 주요 속성은 경험성이다. 이성은 경험에서 출발하며, 이를 자신에게 친숙한 방식에 따라 재구성한다. 이성의 단계에 서서 주로 이성을 통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는 서서히 경향이 형성되는데, 이는 나중에 영구적인 규칙으로 이어지며, 지적 성향—즉,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는 경향—이 된다. 이 과정에서 영적 세계는 서서히 필연적으로 가려지게 되고, 그에 대한 지식은 중요성을 잃게 된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지식은 스스로에게 맡겨진 인간에게서 추측에 불과한 반면, 이성은 모든 것을 감각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제시하며 감각적 인식에 대한 욕구를 형성한다. 이는 저절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물들에 의심의 그림자를 드리우

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성적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해 흔들리는 불신자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악한 마음과 정욕이 더해지면,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세계나 다른 법칙, 다른 희망이 없기를 바라는 강력한 근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사람은 의심을 피할 수 없거나, 더 나아가 완전한 불신에 빠지게 된다.

이성이 그 활동을 통해 언제나 사안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도출해 낸다는 사실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해력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하고, 자신의 통찰을 파악하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을 형성한다. 그 때문에 그는 계시에 마땅한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설령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오로지 자신의 이성에 따라 해석하려 하거나, 심지어 그 안에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것만을 진리로 인정하기도 한다. 이 병은 합리주의인데, 과학자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이 직접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병이 없는 경우가 드물다.

이성에서 비롯된 다른 해로운 지적 성향들은, 이성이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대상들을 위해 영혼에 강요된다.

우리 밖, 즉 우리가 주로 감정으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적이며, 모든 것이 원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곳의 모든 변화와 현상은 원소들 간의 작용과 반작용, 적대감과 화해의 결과일 뿐이다. 끊임없이 이 한 가지만 몰두하는 사람에게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결국 그러한 신념이 자리 잡게 된다. 이 불행한 기질, 즉 유물론이라 불리는 정신의 병은 주로 화학과 의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닥친다. 이 병은 항상 치명적인 결과로서 영혼의 불멸, 신, 그리고 신의 도덕법을 부정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더 나아가, 가시적인 자연 곳곳에서 관찰되는 이 메커니즘은 모든 것에 피할 수 없는 필연성의 인장이 찍혀 있으며, 그 어떤 힘으로도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모든 것이 그 필연성에 복종하지만, 그 필연성 자체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현명한 스토아 학파조차 피하지 못했던 운명론이다.

사방에서 관찰되는 자연성, 즉 모든 사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을 달성하며, 그 사물에서 비롯되는 모든 것이 그 활동의 결실이라는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돕고 지원하기 위해 다른 외부적 초월적 힘, 심지어 신의 힘조차 개입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적도 없고, 은총도 없다. 사람은 스스로 걸어가며, 가야 할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주의이다.

이성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마땅히 주어져야 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줄 때, 이성 은 그토록 위험한 산물들을 낳는다. 그들의 존재는 경험에 의해 입증된다. 여기서는 단지 영적 지식으로 계몽되지 않은 사람, 즉 그 지식은 여전히 추측의 영역에 머물러 있고 영적 경험을 통해 실감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지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덧붙이자면, 만약 이러한 것들이 올바르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발전한다면, 모든 그런 사람에게서—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은, 발전된 형태는 아니더라도 씨앗 형태로—그 존재를 가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드물며, 때때로 이를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고, 적어도 자신의 방식대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한 어둠 뒤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은혜를 받아들일 때, 사람의 영혼 속에 어떤 빛이 비추는가! 우선, 타락한 의지에서 비롯된 모든 시작은 마치 성화된 방 안의 어둠이나 성화된 장소에서 쫓겨나는 불결한 세력처럼 즉시 사라진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신념들이 회개하는 이의 마음속, 바로 회개의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마음에서 불결함이 쫓겨날 때, 그로 인한 모든 결과도 동시에 소멸된다. 그는 인생이 짧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것,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해야 한다는 것,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 등을 깨닫게 된다. 둘째, 회개가 이성의 발달을 선제적으로 막아준다면, 이성이 우세할 때 발생하는 해로운 결과들은 아예 예방되거나 그 자리에서 바로잡히며, 이성인 이성에게 복종하는 봉사하는 힘으로 변모한다. 정신적 악한 성향은 주로 이성의 지각적 인식과, 스스로 내버려진 이성의 추론적 사고에서 비롯되므로, 그 기초가 소멸되면 그 위에 세워진 것 또한 저절로 무너진다. 이 기초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께 굳게 붙어 있는 자 안에서 소멸되는데, 왜냐하면 이때부터 그는 이전에 감각적인 것들을 인식했던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관적 인식의 동등함은 의심의 동요를 없애며, 깨달음을 얻은 이성 안에서 가장 귀중한 진리들이 제시됨으로써 의식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처럼 새로운 길을 통해 사람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으나 이제는 분명히 관조하는 가장 심오한 것들을 많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성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그만두게 된다. 이미 그런 사람은 영 안에서 살아가면서 영이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며, 위로부터, 외부로부터 자신에게 임한 힘을 느낄 때 모든 것이 피할 수 없는 필연성에 종속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힘으로 자신을 억압하던 악을 피했을 때(아우구스티누스의 예)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이성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인간에게는 — 만약 과학적 탐구가 존재했거나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면 — 새로운 방향의 과학성이 시작된다. 이전에 이성이 주인처럼 행동했다면, 이제는 영적 이성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종으로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은 사물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볼 수도 없었으며, 보고 싶어 하지도 않았으나, 이제는 모든 것, 즉 사물과 현상 속에서 영적 세계의 가장 뚜렷한 반영을 보게 된다. 온 세상은 참으로 영적인 것, 신성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롬 1:20); 그러나 이전에는 이것이 눈에 띄지 않았으나, 이제는 분명히 관조된다. 그리하여 존재하는 모든 것과 나타나는 모든 것은 안토니우스 대성인이 말했듯이, 광대하고 끊임없는 교훈이나 이성적인 책으로 변모한다. 이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은, 지금 어떤 성부(聖父)의 저서를 읽으면 확신할 수 있다. 그들 각자에게는 매 순간 감각적인 것 안에서, 혹은 감각적인 것을 통해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통찰이 제시된다. 티호노 대주교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세상에서 모은 영적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무려 네 권의 책을 집필하셨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지식의 완전성, 충만함, 그리고 진리는 본래 은총으로 회복되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속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거짓이기도 하다. 오직 삶만이 지혜의 성전으로 이끈다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그토록 끈질기게 증명했던 생각이 얼마나 옳은가! 이성의 그릇된 방향에 대해서는 보통 논리학에서 다루며, 거기서 이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된다. 이러한 가르침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는 명백하다. 아무리 말해도, 내면의 변화

없이는 논리학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 “보라, 계시를 믿으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아마도 스스로에게도 똑같이 말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리고 실제로는 오직 자신만을 믿을 것이며, 혹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의지할 것이다. 우리 영혼의 능력을 마땅히 길러 내려면, 치유와 회복을 주는 은총의 수단에 영혼을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간단히 말해, 이러한 수단 밖에 서 있는 자의 지식은 이렇다. 영적 세계와 그 사물들이 마치 구름과 안개처럼 가려져 있다. 그는 그것들을 거의 믿지 않거나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의 이성적 지식은 오직 눈에 보이고, 실재하며, 만질 수 있는 것만을 향하고 있다. 사물 속에 감춰진 것은 보이지 않는다; 인과는 오직 가장 가깝고 눈앞에 있는 것들만 파악되며, 섭리의 의도는 주의에서 벗어나 버린다 ... 그러므로 그의 모든 지식은 피상적이다: 구성 면에서는 불완전하고, 전반적인 정신적 태도에서는 타락하여 어떤 그릇된 지적 기초에 의해 왜곡되어 있다.

c) 하등한 인식 능력의 상태

c) 하위 인식 능력의 상태

저급한 인식 능력이란 내적 및 외적 관찰, 상상력, 그리고 기억을 말한다. 이 모든 것은 거의 동시에 작용하며, 하나가 수행한 일은 즉시 다른 것이 받아들인다. 눈이 본 것은 그 이미지가 즉시 상상력에 의해 포착되어 마치 어떤 기록 보관소처럼 기억 속에 저장된다. 우리의 인식 대상이며 의식과 관련된 모든 외적·한 내적 대상은 반드시 이러한 능력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능력들은 마치 우리 내면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같으므로, 지식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상당한 가치를 지닌다.

상상과 기억이 단순히 대상을 지각하고, 그것에 대해 인지하며, 영혼에게 알리는 초기 활동과는 달리, 이전에 습득한 것을 영혼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후속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 상상력에 의해 구성되고 기억에 저장된 이미지들은 획득된 그대로의 형태로, 혹은 변형된 형태로 활용된다. 전자의 활동을 ‘회상’ 또는 ‘재현적 상상력’이라 하고, 후자를 ‘환상’이라 한다. 두 활동 모두에서 상상력과 기억이 함께 작용하지만, 각각은 고유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회상에서는 상상력이 이미지를 제공하고, 기억은 그것이 이전에 인식했던 바로 그 이미지임을 증언한다. 따라서 회상은 오직 과거의 것만을 재현하며, 기억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을 의식의 눈앞에 드러낸다. 회상의 원인은 대부분 현재의 이미지와 대상들이 과거의 것들과 맺는 연관성(즉, 아이디어의 연상)에 있다. 이러한 연결의 다양한 형태는 공존과 추적, 유사성과 대립, 전체와 부분, 원인과 작용, 수단과 목적, 물질과 형태와 같은 다양한 기억의 법칙을 낳는다. 또 다른, 그 못지않게 중요한 기억의 부분은 의지와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 욕구, 즉 열정이 자극받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들로 생각이 이끌리며, 마치 그 대상들에 주의를 묶어두는 것과 같다. 반대로, 열정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형상은 그 열정을 다시 일깨우기도 한다. 이러한 기억의 원인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앞서 언급한 원인은 지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기억의 더 깊은 원인도 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과거의 대상들이 평온한 상태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일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떠오르는지 알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형상이 나쁘

다면 악령에 의해, 좋다면 선한 영—수호천사—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때로는 영혼 간의 공감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상상력은 과거의 소재를 바탕으로, 대부분은 이미 완성되었거나 알려진 본보기를 따라 완전히 새로운 형상을 창조한다. 여기서 우리는 선하고 유익한 활동과 무질서하며 제멋대로인 움직임을 구분해야 한다. 첫 번째 경우, 환상은 이성의 개념을 위한 형상을 구성하고, 사고 과정에서 생각을 어떤 형상으로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사고를 돕고, 읽고 듣는 것 등을 상상하며... 전반적으로 지식의 이익을 위해 작용한다. 두 번째 경우, 상상력은 몽상에 빠지거나 제멋대로의 움직임에 휩쓸리는데, 이때 마음 가는 대로 실재하지 않는 온갖 이야기를 꾸며내며, 이는 거의 의식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아 온전한 인간을 완전히 지배한다. 환상의 왕국은 꿈으로, 그곳에서는 의식과 자발적인 활동이 사라지고, 때로는 타인의 영향 아래에서 이미지들이 지배한다.

d) 관찰 상태

d) 관찰 상태

관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외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것이다.

외부적 관찰, 즉 감각을 통해 외부 사물을 지각하는 것은 생활 방식에 따라 그 본질 자체보다는 활용 방식에서 더 많이 변화한다. 감각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다른 대상에 향하게 됨으로써 그 산출물보다는 내용 면에서 차이를 띠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누가 무엇을 보았는지, 누가 무엇을 들었는지, 혹은 누가 어디에 귀와 눈, 그 밖의 감각을 더 기꺼이 기울이는지 묻는 즉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죄의 상태에 있는 감각들은 지식에 대한 관심이나 영혼의 완성에 전념하지 않고, 주로 정욕을 만족시키는 데에 몰두한다. 이러한 활동 속에서 감각들은 정욕에 의해 지배당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정욕을 스스로 부추기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눈은 “음행과 끊임없는 죄”로 가득 차 있다고 불린다(베드로후서 2:14). 게다가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사물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없어지고, 단지 살짝 스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찰하는 능력은 점점 더 무뎌지고 상실된다. 한편 영혼은 끊임없이 감각에 휩싸여 있는데, 이로 인해 영혼 안에는 외적인 것, 즉 외부적인 삶에 대한 성향이 형성된다.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도 달라지는데, 주로 정욕적인 대상들만을 다루다 보니 어떤 이들은 신성한 대상들을 상상조차 할 줄 모른다.

하나님께서로 돌아서서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자유를 주지 않고, 이를 엄격히 통제하며, 욕의 본을 따라 “눈에 경계를 두었던”(욥기 31:1) 것처럼, 필요하다고 여기는 곳에만 감정을 향하게 한다. 또한, 그의 감정은 모두 영의 필요와 유익에 복종하며, 비록 불편적이지는 않더라도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에 의해 이끌립니다. 따라서 그는 교훈이 될 수 있는 것, 즉 성스러운 그림 등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에게서 새롭게 두드러지는 특성은 감정의 절제나 세심한 주의력인데, 이는 사물을 꼼꼼히 살피는 데 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편으로는 서서히 명확하게 관찰하는 능력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예리함이나 통찰력을 얻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이 감각을 지배하거나 감각이 영혼에 복종함으로써, 감각이 영혼을 외부로 끌어가지는 않고 영혼이 자기 내면에 머물 수 있게 해준다. 마침내 이 길을 통해 감각을 매개로 하여 지식과 덕스러운 삶을 위한 진정한 보물들이 모

이며, 영광의 왕 앞에도 흠잡을 데 없이 설 수 있는 그런 성취를 얻게 된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다양한 보석들을 모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보여주는 것과 같다.

외부 관찰은 언뜻 보기에 도덕적 삶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로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는 매우 큰 중요성을 지닌다.

이를 통해 영혼은 첫 번째 양식을 얻게 되며, 육체에 대한 양식이 체액과 구성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관찰 또한 어떤 면에서 영혼의 구성을 변화시키고 인격의 기초를 마련한다. 이러한 점에서 관찰은 막 만들어졌으나 아직 마르지 않은 그릇에 스며드는 냄새에 비유된다. 이 냄새는 영원히 아니더라도 아주 오랫동안 그 그릇에 남아 있다. 영혼도 마찬가지다. 감각이 접하는 첫 대상들은 말하자면 미래의 인간을 형성한다.

그것은 영혼에게 힘을 단련할 첫 번째 무대를 제공하며, 힘의 첫 번째 방향과 성향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영혼 속에는 습관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이 아닌 바로 그러한 대상들을 다루려는 성향도 형성되는데, 이는 보통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일에는 마지못해 손을 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감각의 사용은 마치 나무 줄기가 땅에서 솟아나올 때 처음 방향을 잡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감각의 활용을 사소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내적 관찰이란 의식이나 내적 감각을 통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관찰은 자기 인식과 인간 영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원천이다. 이는 외적 관찰보다 타락한 존재와 부활한 존재 간의 차이를 더 잘 드러내는데, 여기서는 그 차이가 내적 감각의 사용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능력 자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게 하는 것은, 비록 영혼이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 아는 바는 매우 적으며, 있는 지식조차 대부분 일방적이고 거짓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죄의 병에서 치유받고 있거나 이미 치유된 성스러운 수행자들에게는 얼마나 풍요로운 자기 인식이 있는가! 이로부터 어떤 이들에게는 자기 관찰 능력이 최악의 상태에 있는 반면, 다른 이들에게는 그 능력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심리학에서 흔히 영혼에 대한 지식이 빈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되는 것들은, 인간 영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을 정당화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죄 많은 영혼을 비난하거나 죄로 인해 그 영혼이 혼란에 빠졌음을 폭로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외부에서 밀려드는 인상들이 영혼을 외부로 끌어가게 하여, 영혼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외부 자극에 휩쓸리지 않는 것이 인간의 능력에 달려 있다면, 영혼이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죄 많은 영혼의 욕구, 즉 죄의 악취가 가득한 자기 내면에서 벗어나, 선이 도사리고 있거나 있다고 여겨지는 외부로 도피하려는 욕구이다. 감각적 쾌락과 겉모습에 대한 경향은 타락의 가장 초기 징후이자 행동 중 하나이다. 따라서 죄가 지배하는 사람에게서 올바른 영혼에 대한 통찰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것은 오직 죄를 버리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사람에게서만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은혜로운 행위의 첫 번째 중 하나는 영혼의 주의를 외부에서 떼어내어 자기 내면으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속적인 근심과 직무가 모든 시간을 삼켜버린다고들 한다. 분주함 속에서 영혼과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외적인 일이나 필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끊임없이 앞으로 몰아가는 내면의 분주함에 있다. 만약 이 내면의 연약함, 즉 분주함을 다스릴 수 있다면, 외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여전히 많이 남을 것이다. 실패는 시간 부족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와중에도 영혼을 돌볼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데, 굳이 영혼을 돌보기 위한 별도의 시간이 왜 필요하겠는가? 행동하는 영혼을 관찰해야 한다. 따라서 힘은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돌아보지 않음은 죄로 인한 영혼의 혼란에서 비롯된다. 이 혼란이 은혜로 치유되고, 사람의 모든 활동이 오직 한 가지, 즉 필요에 집중될 때, 그곳에는 평온한 일의 흐름이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영혼이 자기 안에 머물며 자신의 활동을 예리하게 지켜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그때야말로 외적인 일과 일상적인 활동이 자신의 영혼을 알아가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일들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영혼의 활동이 거의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즉 순간적이고, 빠르며, 덧없고, 매우 복잡하다고 말한다. 그 활동에 지속적인 시선을 고정할 수 없으며, 설령 고정한다 해도 관찰되는 행동의 내용을 분석해 낼 수 없다. 그러나 영혼 속에는 혼란과 무질서한 움직임, 그리고 부주의와 안일함, 생각의 제멋대로에 자신을 내맡기는 데서 오는 동요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선한 상태들은 죄에서 비롯되거나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신성한 은총으로 내면이 다스려진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어디로 향하는지 볼 수 있다. 그에게는 냉철함이나 경각심이 특징이며, 이를 통해 은밀히 다가오는 동요도 그의 주의에서 빠져나가지 못한다. 게다가 이 내적 수행을 오랫동안 연습함으로써 그는 정신의 눈을 예리하게 단련하여, 자기 내면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결론지으면, 자기 관찰에 대한 진정한 장애물들이 있다. 바로 외적인 것, 걱정, 그리고 마음의 산만함이다. 이것들은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죄가 남아 있는 한, 이러한 장애물들도 계속될 것이며 올바른 자기 성찰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죄악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이러한 장애물들은 죄가 뿌리 뽑히는 과정에 따라 조금씩 제거되다가 결국 완전히 사라지며, 이와 동시에 영혼에 대한 인식 자체도 성장하여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 만약 지금 죄와 그에 따른 이러한 장애물들이 오직 하느님께 헌신한 사람들에게서 은총의 힘의 작용으로 인해 그 힘을 잃는다면, 참되고 견고하며 완전한 영혼에 대한 깨달음은 오직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만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한 자들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영혼을 알고자 하는 자는 성부들, 특히 수행자들에게로 돌아가 이 샘에서 심리적 지혜를 풍성히 길어내야 한다.

e) 기억과 상상력의 상태

e) 기억과 상상력의 상태

이 두 가지 능력은 정신적 활동력의 일부에 속하므로, 대개 그 사람 전체의 모습과 같다. 죄인의 기억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상상력은 무엇에 몰두해 있는가? 오직 정욕만을 부추기는 죄악적인

대상들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지금 대화만으로도 알 수 있다. 죄인은 영적인 것에 대해 한 마디도 하지 못하는데, 그의 기억에는 그런 것이 전혀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마치 그런 것을 한 번도 듣거나 본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그는 보고 들었지만, 그것을 내면화하지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그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상들로부터의 소외로 인해, 그것들을 상상하고 기억하는 능력도 약화됩니다. 연습하지 않고 원치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상상하거나 떠올릴 줄 모릅니다.

반대로,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의 경우, 기억과 상상력의 모든 내용은 거룩하고, 순수하며, 신성하다. 그에게는 영적인 대상들로 가득 차 있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들을 상상하고 기억하는 특별한 능력도 갖추게 된다. 반대로, 그에게는 부도덕한 대상들을 기억하고 상상하는 일이 낯설다. 그것들은 그에게 혐오스럽기 때문에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자는 최악적이고 악한 것을 쉽게 상상하고 기억하는 반면, 후자는 영적이고 선한 것을 쉽게 상상하고 기억한다.

e) 회상의 상태, 또는 재현적 상상

e) 회상 상태, 또는 재현적 상상력

기억의 상태는 기억과 상상력의 상태와 일치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상상되고 기억되는 것이 기억을 통해 재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들과 정욕과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나는 기억의 원인이나 법칙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후자의 경우, 회상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정욕적인 흥분이나 습관적인 욕구의 움직임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미지 결합의 법칙 중에서도 주로 사물의 내적 측면보다는 외적 측면에 더 관련된 법칙들이 작용하며; 그들의 머릿속에서 형상들은 내적 인과관계보다는 외적인 시공간적 관계에 따라 더 많이 결합되며, 나아가 결국 은밀한 인상이나 영향도 선한 영들보다는 악한 영들로부터 더 많이 비롯된다. 죄인 곁에는 사탄의 부하가 있어 그를 따라다니며, 정욕적인 이미지들로 그의 머리를 채워 그를 어둡게 만든다. 반면, 경건한 이들에게는 정반대이다: 은밀한 영향력은 그들을 감싸는 신성한 영과, 항상 그들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협력하는 수호천사로부터 내려온다; 이미지 결합의 법칙 중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은 내적 인과관계, 속성, 부분 간의 연결과 관련된 것들이다. 반면 정욕과 욕구는 설령 자극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억제된다. 게다가 그들 사이에는 기억의 종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저절로 떠오르는 비자발적 기억도 있고, 정신의 자발적 활동으로 불러일으키는 자발적 기억도 있다.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거의 전적으로 비자발적 기억이 지배하는데, 이는 그 본성상 그들이 내적 운동의 메커니즘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로 자발적인 기억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자신의 의식 없이 어떤 것도 의식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에 대한 열심이 있으며, 이를 향해 직접적으로 지향되는 내적 수련, 즉 경각심과 절제가 확립됩니다...

g) 상상력의 상태

g) 상상력의 상태

앞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두 가지 활동을 구분해야 한다: 이성적인 활동과 자의적인 활동이다. 첫 번째 활동에 관해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영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추상적인 개념과 진리를 적절한 형상으로 표현할 능력이 거의 없다. 그 때문에 그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러한 진리들을 적절한 형태로 표현한 것을 찾으려면,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기독교인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데, 그 영은 그들에게 이미지의 조화가 적절하도록 결정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감수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 능력은 그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

죄인들의 상상력의 주된, 말하자면 약점은 몽상에 빠지는 경향이다. 이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들의 영혼과 떼어 수 없이 결합된 것처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끊임없이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몽상적 성향의 특징, 즉 현실과의 거리감, 산만함, 혼란, 생각의 변덕스러움은 그 원인을 분명히 이해하게 해준다. 사람이 참된 자리에서 벗어나 거짓되고 실재하지 않는 곳에 빠지게 되면, 그에 따라 그의 생각도 참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처럼 보이는 것, 즉 기만적인 환영을 향해 쏠리게 된다. 확고함과 불변성은 오직 실재에만 존재하므로, 실재에서 벗어난 생각들은 회오리바람이나 서리처럼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악된 환상은 끊임없이 변덕스럽다.

이러한 변덕스러움은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자체로 영혼에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하기도 한다. 그 결과나 수반되는 특성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내적 타락: 정신 면에서는 중요하고 어려운 일로부터의 이탈과 이에 대한 혐오, 그 다음으로 피상성이나 경솔함; 의지 면에서는 열정의 붕괴. 꿈속에서는 ‘나’가 자신의 어떤 열정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 사람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복수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만하며, 전쟁을 벌이는 등... 온 영혼이 이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몽상은 사람 내면을 타락시킨다. 감정에서는 끊임없는 패배가 따르는데, 이는 이미지의 타격이 곧바로 심장에 닿아 꿈꾸는 이를 가시덤불 속을 걷는 사람과 같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사로잡힘이다. 주위를 둘러보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대상과 결탁하여 행동을 요구한다. 사람이 마음의 노예가 된다면, 그것은 주로 변덕스러운 상상이나 이미지들의 지배 때문이다.

그러나 악은 내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외부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둘러싼 모든 것을 마비시킨다. 열정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장밋빛으로 본다. 즉, 사물들이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열정에 맞춰지고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에게 비친다는 뜻이다. 그리고 반대로, 열정은 바로 그 사물들로부터 영양분을 얻는다. 몽상가는 마치 내면의 이미지와 사물의 외적인 환상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 사는 것과 같다.

반면, 이것이 사람의 내면과 외면에 존재할 때, 즉 제멋대로인 환상이 마치 감옥처럼 사람을 가둘 때, 그 어둠 속에서 사탄이 온 힘을 다해 날뛰기 시작한다. 환상이 제멋대로 움직일 때, 사탄이 마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을,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빼앗아 가고, 반대로 비유에서 원수가 밀밭에 가라지를 뿌린 것처럼 자신의 악을 심어 놓는다. 몽상에서 깨어난 사람은 자신이 이미 알려진 악에 기울어져 있음을 깨닫지만, 어떻게, 어디서부터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마음을 뒤흔드는 이미지들과 원수의 세력들 가운데, 마치 환각에 빠진 듯,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죄에 대한 열정적인 계획들이 싹트게 된다: 온갖 종류의 음모, 시기심과 아첨, 악의에서 비롯된 교활한 계략, 음모, 해로운 집단,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주된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시도들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자기 자신에게 무관심한 사람의 제멋대로인 상상력으로부터는 꿈꾸는 성향이 지속적인 성격으로 변모하는 지속적인 기질들이 생겨난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상상의 세계에 머무르려는 경향, 재치 있는 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고 헛소리를 늘어놓는 경향, 지적 노동을 기피하는 성향, 무의미한 책을 읽는 것에 대한 집착, 게임, 무도회, 연극에 대한 열정.

상상력은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 손상을 입기 쉬우며, 혹은 그 손상이 다른 능력들보다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사람에게서도 상상력은 단번에 치유되지 않고 서서히 치유되는데, 비록 그가 처음부터 이 능력을 자신의 한계 내에서 가능한 한 통제하거나 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거나 규칙을 정하더라도 말이다.

그리하여 맨 처음에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자기 수련은 하느님께로 돌아선 영혼의 불가분의 속성이며, 이를 통해 환상의 제멋대로인 성향이 억제된다.

이처럼 잘 정돈된 내면 속에서 그는 마치 하늘과 같은 영적 성전을 스스로 세우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 성인들의 현존 속에서 주의를 집중하여 머무르려 애쓴다.

내면의 질서는 외부로도 이어져 내면을 돕는다. 여기서 모든 사물은 의미적으로 변형되며, 영적인 어떤 베일로 감싸이거나 덮여, 그로 인해 우연히 쏘리는 시선이나 의도적인 응시가 주의를 산만하게 하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목적을 형성하고 그 안에 머물게 한다. 이에 더해 그는 천사들과 성인들의 기도에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 기도들은 마치 광선처럼 그에게로 뻗어 나가며,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영적이고 빛을 발하며 신성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독교적 성품을 조속히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그들에게도 상상력이 제멋대로 날뛰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그들의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그들 스스로는 첫날부터 생각과의 투쟁을 시작하는데, 이는 매우 고된, 다양하고,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들의 모든 주의가 생각들에 집중되며, 그 후 끝까지 그곳에서 떠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적 수련을 한 사람 중 누가 생각의 교활함을 모를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영적 수련에 대해 글을 쓴 모든 저자들의 글에서, 그 생각들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얼마나 광범위한 묘사를 접할 수 있는가? 그나저나, 수고와 시간은 마침내 상상력을 누그러뜨리고, 내면 세계에는 평화와 고요, 마치 구름이 걷히며 빛나는 태양처럼 빛이 자리 잡는다. 이것의 근거는 바로 그 회심 자체에 있다. 왜냐하면 회심은 사람을 제 본연의 질서와 제 자리에 세워주며, 현실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상의 제멋대로인 생각, 즉 몽상도 그 근거를 잃게 된다. 게다가 끊임없이 유익한 활동들은 환상의 양분을 빼앗아가며, 환상은 마치 말라비틀어지는 나무처럼 고갈된다.

h) 수면 상태

h) 수면 상태

인생의 3분의 1은 잠 속에서 지나간다. 잠이 인생에 깊은 의미를 지니지 않을 리가 없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잠을 통해 기력이 회복되고, 인간의 영적·육체적 존재가 형성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그 영에 반하여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수면에 대한 태도에서도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록 수면에는 자발적인 활동이 개입되지 않지만, 은혜로운 변화는 존재 그 자체에도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자유의 영역 밖에 있는 것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의 잠이 아니라 꿈에 관한 것이다. 꿈은 육체의 수면 중에 자의식이 없고 의지의 자발적 활동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상력의 제멋대로인 움직임이다. 꿈의 과정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졸음 상태에서의 망상, 육체가 완전히 잠든 상태에서의 본래의 꿈 또는 수면 중 몽상, 그리고 육체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의 기억나지 않는 은밀한 꿈이다. 이들의 형성과정에서는 심장의 삶이 이미지들을 지배한다. 영혼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때, 상상력의 이미지들은 마치 쇠뿔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영혼의 온 영역을 가득 채운다. 여기서는 다양한 시간과 장소, 현재와 과거, 나쁜 것과 좋은 것의 이미지들이 알 수 없는 법칙에 따라 뒤섞이고 결합된다. 꿈꾸는 사람 자신의 인격은 사라진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상상력이 그려내는 드라마 속에 끼어들게 되며, 기묘한 변신을 겪는다.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고통받으며, 때로는 고양되기도 하고, 때로는 수치를 당하기도 한다. 영혼은 꿈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강하게 다른 세계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선한 영혼은 선한 영향에, 악한 영혼은 악한 영향에 노출된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는 스스로를 사고하고, 욕망하며, 선이나 악을 선택하는 인물로 여긴다. 이러한 몰입은 때로 꿈에서 깨어난 후, 꿈꾸던 사람이 그곳에서 행한 행동에 대해 슬퍼하거나 기뻐하고,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칭찬할 정도로까지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꿈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무질서한 꿈으로, 시라흐서는 이에 대해 “*마치 초원을 휩쓸거나 바람을 몰아가는 것처럼, 꿈으로 믿음을 휩쓸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시라흐 34:2). 다른 하나는 깨달음을 주는 꿈으로, 의식을 되찾기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나 수호천사가 심어주는 것이다. 욥은 “*잠과 밤의 환상*” 중에, 즉 사람이 잠에 빠져 침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 가르치시고, “*인장을 찍어*” “*사람을 악한 일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에게서 교만을 제거하시며, 그의 영혼을 무덤에서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욥기 33:15-18).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특별한 꿈, 즉 신성한 예언적인 꿈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환상 중에 내가 그에게 나타나며, 꿈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리라*” (민수기 12:6)고 하셨습니다.

꿈은 마음의 상태 그대로 나타냅니다. 꿈은 대체로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항상 드러나지 않는 도덕적 상태에 대한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무심하고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의 꿈은 언제나 불순하고 정욕적입니다. 그곳에서 영혼은 죄의 놀이터가 되곤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의 정화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꿈은, 어떤 마음이 우세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며, 때로는 잠들 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그는 여기서 악마들의 빈번한 공격을 받는데, 성 사다리꾼이 지적했듯이, 악마들은 때로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심하게 유혹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신중한 사람은 잠자리에 들 때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과 수호천사께 간구하여, 자신의 잠이 온갖 악마와 망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고, 잠을 통해 선함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정화됨에 따라 꿈도 정화되어, 성인과 완전한 이들에게는 꿈이 마치 깨어 있을 때의 활동의 연장선처럼 나타납니다. 이는 심지어 자기 주도성과 자기 통제를 유지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식 능력에 대한 고찰을 통해, 바른 길을 걷지 않고 회복의 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그 세계를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보이는 세계는 표면적으로만 알 뿐이며, 그것도 그 인식을 위해 노력할 때에만 해당된다. 대부분의 경우 그저 그것을 보고 관찰할 뿐이다. 그에게는 상상력이 우세하여, 그 활동 속에서 마치 안개 속이나 유령 무리 속에 사는 것처럼 지내며, 그로 인해 악령들의 빈번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다: 하급 능력들, 특히 상상력은 길들여져 마땅히 그래야 하듯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 도구적인 힘으로 전환되며; 반면, 고차원적인 능력들은 온전한 힘으로 작용한다. 그의 이성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보물인데, 이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직접 교감하며 자신의 영으로 그것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는 창조와 섭리의 신비를 꿰뚫어 보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비록 많은 자료가 아직 부족하고 이성이 가시적인 사물의 질서나 사건의 전개를 분석하여 적절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것이 그가 그 내재된 영원한 의미를 밝혀내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성은 비록 항상 많은 지식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와 자신에게 고유한 미덕을 실천하는 데 열중하며,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을 그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줄 아는 건전한 사고력을 얻게 되며, 종종 서두르지 않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한다.

2) 인간의 활동적 힘의 상태

우리 안에 작용하는 힘들의 두 번째 범주는 활동적 힘들의 총합이다. 이 힘들 또한 인식적 힘들에 상응하여 세 단계로 나타난다. 그중 가장 높은 위치에는 양심이 있으며, 이는 의식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초월적이고 초연된 최고의 힘이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일시적인 삶과 관계를 조율하는 의지가 뒤따른다. 가장 낮은 위치에는 하급 욕망의 능력이 있다.

가) 양심의 상태

a) 양심의 상태

이성이 인간에게 또 다른, 영적이며 가장 완전한 세계를 열어주고 그 구조와 속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맡은 것처럼, 양심은 인간을 훔칠 그가 이주해야 할 그 세계의 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양심은 그에게 그곳의 법칙을 선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며, 그 법칙에 따라 그를 심판하고, 보상하거나 처벌한다. 양심을 실천적 의식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심은 법과 자유를 인식하며, 그 둘의 상호 관계를 규정하는 영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양심의 역할이나 작용에 따라 사람들은 양심을 입법자, 증인, 재판관, 또는 보충자로 본다. 이 모든 측면에서, 선한 기독교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 사이에는 양심에 있어 큰 차이가 드러난다. 죄인이 하나

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양심이 올바를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해야 한다; 왜냐 하면 양심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속의 하나님의 목소리(, 법 제정자), 그분의 눈(증인), 그분의 정의의 대리자(판사이자 보응자)이기 때문이다.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면, 영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신성한, 말하자면 영감은 그 수와 힘이 약해지고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양심은 홀로, 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의지, 감정의 힘을 중재자이자 도구로 삼는다. 만약 이들이 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진다면, 양심으로부터 올바른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양심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말하자면 의도치 않은, 무의식적인 이탈, 마치 오류와 같은 것들이 있는 반면, 악덕과 정욕을 쫓기 위해 양심에 대항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양심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양심의 세 가지 작용 모두에서 즉시 드러난다.

이처럼 양심의 역할은 입법자로서,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따라야 할 법칙을 제시하고, 그 의무의 힘으로 그 존재의 의지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양심이 자신의 명령을 이행하도록 의지를 움직일 힘이 얼마나 미약한지는, 심지어 그 명령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경우조차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양심은 어떤 정욕이나 성향과 마주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이를 해낼 수 있지만, 일단 그러한 충돌이 일어나면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그 힘만으로는 사람이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종종 양심의 무력함 때문에 죄를 짓고, 많은 미덕을 듣기만 했을 뿐이며, 그중 많은 것에는 단지 동조할 뿐이고, 마찬가지로 어떤 악덕들은 말뿐이고 때와 상황에 따라 싫어할 뿐이다.

법 제정이라는 일조차, 가장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양심에 의해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는다. 양심의 명령은 요구 사항의 형태로 인식된다. 다른 욕구들, 즉 타고난 것이든 나중에 주입된 것이든, 역시 각자의 요구를 내세우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 내면에 휩싸인 혼란 속에서 사람이 때로는 무엇에 복종해야 할지 분간하지 못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처럼 도덕적 활동의 핵심 원리, 즉 모든 주의와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관해 양심은 대부분 거의 침묵한다. 그 때문에 사람은 종종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자문하게 된다. – 그리고 누군가 그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그는 당황하여 무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며, 때로는 대답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스토아 학파 등과 같이, 타락한 마음이 본성과 결탁하여 만들어 낸 그릇된 원리들일 뿐이다. 그러나 근본 원리가 알려지지 않으면, 그 결과 개별 법칙들 간의 상호 종속 관계와 상응 관계가 상실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연한 상황에 따라 어떤 법칙이 다른 법칙보다 우위에 서게 될 뿐만 아니라, 법이 되어서는 안 될 많은 것들이 법에 포함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공직 활동을 가장 높게 여기고, 다른 이는 예배를, 또 다른 이는 학자의 연구 활동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반면, 양심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즉시 판단해야 하는 개별적인 경우들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근시안적 태도, 혼란이 더욱 커진다. 이 경우, 대개 양심은 사람을 스스로 내버려 두어, 그로 인해 사람은 종종 선한 일을 소홀히 하고, 단지 악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한다. 혹은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망설이며,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한 상태에 머물게 하기도 한다; 혹은 쓴 것을 달다고, 달콤한 것을 쓰다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심지어 그 일을 담당했던 입법자들, 즉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조차도 그

러하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사람이 내면의 확신이나 승인 없이, 상황의 흐름에 따라 무작정 행동하도록 내버려 둔다. 모든 정황을 볼 때, 이 입법자는 자신의 직책에서 물러나 지배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할 힘조차 없을 정도로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양심과는 다른 어떤 힘, 즉 ‘반양심’인 것으로 보인다.

입법자 역할을 하는 양심은 이기주의를 만나 그에게 복종할 때, 훨씬 더 큰 손상과 왜곡을 겪게 된다. 이 경우 처음에는 그 법들이 재해석되고, 그다음에는 왜곡되며, 마침내 진실한 법들과는 전혀 다른, 제멋대로이며 심지어 그 법들에 반하는 법들로 대체된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기꺼이 믿으며, 진리가 사랑하는 쪽에 서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성향에 반하는 계명을 담은 양심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마음의 요구보다 설득력이 덜하게 느껴진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의문이 즉시 생겨나며, 우리는 의심 어린 마음으로 묻습니다. “과연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의 요구가 과연 그런 것인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나와 나의 처지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러한 고민 속에서 대부분의 일은 일단 제쳐두고, 의문을 품은 채 다음 기회로 미루어집니다. 그러나 곧이어 마음을 달래는 생각들이 떠오르고, 율법은 재해석되며,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이행에서 멀어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 유지를 핑계로 금식과 절제를 피하고, 가정의 안녕과 생계 유지를 핑계로 자선을 거부하며, 정당한 보복이라는 명목으로 이자를 받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결투에 나서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은, 비록 사소한 경우, 게다가 한 개인에게 국한된 사안에 그친다면 해로움이 절반으로 줄어들겠지만, 법의 의미를 왜곡하며 한 가지 유형의 행위를 장기간 지속할 경우, 결국 법이 양심 속에서도 완전히 왜곡되고 그 자리에 뒤틀린 규칙이 자리 잡게 된다. 그 때문에 인색함을 절약으로, 낭비를 관대함으로, 분노를 고귀한 분개로, 방종을 관용으로, 잔인함을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아첨을 유연한 성품으로, 교활함을 현명함으로, 자만심을 존엄감으로 여긴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앞서 언급된 견해들이 받아들여지고, 모든 상황에서 사람의 외적 행동을 규정하는 규칙으로 자리 잡은 사회에 속하게 된다면, 그가 이러한 규칙들을 양심의 확고한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따르는 것을 옳은 일과 미덕으로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반대로, 그 규칙에 따르지 않는 삶이나 행동을 단지 말로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감정으로도 비난하게 될 것이다.

양심은 증인이자 재판관으로서, 사람이 양심이 정한 법에 어떻게 따랐는지를 인식하고, 그 행위에 내적·외적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를 판단한다. 흔히 말하듯, 양심의 심판은 부패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양심의 법이 부정확한 모든 경우에서 양심의 심판에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심판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판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행위의 모든 측면, 특히 그 당시 내면에 있었던 마음가짐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데, 죄인인 사람은 끊임없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 많은 부분이 간과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양심을 바탕으로 심판할 대상이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결코 사소하지 않은 점은 정의에 대한 열정, 즉 모든 범죄를 끊임없이 추적하려는 마음이다. 이것이 없으면 눈에 띄는 것 중에서도 많은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양심적 판단이 부정확한 또 다른 근거인데, 그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다.

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양심은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의 행실을 꼼꼼히 살피며, 사소한 결점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그를 심판대에 세워 위선 없이 심판해야 한다. 그러나 죄인인 사람의 양심에는 그러한 행동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양심으로부터 올바른 심판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지, 각 사람이 그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드러납니다. 극단적인 경우나 중대한 죄를 제외하면, 누구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라고 말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들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나의 숨은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타락한 상태의 양심은 깨진 거울과 같다. 깨진 거울처럼, 양심은 이제 우리의 행실과 우리 자신을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정욕이 섞이지 않을 때 양심은 증인이자 재판관으로서 그러하다. 그러나 정욕이 섞일 경우, 양심의 저울은 더욱 잘못된 쪽으로 기울어지고 판단은 왜곡된다. 양심이 그 자체로 개별적인 사건들을 판단할 때는, 때때로 그 판단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에 찬 행위에 대해 판단해야 할 때면, 양심의 판단은 언제나 비뚤어진다. 야심가의 야심에 대한 판단, 구두쇠의 인색함에 대한 판단 등이 바로 그러하며, 다른 일들에 있어서는 그 양심이 깨어 있는 반면 말이다. 양심의 왜곡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는 판단을 자신에서 타인으로 돌리는 것이다. 양심은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만약 양심이 타인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본래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제 타인을 비난하는 이 행위를,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이자, 후자에 대한 끊임없는 불성실함을 폭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비난할 때의 판단은 대개 신속하고 순간적인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느리고 미루어지는데, 사실은 정반대여야 한다. 타인에 대한 판단은 무자비할 정도로 엄격한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은 항상 관대함으로 위장되곤 하는데, 사실은 정반대여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 판단은 거의 항상 “다른 사람들처럼은 아니지...”라는 말로 끝이 난다. 상인이 법학자의 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세속인이 성직자의 일을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그 밖의 사례들도 마찬가지다! 반면 타인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비난이 쏟아지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변명으로 감추기를 좋아한다. 자기변명은 거의 보편적인 죄악이다. 때로는 약점을, 때로는 무지를, 때로는 상황을, 때로는 유혹을, 때로는 사례를, 때로는 가담자의 수를 내세우며 온갖 이유로 자신을 정당화한다! 만약 결국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완강하게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 고집스러운 무자각은 양심의 심각한 손상, 그리고 동시에 강한 이기주의의 결과입니다. 사람은 내면에서 스스로에게 반박하듯 말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별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때 주로 비난받는 행위에 관해 온갖 말장난을 동원하며, 그런 행동이 용서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넣으려 애씁니다.

양심은 마치 보상을 주는 자와 같다. 일단 심판이 내려지고, 사람이 스스로 ‘내가 잘못했다’고 깨닫는 순간, 슬픔과 애타는 마음,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자책, 양심의 가책이나 고통이 시작된다. 이러한 감정들은 양심이 죄에 대해 내리는 보응인 반면, 반대로 양심에 따른 정당화에 대한 기쁜 감정들은 진리에 대한 보응이다. 이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강렬한지는, 양심에 시달리는 중대한 범죄자들이 겪는 박해에서 드러난다. 양심은 내면에서는 고뇌로, 외면에서는 유령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깨어 있

을 때나 잠들었을 때나 그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다시 말해, 이 측면에서도 양심에는 얼마나 많은 불공평함이 있는가! 그 근거는 하나다. 바로 입법부와 사법부라는 첫 두 단계의 부당함에 있다. 무고한 사람을 왜 괴롭혀야 하겠는가? 또 다른 근거는 마음의 상태에 있다. 마음이 굳어져 무감각해지면 아무리 비난해도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자신의 죄책감은 대부분 생각 속에만 머물러 마음을 괴롭히지 않으며, 사람은 종종 “내가 잘못했지, 뭐 대수겠어?”라고 말한다. – 하며, 종종 적지 않은 자신의 죄를 냉담하게 지켜보는 관찰자로 남는다. 이때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예를 들어, 최근의 범죄는 여전히 꽤 강하게 마음을 뒤흔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단순한 기억으로 변한다. 범죄가 일어난 장소도 마음을 크게 뒤흔들지만, 그곳에서 멀리 떨어지면 우리는 평온해진다. 종종 양심에 과도한 엄격함(과도한 양심)이 닥쳐, 거의 모든 일을 죄로 간주하며 모든 일에 대해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괴롭힌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 사람의 상태는 고통스럽고, 따라서 병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상태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악의적인 개입 없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의도가 개입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양심의 심판을 왜곡하거나, 그것을 침묵시키게 됩니다. 이는 양심을 마비시키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마비는 죄를 반복적으로 범함으로써 저절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두 번째 실수는 첫 번째보다 덜 괴롭히고, 세 번째는 더 적게 괴롭히며, 이렇게 점점 덜해져서 마침내 양심이 완전히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마비된 양심이 어떻게든 다시 깨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사람들은 온갖 교묘한 수단을 동원한다. 그 예로는, 관대한 고해 신부를 선택하는 것, 거짓된 고해, 용서를 받았다는 거짓된 자기 위안, 외형적인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한 행실만으로 향후의 개선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자비에 대한 과도한 희망; 혹은, 더 나쁜 경우, 양심의 가책이 미신적인 두려움에 불과하며, 경험이 부족한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 양심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 심지어 사색의 대상들로부터 의도적으로 자신을 멀리하는 것; 의도적인 오락이나 헛되고, 정신을 마비시키며, 강렬한 인상들에 자신을 맡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것. 이러한 방법들로 조금씩 양심을 완전히 잠재우게 되며, 양심은 당분간 침묵한다.

따라서 최악된 상태에 있는 양심은 법과 심판, 그리고 보응에 비추어 볼 때, 때로는 그 자체로 부정확하고, 때로는 정욕을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된다. 이로 인해 어떤 이들은 정욕과 최악된 삶의 모든 방종에 자유롭게 빠져들게 되는데, 양심이 정욕과 타협해 버리면 누가 그들을 깨우칠 수 있겠는가? 다른 이들은 차가운 무관심 속에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삶을 살아간다. 이들 모두에게서 활동은 명백히 왜곡되어 있으며, 양심이 깨어날 때까지 그 상태는 지속될 것이다. 타락의 정도에 따라,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결정된다. 어떤 이들은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겪은 후에도 참된 삶으로 돌아오지만, 다른 이들은 반대로 양심이 깨어남과 동시에 절망에 빠지고, 불의의 쓰라린 잔을 다 비운 뒤,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까지 바닥까지 비워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의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그릇된 양심이 바로잡히고, 왜곡된 양심이 그 세 가지 기능 모두에서 바로잡힌다. 은혜의 첫 번째 광선이 양심에 비추어, 신성한 불로 마치 도가니 속의 금처럼 그것을 정화한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양

심은 본래의 모든 힘을 되찾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즉 양심의 법이 영혼의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눈에서 나오는 빛, 즉 양심의 심판이 사람의 행실과 의도에 비추어 이를 밝혀주는 것을 무엇이 방해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영혼이 예감되는 하나님의 호의의 온기로 따뜻해지거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과 양심 사이의 장벽은 무너졌고, 양심을 위한 작용력이 회복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양심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갖추게 된다.

그리하여 양심은 법 제정에서 제 기능을 하게 된다. 신성한 법에 대한 인식은 죄인을 잠에서 깨우지만, 그 인식은 이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를 돕는 것은 바로 은혜 그 자체인데, 이 은혜는 “*기쁨 부음*”처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치며(요일 2:27), 삶의 모든 길에서 은밀하나 공개적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이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회개한 죄인은 그 말씀에서 뒤쳐지지 않고, 말씀을 듣거나 읽기를 구하며,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으며, 그 말씀에서 얻은 모든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규칙과 원리로 변화시켜 자신의 양심을 비추게 한다. 이를 돕는 것은 삶 그 자체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정해졌음을 느끼며,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꼼꼼히 탐구하며, 죄에 대해서는 항상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리라.” 반면 선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준비되었으니,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율법적인 삶을 습관화하게 되어 더 이상 율법서를 찾아볼 필요가 없으며, 노련한 법학자처럼 그 내용을 바로 알게 된다. 방탕한 의지로부터 오는 유혹에 관해서는, 비록 그것을 느끼더라도 그 목소리는 즉시 억눌려진다; 설령 그 목소리가 여전히 들린다 하더라도, 그에 맞서는 의로운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연민 없이, 온갖 희생과 함께, 내적·외적 온갖 악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재판 절차에서 올바른 것으로 드러난다. 자신을 주시하는 경각심 있고 냉철한 눈은 내적·외적 일들의 모든 뉘앙스를 포착한다. 동시에 다른 쪽에는 양심의 맑은 거울이 서 있는데, 무엇이 이 거울에 일이 그 진정한 모습으로 비치는 것을 방해하며, 따라서 양심의 심판이 진실되기를 막을 수 있겠는가? 판단은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그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두 가지가 모두 옳다면 틀릴 수 없다. 이 양심의 작용이 완전해지는 데에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겨지며, 우연히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깊은 회개를 통해 정화된다는 점이 더욱 기여한다. 그러나 심판이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할 때, 여기서는 은폐나 거짓된 관용 없이, 모든 세부 사항과 완전성을 다해 이루어지며, 단지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의도와 생각까지 다룬다. 또한 이 일에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의 심판자(고해 신부나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경험 많은 장로)가 선출되는데, 그가 사건을 판결하며 그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는 무례한 자기변명이나 무지함을 찾아볼 수 없으니, 삶이 거의 전적으로 자기 비난과 회개의 감정 속에서 흘러가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는 완성되거나 끝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자신의 모습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결실을 맺는가! 그것들은 먼저 어떤 세상의 불쾌함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화를 영혼에 가져다주는데, 이는 죄

인이 스스로를 온갖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로 여기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삶에 순결함을 가져다주는데, 이는 행위나 일의 측면을 더 많이 비난할수록, 그러한 재검토가 완전함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들은 더욱 완전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보응에 있어서도 올바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온 존재를 녹여낼 때, 굳어진 무감각은 쫓겨납니다; 마지막으로 그 무감각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끊임없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압계에 대기의 미세한 변동이 즉시 반영되듯이, 회개한 자에게 양심의 가책이 찢러오면 즉시 고통스러운 회개의 상처를 남기거나, 또는 정당화의 기름이 영혼에 평화의 기름 부음을 주며 기쁨의 향기로운 향기로 채워준다. 이 점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회개한 자에게서 양심의 고통은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서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고통은 위로가 되고 마음을 감동시키며, 사람을 격분시키지도, 단절시키지도, 태워버리지도 않는다. 아마도 그것은 회심 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심 속에서 단지 몇 가지 우발적이고 의도하지 않은 죄들만이 발생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과거의 일들도 간과되지 않으며,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재현되고, 모든 정황과 결과를 곁들여 명확히 밝혀진 뒤, 마치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최종 판결의 시간이 온 것처럼 내면의 심판에 맡겨진다. 이렇게 마음을 살살이 뒤져 보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저지른 모든 행위가 눈물로 씻겨 내려가지만; 그러나 이 또한 그들의 영혼을 절망으로 짓누르지 않는다. 과거와 미래를 대조하며 영혼이 무너질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쁜 평안으로 끝난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그리고 이러한 양심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미래의 불길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한다. 성인들의 양심의 평안은 이러한 영혼의 파멸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많은 이들이 늘 눈물로 지냈고, 어떤 이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태우는 지옥의 불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길, 눈물이 마르기도 했다(마카리오스 대성인). 이러한 양심의 상태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상쾌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절제심을 가져다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 대해 달콤한 평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신성한 행복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다. “*모든 지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을 감쌌다(빌 4:7). 이러한 상태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이길 수 없는 열정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의 증언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으며, 이를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했다. 다른 이들도 같은 감정을 느꼈다(율 27:6).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하늘에서 가져다주는 기쁜 만나이자 힘을 북돋아 주는 하늘의 양식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에 대한 기쁨이며, 사도를 따라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게 하는 힘이다.

이러한 양심의 상태가 맺는 열매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이를 통해 흠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께 하듯 당당하고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다음으로, 생생하고 강력하며 신속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양심은 신성한 힘을 끌어당기는데, 이 힘은 온 영혼을 가득 채우며, 지치지 않는 힘과 끊임없는 수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불굴의 정신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에게 고유한 영의 자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지가 양심과 하나가 되어 내면의 모든 반향이 사라진다. 사람은 법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그 자신이 온전히 법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이다.

b) 의지의 상태

b) 의지의 상태

양심 다음으로 활동적인 힘 중 하나는 의지이며, 이 의지는 우리의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소들—사업, 계획, 풍속, 행동, 태도—즉, 사람이 내면에서 외면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모든 것을 관장한다. 이를 ‘열망과 성향의 능력’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의지의 주된 대상은 선이다. 그 작용의 형태는 욕망과 혐오이다. 악을 혐오하고 선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전부이다. 사람은 악을 원하거나 선을 혐오할 수는 없으며, 오직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여길 뿐이며, 전자의 유혹에 빠져 선의 탈을 쓰고 악을 원하거나, 후자를 악으로 여기며 원하지 않을 뿐이다.

열망과 욕망의 필연성, 즉 근거와 근원은 우리 존재의 불완전함에 있다. 이 불완전함에 대한 감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을 채워줄 대상을 찾게 만든다. 이러한 면에서 인간은 갈증을 느끼는 땅이나 스펀지와 같다. 욕구의 수는 그 구멍의 수와 같다.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대상은 선으로 간주되며, 그 선이 포괄적일수록 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분명히, 인간의 최상의 선은 오직 그를 온전히 그리고 다방면으로 만족시켜 주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또한, 갈망의 강도가 기대되는 선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면, 하느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에게 있어 가장 높고 가장 강한 갈망이어야 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기대해야 한다. 갈망은 욕구의 반영이며, 욕구는 우리 존재의 구조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그의 주된 필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갈망은 하나님과 신성한 것들에 대한 갈망이어야 한다. “하늘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으며, 땅에서 주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나이까... 나의 마음의 하나님 이시요, 나의 뭉이신 하나님이지요, 영원토록”(시 72:25-26).

타락 전 순수한 상태에 있던 인간의 마음이나 의지 속에는 바로 이러한 의로움이 있었으나, 타락을 통해 그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야 했고 실제로도 일어났다. 그의 의지는 어디로 향했는가? 타락의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 자신으로 향했다. 하나님 대신 인간은 스스로를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으며, 그 밖의 모든 것은 수단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타락하여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주된 성향이 자기 사랑, 즉 이기심임을 알 수 있다. 이 성향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며,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어, 아리스토텔레스(이교도)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선한 사람조차도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행하므로,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삶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고 명령받는 이유이며, 그 후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정 내내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롬 15:1), “자기 것을 찾지 말라”(빌 2:4)고 하는 이유이다. 마카리오스 대성인이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가 마음 깊은 곳에 동지를 틀고 있는 뱀을 죽이라고 조언할 때, 그는 이 뱀을 자아애로 이해한다(설교 1, 1장).

에데스의 주교 테오도르가 말하듯이(『선행』, 제3권, 제93장), 모든 악한 성향이나 모든 도덕적 악은 이미 자기애에서 비롯된다. “자아애는 형언할 수 없는 악들의 어머니이다. 그것에 굴복하는 자는 다른 모든 정욕들과도 결탁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정욕들 중에는 다른 것들보다 앞서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 스스로가 자아애를 머리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

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자아의 첫 번째 산물은 교만, 즉 일반적으로 말해 높아지려는 갈망, 탐욕, 즉 소유욕, 그리고 육체적 쾌락 추구, 더 정확히 말해 모든 면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는 경험과 단순한 추론을 통해 확인되는데, 어떤 정욕을 취하더라도 그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나 앞서 언급된 근본적인 정욕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 막심 고백자는 (『사랑에 관하여』 제2백, 제5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어머니인 자만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라. 이것으로부터 세 가지 최초의 정욕적인 생각이 생겨나니, 곧 음탕, 탐욕, 허영이며, 이로부터 나중에 온갖 악의 무리가 번성한다”(테오도르 에데스키의 저서, 제61, 62장 및 그레고리 시나이스의 『선애론』에서도 동일하게 언급됨). 세상은 물질화된 자만심이거나, 인물과 행동 속에서 그 자만심이 낳은 산물들의 총체이다. 왜냐하면 성 요한 신학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육신의 정욕, 눈의 정욕, 그리고 세상의 자랑*”(요일 2:16)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세 가지 정욕의 작용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세상은 최악된 의지의 활동이 온전한 폭으로 펼쳐지는 무대이다.

이 초기 정욕들 각각은 차례로 그 정신과 성격을 고스란히 담은 수많은 다른 정욕들로 드러납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모든 능력과 모든 활동에 그 흔적을 남기며, 이로써 인간의 정욕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정욕을 증식시킵니다.

육체의 정욕은 쾌락에 대한 끝없는 갈망, 즉 영혼의 내적·외적 감각을 달래줄 수 있는 대상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쾌락을 유일한 목표로 삼게 하거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며 마주치는 모든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을 그 방향으로 이끌게 한다.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개인적 성향은 쾌락의 대상과 그것을 느끼는 감각 기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미각의 쾌락에서는 미식, 주정, 과식이 생겨나고, 성적인 욕망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방탕함이, 운동 기관에서는 산만함이나 나태함이, 정서적 감정에서는 상상력을 통한 타락한 사랑과 몽상적인 쾌락 추구 등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 가장 주요한 산물은 폭식, 음행, 나태, 오락 및 유희이다.

이 정욕을 지닌 사람은 어디에서나 그 본성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모든 것에 그 정신이 각인된다.

예를 들어, 종교와 신에 대한 인식에 있어 쾌락주의자들은 그들에게 특유한 경솔함과 거의 전적으로 외부를 향하는 태도 때문에 신학적인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로 인해 이러한 진리들은 뿌리가 없는 것처럼 결실을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질서를 향한 성향들로부터 내면에서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이 마지막 상황은 쾌락에 빠진 사람을 필연적으로 신앙의 진리에 대한 무관심의 상태로 몰아넣거나, 더 나쁘게는 그 진리들에 대한 의심으로 빠뜨린다. 그들은 예배에서 즐거운 성례를 원하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청각과 시각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가장 내면적인 예배에서도 주로 마음의 달콤한 감동을 추구하며 이를 강제로 이끌어내려 하므로, “*환난 때에 떨어져 나간다*”(눅 8:13), 진리를 위해 내적이나 외적인 슬픔을 겪어야 할 때 말이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들이요, ... 그들에게는 배가 곧 하나님이다*”(빌 3:18).

자신에 대한 태도. 쾌락주의자는 온전히 쾌락에만 몰두하며, 그것도 오직 당장의 쾌락에만 몰두하여 마음속으로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터이니*”(사 22:13, 56:12; 고전 15:32; 전도서 2:6) — 미래

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삶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 심지어 막 시작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심지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난, 불명예를 마주할 때조차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경멸하고, 오직 육체만 “과도하게 먹는다”(디도서 1:12; 디모데전서 5:6). 이 때문에 그에게는 정확하고 가치 있는 개념도, 확고한 삶의 원칙도 찾아볼 수 없다. 행동으로 보든 생각으로 보든 그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처럼 흔들린다. 그는 건실하고, 꾸준하며,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장기적인 일에 소질이 없어, 그로 인해 자신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것도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다.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도 그는 별반 나을 것이 없다. 물론, 타인을 개인적으로 모욕하는 일에는 마지못해 결심할 뿐이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불쾌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성품이 다르거나, 그의 일을 함께 나누려 하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 낯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적이다. 그런데 곤경이 닥치기만 하면, 그는 사기, 약속 불이행, 거짓 약속, 교활한 수단 등 온갖 불의한 짓도 서슴지 않는다. 그에게는 우정을 맺고자 하는 성향이 있지만, 대개 친구를 진정한 품격에 따라 선택하지 않으며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대할 때는 예의를 차리려는 욕구가 보이지만, 곧이어 비꼬는 말, 신랄한 말, 조롱, 때로는 건방진 태도가 드러난다.

이러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든 사회생활에서든 좋은 점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그들은 제대로 명령할 줄도, 복종할 줄도 모른다. 쾌락주의자인 아버지, 남편, 주인, 상사는 그야말로 최악이다. 자녀, 아내, 가족,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은 파멸로 치닫는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그와 떨어 수 없이 얽혀 있는 무관심과 거짓된 온순함, 혹은 방종 때문인데, 이는 징계가 종종 불쾌한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모든 계층의 하층민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저항은 일어나지 않지만, 거의 항상 불평과 느릿함, 게으름이 존재한다. 대체로 그들은 법을 만드는 자라기보다는 “*들기만 하는 자*”(야고보서 1:22).

이득을 추구하는 마음이란, 소유하고자 하는 끝없는 욕망이거나, 단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만을 위해 유익이라는 명목으로 물건을 찾고 모으는 행위이다. 이 욕망의 대상은 무수히 많다. 집과 그 모든 부속물, 들판, 하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이들은 오로지 은과 금에만 집착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이 욕망은 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은을 탐하는 것과 재물을 탐하는 것, 즉 탐욕이다. 사욕 양상을 보면, 허영심의 영향 아래에서는 사치스러움으로, 교만과 권력욕의 영향 아래에서는 전 세계의 상거래를 장악하려는 기만함으로, 광기의 영향 아래에서는 인색함으로 나타난다. 이 정욕에는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근심, 시기, 두려움, 슬픔, 그리고 비통함이 뒤따른다. 이 열정을 지닌 사람에게 어울리는 칭호는 흥미롭다. 그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단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며,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 말, 생각은 모두 그에게 공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 그의 영역에 들어오면, 그는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유의 배타성은 단호하고 진심 어린 것으로, 마치 울타리를 치듯 그의 소유물 주위를 둘러싸고 다른 모든 이들을 차단해 버린다.

종교에 관하여. 그는 하나님을 알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그는 들은 대로, 받아들이는 대로, 그리고 감각적인 사물들로 가득 찬 영혼으로 상상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을 간직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미신, 의인화, 우상 숭배에 기울어 있다. 사물에 대한 강렬하고도 독점적인 사랑은 그의 내적 신앙을 의심스

럽게 만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마태복음 6:24)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는 명백히 우상 숭배자로 불린다(에베소서 5:5; 골로새서 3:5; 마태복음 19:22; 욥 31:24; 시 118:36). 그는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는 듯하지만, 마음으로가 아니라 겉으로만 하며, 그것도 이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거나,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는 겉으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치우치며, 그 안에서 부와 화려함을 좋아한다. 정당한 길이 없을 때, 재물을 탐하는 열정은 때로 그를 주술이나 다른 터무니없는 일들로 이끌기도 한다(딤후 6:9).

자신에 대한 태도. 탐욕스러운 사람에게는 몇 가지 미덕이 눈에 띄기도 한다. 그는 마치 검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색하다. 그의 수고와 부단한 노력은 오직 이득을 위한 것이며, 쾌락과 향락을 절제하는 것도 단지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일 뿐이다. 사실 그는 영혼이나 육체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으며, 자신을 물질에 희생시킨다. 걱정 때문에 재물을 모은 것을 누릴 시간이 없어, 그로 인해 그의 영혼에는 평화가 없다. 불행이 닥치면 그는 절망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으며, 쉽게 정신을 잃고 미쳐버리기도 하며,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타인에 대해서는 비인간적이고, 시기심 많고, 교활하며, 신의를 저버리고, 시시콜콜한 사람이다. 헛된 자만심이 그를 이기지 않는 한,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짧은 우정은 알지 못한다. 유다가 스스로 보여준 것처럼(마태복음 26:15), 이득을 쫓는 자가 감히 저지르지 못할 불의는 없다. 그로부터 도둑질, 신성모독(여호수아 7:1; 사도행전 5:1), 살인, 배신이 비롯된다.

“이득을 탐하는 자”는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부적합한 구성원이다(잠언 15:27, 15:29; 열왕기하 5장; 디모데전서 3:3; 빌립보서 2:20-21; 베드로전서 5:2). 그들 중 하층민들은 대개 순종적이고 근면하며, 어떻게든 돈을 모으기 위해 일하지만, 주인이나 상사를 속이고, 어떻게든 돈을 훔쳐서 은닉한 뒤, 그들이 어떤 곤경에 처하자마자 즉시 그들을 버리는 경향이 있다. 상위 계층이나 어떤 형태로든 지휘권을 가진 자들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안일함 면에서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진실도, 사람도. 사람들은 그런 상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든 돈을 뜯어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부하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고 온갖 방법으로 그를 속이려 든다. 집안에서는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를 소홀히 대하며, 아이들과 가족 전체를 방치한다. 이렇게 해서 무례함과 무지가 자리 잡게 된다.

오만이란 끝없는 상승에 대한 욕망, 혹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설 수 있는 수단을 필사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만심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마치 자만심이 그 자체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모든 관심이 오직 ‘나’에게만 쏠려 있기 때문이다. 자만심의 첫 번째 산물은 내면적인 자만이며, 이를 통해 다른 모든 이들은 우리보다 낮게 여겨진다. 심지어 우리를 훨씬 능가하는 이들조차 우리와 비교하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이 자만심이 밖으로 드러나면, 이미 자신을 높여줄 대상들을 찾게 되고, 그 대상들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를 변화시킨다. 사소한 대상들, 예를 들어 육체의 힘, 미모, 옷차림, 혈연 관계 등에 머무르면 그것은 허영이며; 명예와 영광의 지위에 관심을 두면 그것은 권력욕과 출세욕이며; 사람들의 소문, 말쑥씨, 관심에 즐거움을 느끼면 그것은 명성 추구이다. 그러나 이 모든 형태에서, 어쩌면 자만심을 제외하고는, 교만은 또한 제멋대로임, 불복종, 자신

감, 오만, 과시욕, 타인에 대한 경멸, 배은망덕, 시기, 복수심에까지 이르는 성급한 분노, 그리고 악의적인 원한을 동반한다. 그러나 그 가장 주요한 분지로는 시기심과 증오, 분노와 악의를 꼽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만한 자들은 “자만하는 자들”(롬 11:20, 12:16; 딤후 6:17; 사 14:13), 거만한 자(딤후 6:4), 교만한 자(신 8:14, 17:20; 겔 28:2), 자만하는 자(눅 18:9, 18:11; 갈 5:26)라고도 불린다.

마음속으로, 즉 종교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 모든 사람 위에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그는 불경건의 가장 깊은 심연에 빠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려는 성향 때문에 그는 스스로 새로운 견해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고상함과 기이함을 띤 타인의 새로운 견해를 쉽게 받아들인다. 종종 평범한 백성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는 하나님의 존재, 영혼의 불멸 등과 같은 가장 명백한 진리들을 거부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자들을 이단의 창시자로 여기는 것은 타당하다(딤후 6:4-10). 일반적으로 그에게 내재된 논쟁적 성향과 받아들인 견해에 대한 고집은 진리에 매우 해롭다. 외적인 신앙 생활에서는 그는 경직됨, 화려함, 인위성을 좋아하고, 내적인 신앙 생활에서는 긴장감, 고상함, 초월성을, 기도에서는 거만한 말투를, 경건함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기이함을 추구한다. 모든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한다; 그는 또한 영광과 허영을 위해 온갖 형태의 예배를 받아들이고, 이를 여로보암처럼(열왕기상 12:28-29)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절제, 근면, 검소, 인내, 끈기는 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의무 이행자라는 외관을 부여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미덕은 수단일 뿐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 가치는 이를 실천하고 유지하는 데에 담긴 정신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가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데 더 신경을 쓴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남들 앞에서 빛나기 위해서이거나, 아니면 학문의 명성이나 자신과 자신의 지위의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당대 사람들이 칭송하는 일에 더 몰두한다. 그러나 그는 성질이 급하고 호전적이며 스스로를 쉬게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곧 힘을 소진하고 병을 앓게 된다.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그는 가장 불공정한 사람이다. 모든 것을 자신에게 돌리고, 타인에게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명령하기를 좋아하고 결코 복종하지 않는다. 그의 생각에 따르면 타인은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그는 이미 강해졌을 때는 폭력으로, 아직 강하지 않을 때는 교활함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한다. 그는 정치가이므로, 결과적으로 위선적이다. 그에게서 감사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봉사를 마치 조공처럼 받아내는 권리를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기회가 닿으면 모욕을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경멸을 보이거나, 위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그는 사랑받는 것보다 더 많이 두려워받는 것을 원한다. 그에게 우정은 자신의 목표에 부합할 때까지만 존재한다.

일상생활과 시민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혼란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하층민들은 복종하기를 원치 않으며, 그들에게 부과된 의무의 명예를 참지 못하므로 언제나 반란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다. 상류층은 제멋대로이며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처벌하고, 용서하기를 꺼

린다. 설득이 아니라 말과 눈빛으로 지배하려 한다(베드로전서 5:3). 대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기를 좋아하지만, 소수에게만 예의를 차릴 뿐, 누구에게도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회에서 용납받지 못하며, 사람들과 그들을 대적하시고 종종 훈계하기 위해 그들을 낮추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마 23:12; 베드로전서 5:5; 야고보서 4:6; 욥기 9:13, 40:6-7; 마태복음 11:23). 가정에는 평화가 없고 다툼과 불화가 있으며, 자녀들은 무례해지고, 하인들은 제멋대로 행동하며, 아내들은 때로는 슬퍼하고 때로는 고집에 익숙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만심에서 비롯된 가장 직접적인 결과들입니다: 육체의 정욕, 눈의 정욕, 그리고 세속적인 교만—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정욕들입니다. 그러나 성부들의 지적에 따르면, 이로부터 비롯되는 것들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것들, 마치 필수불가결하고 항상 함께하는 동반자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섯 가지이다: 분노, 음행, 슬픔, 나태, 허영. 이들이 첫 번째 것들에서 비롯된 경위는 매우 간단하다. 예를 들어, 쾌락 추구는 주로 두 가지 정욕, 즉 탐식과 음란에서 나타나며, 나태와 게으름을 동반한다. 탐욕과는 항상 슬픔과 시기심이, 교만과는 분노와 허영심이 연결되어 있다. 이 다섯 가지 파생된 정욕들은 그 다산성의 정도에 따라 첫 번째 정욕들과 같은 범주로 분류되므로, 가장 근본적이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정확히 여덟 개 또는 일곱 개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허영을 교만과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테오도르 에데스키의 저서 제10장(『선행 사랑』, 제3권)을 참조하라; 에바그리우스의 『다양한 생각에 관하여』(『선애』, 제1권, 제1장:24); 『정교회 고백서』, 제3부, 제23문 및 그 이후. 『사다리』에서 이러한 정욕에 관한 장들도 참조하라. 이 글들에서 각 악덕의 특징은 충분히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그로부터 파생된 정욕들은 충분히 상세하게 다루어졌다. 성 그레고리 시나이스는 정욕이 발전하는 특별한 경로를 제시했다(『자비 사랑』, 제5권, 제78, 79장). 그는 이를 영적 정욕과 육체적 정욕으로 나누며, 영적 정욕은 다시 사교력, 욕망, 분노라는 세 가지 능력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그가 일반적인 분류에서 벗어나지 않고, 단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자만심이 인간 존재의 각 부분과 그 능력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교 능력에서 비롯된 정서들 중 일부는 교만의 성질을 띠고, 다른 일부는 욕망의 성질을, 또 다른 일부는 쾌락 추구의 성질을 띤다. 적어도 이러한 방식으로 정서를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삶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유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여기서 각 정욕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방식으로 정욕을 극복할 수단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비록 그것이 지금 신성한 지혜를 지닌 교부들의 경험을 통해 제시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일지라도 말이다. 다만, 이러한 일이 성부들의 저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 본성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누가 이에 만족하겠는가? 베드로 다마스쿠스(『슬라브의 자비』 제3부 참조)는 신성한 성경에서 298가지 정욕의 이름을 아무런 순서 없이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경에서 찾은 것인데, 이를 순서대로 정리할 수는 없었고, 심지어 시도조차 감히 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성 사다리꾼의 말씀에 따르면, 악에 대한 지식, 즉 그것에 대한 이성적인 이해와 설명을 찾으려 해도 결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정욕들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관해 말하자면, 한 사람 안에서 그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때로는 기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서 ‘자아’와 그 세 가지 산물, 그리고 다섯 가지 정욕 중 일부가 항상 존재한다. 다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하나가 우세하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또 다른 것이 우세할 뿐이다. 이들과 함께, 성별, 연령, 신분의 영향에 따라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본래의 어머니인 정욕의 성격과 정신을 닮은 온 무리의 정욕들도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한다. 가능한 조합에 대한 상세한 지침은 자기 인식을 위한 아주 훌륭한 지침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주된 정욕은 물론, 그 정욕이 자신 안에 품고 있는 온 가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 속에서 열정들은 때로는 서로를 강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그로 인해 수많은 겉보기에는 미덕처럼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며,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것들로 스스로를 현혹하곤 한다.

그의 정욕이 어떻게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는, 그의 인생사가 가장 잘 설명해 준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결합을 안고 태어난다. 즉, ‘자아’라는, 모든 가능한 정욕의 씨앗을 품고 태어난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 씨앗이 주로 한쪽으로, 다른 사람에게서는 다른 쪽으로 발달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에 달려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양육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선 모범, 관습, 대우 또는 사회 환경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모방에 달려 있다. 어린 나무와 같이, 사람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며, 그 후 삶의 길에 들어서서 같은 방향으로 행동함으로써 습관을 통해 그 방향이 굳어지게 되는데, 이는 이른바 ‘제2의 본성’이 된다. 그렇게 하여 사람은 자신을 지배한 정열에 물들거나 그 정열에 단련되어, 그의 온 본성이 그 정열로 가득 차게 된다.

이러한 방향에 정착한 사람은 마치 감옥에 갇혀 족쇄를 찬 것처럼 갇혀 있으며, 스스로는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한 정욕이나 악한 의지의 기질은 그 자체로 뚫을 수 없는 덮개나 견고한 울타리를 형성하여, 그에게 구원의 빛인 하나님의 빛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첫째, 모든 정욕에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대상들의 범주가 있는데, 사람은 이를 선으로 여기며, 이를 소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마치 선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자신의 영혼으로 그 대상들과 마치 화학적으로 융합된 듯이 어우러져 그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찾아와 그의 마음과 융합하여 그 대상들로부터 그를 멀어지게 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없다. 둘째, 오직 특정 대상들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데 익숙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정욕을 방종하게 하고 양심의 눈으로부터 그것을 숨겨주는 어떤 생각들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 특별한 죄악의 근원이 형성되는데, 이를 마음이나 의지의 편견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서 자만심은 사람의 머릿속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지속적인 생각을 심어주고, 자신의 결점을 미화하며, 자신을 항상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한다. 쾌락주의는 쾌락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쾌락을 누리도록 마련해 놓았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반면 산만함과 경솔함은 무엇이 힘인지 깊이 들여다보고 분별하는 것을 방해한다. 탐욕에는 얼마나 많은 겉보기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살아갈 수 없다—비상시를 대비해 저축하라, 집은 무덤이다” 등등, 그런데도 걱정은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앞으로만 몰아간다. 자만심은 말한다. “그 어떤 직책을 누가 맡아야 하겠는가? 모두가 거절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는

가? 이미 그런 길에 들어섰는데, 어쩌겠는가?” 그런데 여기, 역시 정욕에 의해 지탱되는 겉보기에는 선해 보이는 몇 가지 성품들이 눈에 띈다. 마음과 겉으로 보이는 혜택이 공존하는 모습, 그리고 정욕을 정당화하는 타락한 원리들(비록 겉보기에는 편견에 불과해 보이지만) 속에, 죄인의 마음에 은혜가 작용하고 그가 회심하는 데 있어 가장 견고한 장벽이 놓여 있다. 이러한 원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정욕에 사로잡힌 자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악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고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은혜가 작용하는 자에게는 의지의 태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변화는 회개의 참회적인 작용을 통해 자아가 정화되고,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섬기기로 결심함으로써, 세레나 회개의 성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헤아릴 수 없이 재결합하여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게 된다.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물며 자기 자신을 위해 썩어 없어질 것에 매달렸던 것처럼, 이제 회개하여 자기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주요한 의지의 태도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머무르려는 열정, 즉 사랑입니다.

자기 부정은 자애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아’의 인장이 찍힌 모든 것을 추적하고, 그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키우는 모든 사물로부터 등을 돌린다. 또한 일시적이고 육체적이며 외적인 모든 이점을 무의미하게 여기며, 모든 피조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떼어낸다. 후자의 측면에서 볼 때, 자기 포기는 사실 사물을 소유하지 않거나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로부터 마음을 떼어내는 데, 즉 모든 사물이 마치 낯설고, 타인의 것이며, 영혼을 사로잡지 않고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 낯선 상태인, 편견 없음이나 무정함과 동의어이다.

본질적으로 자만심을 거부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우리 안에서 자아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성향을 맺거나 낳는데, 바로 다음과 같다:

자아를 버린 자에게는 교만 대신 겸손이 있다. 이는 자신을 가장 하찮은 피조물로 여기며, 모든 경멸과 굴욕을 받아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가짐이다. 자신에게만 죄를 돌리고, 모든 선한 것은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께 돌린다; 그는 타인에 비해 어떤 우월함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모든 이를 자신보다 더 높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빈곤함과 약함에 대한 인식과 결합된 자기 비하입니다.

이기심 대신에 그에게는 이타심과 탐욕 없음뿐만 아니라 방랑자의 마음가짐도 있다. 그는 어떤 것도 자신의 것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며,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재산에 대한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과 자유롭게 나누며 지낸다. 그가 가진 모든 것, 즉 집과 땅, 마을을 일시적으로 맡겨진 것으로만 여깁니다. 마음속으로는 이곳에 영구히 머물 곳이 없다고 여기며, 장차 올 천국을 갈망하므로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자신의 고향으로 먼저 보냅니다.

정욕과 쾌락 대신에 자기 학대와 자기 비하가 있다. 그가 아무리 자신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슬픔이라도 없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아픈 부위처럼 대하는 것처럼, 하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는 자신에게 분노하며 기꺼이 자신을 괴롭히고, 굶주림과 불면, 노동으로 자신을 고문한다. 모욕을 당하거나 매를 맞을 때 기뻐하며, 자기 학대에 있어서는 끝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즉 지극한 선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무르고자 하는 갈망과 그분 안에서 얻는 평안, 혹은 그분과의 교제 속에서 느끼는 복락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께로 돌아선 자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쏟아져 나오며, 그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 이 사랑은 생각이나 상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복락(神福)을 맛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지 의아해하는 이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창조주와 하나 되기 위해 모든 피조물을 버린다는 것은, 허상의 선을 참된 선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은 자기 포기과 모든 것에서 벗어남에 필수적인 보완 요소이다. 달콤함을 맛본 자는 쓴맛을 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맛본 자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기 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이 사랑, 즉 신성에 대한 갈망의 본성에 따라, 기독교 활동의 긍정적인 기초를 이루는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마음가짐이 마음속에 발전하거나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앞에 뵈고, 그분의 면전에서 마치 그분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음과 함께 주의력도 하느님께 고정되어, 마치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내적 생명은 하느님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레고리우스 신학자는 숨 쉬는 것보다 하느님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기억을 호흡에 연결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정, 즉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어떠한 타협도 없이, 설령 목숨을 바쳐야 한다 해도, 깨달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끊임없이, 성실하고 진심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뜻을 부지런히 분별하고, 모든 장애물을 뚫고 신속히 실천에 나서는 태도를 동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태도를 ‘쫓는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슬픔, 즉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에게 더 빨리 임하기를 바라며 이 슬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과 타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불완전함을 탄식하여, 거의 끊이지 않는 회개의 감정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이의 본성은 사랑하는 이의 면전에 있고 싶어 하는 것이니, 육신에 거하는 동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슬픔을 느낍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질서, 즉 그의 활동 방식은 이 두 가지 근본적인 방향—자기 희생과 사랑—에 부합해야 합니다. 성인들의 모범을 보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항상 존재합니다.

자기 저항과 자기 강요, 즉 그는 끊임없이 악에 맞서고 선으로 마음을 기울인다. 나쁜 충동이 생기면 그것을 멈춰야 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스스로를 그쪽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벌이는 끊임없는 투쟁이다. 이 과정에서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그는 마침내 자신 안에 선하고 기꺼이 행동하는 사람을 형성하며, 악을 소멸시키고 힘의 활동을 선으로 전환한다(마카리오스 대성자, 『마음 지키기』 12, 13장; 『마음의 자유』 18장).

악은 단번에 근절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그는 부주의로 인해 해로운 것을 놓치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경계와 절제를 지켜야 하며, 이는 그에게 명해진 것이자 본성적인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각심 있는 파수꾼으로, 끊임없이 공격을 기다리며 예리한 사고로 다가오는 적을 즉시 알아차리는 자이다. 또한 그에게 있어 모든 나태함을 몰아내고 끊임없이 힘을 긴장시키는 것이 본성이다. “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긴장이 충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이들은 5~6년을 평온하게 지내다가도 동요하여 타락했기 때문이다 (마카리우스 대성자, ‘마음의 각성’ § 3).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며, 아직 수고하지 않았고, 아직 문턱에 서 있을 뿐이며,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느슨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치명적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명한다. “평생 동안 수고와 위업을 다하리라 결심하라.”

분명히, 이러한 마지막 태도들, 즉 투쟁, 절제, 그리고 한 치의 느슨함도 없는 긴장감은 자기 희생과 사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으므로, 중추적이거나 원초적이며, 따라서 부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 후에 자기 희생에서 비롯된 태도와 사랑에서 비롯된 태도가 발전하며,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 완전한 자기 희생과 완전한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를 통해 수도 생활의 특징이 드러나거나, 그에게 참된 길과 더불어 기독교 생활의 참된 의미가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은 의지의 방향에 관한 것으로, 이는 의지의 물질적 측면을 구성한다. 그러나 이성이 물질적 활동 외에도 형식적 활동을 가지고 있듯이, 의지에도 일종의 형식적 활동이 있다. 이를 간략히 정의해 보자.

의지의 활동은 소망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둔다. 그 역할은 불확실하고, 말하자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소망들을 정리하여 자신의 목표, 필요, 그리고 현존하는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인간의 행동과 시도를 정립하며, 사회적 및 가정적 활동의 질서를 위한 전체적인 규칙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성인 인식에서 그러하듯이, 의지 역시 활동 속에 있다.

이러한 의지의 활동에서는 선택, 결단, 그리고 실행이라는 세 가지 부분을 구분한다. 선택에서는 무엇에 정착할지 모색하고, 결단에서는 흔들리던 욕망이 하나의 대상에 확정되며, 수단이 마련되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진다. 이 모든 측면에서 죄인과 진리를 추구하는 자 사이에는 새롭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선택.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사물의 본질이 이미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는 삶의 주된 성향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람은 오로지 자존심을 충족시키는 것, 즉 쾌락이나 이익, 혹은 명예를 추구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모든 의도를 오로지 전적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쏟는다. 그는 미덕과 칭찬만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임을 알고, 오직 그것만을 염두에 둔다. 첫 번째 사람의 모든 행위는 열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두 번째 사람의 행위는 모두 하느님을 향한 자기 희생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외는 매우 드물며, 설령 있다 해도 겉모습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선택의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있다. 한 사람은 둘 다 마음에 드는 두 대상 중에서 아무런 긴장이나 내적 갈등 없이 선택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의 선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욕망과 생각에 맞서서 선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의 선택은 언제나 투쟁과 승리의 결실이며, 또는 그와 더 적거나 더 많이 수반된다. 게다가 전자의 경우 종종 선택할 필요조차 없는데, 이는 그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며, 그 절차에서는 멈춰 서서 생각하고 판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후자의 경우 정해진 순서가 있을 수 없으며, 오히려 평범한 일조차 마치 처음 행하는 것처럼 온전한 내적 활동을 요구한다. 전자는 종종 욕망의 유혹에 빠져 자신의 의지가 저절로 향하는 대로 행동한다. 후자는 예리한 사고로 항상 앞을 내다보며, 눈앞에 놓인 것 중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만을 선택한다. 전자는 자만과 오만함으로 인해 종종 무작정 행동하며, 자신의 위엄 있는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모두 훌륭하고 만인의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 사람은 단 한 순간도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며, 모든 주의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사소한 상황 하나하나까지 살피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그 일에 분명히 임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야 비로소 일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종종 단지 자신이 원하기 때문, 즉 제멋대로인 성향과 타락한 의지에 따라 선택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에서 이성의 판단과 지시에 순종해야 마땅하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에 적대적인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지의 반항이 처음 싹트자마자 이를 억누릅니다. 이로 인해, 저 사람은 자신의 선택이나 선택의 부재를 통해 불순종적인 제멋대로함을 키우는 반면, 이 사람은 자신 안에서 이성적인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꺼운 복종을 형성합니다.

결단력은 의지의 내적 행위로서, 순간적이며, 지속 시간이나 방향이 아니라 욕망의 흔들림 없음으로 측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일에 속하든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결단력에 선행하거나 수반하는 몇 가지 행동들은 구별해야 한다. 선택 이후, 결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마음과 의지가 대상 쪽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서는 이러한 마음이 기울어짐이 종종 선택보다 앞서 발생하며, 거의 항상 선택을 결정짓고, 적어도 그 끝을 기다리기만 하면 마음에서 터져 나오기 때문에, 결코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으며 특별한 긴장을 요구하지도 않고, 거의 별도의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의 경우, 대상에 대한 마음의 기울임은 그리 자연스럽지 않으며, 적어도 초기 경험에서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수월하지 않은 과정이며, 때로는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모든 주의와 집중을 요구하는 특별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종종 마음을 돌리기도 전에, 마음의 뜻에 반하여, 심지어 마음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곤 한다. 이러한 마음의 순종과 유연성은 오랜 기간 땀 흘리는 수고를 통해 얻어진다.

한 사람에게는 욕망의 정도만큼 희망도 있다. 그에게는 계획한 일이 이미 손에 쥔 것처럼 보인다. 혈액의 흐름에 의해 자극받은 생명 활동은 타인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에 자신의 힘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이 탐욕만큼이나 자신감 있게 이루어진다.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열망의 불길 없이, 차가운 의지가 아닌, 신중한 선택을 바탕으로, 내외부의 장애와 위험을 예상하며, 자만심 없이 차근차근 일에 착수하여 온 힘을 다하되, 성공은 오로지 지고하신 분의 도움과 축복에서만 기대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치 모든 이점이 첫 번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점, 즉 결심의 순간부터 전환점이 시작된다. 결심은 순간적이고 내면적인 행위이지만, 그 힘과 확고함의 정도는 각기 다르다. 이러한 확고함은 선행하는 욕망의 정도로 측정될 수 없다. 그것은 온전한 정신의 결실이지, 단순히 의지나 마음의 열정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약 첫 번째 사람에게 온전한 정신이 없다면,

그의 결단력은 두 번째 사람이 항상 지니고 있는 그 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의 결단력은 항상 흔들리는 반면, 후자의 결단력은 반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전반적으로나 구체적으로나 두려움과 불안정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요구 사항이나 사업을 수행할 때 그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야 할 때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후자는 왕과 통치자들 앞에서 고통과 죽음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간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확고한 결의 때문이다. 그에게 있어 결의는 흔들리지 않는 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에서 지극한 인내심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을까? 후자에게다. 전자는 스스로가 약하여 자신의 일을 타인의 손을 빌려 처리하려 한다.

행동은 선택과 결단의 자연스러운 결실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수단이 선택되며, 행동은 자신의 모습과 타인, 사물을 고려하는 일상적인 삶의 질서에 맞춰진다.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사람은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주저 없이 이용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오직 합법적인 수단만을 사용한다; 전자는 교활한 수단까지 동원하는 반면, 후자는 항상 공개적이고 진실하게 행동한다; 전자는 외부 관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반면, 후자는 내부 관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 전자는 정치에, 후자는 영적 지혜에 중점을 둔다; 전자는 자신을 더 옹호하는 반면,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믿음, 영원한 구원을 옹호한다; 전자는 오직 일 자체만을 염두에 두는 반면, 후자는 그 일의 결실까지 고려한다; 전자는 오직 긍정적이고 명백한 수단만을 사용하는 반면, 후자는 종종 신비롭고 신앙에서 비롯된 수단을 사용한다; 전자는 두려움이 많고 의심스러운 반면, 후자는 소망을 품고 나아간다(이사악 시르, 『이성의 세 단계』) 등등.

행위 그 자체는 대상, 목적, 수단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 수행 과정에도 적지 않은 차이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에게는 정욕을 충족시키는 일이 가장 필요한 일로 여겨지는 반면, 후자에게는 구원의 일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후자의 일에 대해 전자는 미루는 병에 시달리는 반면, 후자는 억제할 수 없는 열정으로 그 일들을 서두른다; 전자가 그 일들을 소홀히 한다면 단지 겉으로만 그럴 뿐, 후자는 언제나 마음까지 그 일에 쏟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모든 행동은, 같은 시간대를 비교해 보면 정반대이다. 전자의 행위는 겉으로만 그럴듯한 반면, 후자의 행위는 탄탄하고 결실이 풍성하다. 행위의 결과: 전자의 경우 행위와 함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끝나지만, 후자의 경우 그곳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시작되거나 더욱 고조된다; 저쪽에서는 행해진 일이 유사한 일에 대한 욕망이나 습관을 뿌리내리게 하는 반면, 이곳에서는 자유를 구속하지 않으면서 의지를 굳건히 한다; 저쪽에서는 종종 행위에 뒤이어 외적인 찬사와 내적인 수치심이 따르지만, 여기서는 외적인 곤란과 내적인 찬사가 함께 따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저쪽에서는 좋은 결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나쁜 결과는 타인에게 돌리지만, 여기서는 나쁜 결과는 자신에게, 좋은 결과는 타인에게 돌린다; 저쪽에서는 실패로 인해 머리를 쥐어뜯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기대했던 것이다.

한 가지 유형의 일이 자주 반복되면 성향, 즉 지속적인 기질이 형성된다. 그것이 저쪽과 이쪽에서 각각 어떤 것인지는 이미 설명된 바 있다.

c) 하급 욕망의 상태

c) 하급 욕망의 상태

마지막으로, 하급 욕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에게 욕구가 있다. 그 수는 많지 않으며, 우리 존재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각 욕구에 대한 대상은 많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음식과 각종 음료는 얼마나 많은가? 일단 어떤 대상이 경험되면,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그 대상은 욕망의 대상이 된다. 같은 욕망을 자주 충족시키면 성향이 형성된다. 따라서 욕망은 필요에서 성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삶 속에서 큰 힘을 지닌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감각과 상상력이 제시하는 쾌락의 형태로, 이러저러한 대상에 대한 의지의 기울임이다. 여기서 선한 욕망과 악한 욕망의 차이점이 즉시 드러난다.

소망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육체에 그 근원을 둔 감각적 쾌락에 더 많이 기울어지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감각에 의해 자극받기 때문이기도 한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감각주의에 빠져 육체적이고 “동물적”(베드로후서 2:12-13)가 되어, 인간의 타락과 타락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반면, 쾌락 대신 자기 학대와 자기 억압에 대한 갈망을 품는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욕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장 필수적인 한도 내에서 조절되고, 불필요한 경우에는 억제되며, 허용되는, 혹은 흔히 말하는 ‘무해한’ 쾌락 속에서 때때로 완화되기도 하지만—안토니우스 대성인이 양을 예로 들어 보여주었듯이—그 즉시 엄격히 통제되며, 더 이상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육체와 감각을 속이는 데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여기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 영적인 대상에 익숙해지며, 영을 쇠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키는 데 힘쓴다. 이러한 육체적 욕망을 영적인 것으로 대체하는 과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감각적 대상에서 오는 본래의 쾌락 대신에, 그것에 대한 혐오와 반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며, 심지어 예를 들어 수면이나 식사조차도 그러하다. 따라서 비록 가장 낮은 의지가 ‘욕망’과 ‘혐오’라는 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에서는 이 두 가지가 정반대의 관계로 나타난다. 한 사람이 욕망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혐오하는 것이 있고, 한 사람이 혐오하는 데에는 다른 사람이 욕망하는 것이 있다.

다른 차이점들은 욕망과 상상력의 연관성에 달려 있다. 대상의 형상은 상상 속에서 더욱 생생하게 그려질수록 그만큼 더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말하자면 욕망과 상상력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상상력의 일부 속성들은 자연스럽게 욕망으로 옮겨진다.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상상력은 끊임없이 이미지들을 다루며, 그 이미지들이 무수하고 다양하며 혼란스럽고 변덕스러우므로, 그의 욕망 또한 끝없이 다양하고, 대부분 꿈처럼 혼란스러우며, 변덕스럽고 기이할 정도로 변덕스럽다. 그의 상상력은 이미지들의 결합 법칙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며, 그의 소망은 일종의 익숙한 순서를 따라 기계적으로, 마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어지며, 저절로 서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서로를 끊어내기도 한다. 그에게는 상상력이 지배하고 있으며, 그는 마치 어떤 원소적 조합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상상력 속이나 그 세계에서 살아가며, 그 매혹에서 벗어나는 데는 무력하다. 그는 자신의 욕망의 노예이다. 욕망들은 끊임없이 그를 뒤쫓으며 마치 그물망에 갇힌 듯 붙잡아둔다. 이 때문에 그는 욕망에서 쾌락으로, 다시 쾌락에서 욕망으로만 오갈 뿐이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는 상상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악이 단절된다. 처음에는 욕망과 생각 모두에 대항하여 투쟁이 시작되며, 이는 고생과 슬픔을 동반하지만 성공 없이 끝나지는 않는다.

마침내 욕망들마저도 가라앉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들의 제멋대로인 혼란도, 자유에 대한 지배도, 기계적인 움직임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들은 더 높은 권위에 복종하며 그 권위에 의해 다스려진다. 심지어 그것들이 이미 이 권위의 지시에 따라 생겨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하거나 숨겨진 구석에 잠들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구별되는 특징이다. 욕망은 욕구에서 성향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위치하며, 성향의 형성을 좌우한다. 전자의 경우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성향이 욕구를 억압하여 특정 형태로 가두거나, 이를 왜곡하거나, 그릇되고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이끈다면, 전자의 경우 욕구와 본성이 강압적인 속박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결론지어야 한다. 반대로, 후자의 경우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성향으로의 전환이 차단된다. 따라서 성향은 당연히 약해지고 소진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욕구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온다. 욕망을 억제함으로써 본성은 자신을 억누르던 속박에서 해방되어 제자리를 찾게 된다.

자,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에 빠진 자들의 우리 영혼 속에 있는 활동적인 힘, 즉 활동적이고 소망적인 측면은, 양심 속에서 드러나는 법칙들이 때로는 가려지고 때로는 왜곡된, 더 높은 영적 세계로부터 벗어나, 그 후 다양한 이기적인 성향을 띠거나 정욕으로 변모했으며, 마침내 혼란스럽고 무질서하며 허상 같은 욕망의 지배에 빠져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에게 신성한 은총은 이러한 타락을 치유한다. 그것은 양심에 신성한 법칙들을 새겨 넣고, 그 법칙에 따라 의지의 성향들을 변화시키고 변모시키며, 하찮은 욕망들은 진정시키거나 심지어 억누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을 복종시켜 사람 자신에게 맡긴다.

3) 감각의 힘, 즉 마음의 상태

이성이 모든 것을 자신 안으로 모으고자 하고, 의지가 자신을 외부로 표현하거나, 즉 자신의 내적 축적의 풍요로움을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려 하는 반면, 마음은 그 자체 안에 머물며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내면에서 회전한다. 마음이 그 활동적인 힘들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 힘들에 대해 마치 밑받침이나 기초를 이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에서 심장은 그들에게 무대에서 연기하는 인물들에게 무대가 되는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 움직임에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참여한다. 그들의 활동은 심장에 반영되고, 반대로 심장도 그들 속에 자신을 비춘다. 그러므로 심장은 인간 존재의 뿌리이자, 그의 모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힘의 초점으로 정당하게 여겨진다. 인간에게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만큼, 심장은 인간 외부의 모든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연결은 인간의 존재 중심에서만 확립될 수 있는데, 마치 시계의 연결이 모든 톱니바퀴 중심들의 상호 관계에 의해 확립되는 것과 같다. 만약 인간 존재의 중심이 심장이라면, 인간은 이를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과 연결된다. 이 두 가지 관계에서 심장의 다양한 상태, 즉 힘의 중심으로서의 상태와 우리 밖의 모든 존재와의 접점으로서의 상태를 규명해야 한다.

가) 접촉점 또는 공감의 자리 잡은 곳으로서의 심장에 대하여

a) 접촉점 또는 공감을 관장하는 중심으로서의 심장에 대하여

우리가 생생한 유대를 맺고 있는 대상과 함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며, 그 대상의 울타리 안에서는 마치 자신의 본연의 영역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대상에 대해 생생한 공감을 느낀다. 사람 밖의 모든 것, 즉 사람이 생생한 유대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신성한 질서, 영적 세계와 물질적 세계라면, 그것들은 마치 세 가지 영역을 이루며, 사람은 그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 것이며, 그것들과 공감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공감은 어떤 것인가?

죄인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신성한 세계에 대한 공감은 억눌리고 왜곡되어 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징후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감싸 안으시고, 그분의 힘으로 그를 지탱하시며, 그분의 자비로운 은혜로 그를 양육하시지만, 그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신성한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얼어붙어, 그로부터 오는 감동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만약 감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을 맛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한 끌림을 가질 수 없으며,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 달콤하다는 사실이나 그분이 자신과 공감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곳에 가보지도 않았고, 그 사물이나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을 때, 어떤 장소나 다른 장소, 어떤 사물이나 다른 사물, 어떤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겁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지나 공감의 부재가 무엇인지, 이는 거의 어디에서나 볼 수 있기에 명백하다. 죄인들에게 신성한 것은 미지의 땅과 같으며, 질문을 받더라도 그곳이 좋은지 나쁜지 말할 수 없다. 다만 누군가가 추측에 근거해 무언가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확신이나 설득력은 없을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 그곳이 얼마나 좋은지 말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둘째, 달콤함을 맛본 사람은 쓴맛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신성한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러니 그것이 다른 모든 감각을 압도하며 온전한 인간을 삼켜버려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연합이 가져야 할 필연적인 결과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무관심일 것이다.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그 전체를 신성한 것으로 채운다면, 다른 무엇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신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가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은 이 세상에 대한 공감을 잃고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반면 죄인의 마음은 항상 무언가에 집착하는데, 이는 그 마음이 정욕적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은 일반적으로 감각적이고 최악적인 것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안에는 항상 어떤 대상이 하나 있어, 그 대상에 온전히 빠져들고, 밤낮으로 그 안에 머물며, 낮의 꿈과 밤의 몽상 속에서 그 대상을 온갖 색으로 물들인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고 우상처럼 마음 깊은 곳, 가장 은밀하고 숨겨진 구석에 서서 오직 그것만을 흠모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다. 모든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자이다.

마지막으로, 신성한 것이 알 수 없는 반면, 그와 정반대인 다른 것이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신성한 형상을 마주했을 때 죄인인 인간은 그것들을 제3의 대상처럼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그 존재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서 등을 돌리고 도망쳐야 한다. 왜 죄인은 성례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고, 교회에 머무르기를, 찬송을 듣기를, 성화상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영적인 책이나 기도를 읽기를 원치 않는가?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그에게 불쾌

하고,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그를 양육하지 않고 오히려 괴롭힌다. 마음은 탄성체를 닮은 성질을 지녔다. 탄성체가 외부에서 압력을 받으면 물체를 밀어내듯이, 마음도 신성한 것을 자신으로부터 더욱 멀리 밀어내고, 그것과 강제로 접촉할 때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물이 수직으로 잠긴 막대기를 뿔어내듯이, 마음은 다른 세상에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서두른다.

반면, 하느님께로 돌아서서 신성한 은총을 받아들인 사람은, 동시에 신성한 것과 자신의 친화성을 깨닫게 되며, 마치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자처럼 하느님 안에서, 신성한 세계에 머물게 되는데, 마카리오스 대성인이 말하듯, 그 영원한 세상으로 승천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맛보면서, 그는 신성한 것들에 고유한 달콤함도 깨달았다. 하나님께 처음 회심할 때부터 그는 자기 내면의 온갖 집착을 억누르고 뿌리 뽑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품으며,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내적 권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힘을 쏟는다. 처음에는 투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무정(無情)의 빛, 즉 성 사다리꾼이 말한 ‘지상의 천국’이 찾아온다. 그러나 이는 이미 완성에 가까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기르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즉시 자신을 신성을 반영하는 사물들로 둘러싸고, 기도, 신에 대한 묵상, 예배, 하나님의 말씀 읽기 등과 같이 영적인 감정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을 정한다. 이것들을 통해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 자신을 분리하고, 내면의 영적 힘으로 세속적인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그는 조금씩 모든 것에서 초연해지며 신성을 맛보고 그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미리 맛보는 법을 익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삶의 정신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입니다. 즉, 신성한 것과 하나 되는 공감을 되살리고, 사람이 그 세계에서 지내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마치 자신의 본연의 환경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행복이 아니라 고통을 초래합니다. 죄인에게는 낙원에서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릅니다.

이제 영적인 세계, 즉 천사들과 사람들에 대한 공감에 대해 말해보자(사람 안에 있는 육신이 무엇이었는가?). 거룩한 천사들이 나타날 때 느끼는 두려움, 즉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스러운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그들이 우리에게 낯선 존재이거나 완전히 다른 본성을 지녔을 때보다 더 큰 것이다. 그렇다면 친화력과 공감은 어디에 있는가? 경험(구약성경)이 보여주듯이, 육신의 원리에 따라 양육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러한 감정을 느낀다. 반면 죄인들에게는, 그들이 천사들의 임재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더 큰 소외의 징후는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다. 이미 그들에 대한 생각이 생각들 속에 자리 잡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마음은 또 어떨까? 누군가 믿지 않는 것은 적대적으로 거부하며, 그것은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인들, 적어도 주요한 일부에게는 천사 세계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공감의 부재만이 아니라, 그런 적대감과 반감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태도에서도, 첫눈에 거의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낯선 존재로 보이고, 그로부터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로부터 그에게 차가움이 전해지며, 그 후로 영원히 그에게 대한 무관심이 우리 안에 남는다는 것은, 동정심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가? 이에 대한 드문 예외들은 일반적인 결론과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동정심의 왜곡을 더욱 잘 보여준다. 사전 교제 없이도 어떤 사람

들과는 순간적인 공감과 친밀감이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종종 사람을 파멸로 몰아넣을 만한 중대한 오류가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의 항상 ‘비슷한 것에서 비슷한 것을 반영하는’ 결과일 뿐이다. 무관심이 만연한 것은 아니니, 어떤 이들에게는 애정이 싹트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애정조차도 거짓을 품고 있으며, 언제나 거짓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어떤 이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또 다른 이들은 상호 교류의 결과로 서로 눈을 마주칠 수조차 없는 반감과 증오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타인을 파멸시키는 데서 쾌락을 찾는 이러한 야만성이, 사람에 대한 공감의 결정적인 왜곡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이처럼 자신과 닮은 형제들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무엇을 즐기며, 어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가? 무엇 속에서 머무는 것이 그에게 달콤할까? 그는 오직 자신의 얼굴이 사물이나 얼굴에 무지개 빛 광채를 띠며 비치는 곳, 즉 자신의 지성과 활동의 산물 속이든,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허영스러운 사물들 속이든, 혹은 자신의 자만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비로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다. 보아하니 그는 타인으로부터 벗어나 자기 안으로 돌아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 안에서, 은혜는 이 병마마저 치유한다. 자기 포기를 통해 우리 ‘나’의 흔적이 남아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증오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이는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이를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처음에는 이것이 그리 쉽지 않고, 억지로 이루어지지만, 나중에는 마치 자연스러운 감정처럼 변해간다. 더 나아가, 정욕을 잠재우는 정도는 그가 인류와 천사들과 친화하는 정도와 같다. 처음에는 유대인도, 헬레니스트도, 노예도, 자유인도, 남성도, 여성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느끼기 위해 애쓰다가, 마침내 마카리오스 대성인과 같이 온 인류를 한 번의 포옹으로 감싸 안고,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조차도 가족처럼 여기고 싶어 하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천상의 세계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 그는 마치 그 안에 사는 듯하다; 종종 천사들을 보고, 그들로부터 양식을 얻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노래를 듣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그토록 큰 경탄과 기쁨으로 받아들여, 심지어 빛의 천사로 변장한 악마들을 진정한 천사들과 구별하는 규칙으로 삼을 정도이다. 바로 이때 마음속에 남는 기쁨과 평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 이로부터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사람 안에서 신성한 은총을 통해 영적 세계와의 교감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질적 세계와의 공감은 누구나 매우 생생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봄과 여름철에는 온 자연은 물론, 살아있는 유기체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여기서도 처음부터, 적어도 그 공감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들 중에서 유독 그것이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사실 그것은 다른 것들보다 더 약해야 마땅한데 말이다. 또한, 살아있는 피조물들이 아무런 연민도 없이 고통과 고문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우리 경제의 이득을 위해 노예로 삼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니면 이것이 인간이 본래 어디에서나 기쁨으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한 곳과 기후에만 집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그 공감의 왜곡이며, 때때로 그가 자연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의 무감각함을 증명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남아 있다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경험으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거의 모든 곳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를 쉽게 멈추는데, 바로 그 공감 때문이며; 그들에게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땅의 어느 곳에서나 머물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바실리우스 대주교),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더 나아가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자연 속에서 살고 숨 쉬고자 하는 욕구(안토니우스 대주교), 하나님의 피조물을 기뻐하며 즐거움과 경이로움으로 그들 사이를 거니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 모든 것은 물질적 세계에 대한 공감의 회복이나 치유의 가장 명백한 징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이 특성은 설령 그것이 없었다고 해도 아쉬워할 만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며, 영은 육체와 그 모든 겉보기에는 훑아 보이는 움직임들을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연 그 자체에서도 이제는 모든 것이 마땅히 그래야 할 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b) 인간 존재의 힘의 중심으로서의 심장에 대하여

b) 인간 존재의 힘의 중심으로서의 심장에 대하여

마음에는 인간 존재의 모든 힘이 그 모든 단계에 걸쳐 활동의 형태로 반영된다. 따라서 마음에는 영적, 정신적, 그리고 동물적 감각적 정서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정서는 그 기원과 특성 면에서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능력 자체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

c) 영적 감정의 인식처이자 수용처로서의 심장

c) 영적 감정의 인식처이자 수용소로서의 마음

이러한 영적 감정은 영적 세계의 대상들을 관조하거나 그 대상들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다. 이들의 총체를 종교적 감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

최 많은 영혼은 하나님과 신성한 세계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 안에는 진정한 형태의 종교적 감정이 있을 수 없다. 사실상 그런 감정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죄인인 사람과 참된 기독교인 안에서 이러한 감정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 대한 부정확한 감각은 완전히 사라지거나 심지어 거부(‘우리에게서 떠나소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도의 약함을 보이지만, 후자의 경우 그 감각은 너무나 강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분이 자신의 힘으로 그를 붙잡고 계심을 느낀다. 그리고 믿음은 바로 감각이다. 전자는 아직 불신에 빠지지 않았다면 믿음의 대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을 뿐이지만, 후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왕국을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확립한다. 또한, 신앙을 통해 마음에 솟아나는 선함, 정의, 권능, 섭리에 대한 다양한 감정들—예를 들어 두려움, 경외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소망, 사랑 등—은 그 근원인 신앙이 그에게 결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첫 번째 사람에게는 아예 존재할 수 없거나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 있어 그것들은 단지 생각과 관념일 뿐, 실제적인 체험이 아니다. 감사와 찬양, 심지어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에게는 이 모든 감정이, 말하자면 그가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본성을 이룬다. 그의 온 삶은 이러한 감정들 중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에게는, 그분의 영혼에 대한 작용에서 흘러나오는 감정들로 충만해 있는 것이 본성이다. 영혼 안에서 더 나은 방

향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그 변화의 자연스러운 구성 요소이자 결과인 감정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죄책감, 그분 앞에서의 부끄러움,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열렬한 열정,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비와 그분을 통한 구원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유산입니다. 받아들이지도, 맛보지도 않은 것의 달콤함을 누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명백한 특징으로서 다음의 정황들을 지적해야 합니다.

죄인에게 종교적 감정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감정의 주된 기초는 사람을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며, 어떤 면에서는 고통스럽고 불안한 감정이라, 그로 인해 그들은 마음의 눈을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거나 심지어 두려워하며, 마치 뚫을 수 없는 어떤 천장 아래에 가려진 듯, 어두운 신을 잊은 상태에서 살아간다. 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에게 있어 주된 감정은 하나님에 대한 아들됨의 감정으로, 사람을 하나님께 끌어당기고, 달콤하며, 온전한 인간을 하나님께 사로잡아 그분의 무한히 선하신 품으로 이끌어 주는 감정이다. 사도들은 이 감정에 대해 거듭하여 상세히 가르쳤으니, 이는 그들이 주로 그 감정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의 삶 전체는 일에서 일종의 절망적인 두려움이나 우유부단함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는 오직 명백한 것, 즉 자신의 현존하는 힘과 타인의 도움으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에만 의지하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부의 무언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의 내적 종교성을 왜곡한다는 점 외에도, 그 자신을 괴로운 의심과 두려움 속에 가두어 둡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역시 자연적인 수단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 수단의 힘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여기며, 만약 그 안에 어떤 결함이 있다 해도 그로 인해 활동을 멈추지 않고, 의심 없이 구하여 얻습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마태복음 21:22). 이 특성은 특히 성 이삭 시리아인이 이성의 세 단계에 대해 말한 내용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d) 마음, 즉 영적 감정의 그릇

d) 영혼의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마음

영적 감정이란 영혼 고유의 활동으로 인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결과로 마음 속에서 발생하는 움직임들이다. 이들은 이론적, 실천적, 미적 감정으로 나뉘는데, 이는 이성이나 의지의 영향에서 비롯되는지, 아니면 마음 자체가 그 자체 안에서 또는 은총 안에서 움직이는 결과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이론적 감정은 마음이 인식 가능한 진리에 대해 갖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이성을 활동으로 이끌고, 그 후 노력의 끝에 그 결실을 마음에 담아둔다. 전자는 호기심이며, 후자는 다양한 정도의 진리에 대한 감각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정도의 확신과 다양한 종류의 불확신이 포함되는데, 예를 들어 의심할 여지가 없음, 의심, 가능성, 불신, 거부, 당혹감 등이 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첫눈에 차이가 드러나는데, 과연 누가 불신이나 의심에 시달리거나 진리를 거부하는 데 고집을 부리겠는가?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사람이다. 게다가 헛된 일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가 진리를 알 수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설령 학문에 매진한다고 해도, 그의 호기심이 진심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직책상 의무나 어떤 외부의 동기에 의한 것인지? 게다가 그에게 진리에 대한 취향과, 진리를 누릴 줄 아는 능력 및 욕구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그에게 내재된 나태함, 지적 노동을 회피하려는 태도, 상상력의 지배, 경솔함에서 드러난다. 특히 진리에 대한 확신의 힘에 주목해야 한다. 확신은 진리가 마음에 스며든 결과이다. 거짓 속에 머무는 마음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죄인에게 진리에 대한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이 있을까? 아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어떤 원칙에서 다른 원칙으로 얼마나 쉽게 옮겨 다니는지를 보여주는 반복된 경험들을 보면,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만약 확신이 있다면 그 열매는 어디에 있는가? 또한, 선한 길에서 벗어난 사람에게서 즉시 마음속의 수많은 확신이 사라지고, 그가 예전의 길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확신을 다시 되살릴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진리를 옹호하려는 열정의 결여는, 확신의 약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사실들로부터 죄인들에게는 의심할 여지 없는 확신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빛으로 돌아선 사람들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은,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어 가장 첫 번째 갈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입과 생각 속에 있습니다. 진리의 달콤함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들보다 누가 더 잘 알겠는가? 그들에게는 불신과 의심의 흔적이 없으며, 오히려 확신의 힘 이 그들의 존재와 하나가 되어, 알게 된 바는 즉시 행동으로 이어지며, 진리를 위해 그들은 목숨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할 때면 실제로 바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진리에 대한 감각—외부의 도움 없이 마음으로 사물의 진정한 질서와 그 진정한 속성을 알아내는 능력—은 인간 본성에 내재된 놀라운 능력이지만, 첫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서는 완전히 억눌려 있는 반면, 두 번째 유형의 사람에게서는 되살아나고 강화되어 마침내 온전한 힘으로 드러난다. 이처럼, 오로지 직감 하나로 형제, 적, 친구, 아들, 필요한 사람을 알아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파악한다.

실용적인 감정이란 의지의 활동과 본질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으며, 때로는 의지를 자극하고 때로는 의지에 뒤따르는 마음의 움직임들이다. 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기적인 감정), 즉 즐거운 감정과 불쾌한 감정,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다양한 태도, 즉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공감적 감정)이다. 첫 번째 종류는 자만이나 자기 경멸, 자만심, 자학, 오만, 거만 등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무관심이며, 여기에서 한편으로는 존경, 경쟁,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애도, 유감, 감사, 우정 등이, 다른 한편으로는 시기, 악의적인 기쁨, 복수, 증오, 적대감, 경멸, 비난 등이 파생된다. 어쨌든, 어떤 영적 기분이라도 지속적인 것은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기므로, 기분이 좋으면 마음속에서 찬성하는 감정으로, 나쁘면 반대하는 감정으로 울려 퍼진다. 이제 첫눈에라도 선한 기독교인과 악한 죄인들에게 이러한 감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그들의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모든 선한 감정을 품어야 하며, 비록 모든 면에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그 씨앗은 심어져야 한다. 그들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 이기주의의 속박에서 선한 감정을 해방시키고, 이를 정화하여 마음에 심는다. 사도는 그들에게 “*자비, 선함, 자애, ... 온유함으로... 입으라*” (골 3:12)고 말합니다. 영의 옷은

바로 그 영을 감싸는 감정입니다. 이기적인 감정에 관해서는, 특히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이에 대항하는 힘이 확립되며, 이를 몰아내기 위한 수단이 취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감정은 생길 때마다 영혼에서 쫓겨납니다. 위업과 수고, 기도는 마침내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 자리에 정반대의 감정을 새겨 넣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 선한 감정을 심어주는 데 달려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심한 죄인에게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그가 자신의 삶을 평범한 흐름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의 감정들, 즉 선한 감정과 악한 감정이 모두 그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함께 자라나 뿌리 내리며, 때로는 매우 기이한 혼합물을 이룬다. 그것들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질서나 순서 없이 저절로 그의 마음에서 터져 나온다. 마음속 감정의 순결을 지키려는 열심이 그에게 없으므로, 그는 선한 감정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애쓰지도 않고, 그저 방치해 두며 대부분 편견과 정욕으로 왜곡해 버립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그 감정들의 도덕적 가치는 미미하다. 반대로, 그의 이기적인 감정들은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그곳에 영구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그의 마음속에 자만심이나, 자만할 거리가 없을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등이 없는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잠잠해지는 것은 우연한 일이며, 대개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솟아나는 자연스러운 호감 때문인 경우가 많다.

실용적인 감정들 사이에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명백한 선의 달콤함을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의 도움 없이 마음으로 숨겨진 선함을 알아보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신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한, 죄 많은 마음속에서는 그 순수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기껏해야 희미한 뉘앙스나 율법에 대한 가벼운 동조 정도일 뿐이다. 선한 기독교인에게는 이 능력이 온전한 힘으로 드러난다. 누가 그보다 더 미덕의 아름다움을 잘 느낄 수 있겠는가? 그는 다른 이들의 행동과 마음속 선함과 악함을 종종 직접적인 영적 감지력을 통해 알아차린다.

미적 감정은 ‘우아한’ 또는 ‘아름다운’이라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대상들이 마음에 미치는 작용으로 인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다. 여기서 마음은 그 대상이 그 자체로 훌륭하고, 마음에 들며, 우리 개인의 이익과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움을 주는 이유만으로 그 대상을 즐긴다. 이러한 감정의 기초가 되는 힘을 ‘미적 감각’이라고 한다. 그 안의 감정의 다양성은 대상의 특성에 달려 있지만, 이를 정의하고 서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감정들은 대상의 이름에서 유래하며, ‘우아함’, ‘고상함’ 등의 감정으로 불린다. 또한, 그림이나 조각상 등에서 느끼는 아름다움에도 나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아함’이란 정신적인 것, 즉 생각, 감정, 미덕, 열정 등을 감각적인 형태로 적절하고 인상 깊게 표현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외적인 요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것, 즉 표현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적 내용의 차이에 따라 취향도 구분해야 한다. 취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진정한 취향으로, 우아함의 적절한 내용을 사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된 취향이자 왜곡된 것으로, 우아함의 부적절한 내용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 질문은, 우아함의 적절한 내용과 부적절한 내용은 각각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미적 아이디어나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회상이거나, 미래의 천국에 대한 예감이다. 만약 미적 대상들이 이 감정의 인도하에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그 대상들의 내용의 원천이다! 낙원적이고, 신성하며, 천상의 것을 묘사하라. 이 비통한 땅을 네 예술로 하늘의 문턱으로 바꾸어라. 만약 사람이 사방에서 세속적인 사물들에 둘러싸여, 그 때문에 하늘—자신의 고향—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마치 타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도시, 집, 부모 등의 형상으로 자신을 둘러싸듯이, 그에게 하늘을 상기시켜 줄 예술 작품들로 그를 둘러싸라. 하나님의 창조물인 세상은 신성한 속성들의 반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곳에서는 그것들이 너무나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이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니 그것들을 작은 범위로 모아, 그림이나 음악을 통해 연약한 인간의 지혜로운 시선에 제시하라. 다시 말해, 사람은 이 생에서 자신의 영혼 속에 무엇을 형성해야 하는가? 거룩하고 천상의 성품들이다. 그러니 그가 이를 자기 안에 더욱 성공적으로 심어 놓을 수 있도록, 이러한 성향들의 외적인 형상도 그에게 도움으로 주어라. 이 모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학의 주요 내용은 영적 세계의 대상들이어야 한다. 당연히 외형적 형태도 이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지금 정욕, 특히 육체적인 정욕이 그 본성에 맞는 뻔뻔함과 유혹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혹은 선한 대상들이 묘사되더라도 그 대상에 걸맞지 않은 형태로 표현된다면, 그러한 경우 미(美)는 왜곡된다. 이제 참된 미적 감각과 그릇된 미적 감각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참된 미적 감각은 영적이며 도덕적이고 신성한 세계를 표현하는 대상에서 즐거움을 얻지만, 그릇된 미적 감각은 정욕을 묘사하거나 일반적으로 정욕의 색채를 띠고 이를 부추기는 대상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좋아한다.

죄인의 미감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그의 영혼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그는 영적인 것에서 아름다움을 찾지 못한다. 가끔은 영적인 그림도 꽤 즐거워하며 바라보지만, 오직 그것들이 자신의 기질에 부합할 때에만 그러하며, 마찬가지로 교회 찬송도 기꺼이 듣지만, 그 안에 정욕적인 동기가 담겨 있을 때에만 그렇다. 그와 같은 기질을 지닌 대상들을 만나지 못하는 곳에서는 어디를 가나 지루해한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의 미적 감각은 얼마나 온전한가! 자신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는 정욕의 그림자조차 보는 것을 싫어하며, 그것을 쫓아내고 혐오한다. 반면, 내면에서는 거룩하게 느끼기 위해 애쓰는 만큼, 밖에서도 오직 거룩한 대상만을 바라보기를 좋아하며, 그것들을 마주하는 즉시 그 모든 가치와 완전함을 거의 혼자서 평가해 낼 줄 안다.

이처럼 죄는 우아한 대상들과 미적 감각 자체를 왜곡하지만, 반대로 기독교는 우아함을 회복시키고 미적 감각을 치유한다. 인식에서 이성의 잘못된 방향이 지성을 왜곡하고, 의지의 잘못된 방향이 양심을 왜곡하듯이, 여기에서도 미적 감각의 잘못된 방향이 영적 감정을 왜곡한다.

e) 하등한, 감각적·동물적 감정에 대하여

e) 가장 낮은, 감각적·동물적 감정에 대하여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감성에는 이성과 의지의 자발적 활동을 소멸시키고 신체에 특정한 변화를 동반하는 급격한 감정 동요나 심장의 동요(affectus)가 포함된다. 대부분 이러한 동요는 하부 영역에서 발생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에서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 예기치 않게 교란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를 모두 인간의 동물적·감각적 측면에 귀속시키기도 한다. 이

들은 인간의 고차원적 능력에 미치는 파괴적인 작용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어떤 것들은 의식의 명료함을 흐리게 하는데, 놀라움, 경탄, 주의력의 집중, 공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것들은 의지를 약화시키는데, 두려움, 분노, 과격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정은 마음을 괴롭히는데, 이 마음은 때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때로는 그리워하고 슬퍼하며, 분통을 터뜨리고 질투하다가, 때로는 희망을 품었다가 절망하고, 때로는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거나 심지어 근거 없는 의심으로 헛되이 동요하기도 한다. 그 이름만 보아도 이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해로운 존재인지 알 수 있으며, 그들의 행동을 보면 더욱더 그렇게 인정해야 한다. 이들은 본래 인간의 속성인 의식과 자발적 활동을 훼손하며, 그 결과로 거의 항상 신체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초래한다. 이는 인간 존재 전체에 대한 고통스러운 충격이다. 이 점만으로도 그들에게 적합한 곳은 오직 죄인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질병은 질병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죄인 안에서는 고차원적인 영적 감정이 억눌리고 정신적 감정이 왜곡된 반면, 저차원적인 감정은 온 힘을 다해 날뛰고 있다. 이에 기여하는 것은 자기 통제력의 상실, 상황의 일반적인 유혹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 외적·내적 모두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는 죄인인 인간의 지속적인 특성이다. 게다가 본래 약한 이성과 의지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이 예기치 못한 타격과 동요의 지배를 쉽게 받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욕망을 뒤흔드는 거친 상상력의 지배는 마음마저 쉽게 동요시킨다. 죄인은 마치 끊임없는 불안 속에 빠져 있는 듯하다. 그에게는 그 악한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힘이 없다.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기쁨, 때로는 그리움, 때로는 수치심, 때로는 슬픔, 때로는 시기심, 혹은 그 밖의 다른 것들이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상처 입힌다. 죄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밝아 보일지라도 가시덤불 위를 걷는 길과 같다. 어떤 이들은 정욕에 대항하는 기계적인 수단을 헛되이 고안하거나 안전한 중도에 대해 논하지만 소용이 없다. 인간의 온전한 영이 치유되지 않고서는 그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혼란을 증명하고 그 결과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온전함을 되찾으면 악한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참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온전함이 회복되는데, 그 은혜가 임하면 정욕들도 소멸된다. 마땅히 자신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은 마침내 달콤한 안식과, 정욕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평화를 얻게 된다. 여기에도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과는 다릅니다. 기쁨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기쁨입니다. 분노와 두려움, 수치심, 그리고 이름만 보면 정욕과 비슷한 다른 감정들도 있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르고 근원도 다릅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다른 힘에서 비롯되는데, 이는 마음속에서 동물적 본성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반사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뿌리 뽑아서 안 되고, 단지 절제해야 한다”는 말은 헛된 말이다. 이는 마치 “심장을 독이 든 화살로 관통해서는 안 되고, 단지 표면에만 찔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아니, 도덕적 순결을 열렬히 추구하는 이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이러한 악의 산물들과 싸우고, 이를 억누르며, 마침내 완전히 소멸시키는 데 성공한다. 이는 수련자들의 규율과 성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완전한 자들의 모습이 증언해 주는 바이다. 그래야만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기 희생 속에서 자아는 소멸되고, 육체적 본능을 소멸시키려는 의지가 자리 잡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욕의 토대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무너진다. 그렇다면 정욕 그 자체는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어떤 이들은 말한다. “만약 그렇다면, 영혼에는 차갑고 생명이

없는 황량한 사막만 남을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어떤 스토아 학파 철학자의 영혼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은총을 받은 기독교인의 영혼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런 이들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기독교의 길로 정욕을 잠재우기만 하라. 그 뒤에 무엇이 남을지는 네가 직접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사막이 되지 않을 것임은 알아두어라.”

이처럼 감각적 능력에 있어서도 참된 기독교인과 죄인인 인간은 완전히 정반대이다. 전자의 경우, 고차원적인 감각이 온전한 힘을 발휘하며, 정신적 감각은 그 연장선상이거나 실제 생활에 부가된 역할을 하는 반면, 저차원적인 감각은 소멸된다. 후자의 경우, 반대로 저차원적인 감각이 활기를 띠고, 고차원적인 감각은 소멸되었으며, 중간 차원의 감각은 왜곡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내면 세계의 모든 능력에서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에게는 머리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에게는 다리가 있다. 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며 영으로 살아가며, 낮은 부분을 죽이고 중간 부분을 자신에게 복종시킨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 밖에, 감각적이고 동물적인 세계에 있으며, 환상으로 살아가고, 욕망에 휩쓸리며, 정욕에 사로잡혀 영은 소멸되고 영적 활동은 타락한다.

4) 육체에 대한 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죄에 빠진 사람 사이의 가장 뚜렷하고 명백하며 눈에 띄는 차이는, 그들이 자신의 육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드러난다. 어떤 성인의 행적을 살펴보다도,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선 시작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첫 번째 행동들은 육신의 고행과 고갈, 그리고 쇠약으로 표시되어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반면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풍족하게 먹이고 따뜻하게 보살피며, 육신에게 무언가를 거절하거나 화나게 할 용기를 낼 수 없다. 이것이 양쪽 모두의 육체에 대한 태도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바로 그렇다.

육체는 영혼의 가장 가까운 도구이며, 현세에서 영혼을 외부로 드러내는 유일한 수단이다. 이것이 육체의 본래 목적이다. 그러므로 그 구조 자체로 육체는 영혼의 힘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여전히 영혼에게 있어 외적인 존재이며, 영혼이 스스로로부터 분리해야 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되 자신과 융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영혼은 이완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육신 속으로 빠져들어 그것과 합쳐졌으며, 마치 육신 안에서 그리고 육신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자신을 인식하게 될 정도로 완전히 융합되어 버렸다. 의식이 육체와 이렇게 융합되자, 그 피할 수 없는 결과로 자신의 모든 육체적 욕구와 동물적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본능적 충동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영의 욕구는 잊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육체와 육체적인 것은 더 뚜렷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오직 육체의 욕구만을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게 되자, 영을 돌보지 않은 채 그 욕구들을 정성껏 충족시켜야만 했다. 빈번한 충족은 육체적 성향을 낳았고, 그와 정반대되는 영의 완성을 소멸시켰다. 본능적 충동은 우리 몸에 있는 기능만큼이나 많으며, 이 기능들은 주로 다섯 가지, 즉 감각 기관의 기능, 운동, 언어, 영양 섭취, 성기능으로 나눌 수 있으므로, 이 다섯 가지에 따라 그 요구를 무분별하게 충족시킴으로써 영혼에 형성되는 성향들 역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 기관은 이를 사용하려는 본능이나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 욕구의 충족은 다음과 같은 성향을 낳는다: 자극에 대한 갈망, 호기심, 감각의 쾌락 추구, 산만함. 이러한 성향들이 굳어지면 정신 속의 주의력과 자제력을 파괴한다.

운동 기관에서는 운동에 대한 욕구가 발달하고, 그로부터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성향, 외적 자유에 대한 갈망, 제멋대로인 태도, 방종이 생겨난다. 이들은 영혼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

말하기 기관에는 움직이게 하거나 자극을 받아야 할 욕구가 있다. 여기서 수다스러움, 우스갯소리, 헛소리, 농담이 비롯된다. 이들은 영혼의 내적 말, 즉 기도에 침묵을 강요한다.

식욕 본능에서는 쾌락 추구, 나태, 폭식, 게으름, 무위도식이 발전한다. 이는 영적 활동의 모든 움직임을 빼앗아 간다.

성적 욕구의 부적절한 충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 남에게 호감을 얻고 싶은 욕망, 허세, 방탕함, 그리고 가장 추악한 정욕. 이들은 영에게 고유한 순결과 무욕을 빼앗아 간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모든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즉시 발견하고 깨닫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 자기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는 육신의 정욕과 성향에 마치 족쇄처럼 얽매어 있어, 자신의 본성에 따라 행동할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들이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며, 특히 육신의 욕구를 이성 없이 충족시키려는 데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을 바로잡고, 결과적으로 영에게 본래 주어진 자유를 되찾기로 결심한 그는, 이러한 욕구를 현명한 수준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절제된 식사, 수면 등을 통해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형성된 성향들은 그토록 깊이 뿌리내렸거나, 자신의 신체 기관들과 그토록 민감한 연결을 맺고 있어서, 이 기관들의 사소한 움직임만으로도 성향이 발동되어 영혼에 해를 끼친다. 예를 들어, 감각의 사소한 움직임으로 인해 생각이 산만해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며,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영혼이 냉담해지고 무기력해지는 등. 따라서 그는 처음부터 자신의 법칙으로 삼아, 신체 기관들을 제압함으로써 그 기관들을 통해 형성된 성향이 자극받지 않게 하고, 영혼이 본래의 완전함을 회복할 자유를 갖도록 한다. 이처럼 감각 기관에는 고립을 통해 속박이 가해져, 영혼의 힘이 깃든 주의력과 정신 집중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움직임에 대해서는 규칙적인 노동과 순종을 통해, 영혼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함이며; 말의 기관에는 침묵을 통해, 내면의 말씀을 되살리거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기 위함;

식사 기관에는 금식과 불면, 그리고 누워 있지 않음으로, 영의 생기를 보존하기 위함;

성적 기관에 대해서는 – 정절과 독신을 통해, 자기 안에 무욕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외 없이 모두 혹독한 수행의 삶을 살아온 이유이다! 이것 없이는 영을 정화할 수 없고, 회복시킬 수도 없으며, 그 본연의 온전한 힘을 드러낼 수도 없다. 이것이 영의 자유를 향한 필수적인 길이다. 오직 육신이 지쳐갈수록 비로소 영은 육신으로부터 해방된다. 그러므로 육신을 가혹하게 다스리지 않고 영적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자는, 마치 체로 물을 퍼 올리려 하거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 하거나, 물 위에 글자를 쓰려는 사람과 같다. 이는 헛되고 무모한 수고로, 한 순간에 얻은 것이 다른 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

도들에게 있어 육체는 실로 더 높은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 그들은 육체의 마찰을 통해 무감각해진 영을 깨웠다. 이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들이 육체, 즉 동물적인 삶을 마치 타인의 얼굴처럼 여겼다는 점인데, 그래서 잠자리에 들 때 “가거라, 나귀여...”라고 말하곤 했다. 이는 그들의 육체가 자기 정체성에서 분리되고, 의식이 육체와 공존하는 상태가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구원을 향한 좁고, 고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필요한지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이를 마주합니다. 육체는 육체적 수련을 통해 제약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는 무의미합니다. 그 뒤를 잇는 내면의 상상력, 욕망, 정욕의 활동—이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활동—은 내면의 긴장된 경각심으로 억누러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 힘의 활동은 영적 수고, 즉 독서와 사색, 선행, 예배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 ’의 영을 회복하거나 함양하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묵상, 기도, 성사 참여를 통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힘들고 땀 흘리는 일들이다! 따라서 참된 기독교인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본질은 수고와 고행, 땀 흘리며 긴장된 실천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삶과 활동의 원리에 대한 개관이다. 이제 타락으로 인해 기력을 잃고 약해진 도덕적 삶의 자연적 원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서 신성한 은총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 은총의 작용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나뉘거나, 즉 사람 안에서 빛이 어둠으로부터 분리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둠은 약해지고, 빛은 커지고 높아지며, 그 힘이 강해질수록 어둠을 몰아내어 어둠의 영역은 간신히 눈에 띄는 정도로 축소될 수 있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에 이르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엡 4:13).

“내가 이 말을 하고 주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대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졌으며, 마음이 굳어져 이성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은 방종에 빠져 탐욕으로 온갖 부정한 일을 행하는 음행에 몸을 내맡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듣고 그분에 대해 배웠으니, 곧 예수님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전의 생활 방식대로, 정욕의 유혹 속에서 썩어가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진리와 경건함 안에서 하나님께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엡 4:17-24).

IV.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과 삶의 규칙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묘사되어 있으며, 그 삶이 진정으로 그러하기 위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규칙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은 주 그리스도의 계명이며, 세례를 받을 때 이를 이행하겠다고 서약하고 약속한다. 이러한 규칙, 즉 계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관계에 있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현세 생활 동안 처하게 되는 다양한 처지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이다.

이 후자는 곧 전자를 기독교인의 외적 생활에 적용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부분은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에게 의무적인 계명과 생활 규칙입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규칙들을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에 대한 관계, 이웃에 대한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 분류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왔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지, 그리고 어떻게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기독교인들 간의 상호적 내적·외적 관계의 양상이 규정된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이 앞의 두 관계에서 마땅히 자신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세 가지 계명과 규칙은 넘을 수 없는 장벽으로 나뉘어 있지 않으며, 실천함에 있어 서로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그분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서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들과 분리되어 활동하지 않고, 머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과도 마땅한 관계를 유지하듯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의 몸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 점을 밝힌 이상, 우리는 앞서 언급한 분류에 따라 규칙과 계명을 나열하지 않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신 첫 번째 계명을 기초로 삼아, 어떤 조항이 다른 조항에 의해, 뒤따르는 조항이 앞선 조항에 의해 파생되는 방식으로 삶의 규칙을 차례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계명의 시작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말라”는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출 20:2-3). 이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곧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즉 믿음과 경건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경건함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와 행실을 포괄합니다.

11. 믿음 – 모든 것의 핵심

1) 믿음의 의무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신앙 고백, 즉 개념과 말로 특정 방식으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배의 방식을 의미한다.

가) 여기서 첫 번째 의무는 믿음, 즉 종교를 갖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을 특정한 방식으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방식, 혹은 그분과의 관계를 아는 것, 또는 고백을 간직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알려진 것으로, 규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정

신의 본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요구하고, 그분을 찾으며, 자신이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관계로 그분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의무는 모든 의무는 물론 인간의 모든 종교적·도덕적 삶의 씨앗이자 싹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믿음도 없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그에게는 영의 성소에 있어야 할 자리에 어떤 형상도 없다. 종교는 우리의 온 본성을 거룩하게 하는 성소인 반면, 종교의 부재는 본성을 왜곡하고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성 이삭 시리아인은 인간에게 세 가지 상태를 지적한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상태로, 이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영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한다. 이 상태에서 그는 알려진 조건에 따라 또 다른, 초자연적이거나 은총의 상태로 올라간다. 세 번째 상태는 사람이 감각적 욕망, 즉 육신에 빠져들 때 형성되는데, 이때 그의 영의 빛은 꺼지고 육신의 욕망에 짓밟힙니다. 사람은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여, “*이성을 잃은 가축과 같으며 그들과 비슷해진다*”(시 48:13). 그런 사람과는 함께 살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가 광폭해졌을 때, 어떻게 그를 제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흔히 쓰이는 표현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그러한 사람과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b) 믿음을 가져야 할 의무는 믿음 그 자체에 대한 정의는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덧붙여 말하자면, 사람은 무분별하게 어떤 믿음이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이고 명확한, 즉 유일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불변하시며, 인간의 본성도 하나이거나 동일한 성질을 지녔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오직 하나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것, 즉 진정한 신앙 고백도 하나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로 이 유일한 것을 인간이 간직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을 간직하겠는가? 거짓, 환상, 공상일 뿐이다. 그런데 여기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이는 마치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마치 셀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환상을 꾸는 것과 다름없다. 거짓 종교는 인간을 조롱하는 것이다. 거짓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마치 이것저것을 보았다고 흥분하여 날뛰는 미치광이와 같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라, 즉 웃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속임수가 아니라, 가련하고, 괴롭히며, 절망적인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다. 왜냐하면 종교 속에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안식과 영원한 행복을 찾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누구나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거짓이 은폐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곳뿐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죽음이 닥치면, 각자가 자신의 희망을 어디에 두었는지가 즉시 드러날 것이다... 그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게 될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끔찍하고 가슴을 찢어 놓을지 상상해 보라. 그러므로 시간이 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단호하고 변함없는 영원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는 동안.

c) 모든 사람은 자신이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진실한지 시험해 보고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신해야 하며, 만일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참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인도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영원한 구원을 베푸는 그 유일하고 참된 믿음을 찾아야 한다. 이는 마치 불길에서 스스로를 구해내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이고 절박한 일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증거하지 않으셨다*”(행 14:17)는 것은 물론, 그분의 유일하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도 그러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 신앙과 가까이 다

른 신앙들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시고, 마치 그것들이 그 신앙과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을 때, 그로 인해 모든 이에게 무의미하게 그분의 신앙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확고한 근거에 따라, 그 근거를 위해 다른 모든 것을 완전한 확신으로 배척해야 할 의무를 지우신 것입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신앙에 영광이 돌아가고, 이성적이고, 자각적이며, 양심적인 존재인 인간의 진정한 존엄성이 지켜진다. 우리의 신앙, 즉 정통 기독교 고백의 진리에 대한 확신은 이성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가르침을 믿도록 이끌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라”(요한복음 5:39)라고 말씀하셨으며, 세례 요한의 설교와 그분의 기적을 통해 이를 확신시키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설교를 통해 모든 사람을 설득했으며, 오직 그 확신만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지,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확고함은 바로 이 확신에 달려 있으며, 나아가 신앙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삶도 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무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그 진리가 유일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신앙에 부합하는 활동에 얼마나 강력하게 불타오르는지, 반대로 많은 이들이 이 깨달음을 명확히 하지 못해 안일함 속에서 잠들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어떤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시험해 보고 확신할 근거가 이토록 많습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시험해 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외적인, 과학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적인, 믿음의 길이다. 첫 번째 방법은 보통 체계적인 신학 서술에서 제시된다. 이 방법은 유효하며 학자들에게는 본질적으로 필수적이지만, 그 기초에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편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학적 논증들을 모든 폭넓음과 명료함, 설득력을 다해 서술하고, 그 확고한 권위의 힘을 보증하며 대중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해할 능력이 있는 모든 이가 이 길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매우, 매우 길고 힘들며, 특히 주목할 점은 이 길이 머릿속에 머무르다 보니 마음을 그 자체, 즉 마음의 제멋대로와 자유에 내버려 둔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믿음의 길은 더 진실하고, 내면적이며, 더 생생하고, 더 풍요롭고,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 이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께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이다. 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으며, 그 뜻이 이해되고 이행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의 사색들로 인해 그 뜻은 가려지거나,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서 누구도 이 미로에서 탈출구를 찾을 힘을 갖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피 같은 절박함을 느끼며, 울부짖음과 신음, 마음의 아픔을 안고 모든 사람의 참된 아버지이시며, 그분의 믿음이 실효성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가 있다면, 그분이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으실 리가 있겠는가? 그분은 울부짖는 까마귀들에게 먹이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우리 육신의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비를 내려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지 알고자 애쓰며 갈망하는 사람, 나아가 그분의 형상인 그의 영에게, 마치 그분이 이 영적 갈증을 해소할 샘을 알려 주지 않으실 것처럼, 어떻게 그러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지만, 누군가 진실하지 않게, 단지 호기심에서 그러한 표적을 원할 때 시험으로 변질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얻은 사례는 거의 어디에나 있습니다. 백부장 고르넬리우스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은둔자들에게 찾아와 믿음에 대해 묻곤 했는데, 그들은 모든 논증 대신 그들에게 기도하도록 권했고, 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드러내 주셨으니, 예를 들어 성녀 대순교자 카타리나에게 그러하셨다. 이단이 난무하던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성덕을 지닌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입히시며, 촛대 위의 촛불처럼 모든 이의 눈에 띄게 세우셔서 모든 이에게 빛을 비추게 하셨다. 그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그릇이었기에, 의심하는 모든 이에게 확고한 진리의 지표가 되어 주었다. 모두는 이 성자나 저 성자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는지 기대하거나 알고 싶어했으며, 그의 고백을 따랐다. 때로는 썩지 않는 성인들의 손에 신앙 고백이 적힌 문서를 쥐어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한 뒤 기도가 응답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를 증명하기 위해 굳이 애쓸 필요가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근원이신 믿음에 대해 기도할 때면 더욱 그러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자신께서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께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요한복음 17:17), 이는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들을 통해 모든 믿는 자를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이 그 본질상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기적적인 증거들이 그 믿음 안에, 그리고 그 믿음을 위해 끊임없이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조차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합니다. 어떤 이는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치유의 신성한 힘을 발산하는 이 썩지 않는 유해를 바라보며, 이 몸을 거룩하게 하신 영이 바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하셨음을 생각할 때, 진리의 원수가 때때로 불러일으키는 온갖 의심이 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앙의 진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토록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이토록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주셨다는 사실에 기쁨을 금할 수 없다. 실로 그렇다. 왜냐하면 성유물은 기독교와 동시대적이며, 기독교 안에서 끊임없이 존재하고 어디에나 퍼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러시아에는 그 성유물이 모든 지역에, 그것도 엄청난 양으로 존재한다! 서방에서는 동방과의 분리와 진리로부터의 이탈과 함께 성유물이 사라졌으며, 교황권에서 파생된 새로운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진리에 대한 위로의 설교가 있구나!..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복된 이는 히에로니모스 그리스인과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이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은 참되니, 이를 통해 나는 내 안에서 뚜렷이 작용하는 신성한 어떤 능력을 받을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교도들 역시 경전과 성전, 제사, 교사, 서적, 부분적인 신학 지식, 몇 가지 선행, 축제, 의복 착용, 기도, 밤샘 기도, 사제직, 그리고 그 밖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은총과 성령의 역사하심은 온 세상에서 그 누구도 받지 못하며,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올바르게 세례를 받은 자들만이 믿음을 통해 이를 얻는다”(“그리스도교 독본”, 1821).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을 깨닫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즉, 믿음과 기도,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기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내적 힘이다.

누구나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기초 위에 믿음을 두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원한다면 어떤 정교회 신학 서적에서든 믿음의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아도 좋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믿음은 더 강력하고 더 유용하다.

2) 믿음에 대한 의무

앞서 말한 바를 신앙의 의무라고 불러야 하는데, 바로 신앙을 갖는 것, 그것도 단일하고 참된 신앙을, 그것이 확실히 참되다는 의심의 여지 없는 확신을 가지고 갖는 것이다. 참된 신앙을 알게 되는 즉시, 또 다른 일련의 의무가 시작되는데, 바로 신앙에 대한 의무, 또는 정통 기독교 고백에 대한 의무이다.

가) 여기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참된 믿음에 대한 전적인 복종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신하들에게 주어진 그분의 왕실 칙령으로,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뜻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악한 자들아,*” 성 스테파노가 유대인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 (행 7:51). 사도들은 “*모든 이방인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려*” (롬 1:5) 전도하러 보내졌으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희는 미혹되어 불의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지의 시대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곳에서 회개하고,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명하셨습니다*” (행 17:30-31). 이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속에서 살던 삶은 그만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육신으로 사는 남은 시간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2-3).

믿음에 대한 순종은 이성을 묶어, 믿음이 설교하는 모든 것에 무조건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성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복종에 저항한다. 불신자의 경우, 이성의 고집 때문에 고통이 더욱 심하다.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는 말한다.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길,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고린도전서 1:22-23).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설교의 광기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21),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어스름 속에서 자신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왜 이것저것을 고백하느냐*’는 어떤 질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하시지, ‘*이러니 저러니*’ 하며 현명하게 변명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거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위협을 정당하게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부르짖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말을 펼쳤으나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나도 너희의 멸망을 비웃으리라*” (잠언 1:24-31). 티혼 대주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말 없는 순종이다*” (제7권). 호기심은 믿음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인 마음으로 믿음의 영역에 들어서자는 자는 도둑이자 강도이다... 군인들이 교회에 들어갈 때 그러하듯, 네 마음의 무기를 내려놓아라.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너는 모든 것을 다 보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가장 은밀한 지혜를 드러내셨으니, “*나는 이 믿음의 침묵하는 종입니다*”라고 말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받아들여라.

b) 이러한 순종으로 견고한 기초가 놓였을 때, 그 위에 믿음의 온전한 건물을 세워야 한다. 믿음이 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고 묵묵한 동의를 표했다면, 이제 자신의 믿음을 알기 위해 그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믿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다! 이는 신앙에 대한 모욕이자, 자신에 대한 모욕이다. 신앙이 참이라면, 왜 진리로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는가? 그 안에 네 유익이 있다면, 왜 스스로 그것을 박탈하는가? 어떻게 그런 무감각 속에 머물러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소망에 대해 묻는 이에게 무엇을 말하겠는가? 게다가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 할 수 없다. 믿음은 진리와 모든 것에 대한 건전한 개념들의 총합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 17:3)라고 하셨다. “하늘 아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름은 오직 이 이름뿐이라”고 사도는 덧붙입니다(행 4:12). 이로부터 믿음의 내용이 단순히 선함의 풍요로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구원의 조건이기도 함이 분명해집니다. 이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 믿음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치유의 수단이다. 그러나 병자는 그 치유의 수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만 그 치유의 힘을 누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영의 연합함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아파나시우스 대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원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가톨릭 신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온전하고 흠 없이 지키지 않는 자는 모든 의문을 넘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시편집에 수록된 아파나시우스 대성인의 신조 참조).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 더 명확해지도록, 몇 가지 질문과 해답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거룩한 정통 신앙이 담고 있는 진리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게 관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가 가르친 대로(베드로전서 3:15) 누구에게나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히브리서 11:1).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 본연의 모습을 확실히 갖추고, 이름을 얻으며, 전해진 소식처럼 알려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비를 풀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요, 신비는 아무리 누군가가 그것을 밝히려고 애를 써도 영원히 신비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상의 실체가 이해되지 않고 근거가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르침이 담고 있는 대로—정확하고 명확한 말로—그것을 받아들이고 간직하라. 말로 ‘알다’는 것은 현명하게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교훈을 겸손하고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거룩한 신앙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대상과 인식의 방식, 그리고 가르침의 근원 사이의 구별은 사라진다. 모든 부수적인 것은 지적 시야의 경계 밖으로 밀어내고 주의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생각 속에는 고백하는 신앙의 단 하나의 형상만이 남아야 하며, 그것이 생각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게 하라. 신앙의 대상들은 고백에 담겨 있는 그대로 머릿속에 자리 잡으며, 이를 관조하는 이는 마치 풍요로운 정원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단 한 송이의 꽃도 놓치지 않고 모두 살펴보는 것처럼, 각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느껴서는 안 된다; 이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촛불을 켜거나 유향을 피우는 것과 같은 일들은 생략하거나 무관심해도 무방하다. 신앙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은 그 전체 구성에서 우리 내면의 타락을 치유하는 약이다.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치유의 힘을 약화시키며, 때로는 완전히 파괴하기도

한다. 의사가 처방한 약에서 어떤 성분 하나를 빼고, 지시된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조제한 약을 복용한다면, 이득 대신 해를 입을 수 있다. 우리 신앙 안에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울타리나 요새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것 하나를 거부하면 성벽에 틈이 생기고, 원수들이 줄지어 들어와 울타리 전체를 무너뜨리고 당신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주의하여라” (엡 5:15).

이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는가? 모든 믿는 이에게 해당된다. 그렇지 않다면 왜 믿음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모든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알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느껴야 하며, 그런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알아가야 한다. 믿음은 필요 이상으로 남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 숨 쉬기, 음식, 잠 등과 같은 생명에 필수적인 본질적인 필요입니다. 믿음에 대한 지식은 가장 필수적인 일이므로, 이에 대한 열심도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행하는 자는 영을 굶주리게 하거나 가장 필수적인 필요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개 지식이 씨앗처럼 적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자랄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씨앗으로만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나무로 자라게 하라. 여기서는 그림 그릴 때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처음에는 그림 전체의 윤곽을 한 번 그리고 나서 부분별로 채색해 나가는 것과 같다. 사도들이 설교할 때, 첫 번째 선포에서는 마치 이 윤곽을 그리는 것처럼 했고, 그 후 두 번째 방문이나 서신을 통해 믿음의 전체 그림을 완성했거나, 혹은 성령께서 이를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에게는 믿음의 대략적인 윤곽이 하나씩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어쩌면 몇몇 인물이나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이 그림을 완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도 가능한 모든 것을 알아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될 수는 없으나, 실제로는 이 지식의 충실도에 있어 다양한 정도가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믿음과 불명확한 믿음을 구분하는 것이다. 후자는 “성스러운 믿음이 담고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있으나, 아직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고 말하고, 전자는 “모든 것을 품고 있으며 분명히 안다”고 말한다. 전자도 구원하는 힘을 지니고 있지만, 부주의로 인해 의식적으로 후자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위험에 처해 있다. 이는 잠이 죽음의 징조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바다를 건널 필요는 없다. 참된 믿음은 숨겨져 있지 않고, 모든 이에게 드러나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각자가 직접 근원에서 찾아내어 명확히 밝혀야 할 정도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며 공개적으로 고백되고 있다. 가서 어떻게 고백되는지 물어보라. 정교회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을 읽어보라. 읽을 줄 모르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설교를 들어라. 사제에게는 교리문답을 재해석하여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목자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읽기와 예배에 귀를 기울여라. 우리에게서는 자신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식은 마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스며들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다. 자신의 지식을 쉽게 이해하거나 확고히 하기 위해, 모든 내용을 요약한 신앙고백문을 갖는 것이 좋다. 즉, 교리문답서에서 발췌하여 간결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자주 읽어보는 것이다. 이는 방 안의 공기를 환기시키거나 아침이나 저녁의 서늘함으로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미 이러한 종류의 요약본들이 있다: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성 겐나디우스,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스키, 그리

고 티호노 보로네즈스키 대주교의 저서들이다. 이를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마음을 북돋아 주는 지!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리해 주고, 마치 웅장한 성전으로 인도하듯 하여 감동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c) 참된 믿음, 즉 끝없이 선택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느님께로 이끄시며 끝없는 행복을 선사하는 믿음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마음속 깊은 확신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기독교인이 무관심하게 남아 있을 수 없으며, 그의 마음이 그에 상응하는 감정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없으니, 마치 셀 수 없는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무관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만큼이나 필연적이다. 그 감정이 있을 때는 그저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말고, 없을 때는 자신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온 힘을 다해 그 감정을 일깨워야 한다. 이러한 감정들은 성모 마리아와 성 사도들, 그리고 모든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 거룩하게 여겨진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쁨과 감사가 담긴 찬양. 이렇게 성모 마리아께서는 최초의 기독교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나이다... 그 자비를 기억하셨나이다” (누가복음 1:46-54); 엘리사벳은 기쁨으로 외칩니다. “여인들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내게 이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1:42-43); 사가라는 찬양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복되시도다... 방문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눅 1:68-80). 주님께서 사도들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스스로 고백하시며: “아버지여, 내가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이 아기에게 이를 드러내셨나이다” (마 11:25) – 또 다른 곳에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16:17). 사도들은 종종 믿음의 진리를 설명하며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에게 빛과 분별력을 주셔서” 그분과 그분의 독생자를 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한일서 5:20).

bb) 평안이나 안전에 대한 느낌. 우리는 멸망해 가고 있다: 진노의 칼이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고, 우리 발밑에는 삼켜 버릴 준비가 된 지옥이 열려 있다.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재앙이 지나가고, 닿지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마치 추위와 비, 습하고 거친 바람 속에서 따뜻한 평안 속으로 들어선 것 같거나, 물에 빠졌던 사람이 해변에 올라선 것 같거나, 짐승들에게 둘러싸여 괴로워하던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구출되어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느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 느낌을 안식일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있다(히브리서 4장). 불안한 마음은 더 나은 것을 찾으려는 희망으로 끊임없이 헤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한다. 믿음은 모든 것을 준다: 온전한 지혜와 모든 방법을.

bb) 사랑은 신앙 전체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교리, 규칙, 규정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마음속에서 따뜻하게 품고, 맛보고, 내면화하며,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 거룩하고, 참되며, 신성하고, 구원을 주는 것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 다윗은 하나님의 집의 훌륭한 줌조차도 그에게 사랑스럽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에 담긴 모든 진리를 사랑으로 귀중히 여길 것을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믿음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며, 마음에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사랑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광택이 난 판자 위의 먼지와 다름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모두 날아가 버리니까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진리는 뼈 속까지 스며든 기름과 같다. 신앙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는 그 진리와 상반되는 것, 즉 행동과 생각 모두를 미워하므로 타락으로부터 안전하며, 그 자체가 신앙의 기둥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가장 거룩하고 깊은 의무이다: 신앙과 그 모든 규율을 사랑하라.

d) 유일하고 참된 신앙을 알고 사랑하게 된 자는, 그 신앙에 대한 자신의 헌신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의 풍성함이 입으로 나오느니라*”(마태복음 12:34).

이를 표현하는 행동들은 다음과 같다:

아아) 신앙 고백, 즉 이 신앙이 바로 거룩하고 유일하며 참된 신앙임을 행동과 말로 공개적이고, 진실하며, 두려움 없이 증언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백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러하다: 하나는 보편적이고 상시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박해 시기에 드러나는 특별한 것이다. 첫 번째는, 우리가 놓인 그 장소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거룩한 신앙의 규범에 따라 공개적이고, 진실하며, 두려움 없이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신념의 진실성이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이것이 진리이고 저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왜 나는 하나를 저버리고 다른 하나를 따르겠는가? 아니면 왜 내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하는가? 부끄러움과 당혹감은 믿음이 약하고 확신이 부족한 징표이다. 이는 신앙에 해를 끼칠 위험이 요구한다. 자신의 신앙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앙 그 자체를 의심받게 만든다. 누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맞다, 그들의 신앙이 약하거나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묶여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신앙이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곳에서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때는 단호히 진리를 말하고, 신성모독자처럼 뻔뻔한 자를 제재해야 한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구세주의 분명한 계명(눅 9:26; 마태복음 10:33).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비웃을 것인가? 내버려 두라. 그것은 그들의 어리석음이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당할 자격을 얻은 것을 기뻐했다. 우리는 그들을 본받아야 한다. 박해할 것인가? 오히려 더 유익하다. 이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 “용기를 내라!” 순교자의 면류관이 네 머리에 씌워질 것이다. 게다가 사람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까? 신념의 위선과 비겁함에 대한 이런 종류의 모든 비난은 오직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무관심한 채로 남아, 그들이 믿는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렇다면, 신앙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에 대해 불리한 인상을 줄까 두려워하여 때때로 불신자의 모습을 취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이는 사람에게 아첨하는 행위이며, 신성한 것을 장난으로 여기는 것, 헛된 위선입니다. 다른 무지한 사람이 무지하게 생각할까 봐, 스스로 무지한 자의 가면을 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의무로 부과될 때, 단지 겉치레로 신앙의 규율을 지키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히려 신념과 사랑으로 자신의 신앙 규율을 따르되, 숨기지 않으면서도 남들이 뭐라고 할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즉, 헛된 허영은 버리고, 진정한 실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또: 비방하는 자를 보게 되면, 일어나 그 악인을 질책하고, 그가 거룩한 것을 짓밟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아라. 특별하고 가장 엄숙하며, 신성하고 사도적인 신앙 고백은, 신앙 전반이나 어떤 교리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의 고백이다. 박해는 자

주 일어났으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선조들의 사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규칙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박해가 일어났다면, 침묵하고 자신의 위치에 머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힘과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라.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와중에 숨을 곳이 있다면, 숨으라.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다. 온 교회가 숲과 산으로 피신하기도 했다. 주님께서는 “... 한 도시에서 쫓기면 다른 도시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다(마태복음 10:23). “*주님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아주 조금만 피하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사 26:20). 강제로 끌려가 재판에 회부된다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네가 고백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의 힘을 드러내며, 피와 죽음을 무릅쓰고 그분을 위해 나서라.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 힘, 즉 고백에 대한 내면의 어떤 강박감에 이끌린다고 느끼는 자는, 목자의 조언을 받아 축복을 받은 뒤, 가능하다면, 혹은 그 없이도, 고백의 목소리를 높여라. 또한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약해지는 것을 보거나, 아직 그 영광을 누리지 못했으나 이미 연약함으로 인해 진리를 부인하려 하는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도 똑같이 행하라. 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행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자들을 믿는 자로 만들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주님께로 이끄는 사랑과 건전한 열정으로, 격렬한 광신주의가 아닌 마음으로 행해질 때, 공개적인 신앙 고백은 결코 지나칠 수 없다. 모든 두려움과 제약을 떨쳐버려라... 두려움 없이 나아가 고백하라. 주님께서 너의 도우미이시다. 모든 신앙 고백자는 그리스도의 군대 속의 굳건한 전사이다. 약하냐? 기회가 있을 때 도망치고, 잡혔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증언하라. 걸치레라도 배교의 표시로 요구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배교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의 정신이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이 정신을 불태워야 한다. 환난의 때가 닥쳤을 때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룩한 믿음을 위해 고통받고 죽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신앙 고백, 즉 내면의 순교이다. 이는 비록 육신은 살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의 상태이다.

bb) 신앙을 전파하거나 널리 알리려는 열정. 거룩한 신앙이 유일하고 참된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특히 거짓과 오해 앞에서 그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 이웃, 즉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참되고 견고하며 영원한 복을 바라는 사람이, 거룩한 신앙이 열어주는 구원으로 가는 참된 길을 그에게 전하지 않고 참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사람들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요한복음 17:3)를 알게 되어, 그분께서 원하시고 그분의 참된 믿음 안에서 모든 이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처럼 진리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믿음을 알고 말씀을 가진 모든 이가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구원의 참된 길을 모든 사람에게 큰 소리로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 밖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헛소리일 뿐인데, 어떻게 이를 보고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권력과 권한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영혼이 거룩하고, 냉철하며, 사랑이 넘치고, 간구하는 열정으로 타오를 때, 목소리를 높여라.

문제는 누가 이를 행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당연히 이 의무는 주로 성직자들에게, 즉 이를 위해 특별히 임명된 이들에게 달려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진리를 확신하고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된 다른 누구라도, 그가 그 진리를 선포할 때 누가

감히 그의 입을 막을 수 있겠는가? 무분별하게 모든 신념을 설교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해롭지만,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를 위한 불변의 규칙으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해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은, 설교하는 이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에게도 구원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돌봐야 합니다.

누구에게 설교해야 할까요? 주님께서서는 우리 형제자매와 타인에게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형제를 보거든 가서 그를 훈계하라.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었다’고 하라. 듣지 않으면 둘이서 다시 가서, 그 다음에는 ‘교회에 알리라’”(마태복음 18:15, 18:17). 기독교 형제들 가운데 믿음을 알지 못하고 무지함으로 인해 터무니없는 것을 고수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겠는가? 아는 자는 형제를 바로잡고 진리로 깨우쳐 주라. 이는 바다 건너가 이방인을 개종시키는 것만큼이나 결실을 맺고, 강력하며,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방치하거나 마치 경멸하듯 대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따뜻함을 베풀고, 경청할 마음을 갖게 하여 적절한 시기에 복음을 전하라. 누가 알겠는가, 네 말을 통해 진리가 그의 영혼에도 들어가지 않을지?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승리를 위한 도구를 마련해 두셨으니, 비록 아무도 그것을 명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말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과 글로 해야 합니다.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고 진리를 말할 줄 안다면, 당신의 분별력으로 그의 귀와 관심을 사로잡을 방법을 찾아 그에게 이 진리를 전하십시오. 살아 있는 말씀은 참으로 인내심과 지혜를 모두 갖춘 일꾼을 요구하지만, 그 힘은 더 강력합니다. 이는 영혼과 직접적으로 싸움을 벌이며, 힘이 세다면 반드시 마음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경은 더 가볍고 양쪽 모두를 방해하지 않는다. 성경 속에서는 진리 그 자체가 승리하며, 말하는 이의 얼굴은 가려져 있고, 타인을 깨우치는 데 있어 더 많은 자유와 성숙한 신념을 전제로 한다. 성경의 또 다른 장점은 어디에서나 접근할 수 있고 오래 지속된다는 점이다. 신앙의 진리를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승리를 거두며 전하는 성경은 교회와 인류에게 진정한 보물이다. 누가 그런 책을 저술할 수 있다면, 그는 세계적인 설교자들의 대열에 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 전파에 대한 진정한 열정은 격렬하고, 무분별하며, 광신적인 열정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 한다: 거룩한 신앙의 진리에 대한 확고하고, 탄탄하며, 이성적인 확신과 그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이해. 이러한 거룩한 보물을 담을 그릇이 된 영혼은 그로부터 향기를 풍기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그 영혼이 이 보물을 다른 이들에게서 숨길 수 있겠는가? 마음의 충만함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혀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신앙에 대한 이성적이지 못한 집착으로 인해 신앙을 관조하는 명료함을 흐리게 하고, 신앙의 내용보다는 신앙에 대한 자신의 사색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자는, 자제하며 자신의 한계를 지키고, 더러운 손으로 거룩한 것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사도는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 위선 없는 믿음”으로 전파하라고 명했는데, 이것들이 없으면 어떤 이들은 갈림길에 서게 된다(딤후 1:5).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복종과 종의 마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사도들은 증언합니다(행 4:20). 우리는 종이며, 청지기이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마음과 영혼 위에 높아지려 하고, 차별을 두며, 우위를 점하고 지배하려 하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참된 믿음의 수호자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거짓된 자는 자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기 희생과 겸손을 담은 사랑과 설득의 간청하는 어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간청하오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도들은 말합니다(고린도후서 5:20). “너는 망해 가고 있으니, 이리 오라. 내가 너를 어깨에 메고 안전한 항구로 데려가리라.” 보라, 이것이 태양처럼 밝은 진리다. 따라서 아침, 온갖 속임수, 이익으로 유인하는 미끼, 불이익을 내세운 위협 등은 신앙을 전파함에 있어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이다.

용기. 약한 자들에게는, 이성이든 말과 성품의 힘이든, 이 열심이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것은 타오르며 마음을 불태울 수 있지만, 오직 기도로만 표현되고, 거룩한 믿음이 가능한 한 더 많이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사람들의 복락으로 이끄는 열렬한 소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준비 태세는 순교에 대한 준비 태세와 마찬가지로, 거룩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고 결실을 맺는 마음가짐이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만이 아니라 열정을 다한 힘 자체를 높이 평가하실 것이며, 열매는 본래 그분의 권능에 달려 있다. 이 기회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름받은 참된 설교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지극히 높이 들어 올려지며, 그분께서 그들을 목표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 스테판 페름스키가 바로 그러했다. 다른 이들은 자신의 영역에 겸손히 머물며, 그곳에서 자신만의 빛과 온기로 주변을 따뜻하게 비추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다) 신앙의 수호 – 마음속의 신앙, 즉 자신의 신념과 고백하는 신앙 모두를 수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은 본능적인 끌림에 따라 사랑하는 것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간직한다.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앙을 수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을 위협하는 위험을 물리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험은 내적 위험과 외적 위험으로 나뉜다. 전자는 때때로 떠오르는 의심, 즉 신앙 전반에 대한 의심이나 특히 신앙의 특정 요소에 대한 의심을 말한다. 이러한 생각들의 정도도 다양하다. 어떤 것은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데, 마치 생각의 습격이나 가벼운 구름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다른 것은 마음을 찢어 화살처럼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확고하다고 아는 대상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은 마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들은 진리의 적이자 거짓의 아버지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어쨌든,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즉시 쫓아내어 마음이 그것들에 대한 증오로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증오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진정한 영적 독의 배출이기 때문이다. 그것들에 대한 관용과 무관심은 위험하다. 한편, 자신의 약한 면과 관련된 의심의 종류에 대해서는, 분개하는 것 외에도 서둘러 그들에 맞서 참된 논증을 제시하거나, 지식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해야 한다. 두 번째 내적 위험은 정욕에서 비롯된다. 타락한 영혼에는 진리가 담길 수 없다. 이 그릇은 허술하여, 무엇이든 담아두면 곧바로 쏟아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다. 정욕은 진리로부터의 이탈이며, 게다가 생생한 것이다. 게다가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이미 거짓의 길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정욕으로부터 진리에 반하는 거짓의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타락한 삶은 불신, 냉담, 그리고 신앙의 거부로 이어지기 때

우 쉽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과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가장 안전한 믿음의 보루입니다. 믿음에 대한 외적인 위험은 방탕한 규칙을 담고 있거나 거짓과 불신을 선전하는 책을 읽는 데 있으며, 특히 시적인 문체로 흥미롭게 쓰여 있고, 머리가 명석한 사람조차 단번에 풀기 어려운 미묘하고 교묘한 소피즘으로 가득 찬 책들이 그렇습니다. 나쁜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아예 경험 많은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만 읽는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경솔함과 진리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찬 사람들, 그리고 교묘하고 교활한 이단자들과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과의 교제. “선한 습관은 선한 말을 낳고, 악한 습관은 악한 말을 낳는다”(고전 15:33).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를... 멀리해야 한다”(살후 3:6; 롬 16:17), 그래야 “단순함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도록”(고린도후서 11:3), “거짓 철학에 미혹되지 않도록”(골로새서 2:8). 물론 그러한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연민, 진심 어린 소망과 그들이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지만, 결코 그들과 친분을 쌓거나 교제하는 데까지 기울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태도는 말과 생각을 얹어매고, 마치 무의식중에 적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런 이들에 대해서는 깨우치도록 신경 쓰고 기도하되, 자신에게 위험이 닥친 것을 보자마자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자신이 굳건하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라.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신앙 수호와 더불어 긍정적인 신앙 수호도 병행해야 한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은 해로운 것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나무를 튼튼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양분을 공급한다. 신앙 또한 우리 안에서 가꾸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 가르침을 듣고, 가능하다면 강의를 듣되; 하나님의 말씀과 성부들의 글, 신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라; 믿음이 풍성한 신자들과 함께 찾고 묻고, 대화하며 교제하라; 믿음의 기초, 특히 믿음의 행적과 운명, 신성한 약속들과 그 성취에 대해 깊이 묵상하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믿음대로 살아가며, 생각 속에 품고 있는 바를 행함으로 자신의 존재에 굳게 다져라. 그리하여 네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곧 삶을 뒤흔드는 것과 같게 하라; 자주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속에 진리의 근원 그 자체를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자신 안에 믿음을 간직하고 있으면서, 고백하는 종교의 운명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종교의 번영과 온전함, 안전을 바라며 이를 돕도록 하라. 거짓과 오해, 그릇된 철학으로부터 닥쳐오는 위험을 보게 되면, 마땅히 알릴 사람에게 알리고; 네가 할 수 있는 한 직접 맞서 싸우고 저항하라; 현실이 이렇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진리의 왕이신 주님께 기도하여 진리가 승리하고 덮쳐오는 어둠을 몰아내시도록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을 때, 너 자신과 거룩한 믿음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라.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위한 기초를 놓으셨으며, 이를 사람들의 자의적인 뜻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내버려 두신다 해도, 그것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믿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오직 그들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않는 반항 때문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며, 우리 성스러운 정교회 신앙과 관련된 모든 선한 마음가짐과 악한 마음가짐, 선한 행동과 악한 행동을 분별하라. 전자는 심어 나가고, 후자가 있다면 뿌리 뽑도록 힘쓰라. 지금은 험난한 시대이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 가까운 이들에게서도 재앙이 닥칠 수 있으니, 삼가 경계하라.

3) 신앙에 대한 죄

신앙에 관한 진리로부터의 일탈을 밝혀야만, 모든 이가 함정을 보고 그 속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열거한 의무들을 따라가며,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한 일탈들을 지적해 나가자.

첫 번째 의무인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해 죄를 짓는 이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다. 여기서 무신론자들의 존재 여부를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들이 존재한다면 죄를 짓고 있으며, 그 죄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죄라는 점만 언급하겠다. 그러나 이론적 무신론자, 즉 자신의 사고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부재를 인정하는 자들과, 실천적 무신론자, 즉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거나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을 구분할 수 있고 또 구분해야 한다. 전자의 유형에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다”고 말하는 운명론자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지혜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과 같다. 존재하고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고 일어나는 것이다. 세상의 기원과 운명, 인류와 자신의 얽히고설킨 사건의 흐름에 대해 깊이 생각한 끝에 마음속으로 “과연 신이 존재할까? 이 모든 것이 정말 그런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이 죄로 유혹을 받고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다. 여기에는 이 우주가 곧 신이지만, 인격이 없고 필연성의 법칙에 얽매인,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범신론자들도 포함된다. 그들은 운명론자들과 유사하다. 그들 중 특별한 유형은 진화론자들로, 그들에 따르면 세상은 발전한 신이다. 이는 지극히 중대한 죄이지만, 피히테, 헤겔 등과 같은 매우 정교한 사상가들도 이에 속한다.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은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신을 잊은 채 마음 가는 대로 살며, 자신 위에 어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의식도 없고,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피할 수 없는 필연성에 대한 감각도 없이 사는 것이다. 선지자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그 말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덧붙여 집니다. “그들은 자기 *행실에서 타락하였고, 가증하게 되었도다*”(시 13:1). 감각적 욕망과 정욕에 빠져, 그들은 자신의 존재 중 가장 훌륭한 부분을 억누르고 하늘과 그들을 연결하는 끈을 끊어버렸다. 사도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전 2:14; 그들에 대해서는 엡 2장, 롬 1장 참조).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대량으로 만날 수 있으며, 특히 안타까운 점은 때로는 완전히 방탕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연스러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악취 속에는, 비록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인도하는 자들조차 빠져들기도 하는데, 그들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엡 2), 마음의 헛된 일들로 날과 달, 때로는 해를 보내곤 한다.

두 번째 의무, 즉 유일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무관심주의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든 상관없이,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설교한다. 어떤 믿음이든 적합하며, 그것이 기독교적이든 아니든 간에 각자의 목적에 이르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오류인지는, 유일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말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에게 그분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후,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며,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하늘과 땅을 움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후에 이

믿음을 지키든 다른 믿음을 지키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짓과 동등하게 여기는 극도의 광기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마치 자비를 지나치게 낭비하신 것처럼 비난하게 되며, 거짓이 진리의 하나님을 만들어내어, 그분이 유일하다고 선포하신 그 믿음이 유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게 만듭니다. 무관심주의는 게다가 인류에게 깊은 상처와도 같다. 오직 하나의 믿음만이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다른 모든 신앙은 구원을 주지 못하고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니, 그런 신앙에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자는 그가 붙잡아 둔 모든 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염병이 맹위를 떨칠 때 유능한 의사가 유일한 치료법을 찾아냈는데, “별일 아니야, 저 약도 괜찮아”라고 단언하는 사람은 그 말을 듣는 모든 이를 파멸로 이끈다. 이것이 바로 무관심주의다. 그것은 영을 나태하게 하고 죽인다.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거의 없으니, 그에게 믿음은 남의 일일 뿐이며, 관습상이나 남을 흉내 내기 위해, 혹은 더 나쁘게는 마치 어떤 정치적 수단인 양 믿음을 지키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기독교 신앙만 있다면, 어떤 신앙이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자에게도 이 모든 비난이 쏟아진다. 도대체 이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도들은 일치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지키려 했고, 그것이 어긋날 때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그토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며,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에 대해 그토록 엄격하게 대처하여 그들을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차피 기독교 신앙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이단이라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만일 교회가 네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마태복음 18:17)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그럴 수 있겠는가? 게다가 교회는 그 역사 전반에 걸쳐 어떻게 그토록 강력하게 모든 이단적 견해에 맞서 싸우고 방어해 왔는가? 마치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유일하고 참된 믿음을 입증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입증하고 계신 것이 마치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종교가 정부 손에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교하는 그 타락한 사고방식은 무관심주의에 가깝거나, 혹은 그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과, 그렇게 행동하는 정부 자체는 지극히 불경하고 신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글썄, 만약 이슬람교나 유대교, 혹은 그 밖의 어떤 불경한 것이 정부에 유리하다면, 마치 그것을 도입하고 우대해야만 하는 것처럼 여겨야 하는가? 사회의 목적은 인간을 목적지로 이끄는 것이며,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거룩한 믿음 안에서 지시하시는 방식뿐이다. 따라서 사회의 정신은 하나된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속적인 면에서 자신의 백성을 조금도 위로하지 않으면서, 그 대가로 그들을 영원히 파멸로 몰아넣는 정부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람들은 말한다. “백성 사이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누가 폭력을 용인하는가?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진리를 드러내라. 그리고 통치자들보다 그 일에 더 적합한 자가 누구겠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참된 신앙을 지키지 않고 백성에게 심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 – 시험해 보지 않고 안일함의 잠에 빠져 있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다; 무심한 자들은 무관심주의자들과 달리, 그들의 안일함 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거나 믿음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신앙을 경멸하는 자들이다;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께 경배해야 하는가?’라는 미해결된 문제에 아예 머물러 있거나, 정통 성스러운 신앙이 진실한지 의심하면서도, 그럼에

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채로 남아 의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그러한 우유부단하고 흔들리는 상태에서 기존의 질서에 따라 계속 살아간다. 이는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아, 자신의 영혼을 고갈시키고 괴롭히는 것이다. 그들의 죄의 중대함은 진리와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에 있으며, 특히 자신의 신념에 반하는 일정한 질서를 고수하고, 양심에 반하여 행하며, 내면의 생명을 죽이는 그 부자연스러운 영적 상태에 있다. 거짓에 머물러 있는 모든 신앙의 오도된 자들: 이교도, 무슬림, 유대인, 특히 자연주의자들, 즉 하나님과 자신의 구원을 아는 데에는 인간의 자연적 능력, 자신의 이성, 그리고 자기 주도적 활동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 오류는 달리 말하면 합리주의라고 불린다. 그것은 가장 명백한 어리석음이자 광기이다. 자신의 실수와 다른 사상가들의 실수를 모두 보면서도, 역사 속에서 이성적인 인간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류와 악덕이 땅을 뒤덮었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이성을 믿는다는 것! 게다가 합리주의자는 바로 곁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믿음, 기적적으로 입증된 믿음, 구원받은 자들의 경험을 제시해 왔고 지금도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합리주의가 확고하다고 진정으로 확신하는 합리주의자가 과연 존재하는지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대다수는 확고하고 명확한 신념 없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점에 대해 흐릿한 확신만을 가지고, 오만하게도 무엇을 설교하는지조차 모른 채, 단지 자신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만물을 아우르는 천재다!”라고 말하게 만들려고만 한다.

알려진 거룩한 정통 신앙에 겸손하고, 침묵하며, 온전히 복종해야 한다는 점에 반하여, 성경적 합리주의자들 역시 죄를 짓고 있다. 그들은 계시를 인정하지만, 그중에서도 오직 자신들의 사고방식에 부합하는 것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이들은 교만한 마음들로,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려 하며 그분께 복종하지 않고, 신앙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치 않으므로, 실상은 불신자와 다름없다. 왜냐하면 불신이란, 본질적으로 거룩한 신앙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정신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여기저기서 기어들어오는 강도들로서, 그곳에 들어간 후 겸손하게 머무르는 대신 제멋대로 하나님의 모든 보물을 찢어 놓고, 훔치고, 왜곡하는 자들이다. 모든 이단자, 교황주의자, 온갖 종류의 개신교도 및 그 밖의 자들은 불신과 제멋대로의 생각, 즉 신앙 문제에서 마음대로 행동하는 태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다. 보편적 신앙은 모든 이에게 의무적인 지식과 삶의 규범이다. 누구든지 그 믿음과 달리 어떤 부분에서든 지혜를 구하며, 그러한 지혜 구함이 그 믿음에 의해 승인되지 않고 그 믿음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후로도 어떤 설득에도 굴복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지혜를 고수하는 자는 성령, 곧 진리의 영을 모독하는 자이다. 그는 신앙의 온전함을 찢어 놓으며, 신앙의 질서를 더 명확히 인식할수록,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양심과 마음속의 동요를 더 크게 느낄수록,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 자신의 고집을 더 굽히지 않을수록, 그 죄는 더욱 중해진다. 배교자들은,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든, 세속적인 희망 때문이든, 사람에게 아부하기 때문이든, 때로는 경솔함과 내면의 기이함 때문에 참된 믿음을 버리고 미혹된 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자들이다. 그들 중에서도 진리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상상하는 자들조차 용서받을 수 없다. 진리는 명백하다. 정욕이 마음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배교는 정욕과 죄 외에는 다른 이

유로 일어날 수 없다... 배교자들이 멸망할 백성임을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자유의지로 죄를 짓는 자들... 진리의 이성을 받아들이지 후에는,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없으며, 오직 두려운... 심판의 기대와 불의 맹렬함만이 있을 뿐이다*”(히브리서 10:26-27). 이 심판은 분명히 이단에서 참된 믿음으로 돌아선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어둠에서 주님의 놀라운 빛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그들을 칭찬하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의 모든 의무와 대조되는 것은 신앙에 대한 냉담함, 육신에 깊이 빠져들고, 마음을 갇아먹는 근심, 지나친 교만,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아는 자아에 기인한 영의 경직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에서는 신앙이 가져다주는 다음과 같은 기쁜 감정들을 알지 못합니다. 평안, 기쁨, 감사와 찬양—또한 신앙에 대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행위들, 즉 신앙을 고백하고, 널리 전파하며, 이를 위해 애쓰는 일들—이러한 행위들은 이 세상에서 매우 귀중한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가져다줍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일탈을 직접 마주쳐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제 모든 이가 그것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만일 누군가 신앙에 대한 모든 태도와 행실들을, 그것들이 서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대로 마음속에 확고히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마음과 정신에 상당한 견고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 견고함은 마치 성벽처럼 신앙을 향한 모든 공격—내적, 외적—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

12. 경건함 – 믿음의 정신으로 사는 삶

참된 믿음의 영역에 들어선 사람은 그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마치 안전한 피난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겉으로만 그럴 뿐, 내면에서는 그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사랑하게 된 이 신앙의 정신에 따라 더욱 활발한 활동과 수고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 이는 신앙을 받아들이는 자가 그 수용 행위 자체를 통해 자신의 외적·내적 삶을 그 가르침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거나, 그 가르침에 따라 자신을 단련하고 그 정신을 내면화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한다. 믿음의 영역은 생기와 활동으로 숨 쉬며 가득 차 있다. 그곳에 들어섰으면서도 그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마치 기계의 불필요한 부품이나, 밝고 엄숙한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멋대로인 사람과 같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야고보서 2:26).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신을 구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내민 손을 잡지 않는다면, 분명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믿음을 조롱하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사제복을 입고 그 옷차림으로 대중 앞에서 우스꽝스럽게 굴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다면 어떨까? 그는 조롱하는 자가 아니겠는가? 믿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믿음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큰 경고가 담겨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 행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이요,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줄 모르는 자들이다*”(디도서 1:16). 이처럼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자신의 활동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자신을 단련하고, 마

치 자신의 인격 전체를 통해 그 믿음을 온전히 드러내야 한다. 유일하고 참되며 거룩한 믿음의 정신 안에서 꾸준하고, 진실하며, 온전하고, 다방면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

당연하게도, 믿음의 구성 요소가 다양함에 따라 경건한 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건의 다양한 의무들이 존재한다. 모든 의무를 이 하나의 의무 아래로 귀결시키거나, 이 하나의 의무에서 도출해 낼 수도 있는데, 이는 모든 의무가 기독교 신앙에 의해 요구되며 그 정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사도(디도서 2:12)는 경건함으로부터 경건하고 의로우며 절제된 삶, 즉 전반적으로 기독교적이고 합법적이며 거룩한 활동을 도출해 냅니다.

기독교적인 경건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즉 우리 구원의 가정을 세우는 데 따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말한다. 이것이 사실임을, 그 경과를 살펴보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당신의 거룩한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그들은 그분의 능력으로 땅 위에 약속된 교회를 세웠으니, 이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를 기초로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입니다. – 이 교회는 믿음과 구원의 집이며, 주님의 몸이자, 불경건과 죄, 사탄의 악의에 빠져 역사할 위기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는 방주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교회는 무엇일까요? 성직은 거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지혜롭게,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을 수행하며, 거룩하게 하는 존재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는 그 교회와 한 영이 되어야 하며, 교회가 큰 모습에서 그러하듯 자신은 작은 모습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마치 몸에서 말하듯이, 각 작은 지체도 온 몸을, 즉 그 모든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을 서약하며, 이는 구원의 가정을 세우는 바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과 같다. 이로부터 기독교인의 경건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또한 이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세워진 집, 즉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이에 따라 경건의 의무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그중: 1)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재결합함으로써 비롯되는 감정과 마음가짐이며, 2)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머무름으로써 비롯되는 감정과 마음가짐이며, 3) 세 번째는 구원의 집인 교회와의 교제에서 비롯되는 감정과 마음가짐이다.

1)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향한 여정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먼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재결합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감정과 마음가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강요가 아닌 자유의 행위이며, 게다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는 일단 끝내고 해결된 일로 미루어 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매 순간 반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인이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섰다고 해도, 이를 이루게 한 행위들로부터 결코 면제되거나

해방되지 않으며, 항상 그 행위들을 가꾸고 새롭게 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그 모든 행위들은 그에게 끊임없는 의무와 책임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 즉 그분과의 재결합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설명되어 있다(기독교 생활의 규범 참조). 이제 남은 것은 그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들을 명확히 하는 것뿐이다.

이 모든 의무의 씨앗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세주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은 우리를 그분과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한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이 믿음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다른 것은 믿음이 생긴 후에 일어나야 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요 14:6). 하나님께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이 있는데, 어떤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에, 또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 주 구세주와 하나 되는 길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가) 주 구세주와 하나 되는 길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주님과의 마음의 연합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시작은 자신의 빈곤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자신의 빈곤 위에 옮겨 놓고, 이를 위해 마음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한다.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과의 마음의 연합을 점점 더 뜨겁게 하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은 감정과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

가) 그는 자신의 가난함과 비참함을 알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믿음이 시작되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유지된다. 이는 등불의 불에 필요한 기름과 같아서, 기름이 고갈될수록 불빛이 약해진다. 집이 불에 휩싸였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진리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이미 거짓이 섞여 있고, 자만심을 키울수록 더욱 그러하다. 이 지식의 대상은 그 자체로 인간의 역사에 의해 결정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타락하고 버림받은 영들—그들은 자신 안에서 그리고 자신으로부터 지옥을 세운 자들이다—을 대신하여 끊임없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나 마귀의 시기심에 이끌려 그는 계명을 어기고, 정죄와 저주를 받았으며,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타락시키고, 유혹자에게 굴복하여, 땅에서 고난을 겪으며, 죽은 후에도 배교한 영들과 그들의 왕인 사탄이 거주하는 바로 그 지옥에 처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의 맹세 아래 있었으며, 그분 앞에서 무책임한 존재였고, 내면이 타락하여 사탄의 권세와 폭력, 악의에 종속되었으며, 죽음과 지옥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기독교인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이미 이러한 모든 고통에서 해방된 후에도 이를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자체로 그는 실제로 언제나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 그가 이 파멸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은혜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마치 불길의 심연 위에서 있는 것처럼, 매 순간 떨어져 나가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시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력하며, 도움이 필요한지 하는 느낌

이 형성되고 유지된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극도의 자학, 겸손 속에 머물게 하며, 생명 있는 존재는 물론 생명 없는 피조물보다도 자신을 더 낮게 여기게 한다; 끊임없이 “주여, 나를 구원 하소서, 내가 망해 갑니다”라고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은 한두 번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본성에 스며든 것처럼 끊임없이 자신 안에 확고히 자리 잡고 뿌리내리게 해야 합니다. 이를 잃는 자는 순식간에 구원받는 자들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는 모든 구원받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의 의무는 온갖 방법으로 자신 안에서 이러한 감정을 불태우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를 위한 가장 훌륭하고 실효성 있는 가르침은 바로 기독교적 삶 그 자체이다. 이것이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단 이라, 진정한 기독교인의 온 삶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는 감정을 끊임없이 높여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다. 미덕 안에서 성장할수록,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로부터 얼마나 풍성한 미덕이 흘러나오는가! 여기에는 겸손, 자기 책망, 타인을 정죄하지 않음, 분노하지 않음, 반박하지 않음,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밀한 영적 위로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며, 다른 그리스도인 들로부터는 사랑과 생동감 넘치는 교제를 얻게 됩니다. 이를 갖지 못한 자에게는 정반대의 일들만 일 어납니다.

bb) 죄인들의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알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더해 나가야 한다. 자신의 비참함과 무력함만을 깨닫는 것, 그리고 삶과 영원한 운명에 대한 책임감의 부재와 두려움만으로는 희망이 없다. 그것은 오직 슬픔과 애타는 그리움만을 가져오는데, 이것이 다른 위로가 되는 감정들로 녹아들지 않으면 사람을 활기차게 하기보다는 무기력하게 만들며, 머지않아 회복할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이 한 가지에 머무르는 자는 마치 일의 절반에서 멈춰 선 것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진리가 없다. 실로 가난하고 멸망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신 분께서 정하신 이러한 질서에 따라, 멸망하는 사람 위에 신성한 은혜의 그늘이 펼쳐져 있다. 그러므로 이를 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그분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깨달음의 대상 또한 은혜로운 행위의 그 질서 자체에 의해 정해집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멸망해 가는 자들에게 구원자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때가 차자 그분은 참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을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를 다시 살리셨으며, 지옥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결박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으며,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왕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마귀와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신 분임을 이렇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놀랍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일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하늘과 땅이 흔들렸던 그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경건하게 묵상하며 구원의 모든 과정, 특히 끔찍한 수난과 그 뒤에 이어진 주님의 영광에 깊이 빠져들어야 한다. 이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무엇을 위해, 여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를

더 자주 마음에 떠올려야 하며, 특히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위로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천을 통해 주님에 대한 지식은 저절로 자라날 것이나, 열심 있는 자는 여기에 복음서와 예언서를 자주 읽는 것과, 무엇보다도 구원의 신비에 은혜로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더할 것이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는 묻고, 마치 그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덧붙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롬 11:34; 고린도전서 2:16).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은 영의 신비 안에서 이루어지며, 말하자면 이해되는 것보다는 느껴지는 것이어서, 이를 표현할 말도, 형상도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무한히 달콤할 뿐입니다. 사도는 “주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은 지혜”를 위해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여겼으며, (빌 3:8)라고 확신하며, 모든 이로 하여금 그러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독려하고, 우리 구원의 계획 속에 드러난 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그들에게 열리기를 위해 모두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엡 3:18).

bb)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안에 주님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불태워야 한다. 왜냐하면 똑같은 영 안에서 자신의 비참함과 궁핍함에 대한 깨달음과 주님 구세주에 대한 깨달음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것들은 서로 어우러져 물이 마른 땅에 스며들듯이, 혹은 서로 어울리는 두 원소처럼 녹아들기 때문이다. 무력감은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태함과 타락감은 주님—우리의 생명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 마귀에 대한 두려움은 주님, 곧 우리의 왕이시며 그들을 이기신 분에 대한 인식을 통해 치유됩니다. 모든 슬픔의 감정은 주님 안에서 그에 상응하는 치유를 찾습니다. 바로 이러한 결합에서, 마치 하늘의 딸처럼 주님 구세주에 대한 참된 믿음이 태어나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주님을 아는 것만이 아니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 둘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며, 서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있는 것이다. 화학적 친화력에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둘도 서로 용해됩니다. 응답받지 못한 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께 희생 제물로 의지하여 의롭다 함을 얻고, 타락한 자는 생명의 주님께 나아가 소생하며, 사로잡힌 자는 왕이시며 승리자이신 주님께 나아가 해방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내면적이고 은혜로운 작용으로, 이를 통해 우리의 무가치함과 빈곤함 위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옮겨져 우리에게 내면화된다. 이는 전능하고 창조적인 행위이니, 이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그로부터 우리 안에 새롭고 감추어진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참된 믿음의 구성 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되는 것보다 더 깊이 느껴지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태도들이 숨겨져 있다: 나—멸망할 자로서 영원히 멸망했을 터이나, 인류에게 얹혀 있던 모든 악을 제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주님을 자신의 안식의 유일한 근원으로 바라보며, 마음으로 그분 안에서 사라지고, 사랑으로 그분을 껴안으며, 오직 그분만으로, 그리고 오직 그분을 위해 살아간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멸망했을 것임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고 느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끊임없는 의무이다. 이제 왜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유지하고 불태우기 위해,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참함과 궁핍함에 대한 점점 더 깊어지는 인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구세주와 그분의 행적에 대한 인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는지 분명해졌다. 그것들로 믿음의 영이 따듯해지며, 그것들로 인해 태어나고 그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물 한 방울이 산소와 수소의 구성 요소들을 통해 전기 불꽃 이 통과함으로

써 이루어지듯이, 믿음도 처음에는 주님께서 심령에 신비로운 어떤 접촉을 주심으로써 태어납니다. 그 심령은 자기 자신과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 믿음에 준비된 상태이며,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를 암시하십니다: “내려가서, ... 안으로 들어가서, ... 식사하리라” (계 3:20). 자기 자신과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 마음이 열리고, 그 후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만찬을 나누시니, 곧 영혼을 그분의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이며, 그 결과 인간의 영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진 토마스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라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지요”라고 고백하게 된다 (요 20:28).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목소리이자 믿음의 진정한 상징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심장에 신비롭게 닿으심으로써 믿음이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와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믿음은 바로 그 손길로 유지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데, 신자들은 성사 참여와 불타는 기도를 통해 그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진정한 의미와 힘에서 볼 때, 주님께 드리는 최초의 간구와 그분의 첫 번째 임재를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서, 마치 도가니 속에서처럼, 그리스도인은 매번 새롭게 되어 나온다. 바로 이 때문에 성부들의 가르침, 나아가 모든 가르침에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입술로 끊임없이 되뇌라고 명하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주 되뇌어야 하는데, 어떤 이들은 기도를 숨 쉬는 리듬에 맞추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비천함을 잊고, 구세주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며, 예수 기도를 중단할 때 믿음은 사그라듭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주 구세주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유지된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 구세주로부터 영이 무한하신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분과 하나 되는 일련의 다른 감정들이 시작된다. 결론적으로, 모든 이에게 요한계시록의 다음 구절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 구절에는 앞서 말한 모든 내용이 종합되어 있으며,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해졌으니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하였으나, 네가 비참하고 가난하며, 궁핍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줄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네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안약을 발라 네 눈을 뜨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부지런히 힘쓰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그도 나와 함께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리니, 나도 이겼으므로 내 아버지 보좌에 앉았음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3:17-22).

b) 구세주 주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정에서의 감정과 마음가짐

b) 구세주 주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향하는 상승의 여정에서 느끼는 감정과 마음가짐

믿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될 때, 곧바로 태양의 광선처럼 다른 감정과 마음가짐이 솟아나는데, 이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사다리의 계단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보좌 아래에서 그분께 경배합니다. 이러한 감정과 마음가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구원에 대한 소망은 자기 희생과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에서 그토록 본질적인 요소이므로, 마치 그분을 향한 믿음의 가장 훌륭한 정의이자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자신에게 없혀 있던 모든 악의 범위를 벗어났고, 구원받는 자들의 영역에 들어섰으며, 주님에 의해 구원받고 있음을 느낀다. 물속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 중, 자신에게 던져진 밧줄을 붙잡아 배로 끌려가 배 위에 올라서고 그 위에서 서게 된 사람은, 위험에서 구원받거나 피했다는 기쁜 감정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바로 이와 같다! 이 구원의 소망이 믿음과 얼마나 밀접한지, 사도 베드로의 말에서 알 수 있는데, 그는 이를 믿음의 뚜렷한 표지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노니... 우리를 살아 있는 소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도다”라고 그는 외칩니다(벧전 1:3).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영혼의 닻, 굳건하고 확실한 닻”이라고 부릅니다(히브리서 6:19). 이 소망은 주로 절망과 희망 없음을 부정하거나 영혼에서 몰아내지만, 그 외에도 온갖 의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무지,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 부족을 제거합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은 의무이므로, 모든 형태의 소망 없음은 죄입니다. 자기 부인은, 혹은 그 안에서 사는 삶은 단순히 자신을 발밑에 엎드려 짓밟고 비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자기 학대, 즉 육체나 영혼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타격하는 활동이며, 모든 행위를 자기 만족과 자신의 뜻, 그리고 마음의 욕망에 반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다. 성부들은 이를 두 가지 규칙으로 표현합니다. 곧, 자기 의지를 갖지 않는 것과 육체에 안식을 주지 않는 것—이것이 바로 자기 학대의 두 가지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수행이 이루어지며, 이는 자기 희생 속에서 사는 삶과 같습니다. 사도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육체와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갈 5:24),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마 16: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한 자기 고행의 수도 생활과 구원에 대한 소망 사이의 연관성은 그리 명백해 보이지 않지만, 그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하며, 매우 생생하여 자기 고행의 정도가 곧 구원에 대한 소망의 정도이기도 합니다. 공기의 무게가 기압계의 수은을 들어 올리듯이, 자기 부정의 무게 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을 높여 줍니다. 이것의 근거는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모든 사람은 그 고난을 자신에게 내면화함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난을 내면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접점을 이루는 지점, 즉 그 고난이 접촉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그분의 죽음과 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빌 3:10)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을 칭찬합니다(베드로전서 4:13)라고 칭찬합니다. 이러한 참여로부터 자연스럽게 따르는 결과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힘이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다면, 동시에 그 힘으로부터 오는 구원의 확신이 영혼과 의식에 스며들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소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간에, 오직 자기 희생적이고, 엄격한 수행자적이며, 자기 자신을 혹사하는 삶만이 구원에 대한 소망의 유일한 조건이다. 그러므로 안주하는 자는 소망을 끄며, 결과적으로 구원의 소망의 씨앗, 즉 그 첫 출발을 짓밟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빌 3:19).

bb) 하나님과의 화해는 끊임없는 회개와 떨어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한다(롬 5:1).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도들에게 화목의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합니다(고후 5:19-20). 이 화목은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느낌, 영 안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진노가 사라지고 자비로 바뀌었음을 깨닫는 것, 하늘을 기쁘게 바라보는 것으로 증거됩니다. 이전에는 마치 머리 위에 칼이 드리워진 듯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거나 그분을 생각하는 것조차 두려웠으나, 이제는 거룩한 담대함으로 휘장 안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 화해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화해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화해에 대한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면*”(요일 3:21). 양심에 아무런 짐이 없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짐이 있다면, 그 평안은 깨어집니다. 때로는 양심에 짐이 생기는 것이 죄를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도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너무나 단호한 사실이라, 달리 생각하고 느끼는 자는 이미 거짓말쟁이입니다(요일 1:8). 따라서 누구에게나 양심에 무언가가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그 때문에 하나님과의 화목이 흔들리지 않는 순간도 없습니다. 이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심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양심은 회개를 통해 정결해진다. 따라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영혼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요일 1:9). 이 회개는 단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와 같은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죄 사함을 전제로 하는 모든 행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즉 생각, 시선, 말, 유혹 또는 그 밖의 어떤 것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부정함을 인식하는 것; 자기 변명 없이 그 일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과 무책임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영이 평온해질 때까지 주님을 위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큰 죄에 관해서는, 즉시 영적 지도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죄들에서는 일상적인 회개만으로는 영혼을 평온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끊임없는 회개의 의무는 양심을 순결하고 흠 없이 유지해야 할 의무와 같다. 성부들께서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규칙을 세우셨는가! 자신을 그 길로 이끌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을 기울였는지!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는 자들은 모두 자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모든 일에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자들입니다.

bb)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에 대한 자녀됨의 감정은, 그분을 위한 더욱 힘찬 활동과 떨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주님과 살아있는 연합과 자신 안에 그분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본질적인 이러한 형언할 수 없는 은사는,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리고 이는 우리 마음 속에서도 반드시 울림을 일으키며, 그곳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

각이나 감정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과의 기독교적 연합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만큼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를 가지고 가꾸며, 이를 일깨우고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감정들이 묻혀버렸음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간절히 이를 되살리려 애썼는가!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는 두려움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아들의 영을 받았느니라. 그 영께서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을 증거하시느니라” (롬 8:14-16).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다” (갈 3:26-27).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가 가르치기를, “우리가 양자로 삼아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갈 4:5).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지고 또한 그러하게 되게 하셨느니라” (요일 3:1), 성 요한 신학자가 외친다. 단지 그렇게 일컬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 1:12).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족, 즉 신성한 친족 관계로 받아들여지는 것과 본질적으로 연관된 바는, 아들의 성품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노예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버지의 비밀에 입문한 자로서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와 가정에 관한 모든 것을 마치 오직 자신에게 직접 관련된 일인 양 깊이 마음에 새기며, 아버지와 가정과 살아 있는 연합을 맺고 있음을 느끼고, 행동할 때면 마치 그들의 번영과 명예, 영광이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위해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은혜로운 기독교 왕국, 곧 이 하나님의 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성품과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자신이 하나님의 것—진실하고 가까운 존재—임을 느끼며,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밖에서는 그분의 집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안에서는 그 집의 번영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그는 주 하나님과 그분의 집을 위해, 그분과의 은혜로운 유대 관계로 인해 피를 흘릴 각오로 옹호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마치 하나님의 사자이자 중재자로서, 그분의 일을 위해 중재하고 행동하는 자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든 활동의 근본 원리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복을 위한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그 열정은 마음을 갇아먹고 고통스럽게 울려 퍼지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러한 활동을 불러일으키듯이, 반대로 그러한 종류의 활동은 자녀됨의 감정을 북돋우고, 고양시키며, 유지하므로, 둘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것들은 서로에게서 반영된다. 따라서 반대로, 다른 종류의 활동이나 무활동은 아들의 정을 소멸시키거나 아들의 신분을 박탈한다. 이는 평범한 예에서도 분명하다. 아버지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들이 과연 어떤 아들이겠는가? 또한, 아들의 정을 잃은 자가 어떻게 아들의 방식으로 행동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재연합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되는 것이며, 우리를 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분과 연합하게 하며 그 연합 안에 머물게 하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일반적으로 구원의 조건에 따른 하나님에 대한 의무, 혹은 주님이자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에서 비롯된 의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바로 우리에게 필수적인 또 다른 일련의 감정과 마음가짐

, 즉 하나님 그분 자신, 혹은 신성에 대한 것들이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지극히 순결하신 여왕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인들이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을 기도로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감정과 마음가짐

구원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뻐하셨으며, 그 결과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가 그에 상응하는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본래의 지위로 회복될 때, 동시에 신성의 무한한 위엄이 온전히 드러나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필수적인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부활하여 의식에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언급된 일련의 의무들은 우리를 신성의 이 비밀스러운 영역으로 인도하고, 이를 가르쳐 주며, 동시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가짐의 매개 없이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그분께 직접 끌어올린다면, 신성을 관조하는 것은 우리 타락한 본성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지도적이고 교육적인 규칙이라 할 수 있으며, 후자인 하나님에 대한 이 가장 은밀하고, 가장 높으며, 가장 미묘한 감정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그 규칙들의 결실이다.

물론 이 후자의 감정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속성과 행위에 부합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재결합을 표현하는 첫 번째 종류의 감정과 성향을 통해 그 감정들에 이르게 되므로, 그것들은 그 감정들과도 밀접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a) 그분의 완전함에서 무한하신 분으로, b) 창조주이자 섭리자이시며, 마지막으로 c) 만물의 완성자로 관조하므로, 이에 상응하여 그분에 대해 필수적인 세 가지 종류의 감정과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 이들은 앞서 언급된 하나님과의 화해, 구원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감정들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a)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에 대한 인식이나 관상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a)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을 인식하거나 관조함으로써 비롯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태도
아아) 하나님은 그 존재와 완전함, 그리고 행하심에 있어 무한하고 헤아릴 수 없으니, 경탄하라! – 즉, 위대한 하느님의 가장 은밀한 불가해함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상태에서 영혼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고, 마치 생명이 멈춘 듯한 깊은 침묵이 영혼 속에 자리 잡는 그 상태로 자신을 이끌고 유지하라. 냉철한 생각이 모든 피조물을 지나 세계의 경계를 넘어 하느님을 관조하는 데 몰입할 때;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 없듯이, 그분이 피조물들 속에서 알려진 어떤 것도 아니시라는 사실 또한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힘도, 빛도, 생명도, 이성도, 말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 이성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시며; 그리고 나서, 이 모든 부정들을 한 눈에 훑어볼 때, 그는 순식간에 신성한 어떤 어둠 속으로 이끌리는데, 그곳에서는 광대하고 실체들로 가득 찬 무한함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그 무한함은 깊은 감동을 주고 말과 생각에 침묵을 강요한다. 이 상태는 지상의 피조물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경지이다. 그때 사람은 세라핌의 경

지에 이르기까지 황홀해진다. 이는 마치 누군가 가장 위대한 왕의 왕좌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왕을 처음 마주보는 순간, 모든 것이 그를 났을 잃을 정도로 압도한다. 사람은 신성한 존재와 그분의 모든 속성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속성은 그분 자신만큼이나 헤아릴 수 없고 경이롭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친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풍성함이여...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롬 11:33-37; 고전 2:16). “*내게서 네 마음이 놀라게 하라, 굳게 서라, 내가 그곳에 이를 수 없노라*”고 선지자는 고백합니다(시 138:6). 이것은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모든 속성과 모든 창조물, 그리고 그분의 섭리의 모든 일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주의 행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누구나 초연하고 평온한 심취를 통해 이 경이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일에 있어 성부들의 이 속성에 대한 묘사, 예를 들어 디오니시오스 아레오파기투스의 ‘신비 신학’이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지각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말씀’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관상에서 시작하여 완전함에 대한 관상으로 나아가고, 마침내 가장 높은 곳, 즉 신적 존재의 불가해함에 대한 인식에 이르는 것이 더 쉽다.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를 실천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여기서 피조물이 창조주이자 주님께 드리는 가장 진실하고 합당한 경배가 영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감정은 다양한 단계가 있지만, 각자에게 맞는 단계가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이 일을 실천하면 됩니다. 모세는 산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구름 속에 숨고, 어떤 이들은 산 종턱에서 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산기슭에서 있습니다. 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불가해함을 깨닫고 인식하기 위해 올라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 일을 할 줄 모른다가나 모른다는 이유로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bb) 하나님은 무한히 위대하시니, 겸손히 엎드려 경외심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라. 앞서 언급했듯이, 왕좌의 방에 들어선 이가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어떤 분별된 생각도 없는 침묵 속의 경이로움이다. 들어온 이는 아직 주위를 둘러볼 틈도 없었고, 자신과 그 위엄을 지닌 왕을 구분할 수도 없었다. 그런 다음 정신을 차린 후 드는 첫 번째 생각은 왕의 위대함과 자신의 미약함이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무한하신 분 안에 잠기어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면, 깊은 경이로움 속에 사라진다. 그러나 자기로 돌아서는 순간, 무한함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져와 마치 그것을 자신의 무가치함에 덧씌우는 듯이, 마치 어떤 타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 비할 바 없는 차이에 경악하며, 자신의 무가치함을 자각한 채 경외심 어린 떨림 속에서 관조되는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 엎드려 흠이 된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달콤한 일이며,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닿는 모든 정신적이면서도 진실한 접촉은—우리 영혼이 그분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달콤하고 복된 것이다. 이 경건한 두려움의 힘은 크다. 그것은 영혼과 영, 사지와 뇌를 갈라놓을 정도로 미치며, 마치 그 영적인 작용으로 영혼과 육체를 녹여내고 가늘게 만드는 듯하다. 이를 느끼는 자는 엎드려,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땅속 깊은 곳, 모든 피조물을 관통하여, 아무것도 없는 심연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태에 머무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 이 상태는 그의 존재 속에 위로가 되는 시원함을 퍼뜨리는데, 어쩌면 그것이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해 취해야 할 참된 자세이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피조물의 본

질이 신성의 힘과 작용을 통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스며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경외심의 열매는 언제나 정신의 맑아짐, 상쾌함, 정화이다. 번개가 공중을 가로지르며 그곳의 온갖 불순물과 잡질을 태워 공기를 맑게 하듯이, 경외심 속에서 신성의 불꽃은 영의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도가니 속의 금처럼 그것을 정화한다. 그러므로 완전함의 단계들을 거친 모든 이들은 이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이 경외심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서 그것은 필수적인 의무이자, 동시에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제시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분의 모든 거룩한 자들아”(시 33:10). “주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떨림으로 그분을 기뻐하라”(시 2:11). 그러나 초기의 두려움과 완전한 자들의 이 두려움을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죄에 대한 형벌을 기대하며 고통을 주고 공포와 떨림을 안겨준다. 이 두려움은 죄인이 처음 깨어날 때 본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과도기적인 행위로서 의무로 전환될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영혼 속에 영원히 머물 수도 없다. 비록 때로는 그 이후에도 나타나며 격렬한 정욕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말이다. 온전한 자들에게 고유한 참된 두려움은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것은 사랑을 맛보면서 생겨나며, 사랑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유대 속에 머물러, 때로는 우리의 영을 상쾌하게 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해준다. 그것은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곳에 이르러 그것을 영원히 영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의무인데, 오직 그 안에만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서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스스로 일깨우고 길러내는 방법은 그 본성에 따라 결정된다. 가장 깊이 몰입하고 초연한 영적 상태에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동시에 깨닫기 위해 마음을 다해라. 이를 더 자주 실천하라. 특히 아침, 저녁, 한밤중에... 이 행위가 습관이 되면, 영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끊임없는 경외심이 뿌리내릴 것이다. 반대로, 산만함, 자만, 하나님을 잊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적들이다. 그것들 때문에 그 경외심은 물에 닿은 불처럼, 바람에 불어 꺼지는 촛불처럼 사그라든다.

bb) 하나님은 온전하시니,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라. 비유를 이어가자면, 왕좌의 방에 들어선 사람은 경외심을 느낀 후 다시 자신을 그곳으로 이끈 대상에 시선을 돌리게 되며, 이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분별하기 시작한다: 얼굴과 왕관, 포르피르, 왕좌, 그리고 그 모든 장식물들—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완전함을 깨닫고 감동을 주체하지 못하며, 때로는 찬사의 표시를 보내기도 한다. 이제 그는 왕에게 이성적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에 이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과 자학에서 비롯된 마음이 내면의 평온으로 돌아와 겸손하게 거룩한 신학적 묵상에 몰두할 때, 그때 그의 내면의 눈에는 하나님의 완전함이 드러나며, 그 완전함은 각자의 수준에 따라 이해됩니다. 이 완전함들은 상호 연합과 접촉 속에서 서로 구별되면서,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함의 한 모습을 놓고 각인시킨다. 이는 유한하고 피조된 마음이 낼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우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 즉 관상이 우리 영의 내적 성전에 찾아와 그 빛과 위엄으로 가득 채울 때, 누가 그 기쁨과 황홀함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의 모든 뼈, 즉 그의 존재를 이루는 가장 미세한 움직임까지도 내면에서 억누를 수 없는 어떤 환희 속에서 외치기 시작한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함을 관조하는 영의 황홀한 기쁨은 이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찬양, 즉 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찬양의 상태이다. 말로 표현되는 하나님에 대

한 찬양은 그 열매이지만, 언제나, 그야말로, 더 낮은 차원의 것이거나, 하나님께만 아니라 영 안에서 느껴지는 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주님의 기적을 노래하기에는 그 어떤 말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지어 바치는 모든 이가 인정해야 하며, 실제로 인정하고 있다. 영 안에서 드리는 하나님 찬양은 가장 기쁜 상태이자 경탄과 기쁨, 영적 환희의 상태이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이 찬양받고 높이 칭송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과 그분의 모든 일, 심지어 우리와 관련된 일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찬양의 행위 그 자체에서는 다른 모든 것이 배제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의 완전함만이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이타적인 제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의 참된 삶, 혹은 신성한 생명에 대한 참된 참여라고 말할 수 있다. 경외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어 마치 신성의 불로 우리를 타오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 찬양 속에서 우리 영은 하나님 안으로 스며들거나 받아들여져 그분의 온전한 복락에 동참하게 된다. 이 경지에 이르거나, 그 경지로 들어올려지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은 영에게 자연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는 이를 통해 주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이신 분께 마땅한 경의를 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고 명하고 있으며, 이 찬양의 본보기도 제시되어 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이 경지에 이른 모든 성도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묘사하고 우리에게 찬양의 노래를 남겼다. 이 찬송들을 깊이 생각하고 집중하여 읽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시작이자 일부이다. 오직 이를 통해서만 사람은 영적인, 마음속의 하나님 찬양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찬송들은 그를 양육하는 스승들이나,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형성된 후에도 이를 버려서는 안 된다. 위로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 번 올라간 사람이라도 그 사다리를 버리지 않으니, 그 후에도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통은 우리에게 전해진 찬송으로 매번 찬양을 시작해야 하며, 그 후 성령()이 찬양하기 시작하면 침묵해야 한다. 찬양의 행위 자체는 온전한 완전함 전체에 머무르거나, 어떤 하나의 완전함에 머무르거나, 혹은 하나에서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냉정하게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속성들이 그러하다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과 함께 그 속성들을 생생하게 느끼는 것이다. 가능한 한 자주 이러한 상태에 자신을 두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보다 더 잘 영을 온갖 세속적인 불순물과 모든 감각적인 것에서 해방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행위를 통해 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을 맛볼 자격을 얻기 때문이다.

gg)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모든 것을 이루신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왕이 자신의 왕좌 높이에서 주위를 둘러볼 때, 참석자 중 누구라도 마치 왕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마치 그곳에 자신과 왕뿐인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잊은 채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도덕적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본체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온전히 계시고, 겉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내면 깊은 곳까지 보시며, 게다가 그분이 보시는 대상자가 스스로를 보는 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십니다.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하심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적·외적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의 눈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분의 시선 아래에서 그분의 의식을 가지고 처리해야 하며, 다른 모든 것이 생각과 주의에서 사

라지고 오직 행동하는 자신과 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행함만이 남도록 해야 한다; 혹은,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필수적이다. 네가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네 모든 행실은 그분께 드러나 있거나 그분의 면전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왜 진리를 숨기고 거짓으로 바꾸겠는가? 이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태도를 더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요구하는 바이다. 아들이 아버지의 면전에서, 혹은 신하가 왕의 면전에서 자신의 신분을 잊고 행동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가 *내 앞에 계신 것을 보리라*”(시 15:8)는 말씀대로, 이를 자신의 성품으로 삼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자각한다. 이를 돕기 위해, 혹은 이러한 감정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어떤 이들은 성 다윗처럼 자신의 오른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들은 자신 위에 굳게 자리 잡은 하나님의 눈을 묵상하며; 또 어떤 이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빛을 마치 일종의 영적 대기처럼 자신 주위에 펼쳐, 마치 성막 안에서처럼 그 안에 숨어 영이 떠나지 않고 맴돌거나, 안전한 피난처에 머무르듯이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상이나 모습이 없으시므로, 진리를 사랑하는 이들은 온갖 방법으로 형상 없이 단순한 생각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눈앞에 뵙는 경지에 이르려고 애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걷는 데 있어 완전함의 정점이다. 이 행보의 열매는 셀 수 없이 많으나,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말과 생각, 소망, 행실의 순결과 흠 없음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으로 스며든다. “*내 앞에서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창 17:1). 성 다윗은 주님을 눈앞에 두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 했으니, 즉 어떤 잘못된 움직임도 허용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시 15:8). 여기서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의를 피하십시오. 바라보는 행위 자체가 불의를 멀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계명과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비롯되는 또 다른 열매는 일종의 영적 온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것이라면, 그 시선은 차가울 수 없다. 하나님을 뵙는 데에 점점 더 완성되어 갈수록 그 온기도 커진다. 나중에는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 하나님을 뵙는 것과 그 온기가 모두 하나된 끊임없는 영의 활동으로 변모한다. 이러한 영의 태도는 장차 닥칠 온전한 행복 속에서의 하나님을 뵙는 일에 대한 가장 훌륭한 준비이다. 이 상태에 확고히 자리 잡은 자는 이미 낙원의 문턱에 서 있으며, 낙원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모르거나, 그분을 생각하다가 이것이 불쾌하고 두렵고 많은 의무를 지운다고 느껴 그분께 등을 돌리는 자는 스스로를 돌보아야 한다. 이는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해서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죄는 하나님을 잊는 것, 즉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며, 방탕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잠을 방해하지 않게 하며, 죄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경탄, 경외심, 기쁜 찬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걷는 삶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포괄합니다. 이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사람 자신과 모든 피조물이 생각에서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마음가짐들이 서로를 낳거나, 하나에서 다른 하나

로 파생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영적인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말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마음가짐의 자극과 발전이 여기 제시된 방식과는 달리,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일은 가장 쉽고 편한 것이므로 먼저 시작되며, 다른 것들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 자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모든 전능하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익숙해진다. 이 단계까지 이른 자는 신성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경외심을 얻는다. 그 후 하나님 안에서 구별되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상승하는 자는 경이로움을 맛보게 된다. 이것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이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친 자는 가장 복된 상태에 이르며, 그 세상이 오기 전부터 그 안에서 살아가며, 경이로움에서 경외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로 넘어가며, 마치 어떤 집 안에 있는 것처럼, 빛과 천상의 순결로 가득 찬 신적 관상 속에서 걷거나 영적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다!

이러한 삶에서 유일하고 피할 수 없는 조건은 자기 자신과 모든 피조물로부터의 초탈, 즉 무정(無情)이다. 영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초월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하며, 그곳으로 썩어 없어질 어떤 것도 가져가서는 안 된다. “어찌하여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마태복음 22:12)라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집착이라도 품고, 마치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것처럼 그곳에 들어간 자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편견이든 간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영혼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그 안에 아침이 깃들기도 한다. 그러나 묶인 새가 아무리 날아가도, 아주 작은 부위에 묶여 있음에도 다시 땅으로 떨어지듯이; 먼지가 들어간 눈이 눈을 뜨더라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듯이; 마찬가지로 어떤 집착을 가진 자는 마치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거짓 환상과 환상적인 착각이 생기며, 동시에 우리의 모든 약점을 이용하기를 좋아하고 능숙한 사탄의 유혹도 함께 찾아온다.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현혹되어 영원히 멸망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를 비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구하는 이들의 열정과 소망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단지 신성한 지혜를 지닌 선조들이 남긴 현명한 규칙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즉, 하느님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잊지 말고, 후자부터 더 엄격하게 시작하거나 우선적으로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자는 어떤 면에서 영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영은 자신을 움아매는 감각적 속박에서 벗어나면, 신성한 영역 외에는 들어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초탈의 단계에서는 먼저 분노를 통해 감각적 대상들로부터 마음이 고통스럽게 멀어지는 것, 그다음은 그것들에 대한 무감각,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관조하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소망하고 능력이 있으며 부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삶의 방식, 즉 수도 생활이나 은둔 생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때 비로소 그 두 가지 모두 온전한 순결과 성숙함 속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방식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큰 어려움과 장애물과 맞닥뜨리게 된다. 세상에서 떨어져 하나님 안에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나중에 사역을 위해 공동체 생활로 나가거나 부름을 받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삶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효력을 발휘하며, 그 사람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분의 축복을 모든

이에게 전하는 자이다... 그러나 다시 말해, 은둔 생활로 들어가는 것 또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선조들의 방식대로, 길고도 위험한 자기 수련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곳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라가며, 마침내 무엇을 얻게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대로, 그분의 성령으로 내면의 사람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시게 하시며, ... 모든 성도와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엡 3:16-19)!

b)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 그분의 창조와 섭리를 묵상함에서 비롯됨

b)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 그분의 창조와 섭리를 묵상함에서 비롯됨

우리의 현재 삶이라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러한 소멸의 경지에 머무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의력은 필연적으로 그곳에서 벗어나 삶의 일시적인 관계들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매 순간 그분을 만나게 되는데, 비록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분의 반영 속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일련의 필수적인 감정과 태도가 비롯되는데, 이는 세상, 특히 인간에 대한 그분의 관계를 관조함으로써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존재와 완전함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단지 창조주이자 섭리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완성자로도 관조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온전히 의로우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신 창조주이자 온 세상, 특히 인류와 너를 돌보시는 섭리자이시다. 따라서,

가) 너는 온전히 그분의 것이다. 그러니 그분께 삶의 주인으로 순종하며, 그분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느끼라. 생명과 힘의 시작과 그 보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께서 주셨고, 그분께서 유지하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다*”(행 17:28).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오른손 안에 있음을 알고 느껴야 한다. 그 오른손은 우리를 무의미의 심연 위에서 붙들어 주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매 순간 그곳으로 떨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외심과 세심한 주의로 이 오른손을 굳게 붙들어야 하며,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때로는 그분께, 때로는 우리가 매달려 있는 그 대상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오른손에 입을 맞추고, 마치 그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는 듯한 느낌을 얻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이 감정이 도덕적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이 감정은 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거나 율법 안에 머물기로 결심하는 데 있어 자유를 위한 가장 깊고 확고한 버팀목이 된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때에도 이 감정은 그 결심을 되살리거나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며, 반대로 그 감정이 약해지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척도가 된다. 눈앞에 왕을 보는 자는 그분의 손짓 하나에 불 속이든 물 속이든 기꺼이 뛰어든 준비가 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자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것을 이행하고자 참을 수 없이 달려든다. 하나님께 대한 의존감은 우리 영혼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지만, 감각적 욕망과 걱정, 오락에 깊이 빠져 있어, 마치 재에 파묻힌 약한 불꽃처럼 그 무게 아래서 솟아나지

못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 감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오직 이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외부의 오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거나 밤을 활용하고, 마음이 산란해지는 것들로부터 벗어나 내면의 성소로 들어가라; 궁핍함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것에 대한 근심을 버리고, 많은 것을 비워내어 오직 하나만 남기라; 여기에 육체를 행동과 생각으로 절제하는 것까지 더한다면, 우리 영혼에 본래 내재된, 우리 삶의 주님께 대한 의존감이 이 과정에서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부정적이고, 마치 준비 단계에 불과한 수단들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진리, 그리고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 스스로 명확히 깨닫기 시작하라; 삶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가 결코 우리의 계산대로가 아니라, 다른 어떤 법칙들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깊이 사색하라... 전반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을 일깨우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그 힘을 유지하고 생생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오직 그와 함께할 때만 도덕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자신과 타인을 도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뿐이다.

bb) 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온 것이다. 영혼과 육체의 능력과 특성, 삶의 환경, 지위와 신분, 출생지, 양육, 직무, 생계 수단, 질병과 건강, 슬픔과 기쁨, 승진과 강등, 중생, 구원, 약속된 왕국, 즉 우리 안에 있고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분은 만물의 유일한 주재자이시며, 그 누구도 그분의 뜻을 어긋나게 할 수 없고, 그분의 뜻에 반하여 그분의 계획에 끼어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특히 나와 너,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사도는 가르치니,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모든 일’이라고 말할 때, 기쁜 일과 기쁘지 않은 일의 모든 구분을 배제한다. 즉, 온갖 종류의 슬픔에 대해서도 기쁨에 대해 감사하는 만큼 감사해야 하며, 작은 일에 대해서도 큰 일에 대해 감사하는 만큼, 과거와 현재,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우리와 같은 합당하지 않은 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의 위대함에 대한 기쁜 감정이다. 이 기쁜 감정이 슬픔에 의해 억눌리지 않을 때, 혹은 슬픔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여질 때, 거기서 솟아나는 선한 마음가짐이 바로 평온함이다. 지속되는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온함은 기독교적인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신의 처지에 대한 경건한 마음가짐의 궁극적인 경지는, 단순한 감사를 넘어 더 높은 감정인 자신의 처지와 모든 것에 대한 만족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섭리에 대한 이러한 모든 감정 변화와 태도는 건전한 정신에서 자연스러운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헛되고 자만심에 찬 이기주의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성찰을 통해, 혹은 몇 가지 진리를 스스로 명확히 깨닫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진리를 깊이 인식할 때 앞서 언급한 감정들이 강하게 솟아납니다... 이 모든 것은 그 태도 자체의 본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즉,

1) 감사는 하나님의 과분한 자비에 대한 감정이다. 그러므로 창조와 섭리, 특히 구속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를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하고, 네가 이 자비들로 온전히 감싸여 있음을 깨닫도록 하라. 어떤 움직임 하나하나가 자비이며, 네가 숨 쉬는 횟수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 한 순간이 은혜와 은혜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길다는 것—혹은 네가 그 은혜 속에 끝없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 후, 이 모든 것이 마땅히 받을 자격이 없는 것임을, 네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아니라 끊임없는 형벌만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떠올릴 때, 그때 영혼은 무감각하게 남아 있을 수 없으며, 하느님의 사랑의 온기에 데워지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함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의식의 정도가 바로 감사의 정도이며, 그 감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척도이기도 하다. 반대로, 은혜를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며 그에 대한 권리를 내세우는 곳에서는, 불감사가 마음을 채운다. 하느님께 불감사를 보이는 자는 큰 이기주의자이자 동시에 눈먼 무지한 자이다.

2) 평온함은 온갖 종류의 슬픔과 고난을 기쁘게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감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과 재앙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외에도,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혜택들을 명확히 통찰하는 것이며, 게다가 그 혜택들은 실체적인 것이며, 슬픔에서 우연히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슬픔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정욕의 정화, 겸손의 확립, 죄의 버림, 인격의 강인함,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이를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영혼 속에 처음에는 소망의 싹이, 그 다음에는 슬픔과 재앙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솟아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싹트는 감정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가 단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고난, 즉 어떤 혜택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빼앗겨도 마땅할 만한 것들까지도 감당할 수 있다는 분명한 인식을 더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보다 적다는 그 확신만으로도 마음의 병은 이미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다. 게다가 슬픔 속에서 오는 선함까지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 팔을 벌려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평온함이다.

3) 인내는 지속되는 평온함이다. 인내한다는 것은 단순히 슬픔을 견디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슬픔이 닳았을 때, 도대체 어디로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쁨과 명량한 마음으로 견디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는 평온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를 마음속에 유지하려면 평온함을 유지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슬픔의 지속 기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슬픔이 길어질수록 더 좋다는 확신을 마음에 심어야 한다. 우리는 일시적인 시간뿐만 아니라 영원히 고통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인내는 특히 인내하는 자가 끝을 보지 못할 때 고갈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슬픔의 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이 느슨해질 가능성을 없애면, 평온함을 흔들게 하는 요소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내면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잡지 않는 사람은 곧 인내심을 잃고, 결국 불평과 심지어 절망에 빠지게 된다.

4) 만족이란 슬픔이나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결핍을 느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마음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이 빼앗아 가도 여전히 충분하며, 아무리 적게 주어도 그는 여전히 만족한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섭리에 대한 모든 감정과 마

음가짐을 둘러싼 외적인 울타리와의 같다. 이는 선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느낌과 모든 별을 받을 만하다는 느낌을 동시에 품은 채로 베푸시는 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어떤 자선이라도 만족해 한다. 이것이 바로 만족한 사람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감사의 마음을 모든 형태로 일깨울 때, 우리의 묵상을 어떤 측면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속성, 즉 전능, 자비, 지혜, 그리고 공의이다. 이 속성들 각각에 대한 묵상은 풍성한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신적으로 강인한 것은 아니므로, 이 일에 경험이 풍부한 현자들이 작성한 다양한 슬픔의 상황에 대한 위로의 글과 감사의 표현을 가지고 알고 있는 것이 좋다. 기쁨과 슬픔은 그토록 어디에나 널려 있으니!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면, 감사와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 인내하는 마음도 어디에나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정화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만 이러한 감정들이 온전히 발휘됩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이를 찾아보라! 성 금입(Zlatoust), 성 디미트리, 로스토프의 기적행자, 성 티호노 보로네즈스키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볼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불행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책 한 권을 통째로 집필하기도 했다.

bb) 네게 일어날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정해진 결말로 이끌고, 이성 있는 피조물들도 이끌지만, 오직 그들이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조건 하에서만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당신이 만물의 주재자이신 그분께 완전한 복종을 나타내고, 자신의 뜻과 계획, 그리고 방식을 포기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서 신성한 세계 통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필수적인, 자신의 미래에 관한 여러 가지 태도가 도출됩니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될 대로 되라”고 말하며, 불확실하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선택을 감행하지 않는다(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오히려 수단이 목적과 부합함을 분명히 인식하거나, 지칠 줄 모르는 냉철하고 성숙하며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의 질서를 어느 정도 꿰뚫어 보되, 자신의 삶과 행위가 어떻게 끝날지, 그것이 자신과 타인에게 선이 될지 악이 될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과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행실을 하나님께 맡겨, 그분께서 지혜롭고 선하며 의로운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를 잘 다스리시도록, 어떤 것은 잘라내고, 어떤 것은 더하고, 어떤 것은 과정과 방향을 바꾸시도록 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무기력함이 아니다. 그것은 활발한 활동을 병행하지만, 그 활동에 집착하지 않으며, 반드시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하지 않는다. 또한 그것은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 애쓰되, 그 일이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며, 그것이 선을 위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며, 원하신다면 악을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2) 이것의 가장 직접적이고 자연스러운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평안이다. 이 평안은 육체의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었을 때 육신에서 나타나는 나태와 함께 흐르는 쾌락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와 일을 맡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참되고 영원한 선을 위해 최선의 방식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

는 완전한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영의 평안이다. 이는 영혼과 육체를 갇아먹는 악한 ‘과도한 근심’을 잘라내는 것이며, 이 근심은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평안을 주지 않고, 때로는 의심으로,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를 뒤흔든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은 사람은 그렇게 동요하지 않으니, 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이 악한 정욕을 잘라냈기 때문이다.

3) 이러한 감정들에 더해, 자신의 미래에 관해 희망이 찾아온다. 희망은 앞서 언급한 두 가지의 딸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은 자는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번영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인류의 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모든 일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기대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소망을 품은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의 힘은 변하고, 다른 사람들은 변하고, 통치자들은 변하겠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소망은 무력감과 무기력함이라는 병을 치유하는 위로의 감정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신할 때 이 마지막 감정으로 마음이 따듯해집니다. 그 희망은 건방지지도, 제멋대로도 아니며, 의심할 여지 없이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며 누구에게나 주어질 복뿐만 아니라, 본능적으로 절실히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얻게 된다. 소망은 마치 이미 기대하는 것을 가진 것처럼 그 높이에 이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다시 시간, 장소,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즉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마 21:22; 막 11:24).

4) 그러므로 소망 아래에서 간구나 기도가 싹트는데, 이는 곧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전능하시고 모든 선하심을 지니신 하나님께 자신의 절실한 필요를 아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필요한 도움을 내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간구 속에는 희망도 있지만, 모든 간구가 희망인 것은 아니다. 희망은 간구를 완성하거나 그 위에 서서 마치 간구를 덮어주는 듯하며, 간구는 아래에 서서 희망의 그늘 아래 하늘로 올라간다. 소망은 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과 자신의 절박한 필요로 이끌어 내립니다. 그러므로 간구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극심한 궁핍에 대한 진실한 자각, 혹은 소망으로 녹아내리는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절박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 나에게 피난처도 도움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우미이십니다!”라고 외칠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 다음 그 절박한 감정 속에 머물며, 끈질긴 간구와 무력함으로 인해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고통받는 자들을 보실 수 없는 듯하시나, 오직 무력한 자들이 스스로 그분께 얼굴을 드러내거나 그분 앞에 나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기도 속에는 헌신도 있고, 평안도 있으며, 희망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궁핍의 느낌입니다... 그러한 느낌은 자비를 받아들이기에 잘 준비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 그 감정이 싹트기를 기다리시며, 도움을 받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이루어지도록 그 감정이 싹트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우십니

다. 이때 대상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로운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처럼 미래를 바라보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간구하며,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위안을 얻으며, 온전히 그분께 의지합니다.

가) 감정과 마음가짐 – 만물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함에서 비롯된

c) 감정과 마음가짐 – 만물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함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의로우신 만물의 완성자이시니, 이를 위해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소망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습이 변하고, 주님의 거짓 없는 약속에 따라 모든 산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참된 모습의 삶, 즉 영원하고 변함없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반면, 현재 세상과 피조물들의 존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며,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된 결말로 이끄십니다. 모든 것이 성취될 때, 그분은 모든 것이 향하는 바를 실제 행위로 이루실 것입니다. 곧,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원한 왕국을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의 종말과 두려운 심판, 어떤 이들에게는 복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임은 의심할 여지 없이 압니다. 그러므로...

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즉,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기다리되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종들처럼 되라. 그러므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그분을 맞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나중에 부주의함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bb) 주님께서 우리 생애 동안,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오실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의 죽음이 그분의 재림을 앞지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강림을 우리가 이 일을 생각하는 바로 이 순간보다 더 멀리 미루거나 늦추는 것을 감히 할 수 없으므로, 마찬가지로 죽음도 염두에 두고, 죽음에 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 앞에 불려가 각자의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을 그 사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은,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며, 말하자면 그 기다림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의심할 여지 없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든 다음 순간이든 죽음이 찾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bb) 시간은 알 수 없으나, 무엇이 일어날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 일어날 일들, 즉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죽음 하나만 닥쳐도, 그 뒤를 이어 나머지 모든 것이 즉시 뒤따를 것이며, 게다가 그 결정은 너무나도 단호하여, 이곳에서 정해진 대로 영원토록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매 순간을 깊이 묵상하라. 네가 묵상하든 하지 않든, 이미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gg) 만약 모든 것이 이렇게 뜻밖에도 변할 수 있고, 앞으로 닥칠 일들 중 그 어떤 것도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의 상태가 도래할 수 있다면; 만약 그곳에 우리 삶의 진리가 있고, 이곳은 단지 시작이자 준비에 불과하다면, 많은 것을 쌓아두지 마라: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이는 이 땅에서 마치 낯선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도록 요구한다. 이는 아무것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얻지 말라는 뜻

이 아니라, 명예, 영광, 부 등 무엇을 얻든, 무엇이 오든 간에,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미래의 고향에 두라는 뜻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낯선 것, 친숙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라. 그것을 거부하거나 경멸하지는 말되, 낯선 것, 일종의 짐처럼 받아들이며, 자신의 고향에서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하여 하루빨리 영원한 거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것의 마지막 끝을 바라보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기다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마지막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경건한 마음가짐의 전체적인 순서입니다:

–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분에 대한 믿음에 이르고, 이 믿음으로부터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이고 자기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드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열정적으로 행하고자 한다.

– 하나님 안에서 산다:

이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분과의 교제 속에 굳건히 서게 된 후, 그분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정적인 영으로 행하며, 지극히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분의 무한한 위엄 앞에 경건히 엎드리며, 경이로움 속에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심에 깊이 빠져든다.

– 그리고 신성한 질서 안에 머무르며:

이처럼 하나님 안에 머무르며, 존재와 삶의 신성한 질서도 경건하게 공경한다.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느끼며, 그분께 대한 완전한 의존을 자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한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만족한다; 모든 미래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믿으며,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 안에서 평안을 얻으며, 희망을 품고 기도한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는 그 끝을 기다리고, 죽음을 준비하며, 최후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이처럼 경건한 영적 기분을 표현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인의 의무를 구성하는 세 가지 감정과 태도가 뚜렷이 구분된다. 모든 것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임이 분명하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과 그분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은 마치 그 삶을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수단이다. 그러나 이 관계를 마치 여기에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니, 여기서는 전체 구조에서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필수적이며, 어떤 것을 빼면 전체에 손상이 된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소한 혼란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진다. 우리 몸이 그렇듯이, 체액을 빼앗으면 죽고, 신경을 빼앗으면 역시 죽듯이, 여기에서도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지어 주시고, 내 속사람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d) 기도 – 믿음과 경건함 속 삶의 그릇이자 무대

d) 기도 – 믿음과 경건한 삶의 그릇이자 무대

아아) 기도의 중요성

아아) 기도의 중요성

믿음에 대해 그것을 표현하는 특별한 행동들이 있는 것처럼, 경건함의 표현이 되는 행동들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이 바로 기도이다. 기도는 온전한 영적 삶의 그릇이자 무대이며, 움직이고 활동하는 영적 삶 그 자체이다. 과연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드림은 앞서 언급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모든 경건한 감정과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회개와 믿음, 하나님과의 화해, 경외심, 인내, 재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모든 필수적인 행위들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그분을 향하여 드러지고, 이 드림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건한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기도도 함께 움직이며, 반대로 기도 속에 머무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감정들 중 하나 속에 머무는 것이며, 한 감정에서 다른 감정으로의 전환, 마치 경건한 감정들의 파동과 같은 것은 기도를 복돋우는 것이다. 기도한다는 것은 경건한 감정과 마음가짐을 각각 따로, 혹은 모두 함께, 또는 차례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이며, 다시 말해 경건의 생명과 영을 자극하고, 소생시키며, 불타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경건이 없으며, 경건이 없는 자에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만약 경건함이 우리 영의 생명이라면, 왜 오직 기도할 줄 아는 자만이 영을 가진 자라고 불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영의 호흡이라고 정의한다. 기도는 바로 영의 호흡이다... 호흡할 때 폐가 팽창하여 생기를 주는 공기의 원소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이 열리고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그분과 하나 됨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은사를 받는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받아들인 산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나가 몸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우리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의 모든 것을 소생시킵니다...

bb) 선한 결과

bb) 선한 결과

여기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다음과 같은 선한 결과들이 도출된다. 기도는 영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일종의 영의 신성화라고 할 수 있다. 향유 공방에 있는 사람은 향유로 가득 차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은 신성으로 충만해진다...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신성은 그 자체로는 단순하고 단일하지만, 우리 영의 세 가지 힘에 따라 마치 세 개의 흐름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성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깨우치고, 다른 하나는 의지에 영향을 주어 그에게 굳건함을 주거나, 힘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하며, 세 번째는 마음에 영향을 주어 삶을 고양시키거나, 은혜로운 삶의 불꽃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임이 분명하며, 열심 있는 기도자들이 왜 곧 영적 완전함의 높은 경지에 이르고, 영의 싹과 열매를 맺으며, 영적으로 충만해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bb) 조건

bb) 조건

이제 참된 기도의 진행 조건들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기도가 고귀한 삶이자 영의 활동이라면, 그리고 이 영의 활동이 우리 안에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한 다른 이들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라면, 기도

는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소멸시키지 않고서는, 즉 자기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참된 경건함 또한 그것 없이는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감각과 정서적 감정이 깃든 기도는 악취 나는 오물 더미를 태우는 것과 다름없다... 바로 그 때문에 성스러운 은둔자들에게서 우리는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희생이 강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곧 그들을 영의 전달자로 만들었고, 대개는 오직 그들만이 그러했다. 평범한 생활 방식은 기도의 완성에 그리 유리한 편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되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모든 것이 영혼을 끌어내리고, 온 힘을 다해 비로소 도달한 높은 곳에서 영혼을 다시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gg) 기도문을 통한 양육

gg) 기도문을 통한 수양

기도의 이러한 기원과 의미를 고려할 때, 기도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경건한 영을 끊임없이 간직해야 하며, 그것도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라*”(살전 5:17),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모든 때에 기도하라*”(엡 6:18).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 즉 기도 행위에 이르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기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기도들은 끊임없는 기도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자 평생 동안 이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외적 질서와 특별한 내적 마음가짐이 모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도에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한적하고 기도 전용으로 정해진 곳이어야 하며, 성화상 앞에서 촛불이나 등불을 켜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 혹은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 정해진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며, 정좌하거나 무릎을 꿇은 특별한 자세로, 경건함과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 임하는 자는 무엇보다 먼저 산만한 마음을 되돌리고 정신을 차려 모든 근심을 떨쳐내거나, 가능한 한 그 근심을 가라앉히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생생하게 의식해야 한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네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마태복음 6:6)고 명하신 대로, 내면의 기도 “*방*”을 만드는 것과 같으며, 일시적으로 세워진 성막과도 같다.

이렇게 자리를 잡은 후, 기도 자체를 드리라: 조용하고 경건하며 이성적으로 선정되고 정해진 기도문을 읽되, 그 사이에 십자 성호를 긋거나 허리를 굽히거나 땅에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는 경배로 간격을 두며, 읽는 내용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에 상응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라. 마음이 따뜻해지거나 어떤 감정이 일면, 멈추고 그 감정이 마음속에 충분히 스며들 때까지 계속 읽지 마라. 그 감정이 약해지면 다시 시작하고, 감정이 되살아날 때 다시 멈추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 수행의 전부이다...

dd) 단계

dd) 단계

어떤 이들은 이러한 기도의 방식에 물질적이고 본능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육체의 훈련은 잠시 유익할 뿐*”이라고 가르칩니다(딤후 4:8). 반면 어떤 이들은 기도에서 모든 외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내적인 것만을 남기려 한다. 이는 오래된 오해이다. 이 오해는 아주 초기에 이미 성부들에 의해 지적되고 배격되었다. 열매에는 꽃이 앞서고, 꽃에는 잎이, 잎에는 새싹이, 그리고 가지의 생기가 뒤따른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점진성이 필요하듯,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것은 필수적이다. 내적 기도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싹트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로 외적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성경 읽기, 절, 철야 기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하며, 어떤 이들은 기도의 싹이나 기도의 영이 일으키는 미묘한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 꽤 오랫동안 자기 수련에 힘씁니다... 기도는 지극히 높은 선물로서, 사람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기 위해 마치 아주 작은 물방울 한 방울씩 내려지는 것처럼 주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동등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기도의 각 단어마다 그에 상응하는 감정이 동반되거나, 내적으로 움직이는 기도의 움직임이 자신의 말로 표현되고 드러납니다...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기도이며, 거의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입니다. 경건한 영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흔한 일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적인, 즉 영적인 측면이 기도에서 우세하며, 이때는 말도, 절도, 심지어 묵상도, 어떤 형상도 없이, 일정한 침묵이나 무언 속에서 영의 깊은 곳에서 기도의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는 시간이나 장소, 혹은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며, 결코 중단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행위, 즉 변함없이 지속되는 것으로 불린다. 이것이 바로 내적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쳐야 하며, 따라서 기도를 위해 금식, 절, 기도문 낭독, 철야 기도, 무릎 꿇기 등 육체적 행위의 모든 수고를 감내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친 자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마카리오스 대성인이 말하듯이, 그저 절만 해도 영은 이미 기도 속에서 따뜻해집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음절을 조합해 단어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이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얕은 강에서도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깊은 바다로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설령 누군가 기도의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더라도, 외적인 기도는 멈추지 않고 내적인 기도에도 함께 참여한다. 단지 첫 번째 경우에는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보다 앞서지만, 여기서는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보다 먼저일 뿐이다. 수고와 경험을 통해 외적인 것에서 내적인 것으로 올라가는 법을 아직 배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적인 것 하나만 다룰 수 있겠는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온전한 충만함과 힘,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바로 기도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입니다. 기도의 힘은 그토록 크고, 그 중요성은 그토록 높습니다!.. 기도는 곧 모든 것입니다: 믿음, 경건, 구원. 따라서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성부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기도의 지침서인 『 』를 누군가 집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에 이르는 지침서와 다름없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법을 아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3) 거룩한 교회와의 교제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이제 조금 뒤로 돌아가서, 기독교 정신의 경건한 기분을 이루는 감정과 마음가짐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기독교적 경건의 정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즉 구원의 길에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구세주와 하나 되는 길에서 우리 영혼이 어떤 감정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구세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어떤 태도로 찬양해야 하는지는 이미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매개로 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을 느껴야 하며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후, 이 구원을 모든 이가 누리고 체화할 수 있도록 땅 위에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거룩한 교회는 땅 위에서 유일한 구원의 집입니다. 그 밖의 사람은 멸망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불순종하여 떠나간 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8:17).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은 대홍수 때 멸망하였고, 교회에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도 멸망할 것입니다. 교회와의 살아있는 연합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 연합 안에 머무는 것은 신자의 본질적인 의무입니다.

교회와의 살아있는 연합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인정하고 깊이 체감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교회는 구원을 위한 은혜의 수단이 담긴 그릇이자 동시에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보금자리이므로, 우리는 그 은혜의 수단과 구원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생하게 체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 필수적인 감정, 마음가짐, 그리고 행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가) 구원을 위한 은혜의 수단의 수용처로서의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비롯된 감정과 마음가짐

a) 구원을 위한 은혜로운 수단의 보금자리로서의 교회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

교회는 구원의 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본질적인 영적 필요는 오직 교회 안에서만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진리를 아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깨달음을 주는 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약한 힘을 강화할 힘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베푸는 자입니다. 위험과 원수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보호해 주는 방패입니다.

교회가 우리와 맺는 이 세 가지 관계에 따라, 우리가 교회에 대해 져야 할 책임도 결정된다.

가) 구원받는 이들에게 은총의 수단을 베푸는 이들에 대한 관계. 그러나 모든 관계의 최우선 순위에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교회가 구원의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작용하는 매개체로서의 이들에 대한 관계가 또 하나 놓여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깨달음과 힘, 그리고 보호가 모두 거룩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지는가? 직접적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거룩한 교회 안에는 이에 상응하며, 우리에게 교회의 구원 수단을 전달하는 데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없이는 하늘에서 은총이 내려오지도 않고, 땅에서 하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우리에게 유익하게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거나 우리를 통

해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자가 이루어지려면, 교회 내에 특히 그 일을 위해 지정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1) 이 인물들의 신적 제정성.

이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즉, 구원의 은총을 담은 수단들을 그 안에 겸비하고 있는 교회에는, 교회의 뜻에 따라 행동하며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 교회를 대신하여 다른 이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것을 전달해 줄 특정 인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목자들로서, 최고 권위를 가진 주교단과 그 아래에 속한 사제단을 구성하며, 사제단은 주교단의 분화 또는 확장이다. 주님께서는 거룩한 사도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왕국을 맡긴다*”(눅 22:29)고 말씀하셨으니, 즉 너희에게 그것을 세우게 하고(고전 4:1; 벡전 4:10) 지키게 하겠다는 뜻입니다(골 4:17; 베드로전서 5:2). 그 당시 사도들은 모든 직분을 스스로 겸임하고 있었다. 그 후 그들은 다른 이들을 자신의 자리에 세우며, 그들에게 왕국에 들어온 자들 가운데서 왕국을 지키라고 유언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들을 사도로... 또 목자와 교사로 세우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다*”(엡 4:11-12). 성도들은 목자들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이는 그들에게 독자적인 힘이 있거나, 그들 안에 부정확한 힘의 근원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땅과 하늘을 잇는 중간에 서서 때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때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가까이 모시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는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 지금도 목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참조: 총대주교 서한, 제10조). 주교직은 목양의 근원이다. 주교직은 사제직을 통해 온 세상, 특히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쏟아 붓는다. 따라서 아무도 교회에 의해 유지되는 정해진 제도를 통해 성별된 이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며,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구원의 집안 관리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목회자들에 대한 태도이다. 이 점에 있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음과 같다.

2) 그들에 대한 의무적인 감정과 태도.

우리는 목회의 높은 가치를 확신하고 이를 믿어야 하며, 그들과 진심 어린,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며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즉 목회를 진정으로 활용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매개체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활동을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적합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다중 지도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매개체, 즉 수많은 주교와 사제들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bb) 성교회의 은총의 수단을 활용하는 문제에 관하여.

목회를 통해 교회에 입교한 자는 교회의 모든 회복적 은총의 힘에 참여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회 구성원으로서 특정 감정과 태도를 품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1) 교회를 ‘계몽자’로 여기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으로써 계몽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전파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고 순수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 중의 책’, 즉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선

물인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며, 경건하게 이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주님께 감사드려야 한다. 또한 밤낮으로 그 안에서 배우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경을 듣고 읽을 때는 헛된 생각에서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경건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읽을 때는 귀를 기울여 이해하고 마음을 기울이며, 실천할 결심을 세우고,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 뒤, 배운 바를 실천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또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즉 전적으로 맡겨지고 정해진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로 헌신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믿고, 경건하게 순종하며, 그것을 깨닫고 생각과 행동에서 그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니, 그 존재에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며, 들은 바를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바로 주님께서 친히 씨를 뿌리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구두 설교 외에도, 성부들의 저술 속에 기록된 서면 설교가 있다.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이 원천들에 가까이 다가가 그로부터 하늘의 지혜를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의 모임이나 교훈적인 책들, 심지어 성부들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조차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교회가 전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통해 마음을 계몽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오직 교회만이 진리의 기둥이자 토대임을, 교회의 계몽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신성한 계몽임을 마음으로 믿고 간직해야 한다; 그 외의 모든 외적인 것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으며, 그것과 일치하지 않거나 반대되는 한 거짓과 미혹, 혹은 마귀의 지혜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무엇보다도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르침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아래서—비록 자신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겠지만—계몽을 구해야 하며; 그 후에 그 영에 따라 세속적인 계몽도 받아들여야 하나, 오직 필요한 것에 한하여, 그리고 그것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리와 일치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은 지나가겠지만 오직 진리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진리의 설교와 그 설교자들이 부족해질 때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암 8:11-12)이라는 형벌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과 경멸이 퍼지고, 신자들에게 그 말씀에 반하는 교리들이 주입될 때에도 슬퍼해야 합니다. 이는 어둠과 거짓의 왕의 지배가 짙어지고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징조이기 때문입니다(성 티호노, 제4권 참조).

2) 성화자이시며,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과 경건함을 위한 신성한 힘은 거룩한 교회에 맡겨진 일곱 가지 신성한 성사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갈되지 않는 은총의 그릇이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이 위대하고 형언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성사들을 가장 위대한 성물이자 하느님과 그분의 권능이 드러나는 현현으로 경외하며, 세례에서 받은 새로운 삶을 의심 없이 믿으며(), 그 안에 감춰진 구원의 힘을 확신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이들에게 더 자주 성사를 베풀어야 합니다. 특히, 각 성사에 관해 우리의 의무는 마땅히 그 성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받은 은총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얻은 새로운 생명을 지키며, 한 서약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 성사에서 누릴 권리를 얻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견진성사에서 받은 은총의 선물을 지키고, 가꾸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야 합니다; 고해 성사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서둘러 치유하며, 진심으로 고백하고 규정에 따라 참회 생활을 인내심 있게 감내해야 한다; 자주, 적어도 일 년에 네 번(『고해 규율』 참조)은 마땅한 준비와 양심의 정화를 거쳐 성체를 영하고, 이 성사에서 받은 주님의 평안을 간직해야 한다; 혼인 성사를 위해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고, 성사를 받은 후에는 그 우애의 유대를 은혜의 선물로서 이성적이고 영적으로 지켜야 한다; 병에 걸렸을 때는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신에게 병자 성사를 행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믿음은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영적 필요 속에서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성사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자신의 분별력도, 타인의 조언도 — 하나님의 힘을 받지 못했을 때는 아무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주의와 마음, 그리고 희망을 그분께 돌려야 하며, 다른 모든 수단은 단지 조건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고, 이 힘만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을 받은 후에는, 누구도 제멋대로 그 힘으로 행동하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제, 때로는 대부에게 복종하고, 그의 지도에 따라 은사를 가꾸고, 키우고, 사용해야 한다. 은사가 높을수록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은사를 받게 해 준 이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 힘을 사용하거나 우리의 의지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지도자는 필수적이다. 모든 교육적 수단은 이보다 낮고, 힘이 약하며,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을 실천하는 이들이 그토록 빨리 굳건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생각만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은사를 남용하거나 심지어 완전히 잃어버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교회가 제시하는 은총의 힘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들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성사 다음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금식과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들의 의미는 절제를 통해 은총의 성령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성사에 진심으로 참여할 시간을 마련하며, 영적 열정을 다시 불태우고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가장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축일들이 이어지는데, 이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은총의 영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교회 예식 순서는 은총의 영을 거룩하게 하고 불태우며, 경건함을 확립하기 위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며, 그 일부가 되어야만 거룩해지고, 거룩함을 지키며, 그에 걸맞은 삶의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신성한 양육의 집입니다!

3) 보호자이자 중재자이신 교회에 대하여. 사방에서 위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등 다양한 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선한 파수꾼처럼, 혹은 강력한 방패를 든 전신갑주를 입은 용감한 전사처럼 서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중재자이자 도우미의 역할을 모두 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특히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보호와 수호천사,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성인이 우리 각자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는 하늘의 신속한 도움을 청할 수 있

는 특별한 장소들이 있는데, 바로 하느님의 성인들의 유해와 기적을 행하는 성화상들 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단지 그녀의 보호 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보호, 즉 성모님의 고유한 보호막은 우리를 위한 그녀의 끊임없는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모님은 ‘기도의 집’이라 불리며, 그 모든 구조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이에게 공통된 기도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맞춘 개별적인 기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에서 교회의 기도 중보의 힘이 우리에게 전해지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참여하거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의무인 그 기도와의 특정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공통된 교회의 기도 중보 체제는 다음과 같다.

보통 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신자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소집하며, 그곳에서 성례를 집전함으로써 그들에게 보호의 능력을 내려줍니다. 따라서 신자들에게는 기도를 위해 함께 모이거나, 공동 예배를 위해 모일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기도는 주님의 약속에 따라, 특히 “*두세 사람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모든 청원을 이루어 주시는 위대한 힘을 지닙니다(마태복음 18:19-20). 한 사람의 기도 는 그 사람 혼자만의 힘만큼만 강력하며, 그것도 그가 공동 기도에서 멀어지지 않을 때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고의로 공동 기도에서 멀어진다면, 그의 혼자 드리는 기도는 전혀 미미하다. 반면 공동 기도에서는 각 사람의 기도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힘을 합친 만큼 강력하다. 역사는 모든 시대에 걸쳐 공동 기도의 힘이 발휘된 놀라운 사례들을 보여준다. 온 교회는 주교와 모든 성직자,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재앙을 물리치며, 적들을 무찌르고, 비를 내리게 하거나 하늘을 닫곤 했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 즉 서로를 격려함으로써 얻는 도움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모임을 멀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히브리서 10:25). 그러나 이것이 개인 기도의 의무와 힘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밖, 집 안에서도 가족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든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에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를 위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은 의무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게 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특별한 임재를 드러내시는 곳이며,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깊은 뜻에 따라 배치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 믿고 기뻐해야 하며, 그 내적 의미를 이해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곳에 머물며, 외부에서도 마땅한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곳을 보존하고 온갖 방법으로 그 위엄과 아름다움을 증진시켜야 하며, 성물과 모든 기구는 신성불가침하게 여겨지고 경건하게 공경되며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 촛불, 예복, 성기, 성화, 특히 십자가와 복음서. 또한, 만일 있다면 성스러운 유해와 기적을 행하는 성화상들은, 그 안에 거하시며 모든 이에게 드러나시고 끊임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그 무엇보다도 더 큰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도 시간 동안 집도 기도하는 성전이 됩니다. 여기에는 성화가 있고, 저곳에는 등불, 양초, 십자가, 복음서가 있습니다. 게다가 주거지 한가운데에는 성화와 십자가가 있는 작은 예배당이 있

으며, 들판에도 종종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어디에서나—집에서, 들판에서, 길에서—기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모든 장소를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엿보입니다.

정해진 시간, 즉 특정 요일과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모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 기도를 위해 일요일과 축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날들을 알고, 그 등급에 따라 교회의 공통 축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당의 개별 축일, 그리고 우리 수호천사의 가장 사적인 축일까지도 경축해야 합니다. 축일은 게으름을 부리는 날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를 깨닫고 기쁨으로 영혼이 환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노동과 온갖 근심을 뒤로 하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난 안도감과 자유를 느끼며, 마치 미래 세상의 자유를 미리 맛보는 것처럼,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선행을 베푸는 데, 즉 전적으로 구원을 위해, 축제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보내야 한다. 미래 세기에 대한 소망을 이보다 더 잘 길러낼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요일마다 그 나뭇의 의미가 있다. 각 요일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존중하며, 그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특히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그 날들과 관련된 기념의 의미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하루 중 시간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중요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그 의미를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얼마나 기도하는 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주님 앞에서 경건하게 행하는 법을 빨리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여기서는 때로는 심판, 때로는 주님의 고난, 때로는 성령의 은혜, 때로는 피조물의 선함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억에 따른 하루의 시간은 다채롭고 향기로운 영적 정원을 거니는 것과 같다. 여기서—할 수 있다면? 절을 올리고, 못한다면? 묵상하라... 특히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기도나 행위가 이루어질 때, 종소리가 이를 알릴 때면 이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우리를 돌보시는 마음으로 삶의 모든 시간을 기도로 나누어 주셨음이 분명합니다. 성 요한 황금입에게는 낮과 밤의 매 시간마다 드리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계명에 따라 기도로 감싸이고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기도, 야간 기도, 자정 기도, 아침 기도, 시간 기도, 미사와 같이 정해진 성례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들 각각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각각이 하나의 완전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참여할 때는 어떤 성사가 거행되는지 알아야 하며,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므로 영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깊이 경청하고 그 정신에 몰입하여 그 정신으로 충만해야 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여 사제의 축복을 먼저 받고, 해산 기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의 집으로 이어지며, 이곳에서는 저녁과 아침 기도를 드리는 것 외에도, 식사 전후와 모든 일과 상황에서 기도와 십자가 흉내를 통해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이처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동은 기도로 둘러싸여야 하며, 그는 끊임없이 기도의 보호 아래 머물러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도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이며, 여기서 파생되는 의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별한 필요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 ’를 보호하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그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럴 수 있는 수단도 갖추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의무는 교회의 중보 기도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성직자들이 규정에 따라 집

전하는 기도 예식들이 있는데, 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들에게 온전한 유익한 힘을 발휘합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는 온 기독교 세계의 죄를 위해 피 흘리지 않는 제사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 제사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듯이, 교회도 이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는 마치 처음 세워진 때부터 지상에서 사라지지 않은 것처럼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끊임없이 하느님을 노하게 합니다. 머리 위에 칼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바치는 끊임없는 제사가 서 있으며, 이는 모든 이를 정화할 수 있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러니 서둘러 이 무혈 제사에 참여하여 정화되십시오... 즉, 가능한 한 자주 성찬식에 참석하고, 할 수 있다면 성체 성혈 예식에 예물을 바치며, 그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찢어진 마음과 눈물의 기도로 드러지는 희생 제물에 마음을 합치십시오. 교회에 있지 않을 때는, 성찬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희생 제물이 받아들여지도록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이 제사는 또한 감사의 제사, 즉 성체성사입니다. 감사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이 제사를 드리는 데 참여하는 것 또한 의무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무혈 제사 안에서의 중보기도 외에도, 그 밖의 모든 필요와 곤란에 있어서도 교회에 의지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위한 기도의 중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육체적인 필요와 곤란이 있으며, 개인적·공적인 재앙과 슬픔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교회의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이에 대해서는 『예식서』를 참조하십시오).

영적인 필요와 곤란이 있습니다: 배워야 합니까? – 축복을 받으십시오;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 기도를 받아라; 무거움, 슬픔,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마음을 짓누르나? – 정해진 찬송에 의지하라; 누군가와 원수 지내고 있지만, 스스로를 이기지 못하겠는가? – 기도해 달라고 청하라; 무언가가 역겹나? – 그것을 거룩하게 하고 영혼을 달래라.

육체적인 필요와 욕구도 있다: 잠이 필요하지만 잠이 오지 않는가? – 교회에 의지하라; 잘 자고 있지만 사탄이 잠든 자를 조롱하는가? – 교회의 기도의 힘으로 그를 쫓아내라; 집이 필요한가? – 그 기초와 집 자체를 모두 성화하라; 우물이 필요한가? – 성화하라; 정원과 채소가 필요하십니까? – 성화하십시오; 소금이 필요하십니까? – 성화하십시오; 불이 필요하십니까? – 성화하십시오; 빵이 필요하십니까? – 씨앗과 싹, 그리고 타작마당까지 성화하십시오; 새로운 열매이든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 시작하든, 성화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 몸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성별되어야 한다. 아들이 없어 상속자가 없고, 노년을 돌봐줄 사람이 없느냐? – 교회를 통해 양자로 삼아라; 여행을 떠나려느냐? – 가라, 교회가 네 여정의 무사함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개인적인 재앙도 있다: 몸에 어떤 병이 있는가? – 교회에서 치료를 받으라; 누군가 악령에게 시달리고 있는가? – 교회의 축복의 기도를 사용하라; 집이 악령들로 인해 축게 느껴지는가? – 교회의 기도로 그들을 쫓아내라; 밭이나 정원, 텃밭이 해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가? – 같은 수단을 동원하라.

공통적인 재앙들도 있다: 가뭄과 무풍, 전염병, 공기의 부패, 지진, 기근, 폭풍, 천둥과 번개, 적의 침입 또는 그 밖의 어떤 재앙이든 – 이 모든 것에서 교회의 기도를 통해 보호를 구하라.

마지막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집에 교회의 성물을 비치해 두는 것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도 거절할 이유는 없다... 구입하여 축성하고, 마치 교회의 선물인 양 집으로 가져오라. 주님의 십자가, 축성된 성화, 성수(특히 세례용 성수), 성인의 유해와 기적을 행하는 성화 등에서 나온 각종 유물 등을 말이다.

이처럼 사람은 사방에서 교회의 보호와 방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날 때만 해도 교회의 기도로 맞이받으며, 세상을 떠날 때면 그 기도가 관 너머까지 그를 배웅한다.

이 모든 교회의 기도와 중보, 보호의 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그 힘을 경험으로 알고 있어 불필요하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미 필수적이다. 기독교인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교회의 정신을 입어야 한다. 군복도 없고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군인이 어디 있겠는가? 교회는 주님의 집이다.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께 반대되고, 그분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며, 그분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것이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겠는가? 교회가 제시한 계명과 권고를 이행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사람에게, “친구여, 네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느냐?”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게다가 교회가 권고하는 모든 것의 효력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제도와 예식 순서도 정립되었습니다. 이를 외면하는 사람은 마치 어떤 전염병에 대항하는 간단하고 검증된 치료법을 제안받았음에도, 자신의 헛된 지혜로 그것을 경멸하다가 파멸에 이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원수의 모략은 우리에게 크다. 그러나 주로 그는 물질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 우리에게 작용한다. 성 요한 다마스쿠스의 지적대로, 그에게는 거친 물질과 일정한 친화성이 있다. 어쩌면 그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어떤 위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에 집착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악령들은 주님께 “우리를 심연으로 보내지 마시고, 돼지 속으로 보내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만약 그렇다면, 물속에서도, 공기 중에서도, 그리고 모든 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달라붙어 악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모든 것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여, 사방에서 부정한 것을 쫓아내고 그것이 신자들에게 닿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마치 울타리가 없는 정원처럼 되어, 그곳을 배회하는 짐승들이 그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영혼 속의 선한 씨앗에 대해, 마귀가 들어와 그것을 훔쳐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이렇게 보호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자는 교회와 관련된 어떤 것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향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지배자, 하늘 아래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무기를 취하여, 그 악한 날에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갑옷을 입고,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신발을 신으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들어, 그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타는 화살을 끄십시오.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인 칼을 잡으십시오”* (엡 6:12-17).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이 여기서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 교회에 들어온 자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된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그 일을 위해 거룩하게 되신 지도자들의 인도 아래, 교회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거룩해지며 보호받으며, 기도의 마음가짐, 즉 끊임없는 기도 속에 머물며, 그 기도를 통해 네 영혼에 네게 필수적인 감정과 태도를 일깨우고 심어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로 올라가는 감정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통치 질서에서 흘러나오는 감정과 태도도 함께 심어주라; 그리고 나아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의 가장 은밀한 삶, 곧 하나님 안으로의 말 없는 몰입으로 승화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라. 주님께서 모든 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b)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거처로서의 교회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b)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보금자리로서의 교회에 대한 감정과 마음가짐

교회는 은혜로운 구원의 수단을 간직하는 보물창고이자, 구원받고 있는 자들과 이미 구원받은 자들의 집이다. 교회와 살아있는 연합을 맺은 자는 교회의 모든 질서를 받아들이며, 동시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거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을 기초로 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모퉁이 돌로 삼아 세워졌으니, 그분을 통해 모든 피조물이 함께 자라나 주 안에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엡 2:19-21). 이 교제는 마치 몸 안의 지체들 간의 교제만큼이나 밀접한데, 이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다(롬 12:4-5).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은 두 단계로 나뉘는데, 어떤 이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승리의 교회를 이루고 있고, 다른 이들은 아직 땅에 머물며 투쟁 속에서 그 상태에 도달하기만을 갈망하며 싸우는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하늘에서 승리를 누리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교제와, 땅에 머물며 싸우고 있는 교회의 구성원들과의 교제로 나뉩니다.

아아) 떠난 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1) 영광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간의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읍,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며, 천사들의 무리와 기쁨으로 환호하는 자들과 하늘에 기록된 만인들의 교회와 만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의로움으로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갔느니라” (히브리서 12:22-24). 이처럼 긴밀한 연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적인 관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분들의 상태는 지상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들의 상태에 대한 이해와 그들과의 교제 방식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며, 이는 모든 천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 계급에 따라 개별적으로도 적용됩니다.

그들은 이미 완성되어, 그리스도의 성취에 이르는 가장 복된 경지에 이르렀으며, 예정된 최고의 신성화에 도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면전 앞에 머물고 있으니, 마치 집안의 자녀들처럼

담대하게 그분께 기도의 말씀을 드리며, 연약함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로 강해졌으므로, 가시적·비가시적 피조물에 미치는 그들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그들에게 신성하지는 않으나 인간을 초월한 존경을 표해야 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된 신성의 가장 완전한 그릇으로서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인간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자비로 인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강력하게 중보하는 기도자들로써 그들의 중보에 의지하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진 그들에게 도움과 보호를 간구해야 한다.

또한, 그들은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와 함께 머물며, 나아가 모든 이가 지향해야 할 본보기와 목표가 되고 있으므로, 여기서 다시 다음과 같이 해야 함이 따릅니다:

– 그들의 신성한 속성과 그들이 감당해 온 수고를 깨닫고, 그들의 삶을 확실한 인도하는 빛으로 여기며, 마음과 행실에서 그들을 본받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 그들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한 영적 일치를 이루며, 그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들의 수고와 미덕에 공감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그들의 기념일에 그들을 기리고, 그들에게 정해진 축일을 지내야 하며;

– 그들의 성화를 공경하고, 그 앞에서 기도하며 애정 어린 경의를 표하고, 촛불을 밝히고 기도예식을 드려야 하며;

– 그들의 행적이나 트로파리, 콘다키를 읽어야 하며;

– 마땅한 존경과 사랑으로 그들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각 성인 계층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동일하지만, 그들의 계급에 따라 약간의 변화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계급에 대한 개념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니, 단지 계급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이 천상의 위계질서에서 가장 존귀한 케루빔과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세라핌, 곧 성모 마리아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 다음으로는 무형의 존재들의 계급이 있으며, 그 수는 순서에 따라 아홉 명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성인들이며, 여기에는 선지자들과 선지자 중 가장 위대한 분인 세례 요한, 사도들과 그들 중 가장 뛰어난 베드로와 바울, 성인들, 그중 위대한 분들로 바실리우스 대성인, 그레고리우스 신학자, 요한 황금입, 성 니콜라이, 그리고 러시아의 성자들인 피터, 알렉세이, 이오나, 필립; 순교자들, 신앙고백자들, 경건한 이들, 무소유자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친 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중 각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은 성모 마리아,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된 어머니이자 중재자, 수호천사, 같은 이름을 가진 성인, 성당이나 나라의 수호성인, 유해가 있는 분이나 특별한 중재를 베풀어 주신 분들이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에게 드리는 기도에 표현되어 있다. 그들의 본을 따라, 정해진 예식에 따라 기도를 드릴 때든, 단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천사여, 나의 거룩한 수호천사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소서”라고 간구할 때든, 매 기도마다 그들을 기억해야 하며, 그 다음, 영원히 동정녀이신 주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고백하고, 성육신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는 데 본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으로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들보다 더 높은 경의를 드려야 합니다. 수호천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계시를 이해하도록 훈련해야 하며; 같은 이름을 가진 성인의 미덕을 본받아, 그분의 생애를 알고 경건하게 그분의 축일을 기념해야 하며; 성당의 수호성인께는 특별한 믿음으로 의지해야 하는데, 그 성당에서 세례를 받는 모든 이가 그분의 보살핌을 받기 때문이니; 그 지역의 성인께는 성당, 유해, 성화를 찾아가야 한다.

또한 온 천상의 교회를 주요 기도에서 그 순서에 따라 기억해야 하며, 이는 교회 기도에서와 같이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을 구원하소서...” 또는 “자비로우신 주님...” 등과 같은 기도에서 그러하듯이, 다른 기도들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이러한 관계의 주된 목적은 하늘에서 기뻐하는 자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을 우리 안에 길러내는 데 있다. 모든 이는 이를 위해 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생각과 마음으로 그곳을 더 자주 향하며, 가능한 한 그곳에 머무는 달콤함을 깨닫고 미리 맛보려고 애쓰며, 마침내 “언젠가 나도 그곳에 갈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그들과 더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래야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낯선 이가 되지 않고, 마치 친숙한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영생의 소망을 품고 계신 분들에게.

물론, 우리의 중재자이자 수호자로 드러난 이 영광스럽고 완전한 이들 외에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 곁을 떠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운명은 우리에게 확실히 알 수 없는 바이다. 그들 또한 우리와 분리되지 않고 같은 교회의 집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비록 그들이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는 없더라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요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형제를 장사 지내도록 돕고, 그에게 마지막 예의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이를 위해 기도와 제물, 자선을 드려야 하며; 그들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좋은 말만 해야 하며, 결코 험담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마지막 유언을 이행해야 하며; 그들의 선행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본보기가 되는 습관을 본받고 이를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친족에 관해서는, 이 모든 것 외에도, 비록 무관심할 수는 없더라도 희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아야 하며; 항상, 특히 3일째, 9일째, 40일째, 1주년이 되는 날, 교회의 추모일과 모든 기도 중에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추모해야 한다. 죽은 이에게 유일한 위로는 열렬하고, 소망에 찬, 강력한 기도입니다. 자선도 큰 힘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 흘리지 않는 희생입니다.

bb)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며 지상의 교회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에 대한 감정과 태도.

또 다른 종류의 의무적인 관계가 우리를 이 땅에서 함께 사는 기독교인들과 연결해 줍니다.

이러한 관계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한 몸이라는 개념(엡 4:16; 고전 12:12, 12:27)에서 비롯되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교회의 온 몸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의 각 지체에 대한 것으로, 그 지체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1) 교회의 온 몸 전체에 대한 관계.

첫 번째는 살아 있는 몸의 특징적인 속성들로 나타납니다. 살아 있고 조직된 몸의 특징적인 속성은 조화, 즉 하나의 전체 안에서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과, 생동감 있는 결합, 즉 공감

과 연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쳐두고 하나의 전체를 위해 모든 부분 사이에 노동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 있는 몸의 세 가지 속성에 상응하여, 기독교인들에게도 교회라는 온 몸 전체에 대해 반드시 가져야 할 감정과 태도가 있으며, 이는 누구나 의식적으로 자기 안에서 길러야만 한다. 바로 다음과 같다:

1a) 온 교회와 영적으로 조화를 이루거나, 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몸의 지체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모두가 하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 한 영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그는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한 자들은 아니었다*”라고 그러한 자들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요일 2:19). 비록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단절은 없을지라도, 그것은 영혼 안에서 스스로 이루어질 것이며, 환상이 아니라 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영의 일치는 지적·도덕적 원리의 일치, 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한마음은 거룩한 사도들에 의해 거의 끊임없이 그토록 설득력 있게 권고되고 있다! 사도 베드로는 다른 의무들을 언급한 뒤,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한마음으로 지내라*”고 결론지었다(베드로전서 3:8). 사도 바울은 “*서로 지혜롭게 대하라*”(롬 12:16)고 유연하며, 또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지혜롭게 대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롬 15:5-6)라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한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다툼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굳건히 서기를 바란다*”(고전 1:10)라고 간청합니다.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 한뜻이 되라*”(빌 2:2). 이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품고 있는 사고방식에 무관심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물을 어떻게 이해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무로 삼게 한다. 그는 가능한 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면적으로 모든 사람과 생각과 견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견해의 독특함과 개성을 자랑으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것이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아 투쟁을 요할 정도가 되었다면,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슬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명백한 진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철학적 사색과 독자적인 견해는 범죄에 해당한다.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든 먼저 선조들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알아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는 교회 내에서 언제나 지켜져 온 관행, 즉 모든 이와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다.

일치, 즉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 달리 말해 순결... 이는 그리스도인이 모든 이와 같이 순결해야 하며, 자신의 불순결로 교회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의무화한다... 구약성경에서도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신명기 17:7)는 명령이 거듭 강조되었는데, 이는 악이 모든 이의 공동의 순수한 공동체에 스며들면 전체를 더럽히고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이며, 실제로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두가 고통받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왜 부정한 자를 용납하느냐고 책망합니다.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이*” 그 부정한 자가 그들의 교회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5:6). 이처럼 부정함은 온 교회의 선에 대한 침해이므로, 순결

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물로 가득 찬 그릇 속의 불결함은 위로 떠오르거나 바닥에 가라앉아, 즉 물의 본체 밖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불결한 자는, 공식적으로 분리되었든 아니든,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체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교회의 지체입니까? 그렇다면 깨끗하십시오. 깨끗하지 않다면 이미 지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1b) 살아 있는 신체의 각 지체는 살아 있는 유대 관계에 있으며, 이에 따라 온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 지체에 반영되고, 반대로 각 지체의 상태는 전체 구성에 반영된다. 이 속성은 달리, 즉 연민이다. 이에 상응하는 의무 역시 ‘공감’ 또는 ‘동정’이라 부르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통해 우리 모든 형제들, 혹은 기독교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생하게 체감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기쁨을 누리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2:26)고 강조했는데, 그는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고*”(고린도후서 11:29)라고 확신하며 스스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기독교 세계의 상태는 각 그리스도인에게 낯설거나 냉담하게, 무관심하게만 인식되고 상상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체감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의 마음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마음’으로 표현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이 하나요, 뜻이 하나였더라...*”(행 4:32)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도 바울이 명령한 대로 모든 기독교인은 “*평화의 유대를 굳게 지키며 성령의 일치로 힘써 보존*”(엡 4:3)해야 한다. 이 의무에 따라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로 넓혀, 그들과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처럼, 마치 어디에 있든 마음은 항상 가족 곁에 있는 가족 구성원처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감정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연합의 상실과 몸으로부터의 단절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든 기독교인이라 자칭하는 모든 이들이 서로 소외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살아 있는 몸인 교회의 지체가 아니게 되었으며, 꺾여 나간 가지들임이 명백합니다.

1가) 살아 있는 몸의 지체들 사이에는 전체를 위한 사명이 분배되어 있어, 각 지체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전체에 속하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활동이 전체를 위한 희생이 되도록 행동해야 하며, 자신을 잊고 오직 하나의 선한 공동의 이익만을 마음에 두어야 하며, 자신을 주체가 아니라 교회라는 온전한 몸의 일부인 도구로 여기고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는지를 깨닫고,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즉, 사도의 말씀대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자는 “*섬기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라*”,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라*”, 나누는 자는 “*나누라*”(롬 12:7, 12:8).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위한 성령의 은사*”가 주어졌으며(고전 12:7), 이를 통해 모두가 서로 “*서로 섬겨야*” 한다(벧전 4:10). 이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위에 초연함의 성격을 부여하여, 개인적인 이익은 전혀 고려 대상에서 사라지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유익만을 염두에 두게 한다. 만일 모든 실천자들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지적, 도덕적 완성이 얼마나 빨리 높아지겠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며, 여기서부터 유익하지 않은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모든 일의 완전함이나 성숙함이 비롯됩니다. 이 단순

한 규칙을 잊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악이 생겨나는지! 그러니 영혼과 몸을 모두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익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이에게 배려 어린 시선을 베풀어 주십시오.

1g) 이 세 가지 태도 속에 기독교적 사랑의 본질과 정신이 드러납니다. 이 사랑을 가진 자는 모든 이와 한마음 한뜻이 되고, 나아가 자신의 모든 감정과 마음을 녹여 마치 모든 이에게 퍼져 나가는 것처럼, 온 존재와 육체와 영의 모든 힘을 교회라는 온 몸의 유익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치며,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으로 자신을 그 몸에 헌신한다. 여기에는 진리의 수호자들, 기도하는 이들, 번영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행동으로 이 요구를 이행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는 마음속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이를 실천할 수 있고 또 실천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들의 번영과 모든 이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듯이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에 일정한 독립성과 자유를 부여하며, 이는 개인이나 가까운 이들의 처지, 심지어 시대의 상황이라는 좁은 한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모든 것 위에 서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조하고, 어떻게 그리고 무엇으로 악을 물리치고 선을 보호하며 증진시킬 수 있는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사랑에는 미리 내다보고 경고하는 모성적인 배려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종 그 활동 속에서 오해로 인해 이해하기 어렵고 마치 근시안적인 태도를 폭로하는 듯한 무언가를 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그 사랑을 정당화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성령을 지닌’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성령에 이끌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천자의 생애를 읽다 보면, 저절로 외치게 된다. “이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독교적 사랑이다!” 이 감정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점점 더 뜨겁게 불태워 주시기를!

2) 우리와 눈에 보이는 유대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적 사랑은 모든 제한을 벗어난 것이고 온 기독교 세계로 뻗어 나갑니다. 그 사랑은 또한 자신의 행위의 영향력을 그만큼 널리 퍼뜨리려 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종종 성공하기도 하지만, 주로 자신이 속한 가까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천되거나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그 보편적이고, 가장 깊으며, 가장 근본적인 기질이 기독교 활동, 즉 기독교인 개인이 자신의 장소와 시간, 상황 속에서 수행하는 개별적인 행위에 영감을 주고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기독교인이 마주하는 각 사람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웃에 대한 다양한 의무가 정해지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다양한 적용 방식 속에서 하나인 사랑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질문은 이렇다: 우리 앞에 있는 기독교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대답은 이렇다: 기독교적 사랑의 정신이 요구하는 대로 마음가짐을 갖추고, 다시 그 사랑의 정신에 따라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라.

이처럼,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고, 그들에게 취해야 할 행동도 있다.

2a)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1. 차별이 없습니다. 사도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갈 3:28)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한 몸의 살아 있는 지체들로서, 한 가족의 친족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친

족의 마음으로, 가족처럼, 형제처럼 받아들이십시오. 형제애—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지배하는 참된 마음가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를 만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무엇보다도 그가 형제라는 사실만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에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라고 명령합니다(롬 12:10). 이 감정에서 기독교인이 타인을 대하는 모든 활동과, 그에게 요구되는 타인에 대한 모든 다른 태도가 흘러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 자체는 특히 다음과 같은 특성들로 표현됩니다:

– 호의, 즉 타인의 존재와 대함, 교제에서 오는 기쁨의 느낌입니다. 형제라면 피가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 감정은 마음의 유대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는 진실하고 완전하며 성숙한 사랑의 가장 확실하고도 미묘한 증거이자 징표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이 불쾌한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이미 좋지 않은 상태이며,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가는 첫 단계이자, 타인에 대한 마음의 진리로부터의 이탈이다. 무관심은 변명거리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타인과의 만남에서 오는 불쾌감조차도, 그것이 자발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 그것도 오직 그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적극적이고 강렬한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 변명이 될 수 있다. 마음이 단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간절히 추구하는 것은 비록 아직 얻지 못했더라도 추구하는 행위 자체로 인해 그에게 귀속됩니다. 이러한 경우, 그것은 마치 육체적인 불완전함이지 도덕적인 불완전함은 아닙니다.

– 호의에서 비롯된다.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에게 모든 좋은 것을 바란다. 호의는 호감의 자연스러운 결실이다. 그것은 타인과 관련된 모든 일에 동참하고, 그에게 공감하며,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자신의 처지에 포함시키며, 필요한 곳에서 그곳이 좋은지 나쁜지 알아보고, 그에 상응하는 기쁨이나 근심, 그리고 도움과 협력을 위한 충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선의를 품는 마음은 타인을 향한 선한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아우른다. 그것은 슬픔 속에서도 위안이 되며, 평안을 주고, 마음을 넓혀주며, 마치 불이 금속을 정화하듯 이기적인 정욕으로부터 마음을 정화한다. 그와 정반대되는 것은 악의, 즉 무관심과 냉담의 결실이다. 여기에는 호의의 부재나, 그 반대인 악의가 존재합니다. 이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악의적 기쁨과 시기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랑을 잃은 가련한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두 가지 고통의 원천입니다.

– 돌봄 속에서. 진정한 호의는 타인의 행복을 기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도움과 지원을 베풀고자 하므로, 타인의 행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세심한 돌봄을 낳게 됩니다. 이는 너무나도 필연적인 일이라,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일 때에만 중단될 뿐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 이러한 돌봄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호의의 약함과 사랑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리로 사랑하라*” (요일 3:18). “*서로 짐을 지어 주라*” (갈 6:2), 사도들은 이렇게 명령한다. 이때 명심해야 할 것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보살핌이 반드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마찬가지로 선한 호의도 분별력 없는 본능적인 호감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은 이를 주관하는 이성, 즉 내면의 자아가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 호감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것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 돕고, 선의에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말아라. 선한 것에서 악이 자라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은 맹목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움은 자기 만족이나 타인을 기

쁘게 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면의, 참된 선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그쪽으로 이끄는 사랑에서 비롯되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이러한 방식과 태도를 통해 견고하고 확고하며 냉철한 배려가 형성된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은 돌봐야 할 일만을 원하며, 타인에게 바래야 할 것을 염려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의 건전한 상태이며, 이것이 없으면 선의와 배려는 서로 엇갈려 서로를 방해하고 심지어 상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의 최고 활동 원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돌봄이며, 결실을 맺지 못하거나 그릇될 수도 있는 단순한 선의가 아니다. 돌봄의 특징적인 속성에는 목적에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체 없이 신속하고 전력을 다한 도움이 포함된다. 그것은 허둥대지 않고 차분하고 점진적으로 나아가지만, 지연이나 미루는 일로 인해 지체되지도 않는다. 그에게는 다음과 같은 법칙이 있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라. 그 기회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니, 보물을 모으고 부를 축적하라.” 그와 정반대인 것은, 도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헛된 생각으로만 그치는 무익한 욕망이지만, 무엇보다도 악의에서 비롯된 것, 즉 무관심과 비협조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해나 성공을 가로막는 행위, 그리고 노골적인 악행이다. 이 두 가지 모두 이기적인 정욕의 결실이며, 게다가 항상 상호 간의 불화로 인해 자극받고 강화된다.

이 세 가지, 즉 호의, 선의, 그리고 보살핌을 통해 형제애의 진정한 본질이 결정된다. 이 마음의 움직임 중 어느 하나라도, 그것도 단순히 일반적으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나, 결여되어 있다면, 진정한 사랑도 없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싹만 틔운 상태로 자라고 있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볼 때, 그 성장은 필수적이다. 타락한 상태의 마음은 올바르게 느끼지 못한다. 그 안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은 편파적이어서 오직 자기 편만을 사랑하고 그들을 편들 뿐이다... 여기에는 악이 없지만, 그대로 방치한다면 악이 될 수 있다. 기독교인은 모든 기독교인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모두와 친족처럼 살아야 하며, 모든 사람을 동등한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다만 활동이나 협력의 정도만을 구별해야 하며, 그것도 감정이 아니라 이타적이고 초연한 건전한 판단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

2. 사도 바울은 타인에 대한 행동의 모범을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형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서로를 더 높이 평가하라*”(롬 12:10). 즉, 타인에 대한 형제적 사랑은 그들에 대한 존중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바로 친족의 유대감에서 비롯된다. 이 친족의 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존중도 함께 있다. 가족 중에서 우리는 아직 자아 인식을 갖지 못한 어린아이조차도 존중하는 눈으로 바라본다. 기독교, 즉 이 영적 친족 관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사람에게 있어 이는 더욱 자연스러운 일이다. 기독교인은 성령의 성전이며, 성부와 성자의 거처이다. 따라서 그는 신성의 그릇이다. 그러니 그를, 마치 고대 성궐처럼, 그 안에 하나님을 품고 네게 온 자로서 축복과 함께 받아들여라. 게다가 그가 크든 작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지혜롭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모두를 받아들여라. 기독교적 존중의 정신 속에서 모든 외적인 요소는 기독교인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타인의 것이자 일시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배제되어야 하며, 오직 그 사람의 존엄성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외적인 모습은 필연적으로 다양하지만, 존중은 모든 사람에게 더 많거나 적을 뿐 동일해야 한다. 그 근원은 기독교인의 내적 가치이며, 이는 외적인 모습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존중하신 분을 존중하라. 존중의 성질이나 태도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높이지 말고(빌 2:3)”라는 말로 정의했

다. 마음속으로 다른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고, 자신을 그보다 낮게 여겨야 하며, 이를 단지 외적인 표식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느껴야 한다. 표식은 예를 들어 상급자의 경우처럼 다를 수 있지만, 존중은 하나이다. 이 미덕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으니, 이는 자기중심성과 정면으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위를 가진 자에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이행의 어려움 때문에 법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어렵다고? - 노력을 기울여라.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외적 상태를 주의에서 배제하고, 오직 그 내적 의미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 내적 의미는 그 높음으로 인해 생생하게 인식될 때 존경심을 낳는다. 존경과 반대되는 감정은 경멸이다. 경멸은 모든 이를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더 나아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 그것은 교만과 자만, 자신과 형제를 잊어버리는 태도의 산물이다.

3. 타인을 신성하게 존중하는 사람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존중하며, 모든 면에서 그에게 마땅한 대접을 베푼다. 존중과 사랑에서 비롯된, 모든 이에게 마땅한 대접을 베풀려는 마음가짐이 바로 정의이다. 존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존중 그 자체가 첫 번째 정의이며, 그로부터 모든 진리의 영역이 흘러나오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진리는 보통 도덕적 삶의 가장 바깥쪽 울타리로 여겨지는데, 그 경계를 넘어선 자는 도덕 왕국의 기초를 무너뜨리며, 그로부터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러나 진리가 오직 부정적인 측면, 즉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요구될 수 있는 일만을 행하는 것으로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기독교적인 진리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외형적이며, 법적인 진리이다. 반면 기독교적 진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용하며, 외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내적인 성향에 따라 타인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일을 행한다. 차갑고, 단지 법적이며, 외적인 진리는 비기독교적인 것이다... 이 마지막 진리는 마음의 참여와 함께 양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과는 구별되지만, 사랑에 의해 활기를 얻는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은 이에 반하며, 불의는 형제를 경멸하는 데서 비롯된 열매이다. 한 사람의 인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면, 어떻게 그 권리를 존중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을 친형제처럼 대하고, 모든 겉모습을 잊으며, 그와 함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호의로 그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며, 수단과 힘이 닿는 한 그를 세심하게 돌보며, 동시에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인격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지키고, 그에게 대해 온전한 진실을 드러내고 모든 불의를 피하기 위해 힘써라. 이 모든 감정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생겨나야 한다. 이 모든 감정이 활력을 잃지 않고 서로 뒤쳐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며, 그리스도인의 영에 조화가 깃들게 해야 한다. 그러나 명백히, 모든 이에게 보이는, 말하자면 외적인 한계인 ‘도움’과 ‘공정함’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른 감정들은 내면에 숨겨져 있으며, 마치 잎사귀 아래의 열매처럼 그 감정의 가림막 아래서 익어가는데, 때로는 그 감정들보다 앞서기도 하고 때로는 뒤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만약 그 감정들이 없다면, 이 마지막 감정들 속에도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향기로운 향유를 담기 위해 정성껏 다듬어진 그릇이지만, 비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해야 하며, 이웃이 그 안에 비좁게 들어차지 않고, 바울처럼 마음이 이웃을 향해 넓어지도록 해야 한다.

2b) 어떤 행동이 요구되는가? 참된 마음이 있으면 행동도 따를 것이니, 마음의 힘은 줄어들 수도 없고 쉽게 닫힐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은 신중함과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 대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그것들도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주하게 될 상대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사람이며, 어느 정도의 외적 안녕을 누리고 있다. 우리 형제의 이러한 각 측면은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그만의 독특한 종류의 행동을 이끌어내며,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의무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듯이, 우리 형제인 기독교인들에게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의무적인 행동은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들의 영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육체에 관한 것이며, 세 번째는 그들의 외적 안녕에 관한 것입니다.

1) 영혼에 대한 것.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a) 영혼의 구원, 즉 형제의 구원 그 자체입니다. 구원이 없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선함도 이 영원한 선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리고 끊임없는 관심은 우리 형제의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특히 네가 더 잘 알고 있으며 네 판단에 따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기도하라; 형제들에게 분별력이나 열심, 기도 등의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 행동할 힘과 능력을 구하고, 더 나아가 이 일을 위해 스스로를 하나님의 도구로 바치기를 기도하십시오;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유혹을 일으키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과거에 무심코 저지른, 유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일들로부터 자신을 정화하라. 다른 이들의 생각이나 말로 인해 ‘그런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유혹에 빠지지 마라. 왜냐하면 기도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사람은 항상 타인을 구원하는 일에 더 적합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 간의 은밀한 교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 영혼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른 영혼에 영감을 주거나, 자신을 통해 혹은 다른 이들을 통해 그 영혼이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킬 수 있다. 그 예로 순교자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를 들 수 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해 기도로 마음을 기울인다면, 각자에게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은 따뜻함을 주는 빛이 닿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온 기독교에 해당하는 만큼의 온기로 따뜻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 어떤 힘도 단 한 명의 기독교인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각자가 기도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그 안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바로 그 때문에 사도들 자신도 기도를 청했던 것이며, 상호 기도는 구원에 이르는 힘이기 때문이다.

자신 안에서 믿음과 경건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십시오. 밖으로 나가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석할 때, 모든 사람이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기독교를 보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하십시오. 이는 말과 눈빛, 몸짓, 행실로 모든 이에게 형제를 세우는 것과 같으며, 이 중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실망시키거나 유혹하지 않는 것이다. 모범을 통해선 선한 것과 악한 것 모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므로, 한쪽이 필수적인 만큼 다른 쪽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만일 아무도 자신의 불경함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많은 훈계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체로 무엇을 해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악이 겉으로 드러나고 선은 숨겨져 있다는 점이 문제이며, 그 때문에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적인 예는 많이 보지만, 합법적인 예는 거의 보지 못한다. 행동이 생각과 말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가르침은 사실상 가르침이 아니다. 모든 방탕한 자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가두거나, 그들 스스로가 가능한 한 숨어 지내도록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때야말로, 내면의 감정과는 달리 의도적으로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을 칭찬할 만하다. 즉, 다른 사람을 죄로 이끌거나 타락시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말과 행동으로 공개적으로 방탕한 행위를 일삼는 자는 영혼을 죽이는 자로 여겨야 한다. 그는 치명적인 무기를 가리지 않고 사방으로 휘두르는 맹인과 같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소망할 뿐만 아니라, 성심껏 돕고자 애쓰며, 실제 행동으로 타인의 구원을 도울 것이니, 단지 “따뜻하게 지내라”고만 말하고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사랑은 불편함을 개의치 않으며 그것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불편함이 있다 해도, 타인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냉담함은 자신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부족과 자만심, 그리고 단호한 무관심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에 대한 모든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 가운데 우리가 힘닿는 대로 영혼에 무언가를 심어 주어, 그들의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해당되는 일들은 다음과 같다: 잠든 자를 깨우고, 잘못된 길로 가려는 자를 바로잡으며, 약한 자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말과 행동이 모두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영적 영역에 제멋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그를 마음의 준비가 되도록 이끌거나, 그가 스스로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쨌든, 그가 살아 있고 자유로운 영혼이므로, 강압적으로 그를 규정하기보다는 그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돕는 편이 낫다. 예를 들어, 단순한 대화 속에서 선과 악을 묘사할 때, 하나는 칭찬으로, 다른 하나는 비난으로 표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묘사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이 그 말이 자신을 두고 한 말임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충분한 훈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랑은 창의적이다. 그러나 경험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b) 특히, 타인의 영혼을 돌볼 때는 그의 이성과 의지를 살피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믿음에서 시작하여 확고하고 명확하며 건전한 모든 개념과 원리를 심어주어야 하며, 믿음의 인도에 따라 다른 모든 지식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이를 믿음에 적용하여 발전시키며, 가능한 경우 믿음에서 파생된 지식으로 확장하여, 모든 지식의 총체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이 엮어낸 온갖 교묘한 논리를, 그것이 신앙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신 아래 가리지 않고 퍼뜨리는 자들은 큰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신앙과 상충되는 생각과 측면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믿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 믿음으로부터 도출된 결론이 아닌 것, 믿음으로 덮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영역에 적절히 자리 잡을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은 짓밟고 근절해야 할 비열한 거짓이다. 따라서 모든 과학, 특히 물리학과 역사학 분야의 모든 이론은 엄격히 검증되어야 하며, 검증된 후에야 비로소 기독교 세계에 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검증되어 건전한 것으로 판명된 것—이론적 인식이든 예술, 사회 생활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진 발견이든—은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가, 모든 사람이 그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려는 것 외에 무엇이겠는가? 주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다. 그분이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정신적 인색함은 물질이 영혼보다 값이 낮은 만큼, 금전적 인색함보다 훨씬 더 큰 죄악이어야 한다. 긍정적인 진리를 전파할 때는 거짓, 즉 잘못된 개념이나 오해, 편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것들은 진리의 빛이 넓어짐에 따라 저절로 줄어들겠지만, 직접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의 편견에 맞서 무장하는 사람은 지적 편견에 맞서는 사람보다 더 큰 선행을 베푸는 것이다. 특히 후자가 마음을 왜곡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마음을 형성해 준다면 더욱 그러하다. 마음의 편견이란, 사람을 죄 속에 묶어 두거나 죄로 인한 눈먼 상태를 초래하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본성이 요구한다”라고 말하며 정욕을 정당화하거나, “살아 있는 자는 살아 있는 것을 헤아린다”라고 말하며 지나친 걱정을 정당화하는 등입니다. 이러한 편견을 밝혀내고, 지적하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영원한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두 번째 편견에 관하여. 우리의 가련한 의지여! 그에게는 종종 알지 못하는 규칙이 필요하고, 종종 생각에서 빠져버리는 동기가 필요하며,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종종 모르기 때문에 지도가 필요하다. 그러니 깨우치고, 굳건히 세우고, 길을 제시하라. 우리 모두는 서로 가르치기 위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삶은 무엇보다도 ‘학문’이라 불린다. 타인의 삶의 방식에 대한 무관심은 얼마나 큰 악인가! 많은 이들은 단지 내면의 비승인이나, 구석에서 왈가왈부하며 비난하는 데 그친다. 어떤 이들은 더 나쁜 짓을 한다: 비록 가식적이긴 하지만, 타인의 악한 행위에 대해 찬성의 신호를 보내며, 그로 인해 그가 악을 저지르는 데 더 대담하고 뻔뻔해지도록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를 더 불행하게 하거나, 그에게 더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다. 아니요! 타인에게 특히 자신에게 위험한 점이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를 차분하게 만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신은 솔직하게 행동하라: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기회를 노리며, 가까운 관계를 맺고 그를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만들며, 그 밖의 방법도 동원하라.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도 말이나 행동으로 그 행위에 대한 묵인이나 동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문제야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불만의 신호를 보냈다면, 그는 지금쯤 제정신을 차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가 도대체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는가? 그를 깨우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그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되, 네가 그 일이 그렇게 진행되도록만 꾸며라.

2) 육체에 대하여.

몸은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의 기관이자, 동시에 우리를 미래 세상의 시민으로 형성하는 조건이다. 몸은 영혼과 그토록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 상태가 좋은 나쁜 영혼에도 영향을 미치며, 영혼을 선으로 이끌기도 하고, 적어도 방해하지는 않으며, 악으로 이끌 때에도 영혼에 순종적으로 복무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러니 네 형제에게도 이 일에 도움을 주어, 그

의 충실한 종이자 동시에 언제나 준비된 적인 몸을 올바르게 가꾸는 수고를 덜어주라. 이 의무는 다음을 요구한다: 가) 형제의 몸의 안녕, 온전함, 건강을 온갖 방법으로 도모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행동으로, 더 나아가 말로; 즉, 그에게 생계를 꾸릴 수단을 마련해 주고, 유익한 일에 대해 조언하며, 해로운 것을 지적하고 직접 그것을 막아 주어야 한다. 육체가 영혼의 적합한 도구가 되고, 영혼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육체의 목적을 온갖 방법으로 돕아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육체를 먹이고 따뜻하게 하지만, 어떤 이는 지나치게 많이, 또 어떤 이는 지나치게 적게 한다. 무분별한 노동자를 깨우치고, 특히 술주정뱅이, 방탕한 자, 폭식가, 쾌락주의자를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큰 선이다. 왜냐하면, 후자들의 경우 영혼이 육체의 폭정에서 지옥처럼 벗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도 요나판이 꿀을 맛보았듯이 빛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조언할 때 영혼을 잊는 사람은 잘못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를 양육하고 안식하게 하는 조언에는 신중해야 하며, 오히려 육체를 불안하게 하는 데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b) 생명의 위험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예방해야 하며, 특히 형제에게 건강 악화나 생명의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개 영혼과 육체의 과도한 긴장, 즉 정욕의 자극—특히 분노, 공포, 기쁨, 슬픔과 같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다; 이쪽에서는 부당한 노동 요구나 강요, 사정을 모른 채 하는 부적절한 조언, 싸움이나 주먹다짐, 위협할 수 있는 놀이 등을 부추기는 것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나 가) 무엇보다도, 행동으로든, 방조로든, 동의로든, 공개적으로든 은밀하게든 타인의 생명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살인자는 생명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 대항하며,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살해당한 자의 상태를 불확실하게 만드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운 심판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를 앞당겨 생명을 끊는 자는 미성숙한 영혼을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된다.

이에 대해 길게 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행위는 그 자체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정해진 바를, 특히 우리 형제들의 영혼 구원에 관한 것을 명심하고, 말과 글, 혹은 선한 글들을 전파함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3) 안녕과 행복에 관하여. 이웃의 영혼과 육신을 돌보는 것은 그 사람의 온전함을 돌보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행복이나 안녕을 누리고 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주목할 때, 우리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갖게 된다.

가) 영적인 행복.

우리는 행복을 대개 외적인 것, 즉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의 흐름이라고 부르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행복은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즉 기쁘고, 즐거우며, 평온한 영적 상태에 있다. 이 상태는 외부 상황과 거의 일치하지 않으며, 그 자체의 법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여기에 우선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식으로든 형제의 내적 평온을 교란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온갖 방법으로 그 평온이 공고해지고 고양되도록 도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치 남의 텃밭에 침입하여 거기 있는 모든 채소와 꽃을 가리지 않고 뜯어내는 강도와 다름없다.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평온을 주셨는데, 네가 그것을 훔치는 것이다. 단 한 가지의 불안만 허용되는데, 바로 죄인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며, 그것도 잠든 상태에서 깨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그의 뼈를 부수어, 절망에 빠질 때까지 슬퍼하게 하며 밤낮으로 평

안을 찾지 못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고린도 사람들을 슬픔에 빠뜨림으로써 이에 대한 본을 보였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슬픔은 회개를 낳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고린도후서 7:10). 무엇으로 인해든 혼란에 빠진 사람을 보게 되면, 가서 슬퍼하는 이를 위로하고, 그의 마음의 상처에 반창고를 붙여 주며, 말과 행동으로 위로를 쏟아 부어라. 이때는 이미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지만, 위로하는 솜씨가 있다면 더욱 큰 위안이 된다. 다만 가장 중요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슬퍼하는 이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님 안에서 그를 기쁘게 하고, 그가 슬퍼하던 바로 그 일로 인해 기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을 평생, 모든 상황에서 행복하게 만들며,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연약한 이에게 외적인 위로도 좋지만, 그것은 일의 절반에 불과하며 오직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섭리의 뜻에 어긋나게 될 것이니, 모든 슬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께로 부르시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주의를 돌린다면,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동이 아닐 것이다.

b) 외적인 것.

외적인 행복은 좋은 명성, 풍요, 그리고 순조로운 일의 흐름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중 어느 하나를 잃거나 부족하면 우리는 평안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aa) 좋은 평판은 사람에게 주변 사회에서 위상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신뢰의 토대가 되며 호감을 사게 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반대로 그것을 잃는 것은 손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방법으로 그의 선한 명성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거나, 즉 존중할 의무를 다하여 항상 감정으로 타인을 자신보다 더 높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이웃의 명예를 자신과 타인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마음가짐이 허를 묶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할 것이다.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은 이미 제 역할을 한다. 단지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물리치기만 하면 된다. 즉, 영혼과 육체의 자연스러운 결점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불행한 처지 때문에 형제를 폄하하는 일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형제에 대한 불의이다. 그러나 도덕적 결점을 목격할 때에도 모든 불만을 죄와 그 주동자인 마귀에게 돌려야 하며, 형제 안에서는 훼손당하는 고귀한 본성과 은총, 약탈당하는 하나님의 보물을 보아야 하며, 자유로워야 할 그가 얽매어 있고, 건강해야 할 그가 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며, 주님 앞에서 그를 위해 통회해야지,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타인의 행실에 관찰의 눈을 덜 돌리고, 오히려 자신에게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자신의 눈의 간사함으로 인해 타인의 모든 행실에서 오직 나쁜 점만 보는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의심과 과민함, 내면의 비방이다. 그러니 이 때문에 타인에 대해 ‘그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단호한 판단을 즉시 내리면 안 된다. 이는 이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비난이다. 타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듣게 된다면, 귀를 막고, 비방하는 자와 진실한 친구를 구분하여 비방하는 자를 쫓아내거나 스스로 그에게서 도망쳐라.

모든 말과 소문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큰 부주의이다. 그러면 즉시 자신의 영혼이 더러워지고, 그 안에서 형제의 얼굴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처럼 타인의 이름을 성물처럼 마음속에서 신

성불가침하게 지켜낼 때, 밖에서도 그것을 지키는 데 큰 수고가 들지 않을 것이다. 그때의 원칙은 이러할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거나, 오직 좋은 말만 하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침묵하며, 농담으로든 심지어 유감스러운 척하며라도 그에 대해 암시하지 말아야 한다. 형제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그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즉, 보호하고, 변호하며, 이 일시적인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도 헛된 소문, 농담, 비아냥, 재치 있는 말, 더 나아가 악담과 중상모략, 특히 공개적인 중상모략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선한 이름을 자신과 타인 안에서 거룩하게 지키는 데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 내면의 비난과 외부의 험담은 교만의 첫 번째 산물이며, 그 본성상 모든 형제를 비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끊임없이 맴돈다. 어떤 것은 생각 속에서, 다른 것은 입에서. 이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정죄보다 더 흔한 죄는 없지만, 더 위험한 죄도 없다.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짧은 마음속 정죄 때문에 수년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단호하게 말한다. “정죄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는다.” 어떤 이들은 별다른 공덕 없이도 오직 이것 하나만으로 구원을 얻기도 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정죄에도 파멸이 따르니, 이는 하나님을 잊는 것과 거짓, 그리고 마귀의 교활함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정죄하지 않는 자여, 네가 얼마나 많은 악을 피하고 있는가!

bb) 풍요란 재산, 소지품, 즉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자연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들, 즉 음식, 옷, 거처,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 혹은 ‘생활용품’이라 불리는 사물들의 총체를 말한다. 인간은 생존 본능과 함께 이러한 것에 대한 돌봄을 부여받았으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이를 돌보고, 돌볼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다. 모든 것은 땀 흘리며, 힘과 피를 쏟아부어 얻어진다. 그 대가로 만족은 영혼을 달래고, 마음에 기쁨을 채워주며, 삶의 자유를 준다. 풍요로움 속에서는 마치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의 모든 소유물, 즉 그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너에게 건드릴 수 없는 성스러운 것이 되게 하라. 그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그의 피의 대가이니, 건드리지 말라. 네 것이 아닌 물건을 발견하면 주인을 찾아 그에게 돌려주라. 찾지 못하면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 이는 하나님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물건을 잃어버리고 주님께 말하길, “그것이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소서”라고 한다. 이처럼 우리는 형제의 뜻과 그 뜻을 들으신 분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도둑질이나 불의한 재판, 매매 시의 속임수, 교환 및 기타 어떤 방식으로든 형제의 재산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오히려 조언과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의 재산을 증진시키는 데 온갖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만족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의 이마에는 기쁨이 가득하다. 결핍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은 슬프다. 그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머리와 눈을 처진 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종류의 죄에 대해 가장 엄중한 심판이 정해져 있으며, 특히 가진 것이 적어 조금만 빼앗아도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자들, 즉 고아, 과부,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죄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자들은 살인자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시라 34:21-22).

bb) 순조로운 일의 진행. 사람은 활동적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일, 즉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맡기신 일과 그 속에서 일생을 보내는 일들이 있다. 좋은 명성과 어느 정도의 풍요

와 함께 이것들은 사람의 몫을 이루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며, 오히려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작은 수고가 좋은 성과로 보상받도록, 큰 방해가 없고 헛되이 힘이 소모되지 않도록, 불필요하고 성가신 지체가 없도록, 즉 모든 것이 마치 잘 조율된 기계처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마련된다. 이를 갖춘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일을 하러 나가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누리며, 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의 흐름에는 노동과 타인과의 교류, 심지어 시간과 장소에 따른 모든 일상적인 활동의 순서까지 포함되는데, 보듯이 이 모든 것은 때로는 얽히기도 하고 때로는 전개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이를 돕고, 장애물을 두지 않으며, 어긋난 것을 바로잡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지 스스로 그것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다. 타인의 일을 어긋나게 하는 것은 큰 악행으로, 그 일의 주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뒤흔든다. 이로 인해 그런 사람은 일반적인 말로 ‘원수’에 비유된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이는 은인이며, 영혼의 위안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이자 그분의 대리자로서, 주변에 기쁨을 퍼뜨리고 태양처럼 모든 이를 따뜻하게 감싸 안는다.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 쏠려 있다. 그리고 누구나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조언, 행동, 도움, 혹은 그에게 부족한 힘을 보태주는 것으로 가능하다. 필요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하라. 조언, 봉사, 그리고 대출은 사회성을 이루며, 이는 가장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사랑스러운 미덕이다. 누구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항상 적절한 분량만큼 가질 수는 없다. 한 사람은 어떤 것이 풍족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이 풍족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치 그릇에서 그릇으로 넘쳐흐르듯, ‘행복’이라 불리는 하나의 음료가 만들어지도록 상호 협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타인을 위해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하라. 자신이 기꺼이 나서면, 다른 이들도 기꺼이 나설 것이며, 하느님께서도 그를 도우실 것이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알아차렸다면, 부탁을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스스로 도와주라. 남을 돕는 사람은 주변 모든 이에게 오른팔과 같은 존재이다. 빌려 달라고 하면, 자신을 파산시키지 않고,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주라. 그리고 믿음과 정신적 강인함이 충분하다면, 누가 청하는지, 무엇을 청하는지 가리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이타심과 유순함이라는 미덕을 단련할 수 있는 장이 된다.

형제에게 온갖 방법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면, 그가 우리와 어떤 조건을 맺고자 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즉, 우리에게서 특정 물건을 얻고자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 주려는 경우이다. 여기서부터 온갖 종류의 거래가 시작된다. 그 기초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무엇을 약속하는지 알고, 지킬 수 없는 것은 약속하지 마십시오. 약속은 지켜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약속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신뢰가 쌓이고 정직이라는 미덕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복 수준은 ‘부유하고 명망 있는 사람’, ‘만족한 사람’, ‘가난한 사람’, ‘빈민’이라는 말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우리 형제들은 모든 부의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월하거나 우리와 동등하다. 이러한 단계는 일정한, 마치 변하지 않는 것처럼,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고정되어 형제의 특정 상태를 이루기도 하고, 번덕스러워서 밀물과 썰물처럼 때로는 높아지고 때로는 낮아지며, 행운이나 불운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첫 번째 경우, 즉 너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즉 부유하고 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를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지 않으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릇이라는 이유로 그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하되, 그가 행동으로 자신을 낮추는 경우에는 아첨하지 말고, 침묵하며 피하거나, 적절한 때에 진실을 말하되, 거만함 없이 마치 간청하듯이 하라; 그가 부를 때, 그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거절하지 마라. 그는 가장 광범위한 활동 영역을 가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단이 필요하며, 네가 그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한다. 거기서 비롯된 선한 일은 너에게도 귀속될 것이다. 낮은 자에 대해서는: 그를 멸시하지 말고, 계명에 따라 형제적 존경심으로 대하라; 항상 그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 호의로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어, 마치 어떤 날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네 관심 아래에 있음을 느끼게 하라; 모든 면에서 그를 돕고, 그의 복지를 모든 부분에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여하라. 여기서 특별한 부류를 이루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다. 풍족한 자는 누구나 욕처럼 그들에게 발이 되고, 손이 되고, 눈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에게 “*가난한 자를 네게 맡겼으니, 고아의 도우미가 되어라*” (시 9:35)라고 말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며, 벌거벗은 자를 입히고, 감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나그네를 편히 쉬게 하고,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아낌없이 베풀라. 구제는 죄를 씻어 주므로, 이를 통해 하나님과 주님을 가장 닮게 된다. 주님께서 자선을 베푸는 이들에게 그토록 가까이 내려오셔서, 그들이 드리는 것을 친히 받아 주시니, 이는 지극히 높은 일입니다...

두 번째 경우, 행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형태의 불행이든, 행복으로 기뻐하는 이들도 있고 불행으로 슬퍼하는 이들도 보게 된다. 이 점에 있어 법칙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은 인간의 마음에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타락을 통해 들어온 정욕들이 이를 왜곡시킴으로, 타인의 행복에 대한 기쁨 대신 그에 대한 슬픔이나 시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불행에 대한 슬픔 대신 그에 대한 기쁨이나 악의적인 기쁨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악마적인 심리는 묘사할 수조차 없는 다양한 뉘앙스로 나타난다. 동경과 위로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즉, 한 사람에게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는 위로와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꺼이 도와줄 준비를 해야 한다.

누구도 이 모든 것이 겉으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니, 단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즉 선한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되거나 비롯되어야 하며, 타인의 겉모습을 향해 다가감으로써 그 내면을 따뜻하게 한다. 형제애의 기운은 봄의 온기처럼 생기를 불어넣는다.

2b)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드러내는 장은 상호 교류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형제들에게 가져야 할 필수적인 마음가짐과 행실이다. 이 모든 것은 실현되기 위해 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필요로 하며, 그것이 없으면 마치 씨앗처럼 미발달된 채,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상호 교류는 비록 부수적인 의무이긴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여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무이다. 이는 이웃에 대한 의무에서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의 관계와 같다. 그러므로:

1. 모든 그리스도인은 상호 교제에 대한 의무가 있다. 기꺼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또한 스스로를 그렇게 다스려 모든 사람이 주저함 없이 열린 마음으로 네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라. 이와 반대로

모든 사람을 멀리하는 자는 이 의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소외는 마음의 추함이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받은 은둔이나 은자 생활과는 다르다. 은자는 육체적으로는 다른 이들과 분리되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들과 함께 머무르는 반면, 이 소외된 자는 그들 가운데 살면서도 영적으로는 모두와 단절되어 있다. 소외된 자는 차가워지고, 가난해지며, 영적으로 죽어간다. 반대로, 모든 이와 교제하는 사람은 마음을 열고, 풍요로워지며, 충만해지고, 성숙해져서, 오직 하나님과 천사들과의 끊임없는 교제만이 이보다 더 높을 뿐이다. 그것은 또한 자기 인식의 학교이기도 하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쉽게 자만하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면 겸손을 배우게 된다...

2. 상호 교제의 의무는 단순하지만 포괄적이다... 이 의무는 이웃에 대한 다른 모든 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따라서 수많은 미덕을 드러내는데, 이 미덕들은 본질적으로는 이미 설명된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태도를 적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여기서는 특별한 명칭과 특별한 속성을 갖게 된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가) 진심 어린 환대를 가져야 한다. 즉, 마음에서 우러나와 누구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타인의 방문이나 만남으로 인해 만족스럽고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끼며, 진심으로 기뻐해야 한다. 이때 지루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은 옳지 않다.

b) 친절함, 즉 상대방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고, 우리에게서 즐거움을 느끼며, 활기를 되찾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하여 결코 우울한 기분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조적 태도, 친근함, 다정함, 그리고 예의 바른 소박함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은 부담스러운 존재다... 자신도 지치고, 다른 사람들도 지치게 만든다.

c) 겸손. 자신의 장점을 숨기고, 반대로 타인을 자신보다 높이 평가해야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현학적 태도, 오만, 허세이다.

d) 온유한 평화 사랑. 자신도 모욕받지 말고, 타인도 모욕하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마음을 타인과 화합된 상태로 유지할 줄 알아야 한다. 평화로움은 스스로 타인과 화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화해시키기도 하며, 마치 평화를 이루는 것처럼, 혹은 온유함처럼 모욕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모욕적 성향, 성급함, 분노, 까다로움, 불화이다.

다) 양보하는 온유함. 지혜는 지혜와 만나고, 의지는 의지와 만난다. 각자가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할 때, 논쟁과 불화가 생겨난다. 온화한 성품의 사람은 진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밝혀낸 후에도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서 평화를 깨지 않기 위해, 상대를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기회를 기다리며, 고집스러운 집요함을 겸손하게 피한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헛소리, 비협조성, 논쟁성, 욕설이다.

e)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자신이 확신하는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라. 교활한 거짓말, 기만, 교묘한 속임수는 순전히 악마적인 행위들이다.

g) 분별 있는 말. 상호 교류의 목적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선을 위한 상호 창조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썩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말할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한다. 이에 반하는 것은 헛된 수다, 오로지 농담과 재치뿐인 말들이다.

h) 비밀 지키기. 서로 만날 때면 생각과 정보가 끊임없이 오간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한 사람에게서 들은 것을 불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아야 하며, 특히 그것이 해로울 수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라. 누군가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침묵을 조건으로 했다면,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는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양심 없는 배신자이기도 하다.

3. 이것이 바로 상호 교제에 필요한 미덕들이다! 상호 교제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상호 방문이다. 이는 사랑과 필요에 따라, 그리고 기쁜 휴식을 위해 정립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누구와 언제 이를 실천할지는 상황이 알려줄 것이다. 다만 이때 상호 교제의 모든 미덕을 온전히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 된다... 개방적이고 폭넓은 상호 교제의 특별한 형태는 모임과 연회입니다. 그것들은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아 더덕진 사랑의 발전을 다시 움직이게 하여, 그로 인해 모든 이의 내적 유대를 고양시키고 공고히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볼트 기둥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만, 이를 제정할 때는 육신과 원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과 구원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본보기는 고대의 사랑의 모임들이다. 이러한 세속적인 연회보다 더 높은 차원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연회,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만찬이다. 주님께서 친히 이를 위한 규칙을 정하셨다(눅 14:12-14). 사랑이 고갈되면서 오늘날 이러한 모임은 거의 사라졌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유지되고 있다. 오늘날 그것들은 주로 나그네를 환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는 약속이 풍성한 위대한 미덕이다. 왜냐하면 궁핍한 이에게 건네진 물 한 잔조차 하늘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 아니니, 하물며 완전한 안식은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4. 상호 교류는 참된 기독교적 사랑을 실현하고 동시에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된 형태에서는 이를 이루어내지만, 거짓된 형태에서는 연합 대신 분열을, 사랑 대신 원한을 심는다. 이는 미덕 대신 정욕이 작용하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처럼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는 은인, 친구, 그리고 적을 얻게 된다.

우리는 친구와 은인들에게 진심으로 애착을 갖게 된다. 이를 가르치거나 강요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애착이 배타적이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도록, 그들과 소원해지지 않도록 주의시킬 뿐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친절하고 매력적인 성품이다...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한다. 감사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영혼의 표징이다... 그것은 또한 거의 타고난 감정이다. 다만 그 감사를 사람들만을 향한 데서 멈추지 말고, 그들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모든 것은 그분께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특별한 은혜를 제외하고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끊임없이 도움을 받는다. 어떤 도움이라도 감사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친구와 은인을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하며, 자신의 실수로 인해 그들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오래된 친구가 새로운 친구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기서 결별은 슬픈 만큼이나 삶과 도덕성 모두에 위험하다. 결별한 후 다시 화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물론, 변화가 우리 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은인에게 가능한 한 보답하려고 애써야 한다: 도움을 주거나, 소원을 들어주거나, 일을 제안하는 등.

친구는 소중한 존재이므로, 그들을 선택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적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도 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힘이 닿는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로 12:18; 히 12:14). 만약 어떤 이유로든 원수가 생겼다면, 그에게서 사랑을 거두지 말고, 온갖 양보를 다하며 그와 화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더욱이 화해의 제안이 들어올 때는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 그가 화해하려 하지 않더라도, 너는 그에게 형제처럼 대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것을, 심지어 그 이상으로 행하라. 특히 그에게 자비를 베풀며, 원수에게 베푸는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사랑의 가장 확실한 시험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나 어떤 명목으로도 복수해서는 안 된다. 이는 사탄의 짓이다.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늘에 있든 땅에 있든 이 몸을 이루는 모든 이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마칩니다. 다만 끊임없이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연합에 대한 관심은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독교 활동의 주된 목표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여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교회 그 자체도 구원의 집으로서, 또한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이 유일한 목적을 위해 존재하며, 이 유일한 목적을 실현하는 정도에 따라 참된 교회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몸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살아 있는 연합을 이루며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심지어 머리와 연결되어 있기에 연합하여 살아가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진심으로 연합할 때에만 서로 굳건히 연합하게 된다.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 17:21). 기독교적 사랑은 기독교적 경건의 직계 후손이며, 다른 기원은 없습니다. 자선적 사랑 하나에만 근거하여 구원의 희망을 품는 자들은 헛되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행위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며, 모든 행위를 움직이게 하는 영이 있어야 한다... 기독교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한 교회 안에서 임한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마치 하나의 사슬 고리들처럼 서로 얽혀 있다.

가)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지키고 양육해야 하는가

c)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살아있는 연합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어떻게 다스리고 양육해야 하는가

신자들 간의 살아 있는 연합이 마치 몸의 지체들 사이의 연합과 같다는 개념에서, 이 연합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다른 지체를 위해 활동함으로써 온 몸의 힘(형성하는 힘)으로 스스로 형성되듯이, 그리스도인도 온전히 교회의 몸을 위해 활동함으로써 온 몸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탱하고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연합이 자유롭다는 것, 즉 자유에 기초하고 자유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인이 이미 교회의 몸의 일원이 된 후에도, 그는 마치 어떤 필연성에 의해 강제로 억눌리

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스스로를 지킴으로써만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몸의 일원으로서, 교회와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가?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교회에서 받는 신적 은총의 본질적으로 필수적인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스스로를 형성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질문이 제기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형성해야만, 이러한 저런 지체들과 살아있는 연합을 유지할 자격을 얻고 그럴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이 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가깝고 우리 각자에게서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주된 약점, 즉 ‘자기 중심성’이 모든 것을 자신 안으로 끌어들이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으려 애쓰기 때문에 더욱 필수적이다. 진정한 자기 사랑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기가 어려울수록, 이를 위한 지침이나 필요한 규칙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 자신에 대한 기독교적 활동의 주된 기초는 자기 희생이지만, 그것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분별하게가 아니라 분별 있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자기 중심성’이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자신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인이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어떻게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 방식의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그는 이름뿐이 아니라 영으로 교회의 참된 일원이 되고,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항상 참되고 살아있는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부정의 실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다스리고 형성해야 하는지가 결정됩니다.

이로부터 기독교인의 시선이 향해야 할 두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로 믿음과 교회의 영, 그리고 자신의 온전한 존재와 상태이다. 거기서 그는 자기 자신을 대하는 행동의 영과 일종의 이상을 얻으며, 여기서는 그 원칙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스스로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자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어내야 하는지를 깨닫는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머리 아래 교회와의 연합 조건에 따라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연합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의 이러저러한 부분이나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규정해야 한다.

아아) 교회와의 연합에 들어감에 따른 기독교인의 감정과 마음가짐. 첫 번째 항목과 관련된 모든 것은, 기독교인이 믿는 자들과 구원받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와 연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사고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다양한 질문들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보게 되는 적절한 감정과 태도를 이끌어낸다. 즉, 이미 교회에 들어왔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무엇을 위해?

가) 어디서 들어왔는가? 파멸의 심연에서이다. 사탄의 손아귀에 있었고, 죄에 팔려 있었으며, 죽음과 지옥의 세금을 내야 할 처지였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지나갔다. 그러니 네가 어디서 나왔는지 기억하고, 생각으로 그 심연의 어둠을 더 자주 되새겨, 행실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쏟아내며 그분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시여, 영광을 받으소서!” – 구원하시는 손길이 줄어들지 않게 하고, 네가 다시 그곳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생각으로 그 상태로 내려가서, 사람이 스스로 얼마나 큰 악을 자초했는지,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깨닫고,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슬퍼하며 탄식하라. 즉, 타락에 대해 울어라. 이

처럼 타락이라는 심연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과, 그에 대한 통곡,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격 어린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되돌아볼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다. 그것들이 필수적인 이유는, 그 대상이 인간의 생생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으며, 그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 안과 밖에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로서, 왕 앞에 선 죄수처럼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역시 항상 자신을 그렇게 자각하고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을 배우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타락에 대해 기억하고 애도하기 위한 특별한 날을 정함으로써 이를 인도하며, 이를 위한 말씀을 주신다. 많은 성부들은 오랫동안 이 통곡에 몰두했으며, 이 통곡을 찬송가 속에 담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이 통곡의 본질은 슬픔, 애타는 그리움, 그리고 분통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본성에 대한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처지로 몰아넣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b) 어떻게 들어갔는가! 세례를 통한 언약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위해 항상 일하겠다는 서약을 위해, 사탄과 그의 모든 행위를 짓밟음으로써 모든 악에서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1) 세례 때 네가 한 서약을 기억하라. 그것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네 서약을 받아 주시고 그 서약 때문에 이미 자비를 베푸셨으며 앞으로도 더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한 것이다.

2) 그 서약에 대한 충성을 지키라. 충성을 저버리는 순간, 주어진 모든 것이 빼앗기고 약속된 것은 무효가 된다.

3) 이곳에서 네게 주어진 특권을 경건하게 존중하라. 조건을 어김으로써 기독교의 이름과 힘을 훼손하지 말라.

4) 죽을 때까지 이 서약을 지키라. 배교하는 순간 모든 의로움은 무효가 된다. 끝이 면류관을 씌워 준다. 오직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충실하고 변함없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는다. 죽을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네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5)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서 싸우라. 자신을 전사로 자각하며, 마치 파수꾼처럼 적을 무찌를 준비를 하라. 경계하고, 깨어 있으며, 긴장감을 유지하라.

그러므로 세례 서약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얻은 특권을 소중히 여기며,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싸우며 죽을 때까지 그 서약에 충실하라. 서약을 어기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극심한 재앙이 따르니, 서약을 어긴 자는 그 재앙에 빠지게 되며, 어쩌면 그곳에서 구원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c) 무엇을 위해 들어왔는가? 구원을 위해서다. 오직 구원을 찾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이곳에서 구원을 얻기를 바라며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설교의 의미이다!... 너는 멸망하는 자다. 이리 오라! 보라, 이것이 구원의 집이다! 믿는 자는 이를 고백하며 말한다. “나, 멸망하는 자는 구원을 얻기 위해 나아오나, 이곳 외에는 어디에서도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믿

는 자들의 공동체는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집이지만, 아직 구원받지는 못한 자들의 집이다. 구원의 능력은 장차 올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지금은 단지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 뿐이며, 그 능력은 은밀하고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 즉, 단지 열매만을 거두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도 들어가는 것이다. 교회 정면에는 ‘찾으라, 힘쓰라, 구하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기독교인은 교회에 입교하는 바로 그 순간에, 혹은 그 후에 이에 대한 서약을 하고 교회에 들어갑니다... 의문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힘을 받아들였으니, 이제 공기 중에서 폐로 들이마신 산소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듯이, 그 힘을 우리 존재 전체에 퍼뜨려야 합니다. 또 하나: 악은 깊게 뿌리박혀 있으므로, 이를 배척하고, 그 안에서 본연의 힘을 해방시켜, 그 힘과 함께 받아들인 은총의 힘을 녹여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본연의 힘과 은총의 힘을 함께 발전시키며, 후자로 전자를 성화시키고, 전자를 후자를 통해 흐르게 하거나 후자가 전자를 관통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독교인들에게 고유한 열망은 그들 자신의 내적 변화이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더 높은 소명의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숙함에 이르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함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완전함의 척도는 그분과 가장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므로, 완전함을 향해 힘쓰는 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우리 안에 형상화하며, 그분의 완전함을 우리 자신에 새겨 넣는 의무와 동일합니다. 또한, 완전함의 본보기는 무한한 반면 우리는 유한하므로, 그분을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바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해서는 안 되며,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뒤는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뚫어가며,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빌 3:13) 나아가야 한다. 이미 도달했다고 느끼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 그 결과로 힘과 삶의 정체는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구원을 추구하는 자는 은혜롭고 타고난 힘을 발휘하여 완전함을 추구하고, 자기 안에 주 그리스도를 드러내려 노력하며, 결코 “충분하다”고 말하지 말고,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거나 항상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갈 때 가져야 할 근본적인 감정과 태도이다. 여기에서 자신의 본성에 대한 존중이 첫 번째로 놓이지 않았다고 해서 누구도 놀라지 말라. 이 존중받을 만한 본성은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 왜곡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탄식해야 하며, 이를 두고 탄식하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한숨을 쉬어야 한다. 또한 왜 인본주의의 원칙에 대한 충실함 대신 세례 서약에 대한 충실함이 필수로 제시되고, 불확실한 먼 미래를 향한 진보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더 높은 지위에 대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강조되는지, 이는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교도 도덕주의자의 언사이다. 세상에 살면서는 말들을 분별해야 하며, 모든 울림 있는 말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세상에는 거짓과 아침이 많이 떠돌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오직 그 말씀만이 이 삶의 어둠 속에서 믿음직한 등불이다.

아아) 그 결과로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1) 가장 중요한 법칙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

이다. 그는 ‘새로운 피조물’, ‘다시 태어난 자’라고 불리는데, 이 새로운 탄생이 그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래적 의미와 그 이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를 그 자신에게 맡기셨으니, 그의 영혼이 선택한 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러나 동시에 자유의 속성과 인간 영의 본질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은밀한 명령을 담아 두셨다. 이는 이해되지 않았거나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행되지 않았다.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그들에게 종처럼 섬기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사람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을 행할 자격이 없다. 그의 자유를 회복시키고, 그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하며, 자신의 폭군인 마귀를 발 아래 굴복시킬 힘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탄생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되며, 마귀를 짓밟을 담대함과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그 쓰라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왕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면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며, 자유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본래의 조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즉, 자유롭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사도는 “*살아 있는 돌*” 이신 주님께 나아온 자들에게, 스스로를 “*영적인 성전, 거룩한 제사장 직분으로 세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리라*”고 명한다(벧전 2:5).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첫 번째 법이다! 자신을 다스리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리되, 네 온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 이 제물은 죽음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다. 꽃을 햇볕에 내어 놓으면 꽃이 따뜻해지고 생기를 얻는 것처럼,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생기를 얻게 된다. 이처럼 이 자기 희생 속에,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명과 참된 완전함이 모든 부분, 즉 그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것에 담겨 있다. 자신의 내면과 외면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대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제력과 자기 희생은 그의 전인격과 그의 모든 것에 미친다. 그 안이나 밖에서 그 어떤 것도 그의 권세를 벗어나거나, 그 밖에 있거나, 더 나아가 그에 대항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자유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헌신되지 않은 것, 즉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어 스스로 확립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끊임없는 제사장이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제물이다.

2) 자기 희생의 측면. 모든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기에 두 가지 측면, 즉 그 사람 자신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상태가 뚜렷이 구분되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필수적인 희생도 이 두 측면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

사람의 인격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영적 희생과 육체적 희생이 있다. “*너희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6:20). 영혼을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몸을 다스리고 그것을 바로 그 하나님께 바치라(로마서 12:1).

2a) 영혼의 제사.

영혼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다. 네 영혼을 멸하면 구원받고, 멸하지 않으면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주께서 명하신 바이다. 이 멸함은 이미 거듭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온전한 것이

있는 곳에 그 일부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영혼에 마음을 기울일 때마다, 영혼을 전체적으로도 부분적으로도 멀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해석이다. 자신을 발 아래 엎드려 무자비하게 짓밟아라.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다. 그는 수고로 지칠 수는 있겠지만, 열매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영혼을 멀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모든 선을 망치고,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든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제 부분별로 살펴보자.

자신 안의 모든 것을 제물로 바쳐, 거룩하게 되거나 참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1. 지혜를 얻기 위해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라. “누구든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면, *어리석어지라*”고 사도가 말합니다(고린도전서 3:18).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은 그분으로부터 참된 지혜로 충만해 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에서 자기의 지혜를 빼앗아, 그것을 제압하고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기의 마음을 갖지 않아야 하며, 성스러운 수행자들이 말하듯, 자기의 이성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이 의무는 그리스도인이 진리라고 인정할 때, 자신의 추론으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전해졌기 때문이라고 인정할 때 이행된다. 또한 계명과 교리를 받아들일 때, “왜?”라고 따지지 않을 때! – 의아해하며 “그렇지 않나요?”라고 묻지도 않고, – 현명해 보이려 애쓰며 “이쪽이 더 낫지 않나요?”라고 제안하지도 않으며, – 어린아이처럼 주어진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복종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수용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진 거룩한 진리들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의무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모든 것을 포용하는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만물의 운명은 어떠한가? 인간은 무엇이며, 과거에는 무엇이었고, 지금은 무엇이 되었으며, 앞으로 무엇을 맞이할 것이며,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무엇인가? — 전반적으로 신앙의 모든 구성 요소가 마음에 담겨야 하며, 마음과 조화를 이루고 의식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에 따라 하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진정한 철학자임이 분명하다.

또한 기독교의 지혜는 게으르지 않고 활동적이며, 활동에는 행동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그와 항상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 바로 총명함과 지식, 즉 자신의 일을 어떻게 꾸려나갈지, 수단과 목적을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통찰력, 다시 말해 구세주가 “*뱀처럼 지혜로워라*” (마태복음 10:16)라고 말씀하시며, 사도도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행하라*”(골로새서 4:5)고 권면하신 바로 그 기독교적 분별력이다. 성부들은 이를 ‘신중한 고려’라 부르거나 단순히 ‘사려’라고 부르며, 이 분별력에 인간의 모든 일, 즉 내적·외적 모든 일의 통치권이 맡겨져 있다. 이것이 바로 조언의 은사이며, 주의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자신 안에 높은 분별력의 힘이 없더라도, 자신을 믿지 않고 지혜로 유명한 사람들에게 항상 조언을 구한다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분별력이 요구될 때, 반드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계명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일이 조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세속적 지혜나 과학적 교육에 대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이 지혜의 여러 분야 중에서 네 처지에 가장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 특히 네가 마음을 빼앗긴 분야와, 네 형

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택하라. 그리고 연구 방식에 있어서는, 네가 연구하는 각 학문의 원리를 하늘의 지혜의 빛으로 거룩하게 하거나, 심지어 이 영역에서 그 원리들을 끌어와 적용하도록 노력하라. 반면, 그 지혜와 상충되는 다른 원리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몰아내고 박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과 이성의 추론을 통해 사물에 대한 자신의 지식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다... 다만, 이것이 진정한 지혜를 이미 소유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영원하고, 천상적이며, 신성한 것이므로 주도적이어야 하고, 저 지혜는 일시적으로만 유효하므로 종속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이유로, 결코 말이나 생각으로 후자에 어떤 무조건적인 중요성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위에 두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아래에서 기어다니는 것처럼 여겨야 하며, 그것이나 그것을 이유로 스스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능력의 한계에 대한 또 하나의 지적. 능력의 정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 감사와 만족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해서 결코 괴로워하지 말라.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특별한 학문적 지식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사람들이 태어나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맡기시고, 그들의 번영과 선함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나저나, 종종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과 간구를 들어주시어, 태어날 때부터 닫혀 있던 것을 축복으로 열어주시기도 한다. 그러니 힘써 일하라. 수고를 통해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구하고 기도하라. 누가 믿었다가 부끄러움을 당했겠는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구원이 되는지 더 잘 아시기 때문이다. 만일 지식과 힘의 부족이 우리 자신에게, 즉 우리의 게으름과 방탕함에서 비롯된 것임이 드러난다면, 그 사실에 대해 깊이 회개해야 하며, 회개한 후에는 무너진 것을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2. 거룩해지고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뜻을 바쳐라. 사람이 자신의 뜻을 포기할 때, 주님께서 오셔서 그 뜻에 거룩함과 힘을, 즉 거룩한 규칙과 행동의 원칙,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고 지키기 위한 힘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뜻을 갖지 않는 것이 본분이다. 무엇을 하든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기에, 즉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고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 그 뜻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든 간에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한 조금의 관용도 없으며, 성부들은 단지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라고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그 뜻에 반하여 행동하라고 명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규칙과 원리로 채워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의지에 깊이 새겨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의지를 일깨우고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내적인 측면이다. 또한 내면의 영에 관해서는, 비록 처음에는 조건적인 것이더라도 그 의미와 선택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규칙들로 자신을 다방면에서 보호해야 한다.

이에 더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유연하고 신속하며, 이 일에 있어 꾸준하고 절제되며, 강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바이므로, 이 의무는 수도 생활에 대한 의무와 같으나, 극소수만이 이를 희미하게 인식하고 있을 뿐이다.

3. 하나님께 네 마음을 바쳐서 복을 얻으라. 마음은 무언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조물에 사로잡힐 때, 마음은 만족할 줄 모르고 갈망하며 고통받는다. 이 집착의 속박에서 마음을 해방시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 희생의 정도가 바로 복의 정도이다. 이 의무는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라*”(잠 23:26)는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뻐하라*”(빌 4:10; 살전 5:16), “*평화를 누리라*”(고후 13:11; 히브리서 12:14)라는 규율 속에 은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만을 위해 두지 않거나,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방종하지 않으며,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쁘며 복되다고 선포하신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본분입니다. 이는 곧 마음을 모든 것에서 떼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는, 마음의 감정이 제멋대로 행세하며, 마치 이성과 의지의 제멋대로인 것처럼 폭군처럼 군림한다.

그 다음에는 마음속에 거룩한 종교적 감정을 진정으로 각인시킴으로써 모든 거룩하고 신성한 것에 대한 공감을 길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순결한 마음의 청순함을 이루게 되며, 이는 끊임 없는 평온과 달콤한 온기를 뿜어내는데, 이를 하나님의 선물로서, 혹은 수고의 선한 열매로서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의무이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불어오는 감정, 심지어 가장 무해한 것들조차도 미적 대상에 의해 자극받는 것에 관한 규칙이 명확히 정해진다. 미적 대상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오직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비롯되었거나, 그 세계가 진정한 경건의 정신에 의해 용인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4. 마찬가지로 모든 하급 능력도 먼저 상급 능력에 복종시키거나 그들에게 봉사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상상력과 기억, 그리고 정욕과 소망이 포함된다. 사람이 타락하여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그 안의 제멋대로인 성향은 무엇보다도 하급 능력들에 가장 크게 반영되었으므로, 그가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상상력과 정욕, 욕망의 노예가 된다. 비록 하나님께 자신을 바침으로써 자기 안에서 주인이 되어 그들의 폭정에서 해방되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야생과 같아서 그 후에도 제어가 필요하며, 종종 소란을 피우고 반항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의무가 발생한다: 자기 자신, 특히 상상력과 정서의 움직임을 경계할 것; 자신의 하급 부분을 정복하고 굴복시키거나, 그것과 싸울 것; 내적 삶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자신의 목표로 이끌 것, 즉 그 안의 어떤 것은 완전히 억누르고, 다른 것은 활동하도록 허용하더라도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만 행동하도록 강제할 것.

이 하등한 부분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일 때까지 이를 계속하라고 명한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고 말한다(골 3:5). 여기서는 당연히 육체와 육체에 가장 가까운 저급한 능력들을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은 땅과 세속적인 것에 향해 있다. 물론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릴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제멋대로인 성향, 선하지 않은 대상들, 타락한 경향은 없애야 하며, 반드시 없애야 한다. 그 안에 혼란이 생기면 그것을 진정시켜야 하고, 실재에서 벗어나 공허하고 몽상적인 쪽으로 치우칠 때는 그것들을 실재에 묶어 두어야 한다. 그것들이 더 높은 힘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하라. 예를 들어, 지성에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미지를 제시하고, 기억해 내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무의미한 일들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언제나 영의 충동에 따라 깨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까? – 분노하십시오.

이 힘들의 허영심은 무엇보다도 외부의 허영에 의해 자극되므로, 이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자, 따라서 중요한 의무는 오락에 빠지지 말고, 산만해지지 말고, 은둔하며, 절제된 태도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산만함은 영을 소멸로 이끄는 길이자, 그 소멸의 결정적인 징후이다. 외부적인 오락은 은둔과 절제로 치유될 수 있지만, 내적 혼란의 다른 근원이자 동시에 자극제는 외부 감각과 허이다. 따라서 감각을 지키고 허를 다스려야 할 의무가 있다. 감각은 영혼에 불순함을 가져올 수 있고, 허는 영혼의 선함을 고갈시키고 흠쳐갈 수 있다. 다만, ‘허’ 뒤에는 수다스러움이, ‘감각’ 뒤에는 인상과 효과를 갈망하는 마음이, ‘오락’ 뒤에는 산만함이 숨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의 외적인 요소를 억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성향 자체까지 파고들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

2b) 육체의 희생.

이제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겠다. 몸은 영혼과 영의 그릇이며, 모든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기관이자, 지상에서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이며, 영원을 위해 자신을 단련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몸은 모든 관심과 보살핌, 그리고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을 지녔음에도 육체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영의 권세 아래 맡겨져야 한다. 따라서 육체에 대한 주요한 처우 방식은, 육체를 가장 필수적인 기관으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육체에 복종하는 자는 육체와 영혼을 모두 파멸시킨다. 몸을 돌봐야 하지만, 초연하고 냉정하게, 그에 대한 보살핌을 “정욕”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롬 13:14). 우리 안에서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그 자체로 목적이 되지 않는 몸은 저절로 발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몸을 단련하고 목적에 맞게 적응시키는 일은 사람 자신에게 달려 있다. 따라서:

1. 기독교인의 궁극적이고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이 중 어떤 것이 희생되어야 할 필요가 생기기 전까지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육체의 생명과 온전함, 건강을 지켜야 한다. 장수는 비록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간의 손길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위해 건전한 의학이 고안해낸 방법을 알아내고 가능한 한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을 위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 살아가지만, 생명은 그 조건이므로 소중히 여겨야 한다. 생명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 삶의 기간 동안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의 분량은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힘의 분량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삶의 전 기간에 걸쳐 분배해야 합니다. 힘을 지나치게 소모하면 열매도 적게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삶과 기력은 건강 악화로 인해 고갈된다.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어느 정도는 병들었지만, 단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다. 적어도 누구나 언젠가 기력을 잃을 정도로 병들 준비가 되어 있다. 건강을 지키고, 병에 걸릴 가능성을 예방하며, 이미 병이 생겼을 때는 유익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한계는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단호히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매 순간 그분의 결정이나 이 세상에서의 소환을 기다려야 하며, 결과적으로 매 순간 그에 대비해야 합니다.

2. 자신의 몸을 단련하여 이 땅에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몸을 활기차고, 튼튼하며, 가볍게 만들어야 한다. 활동적이지 않고, 약하며, 무거운 몸은 도대체 무슨 도구인가? 그러므로 인간의 손에 닿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러한 결점을 제거하고, 앞서 언급된 미덕을 몸에 간직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도덕성과 마음의 순결을 희생하여 얻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 체조 운동이 지정된다. 신체의 강건함과 활력을 위해 영혼을 죽이는 교육자는 악한 자이다. 반대로, 이러한 신체의 완전을 갖추는 것이 누군가에게 정신적 해를 끼칠 수 있거나, 그러한 해를 입지 않고서는 이를 얻을 수 없다면, 차라리 갖지 않는 편이 낫다. 목표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무엇이겠는가? 특히, 자신의 신분과 처지에 맞게 몸을 단련하거나, 자신의 역할에 맞게 몸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눈이 필요한 곳에서는 눈을, 손이 필요한 곳에서는 손을, 다리가 필요한 곳에서는 다리를 단련해야 한다.

3. 육체를 보존하고 형성할 때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은, 기독교적 완전함의 정신과 요구에 따라 육체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가) 끊임없는 긴장, 즉 파수꾼이 서 있는 자세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신체의 이완과 나태함은 사람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타락으로 이끌며, b) 끊임없이 신체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형태이든 육체적 안락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음식과 음료, 수면과 휴식, 피부 자극, 체온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 쾌락 추구, 폭식, 졸음, 안일함 등은 물론, 신체의 안정을 목적으로 삼는 모든 행위, 즉 흔히 말하는 ‘편히 쉬기’, ‘시원하게 하기’, ‘누워 있기’ 등도 악덕이자 죄악이다. 이는 모두 정신의 이완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신체의 이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향은 각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나타나며, 누군가 끊임없이 자신의 몸을 느슨하게 하고, 아껴주며, 안락하게 대할 때 그 영향은 더욱 커진다. 약간의 이완은 허용될 수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물어야 하며, 도덕적 목표를 염두에 두고 경계해야 한다. 물론, 육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것은 그에게 평안을 주지만, 이때 항상 내면적으로 그로부터 주의를 돌릴 가능성이 있으며, 바로 그렇게 해야 한다.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고 휴식을 취하게 하되, 너는 그 안에서 안주하지 말고, 쉬고 있는 일꾼처럼 몸을 바라보아야 한다.

4. 마지막으로, 육체와 영혼의 의무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양쪽 모두에 대한 위반이 되는 일이 있다. 바로 정절이다. 육체의 생명력의 원천은 신경이며, 신경에는 근육의 기초와 힘이 있다. 각 육체에는 이 신경과 신경 조직의 고유한 양이 정해져 있다. 이를 적정선에서 지키는 것이야말로 신체의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조건이다. 이를 고갈시키는 자는 스스로를 죽이거나 죽음에 가까워지게 한다. 정절로 보존되고, 정절 없음으로 고갈된다. 정절 없음은 생명의 원동력을 빼앗기 때문에, 살아 있는 신체조차도 이완시키고 썩게 만든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안에서 인간의 인격이 고통받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이는 정신적 정절 위반과 육체적 정절 위반 모두에 해당한다. 후자의 경우, 사람은 동물처럼 타락하고 추락하여 부끄러움을 잃으며, 인간성을 상실한다. 전자의 경우, 즉 한 사람에 대한 열정적인 사랑에서는 자기 자신을 잃고 상대방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는 때로 상대방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자신을 그 사람으로 인식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열정적인 사랑은 영혼을 고갈시키고 갇아먹는 병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끄는 음행의 행위들은 육체를 고갈시킨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인류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 정절은 매우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

것은 눈과 귀, 촉각을 지키며, 무엇보다도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초연해질 때까지 내면의 감정을 냉철하게 유지하게 한다. 정절을 지키지 않는 자는 즉시 얽매여 영혼을 내어주며, 그의 눈과 귀는 제멋대로 방종한다. 이러한 삶의 방식의 근저에는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사랑에 빠지기 쉬운 성향이 깔려 있다. 이 재앙은 주로 청년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중년과 노년층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자신의 몸과 영혼에 대해 이처럼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영혼과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은 얼마나 내면이 잘 정돈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이 일에서 모든 이에게 도우미가 되어 주시기를!

2b) 자기 안에 있지만 자기 밖의 것에서 드리는 희생.

그리고 그리스도인 밖에 있지만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주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받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하거나, 주님께 바쳐야 한다. 여기서:

1. 그가 자기 자신으로부터 물러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위한 물건들, 즉 모든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거처, 음식, 의복, 일반적으로는 소유물, 생계비, 재산 등입니다. 기독교인의 외적 생활에서 이에 대한 첫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마땅히 얻으며, 간직하고,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성도로테우스는 이를 ‘사물에 대한 양심’이라 불렀다. 이는 모든 면에서 필수적이다. 우리 자신 외에 누가 우리를 돌보겠는가? 이를 위한 노동은 타락 직후부터 처음부터 정해진, 겸손하게 하고 분별력을 주는 수단이다. 다만 이때에는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로 자신의 소명에 따라 수고하고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면서 모든 것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기대해야 하므로,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성공을 하나님의 손길에서 온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를 추구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 마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처럼 손에 닿는 재물을 소유하고, 특별한 축복을 보게 되면 부가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때는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불려 나가게 하며, 간직해야 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지기임을 자각하고 느끼며. 만약 수단이 없거나, 수단이 충분한 수입을 가져다주지 않아 궁핍함을 느낀다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지 더 잘 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너그럽게 참아내야 한다. 손실을 겪는 자도 마찬가지로 느껴야 한다.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고, 획득하는 데 지나치게 신경 쓰며, 간직하는 데 인색하고, 사용하는 데 낭비하는 자는 재물을 불법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이 점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자발적인 가난이다.

2. 자신의 집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에 들어서는 것은 마치 자신의 본모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마에 명예, 위엄, 자신에 대한 신뢰, 즉 명성을 새겨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어떤 일에서도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이름은 본성상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으며, 누구나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의무도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점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믿음과 의무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거나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고, 그들의 판단에 조금도 당황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명예란 의롭고 덕스러운 삶이다. 누군가 그 대가로 명예를 베풀고 말이나 행동으로 이를 표현할 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항상 이것이 일시적인 외적인 장식일 뿐이며, 내면의 아름다움이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명예는 직책을 수반한다. 이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신뢰 덕분에, 그 직책에 따르는 특권과 함께 직책을 맡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승진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들을 섬기는 멍에로 여기며, 자만하지 말고 수고에 매진하여 모든 이의 종이자 하인이 되어야 한다. 만약 이 봉사가 네 힘보다 크거나, 네 내면의 평온을 해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제멋대로 행동하거나 게으름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신중한 숙고와 분별을 통해 언제나 겸손하게 거절할 수 있다. 게다가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겸손해져야 하며, 모든 영광과 존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분께 바치고 헌신해야 한다.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에는 분노나 분쟁 없이 자신의 정당성을 밝힐 수 있으며,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평화와 사랑을 해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명예 회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의 처지, 그리고 모욕하는 자들을 주님께 맡기며 인내하는 것이 더 낫다.

이에 반하여, 허영심 많고 명예를 탐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의 평가나, 출세욕과 권력을 탐하는 자들처럼 명예와 존엄을 목표로 삼는 자들은 잘못을 범한다. 이 점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거룩한 광인됨이다.

3. 이 모든 것을 더 수월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혹은 외적인 삶을 잘 꾸려나가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모가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스스로 자리를 잡으라. 헛되이 방황하지 말라.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맡으라. 스스로 자리를 잡은 사람은, 노동으로 인한 질병이나 근심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로 인해 멈추지 말고, 장애물을 두려워하지도 말며, 자신의 영역에서 지칠 줄 모르고 일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서이다.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와 활동, 그리고 인간관계에 규칙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의 질서, 즉 모든 것에 적정선과 균형이 잡힌 삶의 흐름이다. 음식과 음료에 있어서의 절제, 옷차림과 집 꾸미기, 노동과 휴식, 사교와 교제에 있어서의 절제. 게으른 자, 빈둥거리는 자, 무질서한 자, 술꾼, 허영심 많은 자, 사치스러운 자, 방탕한 자들은 이를 어긴다.

이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은 끝이 납니다. 이는 하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의무인 모든 행위와 감정, 마음가짐을 관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눈과 심정의 감성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자 구세주를 모든 곳에 임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을 다 읽은 후 독자의 영혼에 이와 같은 것이 새겨진다면, 주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주님을 위해 일해야 하며, 이 일은 그 어떤 이론보다도 더 잘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V. 그리스도인이 현세에서 처하게 되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지켜야 할 계명과 삶의 규칙

기독교인에게 부과되는 일련의 의무들이 있는데, 이는 그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한 그가 이러저러한 상태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대적 의무들이다. 이것들은 또한 상호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합법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며,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적인 의무가 부과되고, 그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호적인 대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가정, 교회, 사회에서 바라본 기독교인의 의무들이 포함된다. 이 의무들은 지금까지 열거된 의무들과 일치하며, 마치 그 의무들을 실천하고 실현하기 위한 무대와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가족 내 의무

가족은 한 가정의 가장 아래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조화롭게 수행함으로써 내적 안녕을 위한 외적 안녕을 꾸려가는 공동체이다. 보통 부모와 자녀, 때로는 다른 친척들과 하인들이 이를 구성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온 가족의 공통된 의무가 있으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의무도 있다.

1) 가족 전체의 공동 의무

가) 가장

가) 가장

가정의 가장은 누구든 간에, 온 집안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돌보는 책임을 져야 하며, 가정의 안녕과 불행에 대해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자각하며 끊임 없이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인격을 통해 가족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가족을 대신하여 수치와 칭찬을 받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은 세부적으로 1a) 현명하고 견고하며 충실한 가사 관리에 집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에 맞는 만족을 누리고, 고통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의 지혜이다... 이 점에서 그는 일의 관리자이자 통치자이다. 무엇을 언제 시작할지, 누가 무엇을 할지, 누구와 어떤 거래를 맺을지 등은 모두 그의 몫이다. 2a) 물질적인 일의 진행을 돌보는 것과 더불어 영적인 일도 그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경건함이다. 가

죽은 곧 교회이다. 그는 이 교회의 수장이다. 그러니 그 순결을 지키게 하라. 가정 기도 방식과 시간은 그의 몫이다: 이를 정하고 유지하라. 가족을 믿음으로 교화하는 방법도 그의 몫이며, 각자의 종교적 삶도 그의 책임이다: 깨우치고, 굳건히 하며, 절제하게 하라. 3a) 한 손으로 집안을 다스리는 한편, 다른 손으로는 밖에서 활동해야 하며, 한 눈으로는 안을, 다른 눈으로는 밖을 바라보아야 한다. 가족은 그를 따릅니다. 그가 사회에 나설 때, 사회는 온 가족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교제와 사회적 업무는 그의 몫입니다. 그는 알아야 하며, 필요한 일을 직접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4a) 마지막으로, 그에게는 가족의 관습, 즉 공통된 것과 각 가문 고유의 것을 지키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 조상들의 정신과 풍속을 가족 내에서 보존하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대대로 전승해야 한다. 각 가문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니, 그것이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하되, 경건한 정신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성들이 어우러져 조화로우면서도 다채롭고 완전한 몸, 즉 마을, 도시,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b) 모든 가족

b) 모든 가족

가정의 가장 아래에는 온 가족이, 즉 그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1b) 반드시 한 명의 가장을 두어야 하며, 가장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어떤 경우에도 두 명 이상의 가장이 있는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분별력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요구되는 바이며,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2b) 그 다음, 우두머리가 있으면 모든 일에 그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지시를 내세우지 말며, 제멋대로 아무것도 시작하지 말고, 명령받은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3b) 서로之间에는 굳건한 평화와 화합, 진심 어린 유대 속에서 살아야 한다. 힘이 분산되면 기세가 꺾이고 성공이 멈춰 버린다. 4b) 이로부터 상호 도움과 상호 협력이 생겨난다: 네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가 너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5b)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갈 때는 집안의 추한 일을 드러내어서는 안 된다. 외부 사람들은 오직 겉모습만 알게 하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온 집안을 위한 신성한 비밀로 남아야 한다. 말과 행동으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스스로 나쁜 행실로 가문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말며, 무언가를 들었을 때는 가문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가문의 명예란, 모든 구성원의 품행이 바르고 순결하며 경건한 삶으로, 모든 이에게 알려져 있으며, 모든 이가 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품게 하는 것이다.

2)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무

3) 부부

가) 일반적인 의무

가) 일반적인 의무

결혼은 일시적인 행복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결혼에 임할 때는 경솔함이 아니라 경외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혼 생활을 통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분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그분께 기쁘시며 당신에게 구원을 주는 반려자를 보내주시기를. 결혼을 추구할 때, 악한 목적이나, 정욕적인 쾌락, 이득, 허영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 가지, 즉 영생을 위해 현세에서 서로 돕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을 위한 것을 추구하라. 그 사람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만큼이나 그 선물에 대한 존경심을 함께 품으라.

선택이 끝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로운 영적·육체적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합은 거칠고 음울한 결합이다. 여기서는 교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화되고, 거룩해지며, 정신을 차리게 된다. 혼자서만 견고하고 구원적인 결합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본성의 끈은 끊어진다. 은총은 극복할 수 없다. 자만심은 어디서나 위험하지만, 이곳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겸손히, 금식과 기도로 성사에 임하라.

결합된 이들은 한 몸이 되었으니, 더 나아가 한 영혼이 되었다. 이 개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공통된 의무가 정립되는데, 바로 견고한 사랑, 즉 정욕적이지 않으면서도 순수하고 냉철한 사랑으로, 내면적으로는 상호 애정과 생생한 참여, 그리고 신속하고 유연한 공감으로 드러나며, 외면적으로는 상호 협력으로 나타나, 한 사람의 눈과 손이 다른 사람의 눈과 손이 있는 바로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끊어지지 않는 평화와 깨지지 않는 화합이 흘러나오는데, 이는 불만을 예방하고 우연히 발생한 문제들을 신속히 해소해 줍니다. 또한 신뢰가 생겨, 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일에서 다른 한 사람을 의지할 수 있으며, 비밀이든 부탁이든 모든 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정점은 바로 부부 간의 충실함, 즉 결합의 첫 번째 조건—영혼과 육체 모두 오직 서로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지키는 것이다. 남편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내의 것이며, 아내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다. 충실함은 신뢰를 확고히 하지만, 불충실함은 비록 단지 추측에 불과하더라도 의심과 질투를 낳아 평온과 화합을 쫓아내고 가정의 행복을 파괴한다. 질투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자, 동시에 위업이며, 부부 간의 지혜와 사랑의 기술이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항상 ‘자아’가 개입하기 때문인데, 이 자아는 배타성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자아는 여기서 매우 우스꽝스러우며, 스스로를 향해 무기를 겨누게 된다.

b) 남편의 의무

b) 남편의 의무

각 배우자의 구체적인 의무에 관해 말하자면, 그것들은 각자가 지닌 의미라는 개념에서 비롯된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이를 드러내야 하며, 스스로를 비하하지 말고, 비겁함이나 정욕 때문에 주도권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남편에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권위는 독재적이지 않고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내를 친구로 삼고, 깊은 사랑으로 그녀가 자신에게 순종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모든 일에서 아내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충실하며, 가장 진실한 조언자로, 가장 먼저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그녀

를 돌보고, 그녀의 지적·도덕적 완성을 위해 신경 써야 하며, 관대하고 인내심 있게 나쁜 점을 바로잡고 선한 점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몸이나 성품에서 고칠 수 없는 점은 너그럽고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결코 자신의 부주의와 방종으로 그녀를 타락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겸손하고 온유하며 경건한 아내가 남편 곁에서 산만하고 제멋대로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그 남편은 살인자나 다름없다... 그러나 도덕성을 지키는 것이, 아내가 품위 있게 행동하고 외부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하는 소망을 충족시키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비록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안 되겠지만 말이다.

c) 아내의 의무

c) 아내의 의무

아내는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 일에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며,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성품을 남편의 성품에 맞추고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여, 행동이나 생각으로라도 남편의 뜻 없이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의 모든 지시, 조언, 명령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언젠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을 품지 말고, 어떤 일에서도 주도권을 원하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인내심 있게 견뎌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중한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아내로서 남편의 품행을 돌볼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지혜와 영향력으로 남편의 품성이 올바르게 없다면 그를 변화시킬 수 있다. 적어도 그를 방치해서는 안 되며, 가진 지혜와 힘이 닿는 한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마치 불에서 구해내듯 구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미덕으로 자신을 단장해야 하며, 다른 장신구들은 부수적이고 수단적인 것으로 여겨야 한다. 특히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길 때는 이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사 관리가 그녀의 몫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비록 단지 실행에 그칠 뿐이라 할지라도... 그녀의 의무는 정해진 일을 하는 것이다. 무질서를 발견하면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거나 보완해야 한다.

4) 부모와 자녀

a) 부모의 의무

a) 부모의 의무

부부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녀는 결혼의 목적 중 하나이자 동시에 가족의 기쁨을 풍성하게 하는 원천이다. 그러므로 부부는 자녀를 하느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로 여기고, 이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자녀가 없는 부부는 참으로 불행한 처지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하느님의 특별한 뜻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기도하는 한편, 그들은 선한 자녀를 둔 선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부 간의 정절을 지키고, 즉 정욕으로부터 절제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건강을 지켜야 한다. 건강은 자녀에게 필연적으로 물려줄 유산이기 때문이다. 병든 자녀가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경건함을 지켜야 한다. 영혼이 어떻게 생겨났든 간에, 그들은 부모의 마음에 살아있는 의존 관계

를 맺고 있으며, 부모의 성격은 때로 자녀들에게 매우 뚜렷하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자녀는 양육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필요하다. 그러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미리 그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축복을 너희를 통해서도 반복하셨으니, 그 아이를 마치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처럼 받아들이라.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서둘러 성사로 그 아이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여기서 너희가 그 아이를 참 하나님께 섬기도록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과 너희의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야 한다. 아이 안에는 영적 힘과 육체적 힘이 뒤섞여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이끌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초이자 씨앗으로서, 그 아이에게 성령의 인장을 새기십시오. 사탄이 사악함을 품고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으니, 어둠의 세력이 뿜을 수 없는 신성한 울타리로 아이를 보호하십시오. 성사로 거룩하게 된 아이를 그 후 성물처럼 지키십시오. 불신과 절제 부족, 화합을 저해하는 태도로 은혜의 성령과 요람을 둘러싼 수호천사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양육이 시작됩니다. 이는 부모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수고스럽지만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일이며, 그로부터 가정과 교회, 조국의 복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진정한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부모라고 해도, 아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여러분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일에서는 모든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아이의 몸을 단련하여 튼튼하고 활기차며 유연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들의 경험과 건전한 교육학의 지침을 활용하여, 목표를 가지고 계획에 따라 스스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신의 양육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정신이 올바르게 길러진 자는 튼튼한 몸이 없어도 구원받을 것이다. 반면, 스스로 방치된 자는 튼튼한 몸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이 점에서 지성과 품성, 경건함을 함양해야 한다. 지성은 가능하다면 스스로 개발하고, 그렇지 않다면 학교에 보내거나 선생님을 두어야 한다. 이때 학문적 지식보다는, 학문 없이도 배울 수 있는 건전한 사고방식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신조, 계명, 기도 등을 가르치거나 기독교 신앙을 알게 하는 것이 의무이다. 품성은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선한 본보기와 타인의 나쁜 본보기를 멀리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이를 막아라: 순수한 마음은 은혜의 작용으로 굳건해질 것이며, 그 선한 성향은 품성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경건함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경건함이 더욱 필요하다... 이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정 내 경건한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아침과 저녁 기도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교회에 다니게 하십시오; 가능한 한 자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성찬을 받게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경건한 대화를 듣게 하십시오. 이때 아이에게 따로 말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 스스로 듣고 깨달을 것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몫을 다 하여, 아이가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깊이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아이의 영혼에 스며들어 감동을 주는 경건의 정신입니다. 믿음, 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그 어떤 성취보다도 높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것들을 심어 주십시오. 읽기를 배운 아이에게는 무분별한 독서를 경계시켜야 합니다. 독서에 대한 갈망은 가리지 않고

뻘어 나갑니다. 무엇을 읽을지 골라 주어야 합니다. 성장하는 아이는 자신이 무엇에 적성이 있는지 스스로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가 선택한 분야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미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그 직분에 맞게 준비시켜 그 안에서 능숙하게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몸과 영혼이 그 직분과 하나가 되어 마치 자신의 본연의 영역에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살핌을 더해야 한다면 더하고, 학습 과목을 추가해야 한다면 추가하라. 모든 것을 상황의 흐름에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의 능력과 성향, 성격을 통해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신다. 이 지침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아이가 말씨, 옷차림, 자세, 타인 앞에서의 태도 등에서 예절을 익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어린 시절에는 주로 외적인 모방력이 작용하며, 이때 형성된 습관이 평생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 예의는 사소해 보일지 모르나,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고민과 당혹감을 안겨준다. 아이를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해, 이 문제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길 것이며,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심지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도 말아야 한다. 그저 걷는 법을 가르치듯 자연스럽게 가르쳐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칭찬이 쏟아지는 곳에서는 예절이 다른 더 중요한 것들보다 부각되어, 그 중요한 것들을 가려버린다. 이는 좋지 않은 일이다. 게다가 여기서 말하는 예절은 당연히 단순하고, 겸손하며, 공손한 것이지, 유행에 민감하고, 경박하며, 지나치게 세련된 것이 아니다. 예술을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즉, 노래, 그림, 음악 등을 가르치는 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영혼에 즐거운 휴식과 기분 좋은 기분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즉 영원을 위한 영혼의 창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술의 방향, 혹은 그 내적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자료 그 자체보다, 그 자료를 얻어내는 힘, 즉 능력과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은 근면함, 즉 노동에 대한 열정과 게으름에 대한 혐오; 질서에 대한 사랑, 즉 모든 일을 제때, 제자리에, 서두르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수행하려는 규칙성; 성실한 근면함, 즉 자신을 아끼지 않고 힘을 아끼지 않으며 양심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것을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동안 외적인 행복과 내적인 경건함을 모두 보장해 주는 가장 행복한 마음가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가짐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선함일 뿐이며, 내면의 선함은 기독교적 경건함의 정신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자란 자녀를 잘 정착시켜야 한다. 딸은 품위 있게 시집 보내고, 아들에게는 직장을 구해 주거나 그가 준비된 삶의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나중에 스스로 넉넉하게 살며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호감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화려함과 겉모습의 유혹에서 비롯된 번덕을 따르지 말고, 이성적으로 보아 견고하고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일을 해야 한다. 이 중요한 일에서 자녀들을 마음의 끌림에 맡겨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나마,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감독하고, 인도하고, 지도하며, 타일러야 한다.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들과 함께한다. 요즘은 이를 다르게 바라본다. 하지만 현재 도입되는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

자녀 양육의 지침은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미리 내다보고,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낸다. 하지만 이 사랑은 진실하고, 냉철하며, 이성으로 통제되는 것이어야지, 편파적이거나 방종해서는 안 된다. 후자는 지나치게 동정하고, 변명하며, 관대하게 대한다. 분별 있는 관용은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방종과 경계를 이루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보아야 한다. 방종보다는 차라리 엄격한 쪽으로 조금 더 기울이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방종은 날이 갈수록 뿌리 뽑히지 않은 악을 더 많이 남기고 위험을 키우게 되지만, 엄격함은 한 번에 영원히, 혹은 적어도 오랫동안 그 위험을 차단해 주기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때로는 타인을 양육자로 삼아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 사랑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곳에서는, 종종 혹은 거의 항상 편애로 인해 자녀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게 된다. 어떤 아이는 사랑하고 다른 아이는 사랑하지 않거나, 아버지는 어떤 아이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식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랑받는 아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모두에게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앗아가며,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 사이에 일정한 반감을 심어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사후까지 이어지는 원한으로 변할 수도 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양육인가?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가장 효과적인 교정 수단인 체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혼은 몸을 통해 형성된다. 때로는 몸을 상하게 하지 않고서는 영혼에서 쫓아낼 수 없는 악이 있다. 그러므로 상처는 어른에게도 유익하지만, 하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네 아들을 사랑하면 그에게 상처를 입혀라”라고 지극히 지혜로운 시라크가 말한다(시라크 30:1).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수단은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b) 자녀의 의무

b) 자녀의 의무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받습니다! 부모로부터는 이 세상의 삶을, 또한 영생의 기초와 시작, 그리고 그 방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본능적으로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도 부모에게 특별한 감정과 호의를 품고, 부모에게 의무감을 느끼며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대부분 배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감정은 존경과 순종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다만 이 감정들을 이성적이고 동시에 견고하게 만들어,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며, 부모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그들과 멀어진 자는 자신의 본성을 왜곡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도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러므로 온갖 방법으로 네 마음속에 부모님의 고귀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독적인 생각이나 말로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우지 말며, 네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그 이유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부모와 마음으로 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모든 것을 참는 편이 낫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말과 행동으로 그들을 모욕하지 않도록 온갖 방법으로 조심하게 될 것이다. 실수로 그들을 모욕한 사람은 이미 한계를 넘은 것이지만, 의식적으로, 그리고 악한 마음의 움직임으로 그렇게 한 자는 훨씬 더 멀리 간 것이다. 부모를 모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 근처에는 어떤 은밀한 연결을 통해 사탄에게 넘어가는 것이 있다. 마음속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린 자는 스스로 부모와 멀어졌을 뿐이지만, 부모를 모욕한 자는 자신과 부모를 서로 분리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이런 일이 일어나면, 단절된 자는 거짓과 온갖 악의

아버지인 다른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지배 아래로 들어가게 된다. 모든 모욕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가 있다. 어쨌든 모욕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명예스럽고 무모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으로 인해 깨진 평화와 사랑을,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항상 서둘러 회복해야 한다. 개인적인 모욕을 경계하듯이, 부모를 모욕하는 행위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비방하는 말, 즉 모욕적인 말이나 험담, 비방을 삼가야 한다. 이미 경멸을 표한 사람은 악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온갖 방법으로 부모를 돌보고, 자신의 행동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모를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며, 온갖 불의와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은 부모의 축복을 소중히 여겨야 하므로, 온갖 방법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의 마음이 자신들에게 닫히지 않고 열려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부모의 축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저것이 번성하게 하듯이, 이것도 그러하다. 반대로, 축복받지 못함과 저주는 삶을 단축시키고 마치 말라버리게 한다. 축복이 없는 자에게는 그 무엇에서도 행복이 없으며, 모든 것이 손에서 빠져나간다. 자신의 정신마저 잃게 되고, 다른 이들도 등을 돌린다. 마지막으로, 달콤하고 구원을 주는 의무는 노년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다. 여기에는 감사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라나며, 이를 통해 부모님의 축복의 모든 힘과 하나님의 은총이 주는 모든 행복이 끌어당겨진다. 부모님이 없더라도, 그 대신 낯선 노인을 모실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노인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5) 친족

부모는 가족을 주시고, 그들을 각자의 지위에 따라 상호 관계 속에 두심으로써 다양한 새로운 가족적 의무가 생겨나게 하십니다. 여기서 가장 직접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한 자궁에서 잉태되어, 같은 젖을 먹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은 보살핌과 사랑으로 자라난 형제자매들입니다. 혈연의 정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한다. 형제자매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부모나 친구, 은인에 대한 사랑과는 다르다... 그저 느낄 수 있을 뿐, ‘형제애’, ‘자매애’라는 한 마디로만 구분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의무의 핵심이다! 그로부터 저절로 견고한 평화와 화합이 솟아나는데, 이는 상호 기쁨과 부모님, 그리고 온 가족을 기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도 같습니다. 형제자매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야말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서로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각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질서와 상호 협력, 그리고 성공이 사라집니다. 가정의 힘은 약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형들이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동생들을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며, 동생들의 의무는 형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가족들 사이에서도 혈연적 사랑은 자연스럽고 동시에 필수적이다. 다만 그 사랑은 친족 관계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뉘앙스를 띤다. 예를 들어, 조상들과 손자들 사이에는 전자는 손자들을 위한 따뜻한 보살핌을, 후자는 경외심에 가까운 존경과 감사, 그리고 모든 위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는 – 전자가 조연과 본보기를, 후자가 존경과 배려를 보여야 한다. 고아와 과부가 타인을 대할 때는 – 바람직한 것보다 다소 더 기대에 가까운, 요구에 가까운 호의

를, 타인이 그들을 대할 때는 존경과 더불어 – 연민, 동정, 위로, 특히 모욕을 피하려는 배려가 있어야 한다.

6)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다른 우연한 인물들

종종 부모는 자녀 양육이라는 어려운 일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과 분담해야 할 때가 있다. 이로 인해 가족 내에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부모와 받아들여진 사람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 부모에게는 신중하고 세심한 선택의 책임이 있으며,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소중한 보물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어야 한다. 받아들인 사람들은 를 통해 지켜보고 감독하여, 그들 스스로와 그들이 맡은 일 모두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전자가 후자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전자가 없다면, 후자도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부모 스스로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공정하고 세심하게 대해야 하며,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존중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특히 부모는 교육에 대한 계획과 청사진을 세우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거나 그에 따라 실행자들을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이 여러 사람에게 분담될 때는 달리 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의 해악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그 해악이 마음 속에 스며들 뿐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양육의 각 부분마다 담당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이다.

젖을 떼는 일은 때때로 유모에게 맡겨지기도 한다. 물론, 직접 젖을 먹이는 어머니들이 더 낫고, 경건하며, 진정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때 몸에 필요한 체액, 즉 생체 성분의 일체성과 생생한 사랑이 주는 정신적 일체성이 양육의 성공과 안정성을 결정한다. 유행이나 게으름, 안일함 때문에 이를 행하지 않는 어머니가 죄가 없지는 않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신과 아이에게 유익 대신 해가 될 수 있는 극도의 필요 상황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수유 업무를 타인에게 맡길 때, 유모의 육체적 또는 동물적인 측면만을 보는 이들은 실수를 저지른다.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와 함께 선한 품성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 품성이 젖과 함께 전달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직접적으로 전해질 수 있다. 유모들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을 시작할 때 경건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부모와 같은 기도와 사랑으로 그 일을 수행해야 한다.

젖을 떼는 아이는 보모의 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모의 수고는 더 오래 지속되며, 아이는 이 시기에 이미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미래의 성품에 특히 견고한 토대가 마련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성품이 과연 언젠가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성품이 선하다면 좋은 일이지만, 나쁘다면 얼마나 큰 해가 될까요! 여기서는 친절함 외에도 아이들을 대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아이들의 기분 변화는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욕망과 번덕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어떻게 선한 쪽으로 이끌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이 점과 저 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알아야 한다. 유모의 성품은 눈빛과 행동,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며, 아이는 이를 자연스럽게 흡수한다. 보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제멋대로고 고집스럽거나 나약한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도둑질, 비웃음, 다툼 등의 악습을 가진 아이가 될 수도 있다. 그러

므로 보모는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보모의 역할을 맡아야 하며, 부모 역시 같은 신중함을 가지고 보모를 뽑아야 하고, 뽑은 후에는 지켜보고, 지도하고, 설득하고, 간청해야 한다.

어린이에게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교사가 배정된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영혼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영혼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영혼에게 진정한 요소들, 즉 단지 언어만이 아닌 영적인 무언가를 제공해야 하며, 진리와 선, 경건함이 스며든 견고한 요소들, 게다가 영혼의 모든 부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완전한 요소들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굳이 상기시킬 필요도 없다. 이는 영혼이 빈곤함으로 말라 죽지 않고, 타락으로 병들지 않으며, 불완전함으로 인해 기형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요소들 외에도, 이를 올바르게 심어줄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영혼은 죽은 그릇이 아니라 살아있는 수용체이다. 비록 선한 것으로 채울 수는 있겠지만, 흡수되지 않은 것은 영혼의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그는 내면의 풍요로움 외에도 경험까지 갖추어야 한다. 그런 사람을 유능한 교사라고 할 수 있다. 교직에 임할 때, 그는 자신의 교육적 태도의 기초로 아이들에 대한 진실하고, 심지어 아버지 같은 사랑을 삼아야 한다. 비록 일부에 있어서만 부모의 역할을 대신할 뿐이지만, 그 정신은 부분에서도 전체와 마찬가지로 동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버지 같은 사랑에는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빼앗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풀고자 하는 열정으로 타오르는, 모든 면에서 창의적인 끊임없는 노력이 깃들어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끊임없는 노력을 절제하고 이끌어 주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 그의 임무는 마음을 준비시키고, 싹트는 기미를 포착하며, 미묘한 점진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는 선(善)의 발전에서 그러하다. 오직 이럴 때만 선이 생생하게 뿌리내릴 수 있다. 악에 관해서는, 가차 없이 잘라내야 하지만, 관용과 신중함도 함께해야 한다. 성격, 지위, 나이, 습관은 여기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언제나 그 곁에는 위엄 있는 중후함이 깃들어 있는데, 이는 우쭐대지도 않고 자신을 낮추지도 않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되 방종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건함, 즉 진실하고 가식 없는 경건함이며, 그와 함께 정통 기독교 신앙이 있어야 한다... 비정통 기독교인의 정신은 다르며, 그 정신이 그 사람 전체와 그의 모든 지식을 흠뻑 적시고 있다. 설령 단지 언어만 가르친다 해도 그는 그 정신을 전달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부모의 대리자들에게 모두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뿌리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존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어진 것이 낯설게 느껴져 경멸의 대상이 될 것이며, 마치 곧 떨어져 나갈 종양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특히 이것이 종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감사는 양육을 통해 얻은 선한 감정의 거룩한 열매이며, 언제나 순종과 인내로 그들의 엄격함을 받아들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주인과 하인

종종 외부인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봉사가 필요하기도 한다. 집안일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조건에 따라 낯선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통해 봉사하는 자와 봉사를 받는 자 사이의 새로운 유대가 형성되며, 여기서 주인과 하인의 새로운 의무가 생겨난다.

주인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하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하인들도 주인과 같은 본성을 지녔으며, 같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로서, 같은 은혜를 입었고, 같은 소망을 품으며, 하늘에서 같은 유산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또한 주인들 위에는 주님께서 계시니, 그분은 주인들의 마지막 날에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오직 그분만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며, 이 일에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과 하인의 지위는 일시적이고, 우연하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영원한 것은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며, 그 결과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마지막이 첫째가 되기도 한다...*” (마태복음 19:3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인 주인은 종들을 경멸하거나 그들 위에 교만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물건처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로, 마음속에서 그들에 대한 기독교적 태도를 온전히 세우고, 즉 그들을 그리스도 안의 형제로 여기며, 그에 따라 존중과 호의, 공정함, 배려를 결코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권리를 방해하지 않으며, 권리 또한 이를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자는 외적인 것이고, 후자는 내적인 것이며, 전자는 행동에 있는 것이고, 후자는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기독교인이, 그가 누구이든 간에, 다른 기독교인에 대한 기독교적 마음가짐을 저버릴 권리를 줄 수는 없다. 따라서 하인과 주인의 주된 일인 섬김과 명령, 즉 지시 사항에 있어서는, 주인이 명령할 때 우위를 점하지도 않고, 하인이 수행할 때 수동적인 도구가 되지도 않도록 모든 것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를 업무 체계에 편입시켜, 마치 자신의 영역에서 주인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이 낫다. 즉, 마치 자신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게 하라. 종은 자신의 종속성을 자각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묵묵한 복종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형제애는 주인조차 그를 자유롭게 활동하는 주체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성적인 봉사는 기계적인 봉사보다 낫다. 집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를 마치 친가족처럼 대해야 한다. 하인은 의무를 다하며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네가 그를 형제로 여긴다면 그의 노고를 마땅한 의무로 받아들이지 말고, 형제애의 호의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에 대해 감사를 표해야 한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의무이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상호 봉사를 하거나, 하인을 정성껏 돌봄으로써 이 감사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의 몸에 평안과 만족을 주고, 그의 건강과 온전함을 지켜주라. 하인을 다치게 하거나, 지치게 하거나, 소홀히 대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인의 일시적인 물질적 봉사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다. 하인에게에는 영원한 사명이 있으며, 일시적인 봉사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다... 이 점에서 주인은 하인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중요한지 깨우쳐 주고 설명해 주며, 지도하고 마음을 다잡게 하라. 경건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되, 특히 명절에는 더욱 그러해야 하며, 전반적으로 그의 행실을 적극적으로 살피라. 선한 것은 흐트러뜨리지 말고, 나쁜 것은 바로잡아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진리는 그들에게 의무가 없는 것은 요구하지 말고, 자신이 의무로 지고 있는 것은 모두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이 의무가 명백할수록, 그리고 이행하기 쉬울수록, 이를 어기는 것은 더욱 큰 죄가 됩니다. 그것은 영혼을 찢어 놓고, 불평과 탄식을 터뜨리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아와 과부의 신음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정의는 또한 관용, 즉 그들의 약점과 결점(물론 용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을 인내심 있게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한다. 이 점에서 불공정한 자—즉, 경멸하고, 책망하며, 불만을 품는 자—는 은사를 베풀시고 그 베푸는 법을 아

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성품은 또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제멋대로가 아닌 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인내심 있게 침묵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할 때는 교만, 권력에 대한 집착, 잔인함을 멀리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온유하고, 차분하며, 친절해야 한다. 훈계조차도 설득과 자애로운 어조로 부드럽게 해야 하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진리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하인이 주인과의 관계에서 가능한 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과 같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일이며, 하물며 기독교 가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인이든 하인이든 무엇보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분명히 하고 굳게 지켜야 한다. 주님께서는 한 사람에게는 한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지위를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신자에게 각자의 소명에 충실할 것을 명하십니다. 따라서 하인은 온유함과 순종, 사랑으로, 어떠한 불만이나 원망도 없이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고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인으로서는 젊어져야 할 미덕들을 성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다. 주인이 아무리 관대하고 사랑이 많더라도 너는 네 신분을 지키고, 주인이 네게 다가올수록 그만큼 공손한 거리를 두고 물러서야 한다. 은혜로 얻은 것은 언제나 잃을 수 있으며, 자만하는 순간 즉시 잃게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 자만이 주인들로 하여금 특별한 호의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완전한 복종과 순종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갖지 말고,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지시하는 대로 따르도록 하라. 주인님들께서 직접 너에게 업무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현명하게 굴지 말고 그 뜻을 깊이 새겨 충실히 따르라. 다음은 충실함이다.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더욱 높여라; 모든 일에서 네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라.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다. 사람의 눈앞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마치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일하라. 이렇게 주인들의 뜻을 이행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인으로서의 미덕이다. 그러나 그는 그 집에 받아들여졌으니, 하인으로서 가사적인 미덕도 제 방식대로 이행해야 한다. 집의 이익을 위해 애쓰고, 그 명예를 지키고 보호하며,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으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면 그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자각하고, 감사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주인의 성품으로 인해 불만이 생기더라도 가능한 한 인내하며 견뎌야 하며, 결점으로 인한 불편함은 더욱더 참아내야 한다. 너보다 지위가 높은 이들과 운명을 함께 나누라.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인과 하인의 지위가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롭다’, ‘진정한 기독교적 은혜의 삶 없이는 자유가 없다’, ‘정욕에 사로잡힌 자는 이미 종이며, 주님의 계명을 흠 없이 지키는 자는 자유롭다’는 기독교적 우월성을 마음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14. 교회의 의무

주님께서는 당신의 왕국, 즉 교회의 체제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들이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며, 계명을 지키도록 지도하게 하셨고, 사도들은 이를 주교들에게, 주교들은 사제들과 함께 사도적 사역을 나누어 수행한다. 그들의 모든 사명은 가르침과 성사, 성례, 지도력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 즉 교회를 돌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항상 목자들이 있으며, 목자가 없으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으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대대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에 의해 부름받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들은 양떼를 이루며, 신성한 말씀과 성사, 성례의 초원에서 양육받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에는 양떼도 있고 목자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목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며, 반대로 목자도 각 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의 상호 의무가 비롯된다.

1) 목자들의 의무

목자의 사명은 사도적인 사명이며, 목자의 정신은 사도적이어야 한다. 이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 생생한 열정이다. 단순히 의무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사로잡거나 갇아먹는 듯한 열정이며; 활동적인 열정: 단지 내면에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수단을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활용하는 것; 이성적인 열정: 어둠 속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목적을 향해 나아가거나, 수단과 목적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파악하는 것; 인내심이 있거나,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다리는 동안 수고로 지치지 않으며, 불편함과 역경을 견디는 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건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의 대표자이자 양떼를 위한 본보기로서, 모든 미덕으로 단장된 모습을 보여야 하며, 특히 참된 열정을 항상 동반해야 하고 그의 수고 속에서 거의 끊임없이 실천되는 미덕들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 같은 보살핌, 세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품위, 순결, 절제, 신중함, 온화함, 용기, 연민, 관용, 이타심이다. 목회 활동 자체에서 그는 양떼를 위해 교회의 모든 보물을 안내하는 이가 되어야 하며, 교회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는 왕국이 유언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는 것이며, 단순히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르침에 따라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양의 모든 행실을 엄격히 지켜보고 감독하며, 그에 따라 적절히 행동해야 한다. 즉, 성사를 통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사 예식을 통해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익숙하게 하며, 자신과 교회의 기도로 그들을 모든 중상모략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또한 이 모든 일을 성공적이고 유익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는 신앙과 기독교 생활의 신비를 알고 점점 더 깊이 깨달아야 하며, 영혼들을 그 안으로 인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평생에 걸쳐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양떼 전체와 각 신자의 모든 특성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을 적용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양떼를 온전히 자신에게 묶어 두어, 그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목자의 얼굴을 바라보게 해야 한다. 이 마음의 유대는 모든 성공의 조건이며, 특히 영적인 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2) 신도들의 의무

이러한 정신과 목자들의 보살핌에 부응하여, 양떼들도 구원의 일에서 소극적이어서는 안 되며, 마치 다듬어질 준비가 된 재료처럼 목자들의 양육에 자신을 맡기고, 스스로도 이 일에 온 힘을 다해 뛰어들며, 이를 위해 협력하고 그들의 수고를 덜어주어야 한다. 따라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인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사자처럼, 그들을 통해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처럼 받아들여야 하며, 목회자로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나타내는 목회자들을 삶의 본보기로 삼아 그들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목자들에게 교회의 보화가 분배되어 있다면, 모든 영적 필요를 다른 곳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호소해야 하며, 바로 각자는 자신의 유일한 목자에게 서둘러 나아가야 한다. 또한 그가 가르칠 때는 경청하고, 인도할 때는 순종하며, 성사를 통해 거룩함을 얻고 교회의 기도로 보호받기를 청해야 한다. 목자는 양떼를 잘 알아야 한다: 양떼는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그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목자에게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 양떼는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든 불완전함과 결점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마음에서 지워내며, 말과 행동으로 온갖 수단을 다해 그의 명예를 비방, 모욕, 비난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목자가 거의 모든 시간을 그들에게 영적으로 영향을 미칠 방법을 모색하는 데 쏟는 만큼, 신자들은 자신들의 몫으로 그에게 물질적으로 봉사하여 생계와 식량을 제공해야 한다.

3) 성직자의 의무

목자 곁에는 항상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직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와 양떼 사이의 중간 위치에 있는 셈이므로, 이들에게도 적절한 관계와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의무는 목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일에 순종하며, 그의 지시나 활동에 반대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때로는 경고를 주거나 심지어 겸손한 조언을 통해 그를 모든 면에서 돕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꼼꼼하고 경건하게 수행하며, 사역 중에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하며, 이는 다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높고 우선하는 일임을 드러내야 한다; 서로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단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툼이 있을 경우 서둘러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연합을 회복하고 화해해야 한다; 모든 면에서 덕행과 경건의 본보기가 되며, 백성에게 언제나 열려 있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동정 어린 마음으로 충족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모든 사람과 친근하게 지내며 모두를 자신에게 가까이 이끌어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4) 수도자들의 의무

교회 내에서 수도자들은 특별한 계층을 이룬다. 초기에는 백성들과 분리되지 않았으나, 그들 가운데서 특별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훗날 그들은 분리되어 경건함에 기초한 자신들의 신성한 연합을 이루었으니, 이는 가장 완전한 이의 지도 아래, 형제적 일치 through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연합이다. 그들의 주된 의미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닌 가장 완전한 모습을 작은 규모로 보여주는 데

있다. 기독교 생활에서의 완전함은 모든 수도자의 주된 사명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서로 간에, 그리고 지도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들에게는 각기 다른 의무가 부여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가) 수도자들의 주된 임무는 교회와 조국, 산 자와 죽은 자를 위한 쉼 없이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이다. 그들은 사회가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서, 사회는 그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그들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를 삼는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원에서는 무엇보다도 품위 있고, 규율을 지키며,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성직 활동*이 번성해야 한다. 교회는 이곳에서 그 예복의 모든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b) 기독교 생활의 완성을 첫 번째 목표로 삼고, 그들은 서원을 한다. 그들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갈망하며, 서원의 이행 또한 그 일에 속하므로, *이 서원들을*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한다. 이 서원의 본질에 따라 각자는 자신 안에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자신을 가난한 자로 여기고, 아무것도 탐내지 말며, 가진 모든 것을 모든 이에게 돌려야 한다; *무정(無情)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서둘러야* 하며, 천사 같은 삶을 열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식, 기도, 수고로 육신을 괴롭히고, 육신이 정욕적인 움직임을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도 정욕적이고 헛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자신의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되며, 온전히 영혼과 육체를 수도원장에게 맡기고,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그가 명령하는 것만 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행동할 때 영적으로도 행동해야 하는데, 이는 육체의 목적이 영에 있기 때문이다.

c) 한 사람의 지도 아래 형제적 연합을 이루고 마치 하나의 몸처럼 되어, 그들은 마치 사적인 회를 이루는 것이므로, 앞서 설명된 교회적 의무들을 지고 있다. 여기서 원장(수장)은 목자이며, 수도자들은 양떼이다. 원장의 임무는 수도자들의 구원과 가장 완전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며; 자신의 수도원에서 일반적인 수도 생활과 사적인 생활 모두에 있어 예로부터 정해진 규율을 훼손되지 않게 보존하고,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관습을 지키는 것; 또한 성전과 수도원 전체의 안녕과 위엄을 돌보고, 수도사들의 생계를 마련하는 일도 그의 임무이다. 수도사들의 임무는 모든 일에서 원장님과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며, 자신의 직무와 복종을 정확하고 꼼꼼히 이행하는 것이니, 이는 그것으로 인해 전체가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서로 사이에서는 항상 형제적 유대와 평화, 사랑, 겸손한 상호 존중, 영적 교제, 상호 협력, 훈계 및 강화 속에서 지내야 하며,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당하지도 않으며,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아야 한다.

수도자들은 육신으로는 세상에서 떠났으나 영으로는 세상을 떠나지 않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올리고 있으므로, 세상도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며, 수도원 설립을 방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이를 바라고, 먼저 인력과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협력해야 한다; 또한 항상 수도원을 존중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수도 생활에 전념하는 이들의 안녕을 위해, 외적·내적 안전을 모두 기원해야 한다. 이는 그들에게 수고가 많고, 유혹이 강하며 빠르기 때문이다.

15. 시민적·사회적 의무

주님께서는 땅 위에 국가를 잘 다스리시고 왕을 그 수장으로 세우시어, 그들이 한 사람의 통치 아래 모두의 화합된 행동으로 일시적인 번영을 이룩하여 영원한 구원을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교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사회의 일원임을 그치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는 단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자신의 봉사를 거룩하게 해야 할 뿐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에게는 사회적 의무가 있으며, 이는 모든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오직 기독교에만 복종하고 그 정신으로 충만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대변하는 군주의 임무는, 이 위대한 자신의 의미를 자각하고, 내면을 깊이 성찰하며 끊임없는 경외심 속에서 이를 수행하여, 마음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그 섭리적인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백성을 자신의 몸처럼, 혹은 아버지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백성을 그 전체와 모든 필요, 모든 측면에서 자비롭게 돌보고, 그들의 위엄과 대외적 안전을 지키며 내부를 안정시키고; 만족과 권리의 평등, 질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모든 계층의 백성에게 진정한 계몽을 확산시키고; 풍속의 순결을 지키고 악습을 근절하며; 민족의 정신, 성격, 관습, 규정을 보존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신앙을 심어주고, 교회를 높여 주신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사랑, 백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번영의 조건 그 자체인 하느님의 축복, 마음과 의지의 순수함, 왕좌와 서약에 대한 충실함에 따라 교회의 번영과 꽃피움을 돌보는 것; 이를 위해 종교적 정신을 지극히 중시하여, 어떤 제도에 의해서도 그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제도를 그 정신으로 거룩하게 하여, 사회 생활이 종교적 삶과 하나로 어우러지고, 둘이 모세와 아론처럼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신앙과 교회가 가장 높은 자리에 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덮도록 마련해야 한다.

b) 사회는 머리인 군주 아래 있는 몸이다. 그 구성원 각자는 군주라는 머리 개인과 사회 전체라는 몸 모두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아아) 황제라는 통치자에 대한 의무: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 기쁨 부음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로서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일에 대해 그에게 침묵 속의 복종을 보여야 한다; 감사하는 사랑으로 그에게 밀착하며, 그의 안전과 평안, 행복을 위해 심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음속으로는 그를 공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말로 공경하며, 그와 그의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더 나아가 무례한 판단을 삼가고, 밤낮으로 그를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 또한 우리를 돌보느라 밤낮으로 쉴 틈이 없기 때문이다; 그의 명령과 규정을 존중하고, 주저 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받아들이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bb) 모든 사람이 평생 동안 결속되어 있으며, 그 번영과 쇠퇴가 모든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출생을 통해 각자가 그와 관계를 맺게 되는 국가에 대한 의무는,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국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그 국가에 해를 끼치거나 모욕을 주는 어떤 일도 꾀하거나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 국가의 번영을 돕고, 돌보며, 관심을 기울이고, 그 번영에는 기뻐하고, 그 반대의 상황에는 슬퍼해야 한다. 또한 악을

온갖 방법으로 막아내고, 알게 된 모든 것을 밝혀, 의심되거나 예견되는 위험을 모두에게 알리며; 그의 법을 알고 지키며, 기꺼이 그 법에 복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현행 규정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존중하며, 그 수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보호하며, 모든 선한 조국의 관습을 무조건적으로 보존하고, 악한 관습, 특히 비기독교적인 관습은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이질적인 것을 미워하고 경멸하되, 극도의 필요와 자신의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할 때에만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자신의 것에 무분별하게 집착해서는 안 되지만, 결코 그것에 냉담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것이 우리 정신과 동떨어져 있고 마치 종양처럼 저절로 스며든 결함임이 밝혀졌을 때에만 그것을 버려야 한다.

bb) 사회는 하나의 몸이다. 몸 안에서의 생명 활동은 많은 지체들 사이에 분담되어 있으며, 이들의 조화롭고, 정확하며,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 유지된다. 사회 생활의 업무 또한 많은 이들에게 분담되어 있으며, 오직 그 구성 요소들의 조화롭고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만 공동의 번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개인의 사회적 의무가 비롯된다.

군주에 이어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정부 관리들과 기관들이다. 이들은 군주의 손과 발, 그리고 눈이다. 이를 통해 군주는 어디에나 존재하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일을 행한다. 이를 통해 마치 그물로 감싸듯, 수도에서 가장 외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걸쳐, 나아가 군사, 교육, 경제, 사법, 감독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 전체가 포괄된다. 이는 왕의 자비와 정의가 흐르는 통로이자, 동시에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가 왕에게 전달되는 통로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 내의 다양한 형태의 상급자와 피지배자 모두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1) 지도층의 주된 임무는 차르의 충실한 도구가 되고, 차르와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 자신의 역할이 지닌 중요성과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 그 역할에 부여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 부하들에게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법의 입장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내며, 또한 왕의 은총과 법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지 않도록 온전한 사랑과 호의를 보여야 하며; 이 모든 일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처럼, 맹세와 선서를 지킨 대로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

2) 부하들의 의무는 상급자에게 복종하고, 모든 명령을 불평이나 나태함, 지체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상급자를 존중하고, 공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상급자를 위해 기도하고, 비방으로부터 그의 명예를 지키는 것, 더 나아가 스스로 비방하지 않는 것이다.

gg) 국가의 다양한 필요 사항은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지거나, 각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맡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합쳐서 사회의 공무 부문, 즉 사회에서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한다. 이로부터 필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사회적 직무와 직책이 생겨난다: 대외 안보를 위한 군인, 치안을 위한 경찰, 지적 교육을 위한 교사, 질병에 대비한 의사,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한 장인과 예술가, 생계 유지를 위한 농부, 상인 등. 이들 모두는 군주가 정부를 통해 자신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는 국가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그들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행동하고,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답게 행동해야 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1)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공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맡게 되므로, 자신이 맡고자 하는 직무를 잘 파악하라.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책임자이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기

도를 받으며 그 직무를 맡아라. 어떤 이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직무가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누구나 그 직무에 착수하는 시기가 있으니,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면의 목소리와 개인적인 기분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2) 맡은 사명에 진심으로 동화되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사랑하며, 극히 부득이한 이유가 없는 한 결코 한 사명에서 다른 사명으로 옮겨서는 안 된다. 즉, 상급자의 지시가 있거나, 처음 사명을 선택할 때 실수를 저질렀음을 스스로 깨달은 경우 외에는 절대 그러해서는 안 된다.

3) 모든 직무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를 위해 노력하고, 공개적으로 공동의 검토를 요청하라. 그리고 가장 사적인 자신의 직무에 관해서는, 그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끊임없이 최상의 경지에 이르게 하도록 갈고닦아야 한다.

4)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평생 배우라: 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상의하며, 그들의 조언을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을 위해,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해, 사회는 신앙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네 몫으로 주어진 영역에 신앙의 정신을 심어주고, 그와 하나가 되어 깊이 스며들도록 온 힘을 다하라.

dd) 사회나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다양한 계급에서 배출된다. 이는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통의 인재 양성소로, 사회는 이곳에서 자라나고 스스로 양육된 인재들을 선발하여, 그들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무에 배치한다. 우리 사회의 계급은 귀족, 성직자, 도시민—상인과 소시민, 그리고 평민이다. 이는 사회의 수액으로, 신체 내의 체액과 대응하며, 그 안에서 냉혈형, 혈혈형, 우울형, 화혈형 기질을 만들어낸다. 각 계급은 저마다의 정신, 지위, 권리,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독보적인 사명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출생과 혈통을 통해 이 모든 것과 결합되어 있으므로, 평생 동안 이를 잊지 말아야 하며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 네 계급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그 계급을 통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네 성격 형성에 첫 번째 특징을 심어주셨다.

2) 그 계급의 본질을 지키되, 이질적인 요소가 섞여 왜곡되지 않도록 하라. 다양한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전체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 그 계급이 주는 이점과 불이익을 모두 참아라. 그것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4) 네 선한 삶과 완전함으로 그 신분을 빛내라. 그리하여 그 가치와 위상을 높여라.

5) 시기하지 마라. 다른 이들에게도 높은 자와 낮은 자,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가 있기 때문이다

...

6) 비록 직무상 그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그것을 바꾸게 되더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라.